



금석문

金

石

文

조사 보고서



강원도

고성문화원

傳言一 種六 器六



건봉사 사적비



현감 택당선생 거사비



공부자묘정비





수성수호 신위비



화암사 암각문



향로봉지구전투전적비



併三

種

器

二

為

為

如

今

如

為

為

為

如

如

為

為

為

如

如

칼난사

역사(歷史)는 기록(記錄)이다. 기록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통 창구다. 기록이 풍성할수록 그 역사의 뿌리는 더 튼실하고 깊어진다. 기록은 문헌뿐만 아니라 바위 또는 쇠, 나무, 피륙 등에 기록된 문자나 그림, 도구 등을 포함한다. 금석문을 비롯한 모든 문헌과 유적(遺蹟), 유구(遺構) 등이 그 역사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과거의 역사를 정리하고 현재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역사(役事)가 아닐 수 없다.

돌이켜 보면 접경지역에 위치한 우리 지역에는 질곡의 현대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문헌과 기록이 미흡한 편이다. 따라서 기록과 지난 역사를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간 끊임없는 노력으로 그 자리를 조금씩 메워가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금석문 조사도 우리 역사 제자리 찾기의 중요한 사업의 일환이다.

금석문은 문헌 기록의 보완적 기능뿐만 아니라 역사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지닌다. 명문과 비문을 통해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것이고 뿌리 깊은 역사를 정리하는 일이다.

그동안 지역에 산재한 금석문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했지만 실행하지 못했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원 부설 고성향토사연구소 주관으로 지난해 금석문 일제 조사에 착수해, 그 결과물로 금석문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

이번 조사 보고서가 향후 향토사와 금석문 연구에 귀중한 사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세계적인 팬데믹 환란으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현장 조사와 결과 보고서 작성에 애쓰신 고성향토사연구소 한창영 소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2021년 12월 일

고성문화원장 주 기 창



併三

種

器

二

為

為

如

今

如

為

為

為

如

如

為

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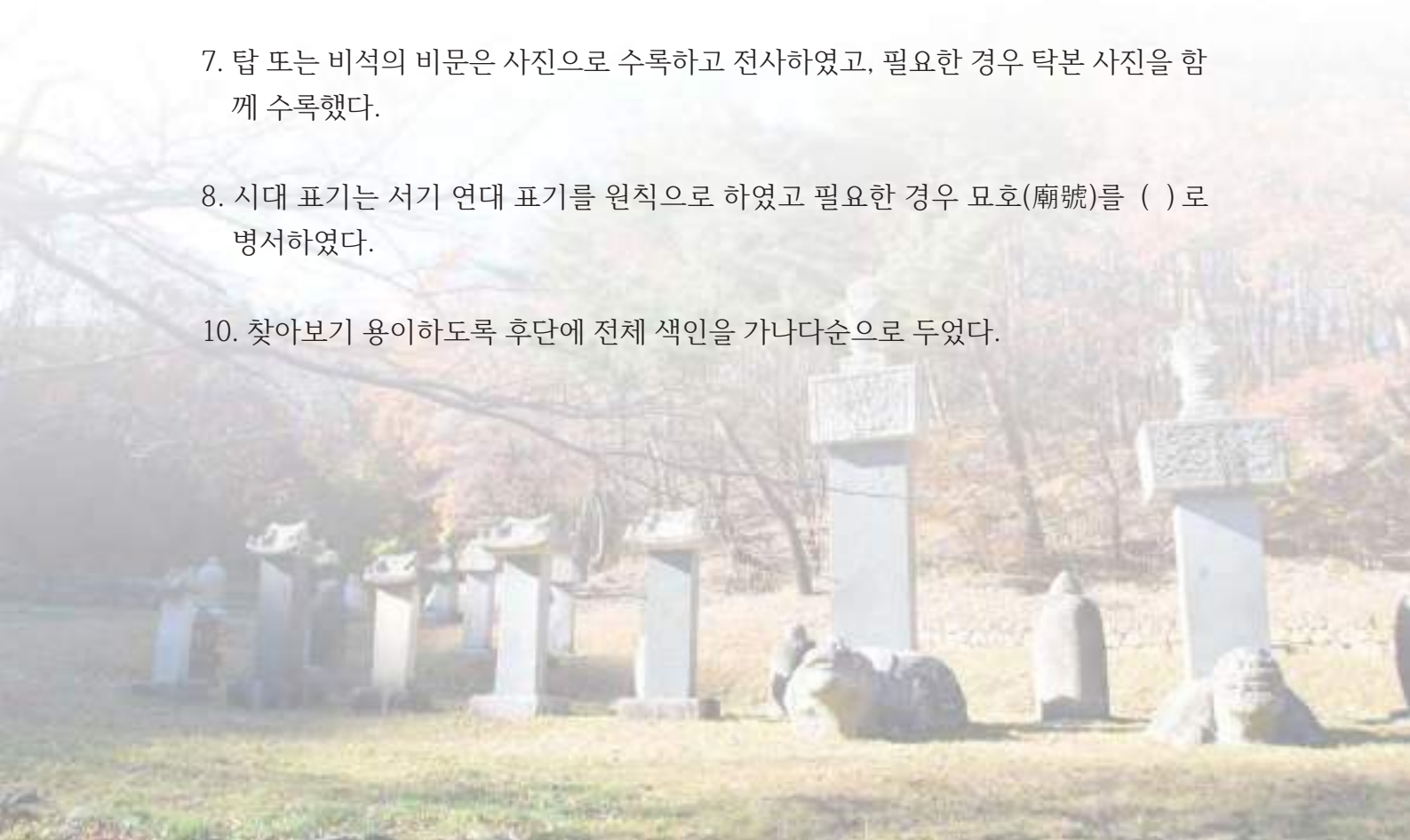
為

如

如

Ⅱ 일러두기 Ⅱ

1. 금석문의 구분은 불교문화, 유교문화, 선정·송덕비, 전적·충혼·위령·기념비, 암각문, 표석 등 기타 분야로 나누었다.
2. 금석문은 가급적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의 마을 순으로 수록하였고, 불교문화는 건봉사와 화암사, 극락암 등 사찰 순으로 정리하였다.
3. 비석의 위치는 지번으로 표기하였고, 위치도면은 1/100,000축척 행정지도를 사용하여 별도 표기했다.
4. 탑 또는 비석의 크기는 지표를 기준으로 비신 높이를 실측하였고, 비개(飛蓋) 또는 비좌(碑座)는 별도 표기하였지만 비신의 크기를 함께 표기한 비석은 전체 높이의 형식으로 표기하였다.
5. 크기는 대부분 높이×폭(넓이)×두께(폭)의 순으로 하였으며, 단위는 cm이다.
6. 비문 내용은 가급적 원문 그대로 표기하였고, 해설문의 한자는 ()로 병서하였다. 다만, 비문이 훼손되었거나 명확치 않는 경우 ■로 표기하였다.
7. 탑 또는 비석의 비문은 사진으로 수록하고 전사하였고, 필요한 경우 탁본 사진을 함께 수록했다.
8. 시대 표기는 서기 연대 표기를 원칙으로 하였고 필요한 경우 묘호(廟號)를 ()로 병서하였다.
10. 찾아보기 용이하도록 후단에 전체 색인을 가나다순으로 두었다.



목 차

발간사 일러두기

I. 조사 개관

1. 조사 경위 및 개관	21
2. 조사 일정 및 조사단 구성	25
□ 조사 일정	
□ 조사단	

II. 조사 결과

1. 불교문화 분야

1-1. 금강산 건봉사 능파교 신창기	30
1-2. 건봉사 석가불치상입탑비	33
1-3. 건봉사 운파대사비	37
1-4. 건봉사 목양대사비	42
1-5. 건봉사 일암대사비	46
1-6. 건봉사 송암대사비	50
1-7. 건봉사 대운당비	54
1-8. 유명조선국사명대사기적비명	57
1-9. 벽오대종사비	63
1-10. 건봉사 연회비	67
1-11. 건봉사 사적비	72
1-12. 건봉사 세존영아탑비	78
1-13. 건봉사 제2미타회연기비	82
1-14. 만화대선사비	84
1-15. 건봉사 법우경원대공덕비	88
1-16. 건봉사 극락교염불비	92
1-17. 군수 이공최원영세불망비	95
1-18. 군수 이공용학선정비	97
1-19. 대공덕주능허당대선사기념비	99

1-20. 보성당두석대종사탑비	101
1-21. 금강갑계발기취지문비	104
1-22. 청신월성당정인지탑비	109
1-23. 전불심인대각등계 용허당석민대선사비.....	110
1-24. 금암당대선사비	112
1-25. 설산당 향엄 대선사탑비명.....	114
1-26. 정원당탑	116
1-27. 용봉당 서진종탑	117
1-28. 담연당탑	118
1-29. 포운당탑	119
1-30. 법해당탑	121
1-31. 용안당탑	122
1-32. 일암당탑	123
1-33. 석봉당탑	125
1-34. 해운당탑	127
1-35. 진곡당탑	128
1-36. 청담당탑	130
1-37. 용근당탑	132
1-38. 청신대범화탑	133
1-39. 연하당탑	134
1-40. 해월당탑	135
1-41. 정파당탑	136
1-42. 처사김계화치사리탑	138
1-43. 하운당탑	140
1-44. 몽월당탑	141
1-45. 풍곡당탑	142
1-46. 금월당탑	144
1-47. 송악당탑	146
1-48. 제봉당탑	148
1-49. 진각당탑	149
1-50. 운파당탑	150
1-51. 순화당탑	151
1-52. 청신대인당탑	152
1-53. 영운당탑	154
1-54. 석파당탑	155
1-55. 화은당탑	156
1-56. 벽하당탑	157





1-57. 운암당탑	159
1-58. 임행복 사리탑	161
1-59. 동봉당탑	163
1-60. 월봉당탑	165
1-61. ■■■■탑	167
1-62. 송암당탑	169
1-63. 청암당탑	170
1-64. 목양당탑	172
1-65. ■■■■암당탑	174
1-66. 월곡당탑	176
1-67. 석종형부도1	177
1-68. 석종형부도2	178
1-69. 석가여래치상입탑	180
1-70. 금강계단 불사리탑	182
1-71. 금암당탑	184
1-72. 설산당탑	185
1-73. 원각당 영도대종사탑	187
1-74. 회명대선사지탑	189
1-75. 조영암탑	191
1-76. 보성당두석대종사탑	193
1-77. 등공기념지탑	194
1-78. 십바라밀 쌍석주	196
1-79. 나무아미타불 석주	198
1-80. 연지 석주	199
1-81. 만해당 대선사시비	201
1-82. 조영출 시비	203
1-83. 조영암 시비	205
1-84. 금강갑계발상지	206
1-85. 건봉사 표석	208
1-86. 화암사 영담당탑	209
1-87. 원봉당탑	210
1-88. 청암당탑	211
1-89. 춘담당대선사비명	212
1-90. 춘담대법사탑	216
1-91. 인봉당탑	217
1-92. 화곡당탑	218
1-93. 월송당탑	219
1-94. 무생당 동환탑	221
1-95. 죽암당부도	223

1-96. 능허당부도	225
1-97. 화월당부도	226
1-98. 자운당부도	227
1-99. 광명당부도	229
1-100. 무명부도1	231
1-101. 무명부도2	232
1-102. 담연당탑	233
1-103. 담연당도명산사탑비	235
1-104. 강산당정휴대종사탑비	236
1-105. 화암사 선시의 길	238
1-106. 화암사 표석	256
1-107. 극락암 공덕주비구니 박법선 기념비	258
1-108. 법선니 부도	260
1-109. 함씨보명화와 강릉후인 김영찬 공덕비	261
1-110. 무량사 송덕비와 표석	262
1-111. 동화사 표석	264
1-112. 약수암 표석	266
1-113. 금강삼사 송덕비	267
1-114. 세계법왕일불기원 평화통일불사리탑	269
1-115. 세계평화국태민안 일불기원시비	272
1-116. 차갑인 보살 공덕비	274

2. 유교문화 분야

2-1. 공부자묘정비	278
2-2. 간성향교 표석1	281
2-3. 간성향교 표석2	282
2-4. 간성향교기적비	283
2-5. 효자 전봉상려 등	288
2-6. 고성훈도해은김선생 묘비명	291
2-7. 양양훈도동계선생박공 묘비	295
2-8. 절충장군양근함계업지묘	298
2-9. 고려홍문박사 죽계공 함부열 충의비	299
2-10. 홍문관대제학 남당 이사형 묘비	302
2-11. 가선대부 호조판서 광산 탁장욱 묘비	308
2-12. 고성 부호군 황성일 묘비	312
2-13. 양근함씨4세5효자지정려	317
2-14. 함희석 효자비	320
2-15. 이지병 묘비	322





2-16. 이지한 묘비	324
2-17. 김옥광 묘비	326
2-18. 최봉년 묘비	328
2-19. 최응복 묘비	331
2-20. 가선대부 광산 김학현 묘비	334
2-21. 김해김씨 효녀각	336
2-22. 효열 연안김씨 정려비	338
2-23. 영월엄씨 정려비	340

3. 선정·송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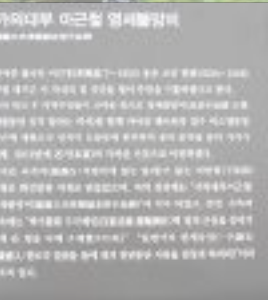
3-1. 군수 이정하 영세불망비	344
3-2. 군수 구음 청백거사비	346
3-3. 군수 육군참령 이준구 영세불망비	348
3-4. 군수 김시보 영세불망비	350
3-5. 통훈대부 박근형 불망비	352
3-6. 군수 송재의 영세불망비	354
3-7. 군수 김용 영세불망비	356
3-8. 군수 이인정 영세불망비	358
3-9. 군수 성준길 추사비	360
3-10. 군수 이면익 영세불망비	362
3-11. 군수 김계렴 영세불망비	364
3-12. 군수 정재용 영세불망비	366
3-13. 군수 김상복 선정비	368
3-14. 군수 이도식 선정비	370
3-15. 관찰사 정태호 영세불망비	372
3-16. 군수 서유여 선정비	374
3-17. 군수 이용학 거사비	376
3-18. 현감 택당선생 이공 거사비	378
3-19. 현감 택당선생 이공 거사비	380
3-20. 군수 이찬규 거사비	382
3-21. 군수 최승호 거사비	385
3-22. 관찰사 조학년 영세불망비	387
3-23. 면장 함동석 시은비	389
3-24. 구장 김치원 자해불망비	391
3-25. 나병규 선생 공덕비	393
3-26. 전참봉 김의종 동부인 류귀녀 기념비	395

3-27. 군수 권익룡 영세불망비	397
3-28. 고성교육장 김세용 송덕비	399
3-29. 관찰사 조석여 영세불망비	400
3-30. 김행음선생 영세불망비	402
3-31. 가의대부 이근철 영세불망비	404
3-32. 통정대부 김정권 영세불망비	406
3-33. 면장 한치용 영세기념비	408
3-34. 증통훈대부예조판서광산김공두현지비	410
3-35. 승정대부광산김두현기념비	412
3-36. 숙인밀양박복선기념비	414
3-37. 면장 김용집 선정비	416
3-38. 김순권 송덕비	418
3-39. 박정호 송덕비	420
3-40. 주풍미 공덕비	422
3-41. 신익순 공적비	424
3-42. 남병목 공적비	426
3-43. 전기덕 공덕비	428

4. 전적·충혼·위령·기념비

4-1.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434
4-2. 와우산 충혼탑	446
4-3. 반공의거순국비	448
4-4. 화랑사단전적비	451
4-5. 향로봉지구전투전적비	453
4-6. 설화희생충혼순국비	456
4-7. 당포함전몰장병충혼탑과 자유의 탑	457
4-8. 충혼비	459
4-9. 북진통일비	461
4-10. 월남전 참전기념탑 및 참전용사추모비	463
4-11. 6.25한국전쟁참전용사공적비	466
4-12. 호림유격전적비	469
4-13. 351고지전투전적비	473
4-14. 공군 351고지 전투지원작전기념비	475
4-15. 고성지역 전투 충혼탑	477
4-16. 애국지사구국충정 숭모비	479
4-17. 36지구대원 위령비 및 현충탑	481
4-18. 고원유격대 위령비	484





5. 암각문

5-1. 이승만 초대대통령 친필휘호	491
5-2. 건봉사 보림암 암각문	493
5-3. 능파대 암각문	496
5-4. 대동시사 암각문	498
5-5. 선유담 암각문1	502
5-6. 선유담 암각문2	504
5-7. 만경대 암각문	506
5-8. 청간정 암각문	508
5-9. 화암사 암각문	510

6. 표석 등 기타

6-1. 삼정 하리 우물	515
6-2. 간성읍성 표석	520
6-3. 군청 은행나무 표석	523
6-4. 도로원표 표석	525
6-5. 군청 청사 준공기념 표석	526
6-6. 고성군 자매결연 도시·학교·기업 표석	527
6-7. 군수 박희남 군정구호 표석	531
6-8. 지적 간성기선 표석	533
6-9. 수성수호비 및 기문	536
6-10. 약진고성 기념비	538
6-11. 수성정 표석	540
6-12. 고성금수리산성 표석	541
6-13. 고성산 정상 표석	543
6-14. 한강발원지 표석	544
6-15. 백두대간종주기념 공원비	545
6-16. 진부령 표석	547
6-17. 택당 이식 선생 유별시비	549
6-18. 택당 이식 선생 유별시비 기문	551
6-19. 백두대간 진부령 표석	554
6-20. 진부령아가씨 노래비	556
6-21. 거진해맞이봉 산림욕장 표석	557
6-22. 명태축제비	559
6-23. 해오름쉼터 표석	561
6-24. 재건기념비	563

6-25. 응봉 표석	564
6-26. 송강지 표석	565
6-27. 창조의 탑	566
6-28. 경희공원 표석	568
6-29. 통일의 길	569
6-30. 관동별곡8백리 답사1번지 고성 표석.....	571
6-31. 화진포 노래비	573
6-32. 화진포 냉정 표석	575
6-33. 평화통일기원일봉시비	576
6-34. 통일번영기원비	578
6-35. 통일로 가는 길 표석.....	580
6-36. 민족의 웅비	581
6-37. 망배단	583
6-38. 동학의 빛 왕곡마을	586
6-39. 스웨덴국왕 방문기념비	589
6-40. 이성선 시비	591
 색인(가나다 순)	 596
 참고문헌	 602
 편집후기	 603



併三

種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금석문 조사 보고서

I. 조사 개관

1. 조사 경위 및 대상

고성문화원 부설 고성향토사연구소는 2020년 창립 첫 사업으로 금석문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금석문(金石文)은 철이나 청동 같은 금속성 재료에 기록한 금문(金文)과 비석처럼 석재(石材)에 기록한 석문(石文)을 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좁은 의미의 금석문에 관한 정의라고 할 수 있다.

백제에서 일본으로 보낸 칠지도(七支刀)는 철검으로 양면에 글자를 새기고 금(金)을 상감하여 이 칼을 보낸 사연을 기록한 것이 있고,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의례용기 바닥에 ‘호우(壺)’라는 명칭을 도드라지게 주조한 것, 불상 광배(光背)에 그것을 조성한 이유를 새겨 넣은 것 등이 고대 금문(金文)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석문(石文)은 현재 지린성 지안현 통거우에 자리 잡고 있는 고구려의 광개토대왕릉비, 신라의 진흥왕순수비로부터 시작해서, 죽은 이의 신원과 행적을 기록한 고려의 각종 묘지(墓誌), 조선 지방관들의 선정(善政)을 기리는 송덕비(頌德碑) 같은 류(類)로써 그 숫자가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일반적으로 금석문이라 하면, 위와 같은 금문, 석문뿐 아니라 토기에 기록한 토기 명문(銘文), 잘 다듬은 나무 조각에 쓴 목간(木簡)의 기록, 직물에 쓴 포기(布記), 고분의 벽에 붓글씨로 기록한 묵서명(墨書銘), 칠기(漆器)에 기록한 묵서, 기와나 전돌의 명문(銘文) 등을 포괄하여 부르기도 한다. 넓은 의미의 금석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학의 기본 자료는 종이로 만든 서책(書冊)에 기록한 문헌 자료이다. 넓은 의미의 금석문은 이러한 문헌자료, 그리고 문자 기록이 없는 고고학 발굴 자료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문자 기록을 의미하는 것이다.

금석문의 종류는 비문(碑文)을 비롯해 묘지(墓誌), 불상명문, 종명(鐘銘), 도검명(刀劍銘), 목간(木簡), 토기 명문, 와전명(瓦塼銘), 기타 등으로 구분한다.

대부분 비(碑)의 경우에는 과거의 사실이나 사람의 행적을 새겨 구조물 또는 표식으로 세워놓은 것이다.

한자문화권 영향으로 비문은 대부분 한자이며 비문의 문체는 산문으로 된 서(序)와 운문으로 된 명(銘)으로 구분된다. 서와 명으로 된 비문을 대개 비명병서(碑銘并書) 또는 비명이라고 한다.

서가 없이 명으로만 된 비문이나, 명이 없이 서로만 된 비문도 있기는 하지만 이런 유형은 비송(碑頌) 또는 비기(碑記)라 하여 따로 구분한다. 비서(碑序)는 비문을 쓰는 경위를 설명하는 부분으로 본문에 의의를 부여하는 문장이다. 비명(碑銘)은 4언·5

언·7언 등의 운문으로 이루어지며 대개 시구(詩句)처럼 전개된다.¹⁾

지역 내에 산재한 비의 건립 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비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비의 종류에는 사적비, 부도, 묘비, 기공비, 정려비 등 다양한 형태의 비가 존재하고 있다.

사적비(事蹟碑)는 사찰·서원·전각의 건립이나 성곽·교량·대단(臺壇) 등의 축조·개축 등에 관련된 사실을 기록한 비이다. 사적비에는 어떠한 사건을 다룬 기적비(紀蹟碑)·중건비(重建碑) 등 뿐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기실비(紀實碑), 기행비(紀行碑), 행적비(行蹟碑)도 모두 포함된다.

부도(浮屠)는 부처의 사리를 안치하거나 고승(高僧)의 사리나 유골(遺骨)을 넣고 세운 탑으로 ‘○○부도’, ‘○○탑’이라고 부른다. 묘비(墓碑)는 무덤 앞에 세워 고인의 이름이나 사망년도, 생전의 사적 등을 기록한 비를 말한다.

기공비(紀功碑)는 어떤 인물의 공덕이나 공훈을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를 말하며, 특정 행적을 기리는 송덕비(頌德碑)·선정비(善政碑)·시혜비(施惠碑) 등도 있으며 인물을 기리는 비로는 불망비(不忘碑)·추모비(追慕碑)·거사비(去思碑) 등도 다수 있다.

정려비(旌閭碑)는 국가의 교화 정책과 관련해 훌륭한 사례를 표창하기 위해 세워진 비로써 효자비·열부비(烈婦碑)·열녀비와 같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碑)의 형태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비를 세우는 받침돌 또는 기단 역할을 하는 비대석(碑臺石), 비의 몸체 역할을 하는 비신(碑身), 마지막으로 비신 위에 관석(冠石)이라고 불리는 머릿돌을 올린다. 먼저 비대석의 경우, 일반적으로 비좌(碑座)라고도 불리며 받침으로 이루어진다. 비에 따라 이 비대석이나 관석이 없이 간략하게 세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세 부분을 갖추고 있다.

비의 형태는 지붕형태의 돌인 가첨석(加檐石)을 올린 비가 있다. 가첨석을 올린 비는 대개 바닥에 비대석을 마련한 뒤 그 위에 비신을 세웠다. 또한 비신 위에 지붕 모양의 가첨석을 올렸다. 가첨석은 옥개석 또는 비갓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형태의 비는 주로 조선시대에 많이 만들어졌다.

비좌(碑座)는 비신을 세우기 위해 설치된 일련의 구조물이다. 일반적으로 비대와 마찬가지로 기단의 형태지만 귀부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에 위치한다.

기단(基壇)은 비석, 탑, 건물 등을 세우기 이전에 터를 다진 후 바닥보다 한층 높게 쌓는 단을 말하고, 귀갑(龜甲)무늬는 거북이 등껍질을 표현한 육각형 무늬이며, 금석문에서는 주로 귀부의 등에 이를 새기는 경우가 많다.

1) 2020 국립공원 문화자원(금석문)자료집, 2020.12.31., 국립공원공단

보주(寶籌)는 탑이나 비 가장 위에 올려놓은 구슬 형태의 장식을 말하며, 탑에 새겨진 복련(復緣)은 연꽃의 꽃잎이 아래로 향하도록 새겨진 장식을 말한다. 반면, 앙련(仰蓮)은 연꽃이 위로 향한 것처럼 그린 모양이나 그런 무늬를 의미한다.

비의 외양이 진화하면서 귀부(龜趺)와 이수(螭首)를 첨가하여 장식성을 더한 비가 다수 있다. 귀부는 가장 밑에는 거북 모양의 받침대가 있다. 거북 모양의 받침대를 두는 이유는 만년을 사는 동물로 알려진 거북을 이용해 비(碑)의 영원성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귀부 위에는 비좌를 올리고 비신을 세운다. 귀부로 받침돌을 썼을 경우, 비신 위에는 보통 이수를 올려 마무리한다. 이수는 용을 새긴 머릿돌을 의미한다. 이는 수호의 상징인 용(龍)을 이용해 비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것이다. 보통 이수 중앙에 사각형으로 홈을 파고 비의 명칭을 새긴다. 대개 비의 명칭은 전서로 새기는데, 이를 전액(篆額) 또는 머리에 새겼다는 의미의 두전(頭篆)이라 한다.

한편, 금석문 조사에 사용되는 주요 용어는 대부분 한자식 표기로 이해하기 쉽지 않아 설명이 필요하다.

우선, 불기(佛紀)는 불멸기원(佛滅紀元)의 줄임말로, 석가모니가 열반한 시점부터 연도를 세는 방법을 의미하며, 한국은 남방불기를 따라 기원전 544년을 원년(元年)으로 삼고 있다.

비각(碑閣)은 비(碑)를 외부의 충격이나 마모에서 보호하기 위해 비 외부에 세우는 건물(建物)이다.

비명(碑銘)은 좁은 의미로 비에 새겨진 글 중 시(詩)처럼 운문(韻文)으로 새겨진 것을 뜻하며, 넓게는 비석에 새겨진 글 자체를 의미한다.

비의 서체(書體) 중 전서체(篆書體)는 고대 주나라부터 전래된 서체 중 하나다. 획이 복잡하고 곡선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일반 글에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고, 현판이나 도장 등에 이용된다. 해서체(楷書體)는 현재 대부분의 한자에서 보이는 서체로써 글씨를 흘려 쓰지 않고 정자(正字)로 또렷하게 쓰는 것이 특징이다. 행서체(行書體)는 초서와 해서 중간 정도의 서체로써 글씨의 흘림이 있지만 초서만큼은 아니어서 해서의 필기체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다. 초서체(草書體)는 글을 빠르게 쓰기 위해 거칠고 간략하게 쓴 서체로써 획이 이어지고 곡선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예서체(隸書體)는 한자 붓글씨체의 한 종류로 고안된 서체로 한자 점획을 간결하고 부드럽게 쓸 수 있도록 중국 진나라 시대에 만들어진 서체이다.

그 외에도 담(潭)은 연못, 호수 등 규모의 물웅덩이를 뜻하고, 대(臺)는 평지보다 다소 높은 평평하고 넓어져 무언인가를 받치거나 놓을 수 있는 지형을 뜻한다.

법랍(法臘)은 승려가 출가하여 수계를 받은 시점부터 당시까지의 해, 즉 출가한지 얼마나 되었는지를 가늠하는 햇수를 뜻하는 것으로 대부분 용어의 해설과 이해가 필요

한 부분이다.

통상 금석문은 사료적 가치를 지닌 것을 의미한다. 다만 문헌적·사료적 기록이 부족한 지역 특성과 현실에서, 보완적으로 금석문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삼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 때문에 비석에 대한 문헌적 기록이 빈약하다. 따라서 금석문 조사에 대한 중요성이 더 높다. 일부 마모되거나 방치·훼손되고 있는 금석문에 대한 보호 및 기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조사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고, 조사원은 고성문화원 부설 고성향토사연구소 연구원 6명을 2개 조로 3명 씩 편성하여 고성군 전 지역에 대한 지압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간성읍과 거진읍, 현내면, 그리고 죽왕면과 토성면, 건봉사 등 사찰 지역으로 크게 구분하여 구역을 설정하고 시대 구분 없이 일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내용은 비문의 유형, 명문, 위치, 크기, 재질, 서체, 시대 등 실측과 사진촬영 등 지표조사를 중심으로 조사됐으며, 판독과 해독, 문헌 고증 등 심층적인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 불교와 유교 분야의 비문과 부도, 선정비, 암각문 등이 대부분이고, 1950년대 이후 세워진 전적비와 충훈비, 기념비, 표석 등이 다소 많은 편이다. 특히 석공 기술과 장비의 발달, 사회 환경 변화로 최근 들어 크고 작은 표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민통선 등 공간적·시간적 제약으로 일부 조사를 실행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번 조사는 금석문의 사료적 가치를 차치하고 지역 내 모든 분야에 대한 금석문을 전수 조사·기록함으로써 우리 지역 금석문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훗날 지역사(地域史)를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석문 지표조사 대상지역

구분	조사 지역	조사 기간	비고
제1구역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일원	2020.10.20. ~ 2020.12.31.(72일간)	
제2구역	죽왕면, 토성면, 건봉사 일원	2020.10.20. ~ 2020.12.31.(72일간)	

2. 조사 일정 및 조사단 구성

□ 조사일정

1차 조사 : 2020.10.20. ~ 2020.11.30.

2차 조사 : 2020.12. 1. ~ 2020.12.31.

□ 조사단

단장	한창영 (고성향토사연구소 소장)
제1구역 조사원	김철수 (고성향토사연구소 연구원, 고성문화원 이사)
”	황재철 (고성향토사연구소 연구원, 성균관유도회 간성지부회장)
”	이선국 (고성향토사연구소 연구원, 고성문화포럼 대표)
제2구역 조사원	한창영 (고성향토사연구소 소장, 고성신헌 이사장)
”	이성식 (고성향토사연구소 연구원, 고성군문화재 자문위원)
”	김광섭 (고성향토사연구소 연구원, 국사편찬위 고성군사료조사위원)
자문위원	신현필 (고성향토사연구소 고문)
	지석근 (고성향토사연구소 고문)
	최선희 (고성향토사연구소 고문)

본 지표조사에 참여한 고성향토사연구소 한창영 소장님과 연구원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서 원고를 작성한 김광섭과 이선국 연구원께서도 수고하셨고, 이번 조사에 적극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고성문화원 주기창 원장님과 김장민 사무국장께도 감사
드린다.

併三

種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금석문 조사 보고서

II. 조사 결과

併三

種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1. 불교문화 분야

1-1. 금강산 건봉사 능파교신창기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전서/해서체
 - 건립 시기 : 1708년(숙종 34)



능파교신창기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건봉사 능파교기비(凌波橋記碑)는 능파교(凌波橋, 보물 제1336호)의 건립을 기념하는 비로, 1708년에 세웠다. 건봉사 불이문 옆에 위치하고 있다.

능파교 건봉사 일원에 있는 5개의 홍예교 중 규모가 가장 큰 다리로서 대웅전(大雄殿) 구역과 극락전(極樂殿) 구역을 이어준다.

비문은 비신의 전면과 후면에 한자 해서체로 새겼다. 전면 상단에는 자경 13cm의 「金剛山乾鳳寺凌波橋新創記」라는 전액이 쓰여 있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성상(聖上, 숙종)의 즉위로부터 31년이 되는 갑신년(1704)에 건봉사의 승려 신계(信戒)가 시내를 건네주는 공덕을 닦기 위해 자신이 시주하면서 아울러 여러 인연을 모아 얻었다.

영여(令如)의 달에 공사를 시작하여 경상(景相)의 가을에 마쳐 홍교가 마침내 이루어지니, 어찌 진수(溱水)를 건너는 사사로운 은혜만 있겠는가. 거의 왕정(王政)의 만분의 일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다.

후면은 다리를 세우면서 도움을 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비문의 찬자와 서자는 청안(淸眼)이며 각자는 성징(性澄)이다. 비는 이수(伊水)와 비신(比身), 하대석으로 구성되었다.

재질은 모두 화강암이다. 이수는 직육면체 형태이다. 전면은 구름 사이를 헤엄치는 용의 두 마리를 돌을새김하였으며, 후면은 구름 속에서 드러나는 용의 얼굴을 표현하였다. 양 측면에는 태극무늬를 조각하였다. 윗면은 아래로 향한 연꽃 봉오리 모양의 복발(覆鉢)과 연봉오리 형태의 보주를 올렸다.

이수의 전면 좌측 모서리 부분이 가로 40cm, 세로 14cm 정도 결실되었다. 후면의 좌측 모서리에도 가로 8cm, 세로 8cm 크기로 결실된 부분이 있다.

비신은 상태가 양호하나, 전면의 좌측 하단 모서리에 가로 3.5cm, 세로 7cm 크기로 파손된 부분이 있다. 하대석은 직육면체 형태로 윗면에 1단의 받침을 내었다. 대좌는 장방형으로 105cm×63cm×28cm의 크기로 상면에는 1단의 받침을 조출하였다.

비신은 140cm×62cm×28cm의 크기이며 이수는 90cm×100cm×48cm이다.

비석 전체의 높이는 2.68m이다.

〈비문〉

金剛山乾鳳寺凌波橋新創記

虛谷上足雲坡清眼 撰并書篆

聖上卽位之三十二年 甲申藏本寺僧信戒檀濟川之功募得衆緣始後於令如之不月
告訖於景相之秋虹橋遷成但濟湊之私惠補王政之萬一也其舉修梁功德姓氏開列
于左

崇禎後八十一年 戊子三月立

嘉善崇戒 通政致建 鄭氏五還 金氏終禮 馬氏愛玉 張石伊 通政釋昊
比丘首能 嘉善處珍 嘉善信海 嘉善策欠 嘉善玉淨 嘉善卓還 比丘雙演 嘉善崇熙
嘉善妙察 通政汝益 嘉善汝什 嘉善策旻 嘉善華岩 通政冲海 通政處悅 通政處嘗
嘉善善覺 通政榮朱 嘉善信覺 嘉善榮仁 嘉善一淡 通政尹興三 嘉善道田 通政上
贊 嘉善信己 比丘策信 嘉善万 尹世憲察訪尹世壬 比丘石岑 朴氏古音德 金貴先
鄭一宗 全龍柱 尹弼尙 嘉善盧尙業 盧尙仁 司卜 鄭付業 通政鄭自仁 嘉善安業 崔
丞吉 斗兼 嘉金愛 金朱■ 姜■■ 金成■ 朴■■ 黃成一

〈후면-음기(陰記)〉

嘉善文屹 嘉金愛達 嘉金愛達 將實業 朴氏禮今 全士男 嘉全守吉 李自番 嘉金士
龍 通李成立 嘉金萬立 崔命伊 全信業 嘉金■奉 徐奉一 金有成 嘉韓天同 嘉妙熙
嘉榮熙 通取克 李業先 吳自建 嘉李普南 嘉崔丁先 崔一敬 嘉宋■卜 比丘取昊 比
丘天熙 全承天 吳自建

山中 僧統 妙根

前住持 旻行

時住持 尙日

首僧 榮澗 呂萬 大德 靈眼 覺修 文琢

冶匠 崔尙哲

刻 性澄

石手秩 嘉無攝 雙演

助役 招世 呂尙 斗文 呂贊 崔貴奉 李愛南

都監 嘉卓遲

別坐 嘉信和

主供 通榮卞 澗玉 坦照

化主 嘉信戒

1-2. 건봉사 석가불치상입탑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전서/해서체
- 건립 시기 : 1726년(영조 2)



석가불치상입탑비

■ 조사내용 ■

건봉사 석가불치상입탑비(釋迦佛齒相立塔碑)는 적멸보궁(寂滅寶宮) 뒤뜰에 세워져 있다. 적멸보궁 뒤뜰에는 세존영아탑비(世尊靈牙塔碑, 1906)와 더불어, 부도 2기가 세워져 있다.

석가불치상입탑비는 건봉사에 안치된 석가모니의 치아사리(齒牙舍利)의 유래를 기록한 비로, 1726년 6월에 세웠다. 비는 전면과 후면에 해서로 비문을 새겼다.

전면 상부에는 자경 16.5cm의 「釋迦佛齒相立塔碑銘」이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비의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새겼다.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 과거에 자장법사(慈藏法師, 590~658)가 몸소 당(唐)에 가서 석가여래의 정골(頂骨) 3과와 치아 사리 그리고 금박을 입힌 가사(袈裟) 몇 벌을 얻어와 양산(梁山)의 통도사(通度寺)에 간직해 두었다고 하는데 몇 천 년이 흘렀는지 알 수 없다.

중간에 왜적이 쳐들어와 사리를 가져가는 바람에 온 나라 사람들이 실망하였다. 이때 사명대사(泗溟大師) 유정(惟政, 1544~1610)이 일본에 사신으로 가서 불치(佛齒) 12매(枚)를 도로 봉환(奉還)해 와서 건봉사의 낙서암(樂西庵)에 간직해 두었으니 보배롭게 여긴 지가 또한 여러 해 되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불법(佛法)이 땅에 떨어지자 사람도 가벼워지고 법도 가벼워졌으니, 밖으로 드러내어서 봉안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여러 사람들이 탑을 세울 것을 계획하고는 각각 재물을 내놓고 장인을 불러서 탑을 제작할 돌을 다듬어 건봉사의 서쪽 산기슭의 적당한 곳에 안치하였다.

비록 불법(佛法)이 사라졌다고는 하나 오래도록 전해질 수 있게 되었으니 불도(佛道)를 받드는 성의가 더욱 깊고 치밀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구름도 즐거워하고 강물도 기뻐하며 스님도 탄복하고 속인(俗人)도 승복하니, 그 일을 보고 듣는 사람들이 모두 경의(敬意)를 표하지 않는 자가 없다. 이는 고금(古今)에 보기 드문 수승(殊勝)한 인연이다. 그런 까닭에 대중은 부처님의 보아(寶牙)로 하여금 오늘날에서야 빛을 발하게 하였다.

비문의 말미에는 부처의 치아 사리를 찬미하는 4언 14구의 명(銘)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쌍식(雙式, 1679~1746)이 모두 짓고 썼다. 각자는 성징(性澄, ?~?)이다.

비는 비신과 하대석으로 구성되었고, 재질은 모두 화강암이다. 비신은 세 부분으로 파손되어 있다.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에 따르면, 비신은 세 조각으로 깨진 채 놓여져 있었다고 한다. 비신은 1995년 이후 접합한 것으로 보인다. 비신 전면의 우측 모서리 하단 부분에는 가로 7cm, 세로 59cm 크기로 파손되었다. 비석의 전체 크기는 156cm×57.5cm×24cm인데, ①번째 조각은 68cm×57.5cm×24cm이다. ②번째 조각은 38cm×57.5cm×24cm이다. 하대석은 직육면체의 형태이며, 무늬는 없다.

〈비문〉

釋迦齒相立塔碑銘

釋迦如來齒相立塔碑銘并序

蓬萊山春坡第二世雲坡門人 月峯禪師雙式 撰 書并篆

聞夫於過去世 慈藏法師 躬入西國 而得釋迦如來頂骨齒牙舍利及金點袈裟若干藏之於梁山通度寺 未知其幾千年之流來矣 中間倭來取去 舉國失望我國泗溟大師惟政 奉使于日本 還取齒相一十二枚 藏之於乾鳳寺樂西庵 而人皆珍玩者 亦閱伐石 安厝于寺之西麓宜安之處 雖云釋道之風滅沒 亦爲萬歲深遠之長久矣 可謂年祀矣 衆曰佛法墜殘 人輕法輕 則不可發外而奉安也 衆謀樹塔 各出物財 請工奉佛之誠 增深密密者也 於是雲欣水悅 僧顛俗倒 凡諸見聞者 莫不興敬 眞古今罕有之勝因緣也 然則施財壇越 執役僉員 鍊石良工 使佛寶牙 重光於今日者也 嗚呼美哉 雙式不揆不才 謹拜稽首 而爲之銘曰 是我大覺 人天之師 示滅西天 建塔忉利 八萬周國 有緣東土 寶牙奉之 惟麟之角 而鮮山門 所立卓爾 人皆敬之 龍天護佑 萬歲英風 終古不滅

皇明 崇禎紀元 后一百年 太歲丙午 六月 日 立

〈후면〉

施主秩 嘉呂洽 嘉釋和 通進玉 嘉粲益 通釋允 通自學 嘉雙衍 閒式 通自旻 通玄培 嘉粲清 通

粲琮 自欠 嘉準清 嘉斗仁 嘉自下 嘉斗欣 通印均 通雙海 通釋衍 嘉坦澄 ■■ 嘉斗贊 嘉斗清

都廣心 學摠 老德 汝覺 嘉呂旻 通幸連 通策還 汝兼 通斗心 通呂欠 卓■ 嘉呂欠 粲■■ 嘉冲海 進明 万訖 通玄旻 万克 覺性 嘉善覺 嘉文訖 嘉万什 嘉呂万 通斗文 嘉處旻 嘉卓還 嘉卓禪 嘉進安 明察

三綱住持 明允

僧統 衍洽

首僧 碧珣 準文

冶匠 梁甲先 李末■ 黃性一 熙衍 持莊 學清 通海雄 碧河

遍手 嘉釋密

良工持殿 明侃

典座 淨能 朴尙万 黃進生

負工 金竺泛 金貴石 朴有贊

炊飯 斗嘗 天玉

鍊刀 法云 海敬

刻工 性澄

大都監 通白華

別座 嘉善準閑

寫字 勝浩 嘉万堅 通卓軒 閒憲 通坦閃

1-3. 건봉사 운파대사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전서/행서, 해서체
- 건립 시기 : 1730년(영조 6)



운파대사비

■ 조사내용 ■

건봉사 운파대사비는 건봉사 부도전에 세워져 있다. 부도전에는 약 50여 기의 부도와 15기의 비가 있다.

운파대사비(雲坡大師碑)는 운파 청안(雲坡 淸眼)의 생애를 기록한 비로, 1730년에 세웠다.

비문은 비신의 전면과 후면에 행서와 해서로 새겨져 있다. 전면 상부에는 16cm 크기의 「雲波大師碑銘」이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다.

비문은 찬자인 이의현(李宜顯)의 『도곡집(陶谷集)』 권12 「비명(碑銘)」에 ‘금강산운파당대사비명(金剛山雲坡堂大師碑銘)’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사의 법명(法名)은 청안(淸眼), 자(字)는 법장(法藏), 법호(法號)는 운파(雲坡)이다. 속성은 전씨(全氏)이며 본관은 정선(旌善)이다.

아버지는 충량(忠亮)이고 어머니는 엄씨(嚴氏)인데, 꿈에 밝게 빛나는 구슬을 삼키고 잉태하였다.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향기롭더니 겨우 6,7세에 누린내 나는 고기냄새와 마늘을 좋아하지 않았고, 짐승의 고기를 삶고 굽는 것을 보면 문득 측은해 하고 차마 먹지 못했다. 같은 또래 친구들끼리 장난치고 놀 때에도 모래를 모아 부처를 만들자 사람들이 이미 그의 장래를 짐작하였다.

13세 되던 해에 금강산 유점사(金剛山 楡岾寺)의 대적암(大寂庵)에 들어가 허곡대사(虛谷大師)를 은사로 출가하였는데, 허곡은 법명이 나백(懶白)이며, 춘파당(春坡堂) 쌍언대사(雙彦大師)의 뛰어난 제자로 이름났다. 쌍언은 송월당(松月堂) 응상대사(應祥大師)의 제자이고, 응상은 사명당(泗溟堂) 유정(惟政)의 제자이며, 유정은 청허당(淸虛堂) 휴정(休靜)의 문하에서 나오니, 이와 같이 임제종(臨濟宗)의 적통을 이어 왔다.

대사는 2년 후에 계율(戒律) 받았으며 경전을 두루 익혀 깨달음을 얻었다. 중년에는 운수납자(雲水衲子)로서 영남·호서를 돌아다니다 운문산(雲門山)에 들어가서 결하(結夏)하였다. 금강산으로 들어가 마침내 건봉사에서 오래 머물렀다. 대사는 수십 년 동안 밖으로 나오지 않으니 도가 더욱 높아지고 학업이 더욱 닦여졌다. 정유년(1717) 겨울에 작은 병을 얻어 앓은 채로 열반에 들었다. 영골 1매를 얻어 부도에 모시니 세수는 67세이고, 법랍은 53세였다.

비문의 찬자는 이의현, 서자는 홍득복(洪得福)이다. 전액은 유척기(兪拓基)가 썼다. 각자는 유이석(劉二碩)·김세채(金世彩)이다.

비는 이수(李守)와 비신(比身), 귀부로 구성되었다. 이수(李守)와 귀부(歸部)는 화강암, 비신(比身)은 화강섬록암이다. 이수는 직육면체 형태인데, 전면과 후면에 용이 구름 사이를 날아다니는 형상

을 표현하였다. 양 측면에는 정면에서 바라본 용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이수의 윗면에는 상륜부가 높게 올려져 있다. 아래에서부터 상륜 받침, 보륜, 보주 순이다. 보주에는 범자가 양각으로 조각되어 있고 벌어진 연잎이 보주를 감싸고 있다. 연잎은 앞뒤의 글자가 보이도록 잎의 끝이 접혀진 모습이다. 비신 전면은 좌측 모서리가 일부 파손되었다. 귀부는 용두형의 거북으로 몸체에 비해 머리가 크고 목은 두껍다. 눈두덩과 코는 돌출되게 조각하였다. 거북은 입을 벌리고 있으며 4개의 송곳니를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귀부의 등판 위에는 낮은 비좌가 있고 그 주변으로 육각형의 귀갑문을 새겼다.

비신은 180cm×78cm×28cm이다. 나머지 비문의 자경은 4cm이다.

〈비문〉

雲坡大師碑銘

有明朝鮮國金剛山雲坡堂大師碑銘并序
大匡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李宜顯 撰
通訓大夫行龍潭縣令南原鎮管兵馬節制都尉洪得福書
通政大夫司諫院大司諫知製教 俞拓基篆

余里居楊州之陶山 日與田更野叟 徜徉阡陌間 忽有緇衣者 詣前求謁問之 則曰貧道杆城乾鳳寺僧雙式也 窃有所懇匄不許道路近遠 敢以見 余曰山人無求於世 又何有於余 而辛勤若是 式曰佛教以無爲爲宗 無爲故無求 然闡明師道 傳之來後 亦法門之所不廢也 今將鐫吾師靈蹟 以夸耀叢林 願得夫子一言 是以來 余曰余儒也 儒釋不同道 吾蔑與爲之力焉 且吾病未能也 爾姑去式頂禮再三 固要請不肯去 余曰爾師果何人 而感爾之深至此 抑其有承繼之可稱 妙悟之可言者歟 式曰吾師名清眼 字法藏 號雲坡 姓全氏 系出旌善 而自麗朝徙居杆城 仍爲郡人 父曰忠亮 母嚴氏 嚴氏夢

吞明珠而娠 既生肌膚自香 甫六七歲 即不喜羶葷 見燂灸禽獸肉 輒悲惻 不忍食 與同隊嬉戲 必聚沙作佛 人已知其爲出世垂也 年十三 入金剛山楡岾寺之大寂庵 服事虛谷大師 虛谷名懶白 春坡堂雙彦之高足弟子 而雙彦 出松月堂應祥 應祥出四溟堂惟政 惟政 出清虛堂休靜 此其臨濟正嫡然也 越二歲 祝髮受戒 遍習竺典 深得祖印 餘事文筆 亦超軼其倫 中歲携一節 遊嶺南湖西南 入雲門山結夏 還入金剛 終卓錫乾鳳 積寂十年不出 道益高 業益修 丁酉季冬 以微疾坐化 前若日夢老宿引去 昇天既化 顏色如生 荼毘之夜 祥光洞徹 得靈骨一片 藏于石鍾 世壽六

十七 禪臘五十三 吾師宗派之端的如此 道力之精進如此 而瑞應之炫燁又如此 俱不可不識 此貧道所以反復申請而不能已者也 余曰爾之鋪張敘述 固勤且至矣然非吾儒所可道也去矣 吾不爲已 仍以一語 之曰 虛無寂滅 佛道云 生兮是假死是真 當其假時縱有聞死後宣颺非渠忻 石而文之出儒門 盖因以反存彝倫
大明崇禎甲申後 八十七年 庚戌四月日立

〈후면〉

大施主折衝崔益章 折衝李大■

引勸尙宮 安氏是介 金氏ㄷ愛 李氏惠正 舍堂會三 舍堂處岑 舍堂信正 延氏玉丹 嘉朴昌儉 李度永 李度徵 嘉釋和體花錦■朴世材李億■

嘉朴碩天 嘉朴天興 嘉黃有祥 女永郎 金聲近 李月澄 梁東立 金永奉 金戒石 金聲運 崔俊興 白龍己 申大悅 李春興 金興石 黃世太 全應文 嘉文貴業 嘉趙信業 通尹己柱 女辛玉 通南業宗 通鄭石寬 嘉全厚石 嘉文旭 李風金 ■斗天 寬休 嘉粲柱 嘉粲清 通碧岑 嘉自敬 通自下 通淮清 通自欠 通自明 萬澄 嘉冲海 通自敏 嘉准玄 嘉斗欣 通■圭 通■元 通斗文 通■清 通斗比 通淮文 任察 通澗什 廣心 嘉釋能 通太仁 通良彦 淨能 嘉呂洽 嘉工贊 嘉呂欠 通■式 嘉准悅 嘉萬什 通粲軒 萬浩 通翼鵬 通云淡 嘉自清 通自淑 應清 通■軒 任淡 通■玉 通宗信 通

淨云 通碧均 通擇敬 通再益 朴尙万 張奉世 卓比 通粲

通呂澄 通呂恢 覺還 万屹 策能 通白草 通策還 嘉萬比 嘉呂旻 嘉善覺

山中老德

三綱 住持 瑞云

僧統 准閑

首僧 准熙

書記 勝浩

次知 坦准■惠 三寶 翠岑 再閑 良任 始役 僧統 進哲 首僧起俊 學摠■玉 法坦 粲海 法云 万清 軒澄 釋玄 通幸明

施主兼門人 嘉坦悟 通坦下 嘉坦熙 學澄 嘉進英 通■均 通■■ 嘉雙演 通坦玉林 戒民 嘉粲益 准寬 通釋洽 嘉進哲 嘉學摠 嘉坦岑 嘉坦欠 嘉進惠 嘉坦俊 嘉學均 通天己 嘉玄守 大施主 文珍

受法弟子 月峯雙式

門人 普演 門人通雙海 通雙旻 雙允雙惠 通■圭 天信 嘉惠清 通進敬 進文 進欠 通進甘 姪子 嘉全留連 全三郎 全五連 進岑 進海 進明 嘉進安 進和 學信嘉學天 學贊 學能 學還 學熙 學坦 嘉學俊 學訓 學心 通學寬學清 坦暉 坦衍 坦旻 坦遲 坦

兼 寫官 鄭宗周

刻工 劉仁碩 金世彩

比丘 海瓊 嘉世興

刀 淨玄 是贊

供 學清 省憲

冶匠 申尙万

石手 黃成一

良工 李億万 柳卜世

浮屠 別座 嘉文欠 坦行 通坦文 坦訓

別座 嘉坦暹

化主 能俊 偉

運力領將 自學 咸次命

1-4. 건봉사 목양대사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전서/행서, 해서체
- 건립 시기 : 1731년(영조 7)



목양대사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건봉사 목양대사비는 건봉사 부도전에 세워져 있다.

목양대사비(牧羊大師碑)는 영안대사(靈眼大師)의 생애를 기록한 비로, 1731년에 세웠다.

비는 전면과 후면에 행서와 해서로 비문을 새겼다. 전면 상부에는 자경 8cm 크기의「牧羊堂大禪師靈眼碑銘」이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시주와 승려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갑진년(1724) 정월에 몸이 마르고 쇠약하며 마른 한 스님이 북쪽으로부터 와서 건봉사의 상원암(上院庵)에 주석하였는데 나이는 84세 가량이다. 스님의 법명은 영안(靈眼)이니 동작이나 표정, 거동이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었는데 오래지 않아 입적하였다.

다비를 모시는 저녁에 상서로운 빛이 하늘에 뽀치더니 49재(齋) 저녁과 100일재 저녁에도 연이어 상서로운 일이 일어났다. 대중들이 크게 놀라서 모두 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대사는 함경도 영흥(永興) 북촌(北村) 사람으로 속성은 김씨(金氏)이다. 선비 집안에서 태어나 8살에 출가하여 청허휴정(淸虛休靜)을 접하여 3세손이 되고 안으로는 탐(貪)·진(瞋)·치(癡)를 물리치는 계(戒)를 정하였다.

밖으로는 4대 명산을 두루 다니며 지식을 넓혔다. 그 남은 점을 미루어 후학(後學)을 가르치니 때마침 내린 비가 대지를 적서 싹들이 고루 자라는 것과 같으니 스님의 도행(道行)이 이와 같았다. 비문의 찬자는 이덕수(李德壽), 서자는 서명균(徐命均)이다. 전액은 이징하(李徵夏)가 썼다. 각자는 해경(海瓊)·성징(性澄)·손제(孫弟)·해우(惠祐)이다.

비는 이수(李水)와 비신(比身), 하대석으로 구성되었다. 재질은 이수(李水)와 하대석은 화강암, 비신은 화강섬록암이다. 이수는 타원형의 연꽃 모양이다. 이수의 전면에는 중앙에 구름과 용이 새겨져 있다. 이수의 후면에는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다. 비신의 전면과 후면에는 곳곳에 얼룩이 남아 있다.

하대석은 윗면 모서리를 귀접이하였다. 비좌는 126cm×87cm×20cm 크기의 장방형으로 치석이 고르지 못하다.

비신은 185cm×81cm×34cm 크기의 2면비이다. 비석 전체의 높이는 2.8m이다.

나머지 비문의 자경은 4cm로 새겨져 있다.

〈비문〉

牧羊堂靈眼大師之碑

牧羊堂大師靈眼碑銘并序

嘉善大夫領經筵事監春秋館事弘文館大提學藝文館大提學知成均館事吏曹參判兼守 李德壽 撰

大匡輔國崇祿大夫兼議政府左議政 徐命均 書

資憲大夫知敦寧府事 李徵夏 篆

余宰水城之明季甲辰五月 有僧鰲而癯 自北方來 住錫于乾鳳之上院 年蓋八十四矣 名曰靈眼 其動作威儀無甚異於人者 惟日誦彌陀佛號 寺之僧狎而侮之 或有厭且苦者 未久而僧遂化去茶毘 之夕瑞光亘天逮七七齋夕及百日 又連有異瑞 山中緇群始大驚異意其非常人也 有童甫兆夢山神告曰 菩薩身既化矣 曷不拾其遺骨 而禮厝焉 不者 且有禍 明而遍告寺僧則又大悔悵 衆競尋之 果得頂骨 於寺南

盤石上 五色具焉 呪得青色舍利二枚 瘞於寺之東岡 僧徒盛傳其靈跡如此

余昔聞而獨心寄之 今歲乙巳夏六月 余屏居城西私第 有僧義英 叩門求見 進而與之語 乃師之高足也 將以其師之跡 載之石 而乞文於余 余始詳詢 而得師之始末 師咸鏡道永興府北村人也 俗姓金氏 家世業儒師 八歲出家 受菩薩戒 二十歲淹通經律論 師事回警堂弘辨長老上接清虛休靜 爲三世孫 內則貧嗔痴爲戒定慧 外則歷四大名山 參禮知識 推其餘又誨誘後學 如時雨普霑 萌芽競長師之道行如此其可書也 夫禪方外之學也 宜泯跡超俗 以契其所謂三空者 而乃今叢林中 喜標榜廣聚徒衆 務以名高相傾 茲與市朝之人奚別 獨師不然 專精其法 不事外眩生 雖無標異 於人沒有以 驚動緇俗使其道 久而彌著 余喜其如此 遂不辭而爲之銘 銘曰 法常衣荷滄松懶殘擁爐燒芋衡岑黯黯暝色大梅實落株枯惟師混跡緇流豈亦斯人之徒歟

皇明紀元後再辛亥六月 日 立

〈후면〉

施主秩

李氏戊申生 任氏壬申生 李氏庚子生 徐氏甲辰生 金氏戊午生 尹氏辛亥生 鄭氏還玉 鄭氏玉閃 幼學朴世才 咸業明 安城徐必才 呂州李性龍 通張艾同 比丘上忍

嘉善万什 通政榮株 嘉善坦熙

嘉自卞 嘉應清 嘉坦岑 通肯浩 嘉呂欠 嘉彩和 嘉進哲 嘉上贊 通肯軒 嘉學捻 通碧還 嘉坦閃 嘉贊熙 通進惠 通肯欠 通云淡 通敬衍 通自旻 通自明 通聖圭 嘉翼鵬 通快均 通克澗 通良彦 通冒清 通自澗 嘉快允 再旻 通快洽 再允 嘉惠清 通万能 通自欠 通雙海 坦玉 通釋允 通印均 通冒式 通坦卞 通碧洽 通肯律 嘉自清 白云 嘉天心 通良任 通天己 通碧岑 万浩 通碧均 擇敬 三捻 嘉自敬 通快文 通自察 頓律 嘉再淑 通取淵 良淑 通自學 體華 通幸明 覺還 嘉策能 嘉呂澄 通政吳世雄 壬申生金氏 辛未生張氏 金興石兩主 金万俊 通鄭碩辟 辛酉生延氏 彩寶 雙式 山中大德 法堂次知 通自旻 通肯式 持殿坦旻 來往坦行 通彩洽 飯頭彩談 鐘頭恩談 典座肯玉 通聖圭 通肯律

寺中次知 前首僧最淨 時首僧良彦 僧統準閑 前住持坦梅 時住持性澄

三綱

門僧施主 通斗文 嘉斗堅 通斗澄 嘉斗欣 嘉斗仁 嘉斗建 通斗清 通準文 通準談 通準清 嘉準悅 嘉準伯 通準益 通準什 準寬 準熙 準閃 斗明 斗閃 斗嘗 斗行 準淑 準淳 準行 通己準 太澄 熙卞 志學

作碑遍手 李億万

助役 是贊 張奉世

冶匠 金吉男

炊飯 快眼 頓

浮屠 遍手 天密

助役 黃成一 供給志悅 金武田 金命山 斗祥 良治

助緣 嘉碧寬

刻字 海瓊 性澄 孫弟 惠祐

親弟子 嘉佛英 善熙

寫字 勝浩

引勸 嘉善坦俊 嘉善準閑

浮屠 作碑 都大別座 嘉準玄

1-5. 건봉사 일암대사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전서/해서체
- 건립 시기 : 1770년(영조 46)



일암대사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건봉사 일암대사비는 건봉사 부도전에 세워져 있다.

일암대사비(日庵大師碑)는 일암 정이(日庵 精頤)의 생애를 기록한 비로, 1770년에 세웠다. 비는 각 면에 모두 해서로 비문을 새겼다. 전면 상부에는 ‘자경 10cm 크기의 「日庵大師之碑」’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고, 전면 오른쪽에는 「有明朝鮮國日庵大師塔碑銘」이라는 제명이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비를 제작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을 썼다.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사의 속성(俗姓)은 전씨(全氏)이고 신라 정선군(旌善君)의 후예로써 대대로 낭천(狼川)에 살았다. 송정(崇政) 갑인년(1674)에 현아(縣衙)의 동쪽 관불촌(觀佛村)에서 출생하였다. 어려서 놀기를 좋아하여 모래를 모아 탑을 만들고 꽃을 따서 공양하니, 사람들이 불종(佛種)이라고 불렀다. 16세에 각암 설우(覺庵 雪祐)에게 의탁하여 머리를 깎고 득도하였으며, 비니(毘尼)의 가르침을 금파(金波) 대사로 부터 받고, 25세에 월저대사(月渚大師)를 뵈었다. 같은 해에 설암대사(雪巖大師)를 뵈었는데 설암은 곧 월저의 상좌(上佐)이니 서산대사(西山大師)의 적손(嫡孫)이다. 대사는 여러 불교 서적을 접촉하지 않은 것이 없어, 어떤 불교 서적을 한 번 접하기만 하면 흰히 통달하여 마치 날카로운 칼로 썬 대나무를 쪼개는 것과 같았다. 강당(講堂)을 개설하고 가르치니 질문에 응답함이 마치 메아리 같이 막힘이 없었다.

대사는 용문산(龍門山), 묘향산(妙香山)과 호령(湖嶺)의 여러 명산을 거쳐 갔는데, 그 가운데 금강산 건봉사와 설악산(雪嶽山)의 내원암(內院庵)에서 가장 오래 머물렀다. 만년에는 건봉사 백화암(白華庵)에서 두문불출하였다. 을유년(1765) 10월 22일에 입적하였는데, 세수는 92세이고 법랍은 76세였다.

비문의 서자는 김상숙(金相肅)이며, 찬자와 각자는 미상이다. 의도적으로 찬자와 전액의 서자를 지운 흔적이 보인다. 송병선(宋秉璿)의 문집인 『연재집(淵齋集)』 권20 「잡저(雜著)」에는 일암대사비의 찬자와 전액의 서자가 홍계희(洪啟禧)로 나와 있다.

비는 개석과 비신, 하대석으로 구성되었고 개석과 하대석은 화강암, 비신은 대리암이다. 개석은 팔작지붕의 형태이다. 개석 전면 좌측, 후면 우측, 좌측면의 추녀마루는 일부 파손되어 떨어져 나갔다. 개석 전면 좌측은 가로 36cm, 세로 19cm 정도 파손되었다. 개석 후면 우측에도 가로 52cm, 세로 26cm 정도 파손되어 떨어져 나간 부분이 있다. 하대석은 윗면 모서리를 귀절이한 직육면체의 형태이다. 비좌는 98cm×54cm×35cm의 크기로 각변의 모를 죽였다.

비신은 61cm×145cm×18cm의 크기로 4면비이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2.15m이다. 나머지 비문의 자경은 4cm로 새겨져 있다.

〈비문〉

有明朝鮮國 日庵大師塔銘并序

輔國崇祿大夫行判中樞府事致仕奉朝賀洪啓禧 撰并篆

通訓大夫前行工曹正郎 金相肅 書

余退老于龜谿 習靜端居 谿之東 有銀石寺 頗濟楚 遠方衲子 或來結夏 金剛山教清上人 亦棲止焉 余與之相熟 無異韓之顛 歐之濱也 一日清來言曰 清之師 日庵大師 精頤 法器宏大 戒行清苦 今其塔銘 將上石矣 公可爲貧道泚筆否 余曰否否 吾焚葉筆研 雖薦紳大夫之請 一切謝之 況浮屠家文字 非吾儒所可浸染者耶 清蹙然曰 世出世法 自具眼見之 實無異同 雖以先輩言之 若牧隱之於普濟 谿谷之於西山 亦嘗闡揚焉 公何辭爲 余曰朱夫子 見古寺諸祖師畫象 嘆天下人才 爲佛氏掇拾去 爾之道 雖非吾所謂道 而若其炳靈挺秀 領取本來面目 則亦當人其人矣 爾之師果何如 而亦有可徵文字否 清曰清之師有文集十五卷 說得天花亂墜 而今不可以殫記 有自叙一篇 清請誦之 遂誦之曰 客有嘲余者曰 道人無己大自在乎 應之曰 凡人必有所偏 設若不幸 使吾涉于名利之津 循

乎賞貨之路 以至於觸禍危身 奈救吾何 使吾 內無克念之工 外乏不諍之德 以至於下惡天命 奈救吾何 或使吾 溺修修真之訣貪乎 鍊汞之術 以至於無成 奈救吾何 或使吾 錯其禪定之觀 被他魔外之撓 以至於墮落 奈救吾何 吾今幸得人身 迥超塵臼 不隨彼而自適 無適而不可矣 況遊方研尋之中 顧何傷哉 所媿者 吾僑形宇宙之間 而才與德 不逮於昔賢者遠矣 所跂者 壽於安穩 富於遠規 文於什觀 神於誌澄 化於慧道 才於馬龍 智於鶯子 說於滿慈 孝於目連 猛於能仁 夫如是 爲吾所慕 餘何所求哉 余憑几而聽 不覺灑然 曰爾之師 誠奇男子也 誦其文 不知其 人乎惜乎 以此慧識曠觀終歸於槁木寒灰也 然爾家之教 達摩太冷 宗杲太熱 爾師自叙 不冷不熱 真可謂大自 在法門也 試言爾師之本末也 師姓全氏 新羅旌善君之後世居狼川父興益 母李氏 夢見日輪臨頂上 以崇禎後甲寅 生師于縣東觀佛村 生而不啼 不惱其父母 幼而嬉遊 聚沙成塔 採花爲供 人謂之佛種 得果實 不自啖 歸獻于母 人謂之孝童 十六投覺庵

雪祐大士 受剃度 受毘尼教于金波大士 二十五 謁月渚法師 是年謁雪巖大師 岩卽月渚法師 而實爲西山之第四嫡孫也 師衣鉢之所自 如是焉 其用工 則自高峰大慧萬法歸一話 趙州無字話 楞嚴 船若 圓覺 拈頌 傳燈 清虛龜鑑 諸教集 靡不觸處通透 如利刀破朽竹 開堂教授 擎拂如響 其遊歷 則牛岳 龍門 妙香及湖嶺諸名山 而金剛至乾鳳 雪岳之內院 住錫最多 晚歲 乾鳳之白華庵 杜門不出者數十年 乙酉十月二十二日示寂 世壽九十二 法臘七十六 前一日 會諸弟子 示一偈曰 本末無住法 無住是真法 今將是法傳 是法何嘗法 謂弟子無畏曰 四大違和 我將逝矣 遂奄然而化 荼毘之夕 祥光亘天 得金頂骨一片於松根 建塔於寺之南麓 師風

儀魁岸 道機沈點 而有時輪寫 不修邊幅 佳山麗水 良辰好月 意氣高閒 詞藻玲瓏
觀其自敘及臨化之偈 可見其灑灑落落不拘下縛者矣 余日然乎 余雖不嫻爾家文
字 姑妄言之 以塞爾請 遂銘之曰 如是我聞 得未曾有 曰善男子 清淨無垢 東方
震朝 佛日鴻朗 是夢是幻 現爲實相 觀佛之村 觀是何佛 沙塔花供 夙心洞徹 佛
性淨孝 獻果于慈 鉗槌棒喝 得無上師 悟修漸頓。諦聽精詣。諸佛心印。針芥相
契。華嚴樓閣。重重湧現。玲瓏透悟。本來之面。目無所翳 堂無所碍 橫說豎說
觸處三昧 寒山時什 大慧書狀 無往不合法門龍衆 千山萬水 瓶錫隨緣 歸而活埋
乾鳳之嶺 開堂轉輪 亦有廣衆 何去何來 解說如夢 留其藻華 是亦舍利 弟子云云
第用撰次

崇禎三庚寅三月 日 鐫

〈후면〉

大施主 處士 嘉善快演 舍堂 快信

次施主 嘉善尹弘 鄭順起 朴順發 全延暉 南昌玉 李貢孫 李昌儀 通政 李億萬 出
身 韓光修 處士 正覺 柳世興 舍堂 妙哲 朴太命 柵石昌 昌石 尙戒 釋修淨 進■釋
岑 處摠 再華 軌鵬 智厚 守■天日 道鑑 信添 再益 大玄 弘澄 位修 弘暈 哲俊 沖
詢 國俊 清

宗師 石峯玄下 誼桓 翼鵬 宇平 慎奎 性水 前御秩 釋碧玉 碧勻 最均 性玄 良淑 良
益 快演 快玉 法明 哲禪

來往 證性 書記暢活 揆閑

次知 揆昕

首僧 包察 僧統 快敬 住持 太云 三綱■ 證悟 ■均 國證 緇淑 緇充 頓學 廣察 體
益 頓欣 禮均

上堂厚戒 次知 勝演 持殿 快淳 哲信

法弟子 桂蔭 覺香 寶敬 處寬 團淑 處連 采還 體照 載益 無外 載憲 自瓊 心鏡 再
再克 再札 再允 再寬 再淑 再旭 再軒 再惠 再贊 再學 再和 再圭

受戒者 神足 歸監 厚鵬 教清 再兼 再欠 再忻 云鶴 云惠 雋英 快暉 揆天 揆玉 揆
侃 揆安 揆眞 揆旻 揆律 揆清 揆元 妙岸 淨雄 歸直 最仁 弘旻 頓旭 性侑 大活 印
定 緇悅 斗性 德均 震一 脫英 思宇

法第孫 揆密 揆摠 月允 定宜 道圓 頓暉 覺欠 太伸 皎閑 喜成 軌哲 觀彥 弘鳳 喜
直 有沾 軌 摠

法曾孫 道成 大機 快衍 永有

緣化 芸刻 元應良 通政 元現得十五 金世柱

冶工 李福己

都監 釋再敏

別座 揆忻 揆欠 印如 性弘

1-6. 건봉사 송암대사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전서/해서체
- 건립 시기 : 1771년(영조 47)



송암대사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건봉사 송암대사비는 건봉사 부도전에 세워져 있다. 부도전에는 약 50여 기의 부도와 15기의 비가 세워져 있다.

건봉사 송암대사비(乾鳳寺 松巖大師碑)는 송암 의천(松巖 義泉)의 생애를 기록한 비로, 1771년에 세웠다.

비문은 비신의 전면과 후면에 해서로 새겼다. 전면 상부에는 자경 12cm 크기의「松巖大師之碑」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사의 법명(法名)은 의천(義泉)이고, 속성은 김씨(金氏)이다. 어머니 손씨(孫氏)가 해를 보는 꿈을 꾸고 임신하여 병신년(1716) 10월 20일에 태어났다. 준수한 얼굴에 비범함이 있다. 14세에 건봉사로 출가하여 석흡장로(釋洽長老)의 제자가 되었다. 월봉대사(月峯大師)에게 율(律)을 듣고 풍악화상(楓嶽和尚)에게 수업하였으며, 두루 돌아다니며 수행하였다.

대사가 일찍이 도솔산(兜率山)에서 설법할 때 문득 꿈에 해가 지자 도반(道伴)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꿈에 해가 뜨면 내가 살 것이요, 해가 지면 죽을 것이다.” 그러더니 임오년(1762) 6월 19일에 향탕(香湯)을 청하여 목욕하고 열반에 드니 세수는 47세, 법랍은 33세였다. 다비하는 날 밤에 상서롭고 특이한 일이 있었으니 정골(頂骨) 하나가 튀어 올라 모두가 이상한 일이라 여겼다.

문인(門人)들이 도솔산에 탑을 세웠고, 10년 뒤에 건봉사에 비를 세웠다.

비문 말미에는 송암대사의 업적을 찬미한 4언 20구의 명(銘)이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송암대사비를 제작하는데 시주한 사람들과 승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비문은 승환(勝還)이 지었고, 비문과 전액은 우평(宇平)이 썼다. 각자는 성철(聖哲)이다. 비는 개석과 비신, 하대석으로 구성되었다. 개석과 하대석은 화강암, 비신은 섬록암이다. 개석은 2단의 곡선으로 된 연꽃 봉오리의 형태이다. 개석의 전면에는 이중의 선으로 새겨진 원이 3개가 있다. 개석 전면 가운데의 이중 원 안에는 보주(寶珠)와 범어문자로 보이는 무늬가 새겨져 있다. 개석의 후면에도 전면과 같이 이중의 원 무늬가 새겨져 있다. 개석의 좌측면과 우측면에는 무늬를 새기지 않았다. 하대석은 자연석을 윗면과 평평하게 다듬었고 나머지 부분은 돌 표면의 질감을 그대로 살렸다. 비좌는 128cm×92cm×45cm의 크기의 장방형이다.

비신은 75cm×166cm×38cm 크기의 2면비로, 이수는 102cm×65cm×65cm 크기의 화형(花形)이다. 비문의 전체 높이는 2.7m이다. 나머지 비문의 자경은 4cm로 새겨져 있다.

〈비문〉

皇明朝鮮國松岩堂大師碑銘并序

同宗門弟 勝還 撰

同宗後學 宇平 書篆

釋迦氏將示寂 以正法眼藏 付與迦葉 而燈燈相傳 西天東土 代各有人 勝國時
太古和尚入中國 石屋處 得臨濟眞宗 八傳而至西山 廣暢宗旨 六傳而至楓岳 爲
東方之名宿 其門人松岩大師 傳鉢承講 沿海之東 悟解最高名義泉 姓金 母孫氏
夢日而娠 於丙申十月二十日生 神采俊拔非凡器 十四 詣乾鳳寺 爲釋洽長老弟子
聽律於月峰大師 受業於楓岳和尚 復歷遍知識 道已成 登堂普說 聽徒咸服曰 古
慧遠道林 各長才德 今師兼二 未曾有也 嘗講於兜率山 忽夢日沒 而語徒曰 夢
日出生者 夢日沒死矣 果於壬午六月十九日 召香湯沐浴而逝 壽四十七 臘三十三
荼毘夜異瑞 頂骨一箇 超在松枝上 異哉 盖師之日用 專平等 習勤苦務慈忍絕憎
愛 人呼以再來菩薩云 門人等塔于兜率 後十年碣于乾鳳 原其狀而銘之曰 松受楓
家 其衣其鉢 虎岩之三 西山之八 遺風渺漫 結浪遭廻 匪伊粹哲 孰振將頽 化洽金
剛 移緣兜率 夢日寄歸 其事恍惚 檀林留迹 自宗眞乘 兩所鍾碣 光可騰騰 岩水決
決 雲山蒼蒼 唯師旨趣 寶月清涼
崇禎紀元後三辛卯八月 日 立

〈후면〉

大施主 居士快演 舍堂快信

施主 嘉善尹弘 嘉善商紀 信女明玉 嘉尹漢澤 通洪貴淑 嘉尹遇聘 嘉李德星 比丘
自侃 雷學 桂庵 輔敏

宗師 誼坦 翼鵬 載益 教清 禪淡 脫穎 唯雄 勝澄 性水

寺中 性玄 碧洽 再奎 良淑 再允 廣察 碧均 再贊 良益 法明 最均 厚戒 再學 體演

持殿 快淳 必均

三綱住持 性玉

僧統 體益

首僧 哲訓 次知 揆玉 巨訓

記室 沖戒

上堂 頓伯 國清

來往 哲禪

受戒 勝演 覺嶽 覺初 有性 弘曄 弘策 弘演 弘律 弘澤 幻鵬 璽允 璽敏 八悟 弘稔
璽堅 弘學 弘益 弘淑

僧族 德閑 頓屹 懷敬 頓贊 淨軒 證戒

上佐 福璘

受法 慎奎 以周

法孫 泓潤 性欣 宇坦 性旻 日淡 性昊 錦友 友益

書寫 翰爲

都監 受學 冲戒

別座 弘曄

石手 李億萬

冶匠 李福起 朴德男

供養主 玉明 快信

助役 處士 玉性 元現得

副刻 性哲

校書館先生 處士 快演

1-7. 건봉사 대운당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전서/해서체
- 건립 시기 : 1799년(정조 23)



대운당비

■ 조사내용 ■

건봉사 대운당비는 건봉사 부도전에 세워져 있다.

대운당비(大雲堂碑)는 대운당우평(大雲堂宇平, 1727~1798)의 생애를 기록한 비로, 1799년에 세웠다. 비문은 전면과 후면에 해서로 새겼다. 비의 전면 상부에는 자경 3cm 크기의 「大雲堂碑」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고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사의 법명은 우평(宇平), 법호는 대운(大雲)이다. 성은 밀양 박씨(密陽朴氏)이며, 외가는 강릉 최씨(江陵崔氏)이다. 대대로 평강(平康)에 살아 13세에 금강산의 발연(鉢淵)에 들어가서 옥잠(玉岑)의 제자가 되고 풍악대사(楓岳大師)에게 배우고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재주와 학문이 구덩이를 채운 물이 넘쳐 흐르듯 완성되어 마침내 운계(雲溪)·실계(室溪)·풍악의 고제에 들어가게 되니, 대사는 서산대사의 8세손이 된다. 불자를 세우고 법당을 걸어 30여 년 동안 가르침을 베풀었다. 경술년(1790)에 화산(火山)의 법석에 참여하자 정조임금께서 전교하여 표창하니, 공경히 읊기를 “진정한 나라 은혜 아직 갚지 못했는데(珍重國恩猶未報), 꿈은 달빛을 따라 꽃방석에 비치도다(夢隨殘月照華筵).”라고 하였다.

갑인년(1794)에 밀양(密陽)에서 종정(宗正)을 역임하고 무오년(1798)에 반야사(般若寺)에서 입적하니 세수는 72세이고, 법랍은 56세였다. 다비 후 두 번째 재(齋)에서 정골(頂骨)을 열 발자국 떨어진 소나무 가지에서 얻으니 깨끗하기가 유리알 같았다.

비문의 말미에는 4언 8구의 명(銘)이 덧붙여져 있으며 대운당비를 제작하는데 시주한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음기(陰記)가 남아 있다. 장방형의 비좌 상단에 비신과 옥개석을 놓았다. 비좌는 115cm×94cm×21cm의 크기로 상면에 높은 호각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하였다.

비신은 너비 46cm, 높이 86cm, 두께 41cm 크기의 비신을 세웠다. 2면 비로 이수는 4모 지붕형으로 낙수면의 합각선이 두툼하고 추녀가 넓다. 각 낙수면의 상단에는 넓은 화문이 1구씩 조식되어 있다. 이수의 상면은 방형의 형태로 정상에는 단엽 8판 양련이 조식된 원구형 석재가 있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2.1m이다.

〈비문〉

大雲堂碑銘并字

後學永松大活 撰 近喆 篆 置寬 書

師諱宇平 號大雲 姓密陽朴 外江陵崔 世居平康 十三入鉢淵 爲玉岑弟子 學於楓

嶽 兼受戒具 才學盈科 終入雲溪室 溪楓嶽高弟也 師清虛八世 豎拂建幢 三十載
施法化人 豈其微哉 庚戌參花山法席 傳教賜獎敬 吟曰 珍重國恩猶未夢 隨殘月
照華筵 乃自題 歲甲寅行密陽宗正 戊午臘十九 宗寂于般若 俗齡七十二 法臘五
十六 荼毘後二齋 得一片頂骨于十步松枝 淨如琉璃 仍以豎石 銘曰 師之在世 其
心也直 師之棄世 其跡也赫 自中發外 事不欺群山高海闊 此石永存
嘉慶四年己未六月立

〈후면〉

受法 勝澄 竝玄 天心 處朋 明誼 能禪 普日 元惠 沖彦
懺悔 彩圓 大欣 德敏 就閒
孫親上佐 處誼 就鳳 夙弘慶元
別監 永澄 近浩 近戒 近學 近哲 近玉 近允 式明 式寬
受戒 式哲 式宗 式活 式訓 式還 式穩
三綱 巨敏 奉日葉 始活
僧族 漢守 見裕

1-8. 유명조선국사명대사기적비명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전서/해서체
- 건립 시기 : 1800년(정조 24) / 2017년



유명조선국사명대사기적비명 전면 / 후면



1800년 건립된 기적비 비편 일부

■ 조사내용 ■

사명대사기적비명은 건봉사 사명당 의승병기념관(泗溟堂義僧兵紀念館) 앞에 세워져 있다. 비의 옆에는 조각난 비편이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때 승병장(僧兵將)으로 활동한 사명대사(泗溟大師)의 생애가 기록된 비이다. 원래의 비석은 1800년 백화암 앞에 세워졌는데, 일제강점기 때 파손되었다. 현재는 4개의 비편만이 전해지고 있다. 남아 있는 비편에는「有明朝鮮國泗溟大師紀蹟碑銘」이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다. 비문의 찬자인 남공철(南公轍)의 『금릉집(金陵集)』권16「비명(碑銘)」에도 ‘건봉선원사명대사기적비명(乾鳳禪院泗溟大師紀蹟碑銘)’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조선금석총람(朝鮮金石總覽)』과 『乾鳳寺本末事蹟(건봉사본말사적)』에도 사명대사기적비의 전문(全文)이 수록되었다. 이를 토대로 2017년 11월에 사명대사 기적비를 새로 제작하여 기존의 비편 옆에 세웠다.

새로 세운 비를 바탕으로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사의 법명(法名)은 유정(惟政)이며, 속성은 풍천 임씨(豐川 任氏)이다. 밀주(密州) 사람이다. 대대로 벼슬을 하던 집안이었는데, 중덕(中德)을 따라 건봉사 낙서암(樂西庵)에서 삭발하였다.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에게 사사하여 『연화경(蓮華經)』을 배웠다.

만력(萬曆) 20년(1592)에 왜구(倭寇)가 조선을 노략질하였다. 휴정은 묘향산(妙香山)에서 승도(僧徒)를 모집하여 의병(義兵)을 일으켜 명나라 제독(提督) 이여송(李如松)과 함께 평양(平壤)에서 왜병(倭兵)을 대파하였다. 소경왕(宣祖)이 행재소(行在所)로 휴정을 불러서 만나보았다. 선조가 친히 묵죽도(墨竹圖)를 그려 하사하고 휴정에게 명하여 팔도도총섭의병장으로 삼았다. 임금의 수레가 환도(還都)하는 데에 미처서 정사를 잡은 대신들 중에 화의(和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휴정은 임금에게 청하여 아뢰기를, “신은 늙어서 장차 죽을 것이다. 병사(兵事)를 제자 유정에게 맡기고 돌아가기를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임금은 그의 뜻을 가상하게 여겨 그의 뜻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유정을 역마(驛馬)에 태우고 경사(京師)에 이르도록 명하고 마침내 대중을 통솔하도록 하였다.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의논하길 “만이(蠻夷)는 본래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입니다. 유정을 보내어 강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고 하였다. 대사에게 정1품의 관계를 하사하고 사신(使臣)으로 일본에 보냈다. 사명대사가 일본에 이르자 마침내 삼도(三塗)와 오계(五戒)로써 일본의 왕과 도요토미 히데요시(平秀吉)에게 설명하니 그 말이 모두 청정(淸淨)함과 죽음을 없애는 가르침이었다. 강화가 성립되어 장차 돌아가려고하니 일본은 압송한 조선의 남녀 3천여 명을 풀어주었다. 이전에 신라 자장법사(慈藏法師)가 당나라에 들어가 얻은 여래아(如來牙) 10매를 후에 왜적에게 약탈

당했다. 대사가 간절히 요청하여 돌려받아 건봉사에 보관하였다.

밀주에는 옛날부터 사명대사의 영정을 모신 사우(祠宇)가 있는데, 선조가 ‘표충(表忠)’이라는 이름을 하사하였다. 그 후 정조임금이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업적에 더욱 감동하여 일찍이 영변(寧邊)의 옛 사당인 수충사(酬忠祠)를 확충하고 표창하였다. 남공철(南公轍)이 비문을 짓고, 허질(許喆)이 썼다. 각자는 성철(性哲)임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남아 있는 비편은 4개로, 재질은 모두 화강섬록암이다. 비문은 원래 3면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비편 1은 이수 부분으로 보인다. 크기는 높이 58cm, 너비 131cm, 두께 85cm이며, 깊이 약 4cm의 장방형 홈이 있다. 비편 2는 2개의 비편을 임시로 접합하였다. 비신의 상단부분으로 크기는 높이 33cm, 너비 79cm, 두께 64.5cm이다. 비편 2의 세 면에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그 중 전면 우측 부분이 파손되었다. 비편 3은 비신 우측 중앙 부분에 위치한 것으로 보인다. 크기는 높이 33cm, 너비 48cm, 두께 51.5cm이다. 비편 4는 비신 하단부에 위치한 것으로 보이며, 크기는 높이 33cm, 너비 65cm, 두께 32cm이다. 비편과 함께 발견된 3단의 하대석은 2017년 세운 복제비의 하대석으로 사용되고 있다.

〈비문〉

有明朝鮮國泗溟大師紀績碑銘

嘉善大夫 江原道觀察使 兼 兵馬水軍節度使 巡察使 原州牧使

原任奎章閣直閣 知製敎 南公轍 撰

通政大夫 行寧越都護府使 兼 原州鎮官 兵馬司僉節制使 討捕使

許喆 並篆

金剛山 自毗盧分爲二歧 斷髮嶺以西曰內岫 鴈門以東曰外岫 內岫之表訓寺 是西山大師施教之地也 外岫之乾鳳寺 是泗溟大師募義之地也 二子者 雖出於浮屠 而西山以其節 泗溟以其功 故地以人而重 寺之名 於是乎甲于國中 按圖誌 唐乾元間 山人貞信 設道場 奉彌陀觀音兩菩薩像於此 號爲乾鳳寺 寺舊藏師畫像及願佛銀塔香爐鐵杖屨鞋珊瑚念珠各一 織金袈裟一襲 而世傳 如來牙事 尤神奇 其說近於述異 而所謂石塔者 至今尚存 山中人皆言 夜或有瑞氣爲虹云 師名惟政 本姓任氏 密州人也 世有簪纓稍長 從恩師中德 落髮於寺之樂西庵 而師事西山大師休靜 學蓮華經六萬九千餘言 萬曆二十年 倭寇朝鮮 休靜自妙香山 募僧徒爲義兵 與提督李如松 大破倭兵于平壤 斬首二千級 昭敬王 召見行在 親畫墨竹圖 以賜之 仍命爲八道都摠攝義兵將 及車駕還都 執政大臣 多主和議 休靜請於上曰 臣

老且死 願以兵事 付弟子惟政 乞骸骨歸 昭敬嘉其志許之 命惟政 乘駟至京師 遂統其衆「朝廷謂蠻夷素好佛道 宜遣惟政以成和 遂賜一品命服 以使臣禮送之 師至日本 乃以三塗五戒 說蠻王及平秀吉」¹ 其言皆以清淨去殺爲宗 於是和事成將還 贖得被虜 男女三千餘口² 先是 新羅慈藏法師 入西竺 得如來牙十枚 後爲倭所掠去 師乃懇辭乞還 以藏于寺 卽石塔是也 儒與佛異教學士大夫嘗譏斥之 不欲同中國曰慈悲與仁義異旨 而見性 不若格致 習靜 有違誠敬 毫釐之差 去聖人之道遠甚 雖然 觀於西山與師之所樹立 則其於君臣父子之義何如哉 彼冠儒衣儒 細究性理高談仁義 而無其實者 不可同日而語也 佛名而儒行者 吾道而已矣 儒名而佛行者 異端而已矣 問之則非 校之則是 吾當進之矣 問之則是 校之則非 吾當退之矣 當朝廷與日本講和也 賢人君子 進無可死之地 則歸潔其身可也 西山之去 吾知其必有以也 如師者 不與之同其去 而又爲之力贊其議 何也 盖西山 近於經 而其節高 泗溟 近於權 而其功而博 然和議之成 當時之士 多主其事 雖非師 而不患其不成也 況日本 崇信佛教 堯

舜孔子之道 所不可化 則事固有因其勢而導之者 又師之忠信 可以行蠻貊之邦 而服人之心 此豈區區遊說之士所可得 而國家之享有其利者 今三百年矣然則西山之退身守道 泗溟之屈志濟物 各有其義 而其忠於爲國一也 同時從西山學者 又有海眼與靈圭 海眼起義嶺南 靈圭嘗與趙文烈公憲 從死錦山之役者也 密州 舊有師妥靈之祠 穆陵時 賜號曰表忠 及我聖上卽阼以來 尤起感於西山泗溟之事 嘗就寧邊故祠 而表章之 本朝 專尚儒術 未嘗廣度僧尼 崇侈寺刹 而二聖之眷眷於此者 徒以忠義爲獎也 豈不盛哉 余按關東 以本寺遺蹟 論移禮部 又將請於朝施行 而其徒 有以紀蹟之碑來屬者 遂捐錢百緡

而施之 作募緣文五軸 以相其役 銘曰

佛自西竺 流入中原 歷漢及梁 迄唐宋元 儒譏異端 不與同門 孰如大師 自禪而悟 義以爲車 信以爲路 拔乎其類 益見所樹 有儼師像 金剛之刹 傍有石塔 藏如來骨 琉璃之咽 珊瑚之舌 千輪妙相 若相傳鉢 萬曆年間 島夷逆命 西山奏功 弟子曰政 王曰彼寇 維予之讎 干戈八年 百姓不休 凡厥廷臣 孰紓予憂 公卿曰吁 維茲蠻猾 僻處卉服 俗本崇佛 寧因勢導 難以理奪 於是起師 裝送日本 滄溟萬里 天長地遠 三月候風 四月揚帆 乃見酋長 言出至誠 雍容談笑 和事遂成 從此八路 倭氛廓清 士女歌舞 同我太平

1) 남공철(南公轍)의 「건봉선원 사명대사기적비명(乾鳳禪院泗溟大師紀績碑銘)」에는 ‘내용이 있으나 비문에는 45자가 누락되어 있다.

2) 남공철(南公轍)의 「건봉선원 사명대사기적비명(乾鳳禪院泗溟大師紀績碑銘)」에는 ‘남녀 5천여명(男女五千餘口)’로 되어 있다.

西山高節 泗溟偉功 或去不去 其義則同 跋涉山河 紺馬火龍
銅爐鐵杖 木鞋珠囊 千載摩挲 如聞佛香 西山如雲 泗溟如水 水流有迹 雲去無止
崇禎紀元後三庚申四月 日立

〈후면〉

主上殿下壽萬歲
王妃殿下壽齊季
世子邸下壽千秋
監董官 大鈺
化主 嘉哲俊 嘉巨弘 鳳式 俊學 抱信 巨寬
三綱住持 弘律 永澄 佐仁
僧統 普浩
首僧 直哲
書記 會己
勅設法孫 月律 冲曄
都監役 錫旻 巨旻 近哲
別座 漢均 科欣
令將 哲訓
碑丈 現浩
刻工 性哲
供主 愼俊
書 麗訓

1-9. 벽오대종사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전서/해서체
- 건립 시기 : 1904년



벽오대종사비

■ 조사내용 ■

건봉사 벽오대종사비는 건봉사 부도전에 세워져 있다.

건봉사 벽오대종사비(碧梧大宗師碑)는 벽오 유충(碧梧侑聰)의 행적을 기록한 비로, 1904년에 세웠다. 비문은 비신의 전면과 후면, 좌측면에 해서로 새겼다. 전면 상부에는 자경 12cm 크기의「碧梧大宗師碑」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건봉사에 계행(戒行)을 지키는 한 대사가 있었는데, 대사의 법호(法號)는 벽오(碧梧)이며 법명(法名)은 유충(侑聰)이다. 속성은 최씨(崔氏)이고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아버지의 휘(諱)는 강손(江遜)이고, 어머니는 정씨(鄭氏) 부인이며, 계유년(1813)에 태어났다. 21세가 되어 출가하기로 마음먹고 여러 곳을 다니며 배우면서 ‘오히려 빈 몸을 돌보지 않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진정한 수행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에 하안거(夏安居) 결제일(結制日)인 음력 7월 15일에 제4회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를 결사(結社)하였다.

영암 취학(靈巖就學)에게 협력을 구하고, 동화 축전(東化 竺典)과 제휴하여 염불만일회 옛터에 선원(禪院)을 새로 지었다.

두 대사(영암 취학, 동화 축전)가 입적한 후, 유충대사가 홀로 염불만일회를 이끄니 모두 다 “화주(化主) 다!”라고 칭하였다. 대사는 일찍부터 성품이 부지런하고 행실을 삼가며 재법(齋法)은 엄숙하고 공경하였으니 보시(布施)를 하는 남녀 신도들이 존경하며 예를 다하였다. 병술년(1886) 겨울에 대사에게 가벼운 병환이 나타나더니 입적(入寂)하였다. 세수는 74세, 법랍은 53세였다. 제자는 학림 의환(鶴林宜還)과 만화 관준(萬化 寬俊)이 있다.

비문의 말미에는 염불만일회를 주도했던 대사를 기리는 5언 48구의 계언(偈言)이 새겨져 있고, 벽오대종사비를 제작하는데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새긴 음기(陰記)가 남아 있다.

비문의 찬자는 여규형(呂圭亨)이다. 서자는 이시영(李始榮)이며, 각자는 재옥(在郁)과 덕련(德連)이다.

비는 개석과 비신, 하대석으로 구성하였고, 개석과 하대석은 화강암, 비신은 화강 섬록암이다. 개석은 팔작지붕의 형태이다. 개석 아랫면은 겹처마를 조각하였다. 전면의 우측 추녀마루가 깨져 있다. 전액에는 주묵(朱墨)이 남아 있다. 하대석은 윗면을 귀접이한 직육면체 형태이다. 비좌는 106cm×74cm×41cm의 크기로 각 변의 모를 죽였다.

비신은 58cm×182cm×27cm의 크기로 3면비이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2.64m이다.

〈비문〉

大韓國江原道杆城乾鳳寺 設第四蓮會碧梧大師碑遺蹟碑

通政大夫前承政院右副承旨知製教兼經筵參贊官春秋修撰官 恒陽 呂圭亨 撰
前承政院右承旨 月城 李始榮 書并篆

維娑娑婆婆界東土大韓 佛法之隆 甲於天下 直接竺乾 非震早外 問何以故 其故有二 凡我大法 維一而已 如天中日 如城中王 九鳥既落 一輪獨揭 群僞削平 大統斯尊 云何震早 法有多門 南北二宗 名爲頓漸 我聞曹溪 六祖之訓 法無頓漸 人有利鈍 又聞古德長者之說 頓悟之後 仍須漸修 是知頓漸 是一非二 云何頓宗 又復多岐 滄仰曹洞 各標名號 聚落崢嶸 妬害覺起 維我大韓 清虛泗溟 一法承當 一門傳授 雖一傳十 十統于一 佛法之隆 此其一也 震旦之國 三教並峙 釋比儒仙 尤其宗仰 上自刹利 下至旃陀 投誠膜拜 信心歸依 號大法師 升堂敷坐 莊嚴尊重 坐享檀施 沙門之權 輿世主抗 維我大韓 法僧三寶 先折慢幢 而就苦行 尊人子卑 我法如是 習俗見慣 以爲本然 籍曰外護 寔非平等 是故我門 像季以還 無依者歸 有托乃迓 有大法師 非依非托 獨兩肩擔 惟一事緣 壞色瓦器 卑而益尊 是真正宗 是大法門 石揆角折 諦暉目眩 龍華諸佛 粲然啓齒 授記表信 接以引之 佛法之隆 此其二也 謙不可踰 大莫與京 甲於天下 豈徒然哉 烈山古邑 乾鳳禪師 有戒行僧 鼓主禪席 道號碧梧 法名侑聰 上溯西山 轉傳囑累 至于九世 雪峯影虛 有大弟子 應直應 直長老 住持本院 樂西之庵 剃度我師 乃得眞宗 是爲嫡傳 敬讀我師 實行之記 俗姓崔氏 婆羅門族 父諱江遜 母鄭夫人 龍浦之理 癸酉降生 爲兒遊嬉 已識再來 聚沙而塔 採花而供 弱冠鎡一 失心出家 遊學諸方 乃發弘願 寧以虛軀 不若修心 乃以辛亥夏制之日 復興第四萬日蓮會左挹學公 右提興師 發徵舊址 禪院新修 二公觀化 師獨歸然 誓擔廣募 咸稱化主 夙稟勤謹 齋法肅恭 檀越男女 持所敬禮 普結善緣 屢獲瑞應 遍行頭陀 香嚴童子 齒

眼骨株 列藏于石 丙戌之冬 因示微疾 跡隨緣盡 順世圓寂 法臘五十 世壽七十四 西方淨土 翛然■生 高足上座 鶴林宜還 萬化寬俊 寔紹其業 寬俊五會 二十四年 具師本行 刻之貞珉 以文字相 說無上乘 重宣此義 而說偈言 我聞諸佛法 善惡莫思量 及觀佛萬行 有善而無惡 我聞祖師禪 飢飯困來睡 及觀諸律師 戒而無情 千捧與萬喝 我只有一法 不依不了義 不作謾人語 有善度衆生 有戒度自己 名爍迦羅 眞實退轉 圓覺大道場 發徵萬日會 第二是康州 第三爲聳虛 傳至我禪師 上承清虛嗣 慈悲以爲用 勤苦以爲體 玉柱擎天屹 香象截流渡 牢握大願力 勇■大信志 善男信女 香花參供養 方行而等慈 一切成樂土 萬化繼遺躅 復讀第五會 寔師以啓之 迄今代不乏 維昔西方國 七處久會成 五會只一處 盛哉未曾有 金剛山千仞 東海波萬里 寶月掃空霧 祥飈息颶浪 伐石爲穹碑 螭覆神龜戴 嵯峨鎮山門 頂禮千萬祀

光武 甲辰七月

〈후면〉

山中

時院長 西念妙允

講主 印潭明禪

會主 高峰金容

立繩 玄應法藏

老德 浦蓮壯翊 玩峰普有 雙月昌信 寶雲本葉 青岩永策

時僧統 雲岩奉欣

首僧 升察

書記 壽天

僧族 玩虛亨淳 雲潭宜荷 錦岩宜薰

上佐 鶴林宜還 桂山幻周 寶元

禪 月山愚上 普應定基 義龍取淵 西坡善右

戒 楓桂惠明 東谷玄昊 惠雲在天 青月竺彦 南溟亘祚 惠谷理和 九蓮大仁 連荷啓昌

海蓮寶鏡

孫 雲波道念 性海道三

曾孫 寶山玟休 鏡月丙云 錦湖坦文 玟協喆玄

別座 太虛宗元

都監 錦仙坦法 月岩性旭

化主 萬化寬俊

寫 青湖學密

刻 松岳在郁 德連

1-10. 건봉사 연회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전서/해서체
- 건립 시기 : 1904년



건봉사 연회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건봉사 연회비는 건봉사 입구 부도전에 세워져 있다. 부도전에는 비석, 대석 등 약 88점의 석조물이 있다. 연회비 주변에는 제봉당탑(霽峰堂塔), 진각당탑(眞覺堂塔), 벽오대종사비(碧梧大宗師碑, 1904), 건봉사 사적비(乾鳳寺 事蹟碑, 1906)가 세워져 있다.

건봉사 연회비(乾鳳寺 蓮會碑)는 건봉사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의 본말(本末)을 기록한 비이다. 비는 1904년에 세웠다.

비문은 비신의 전면과 후면, 좌측면에 해서체로 새겼다. 전면 상단에는 자경 13cm 크기의 「乾鳳寺蓮會碑」라는 전액을 썼다. 비문은 총 5회의 염불만일회를 시행하면서 일어난 일화를 간략히 썼다. 비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염불만일회는 당나라 건원(乾元) 무술년(758)에 시행하였다. 신라의 발징화상(發徵和尚)이 산문(山門)을 주관하였다. 화상은 홍원(弘願)을 맹서하고, 두타(頭陀) 정신(貞信)과 양순(良順) 등 31인에게 청하여 미타만일연회(彌陀萬日蓮會)를 창설하였다. 29년이 지난 병신년(776) 7월 17일 밤에 아미타불(阿彌陀佛)과 관음세지(觀音勢至) 두 보살이 자금연대(紫錦蓮臺)에 올라 문 앞에 이르러 금빛으로 빛나는 팔을 벌려 염불하던 대중을 맞이하니, 대중은 모두 보고 뵈 듯이 기뻐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 대중을 거느리고 반야선(般若船)에 사십팔원(四十八願)을 부르며 백련화(白蓮華)의 세계로 가셨다.

두 번째 염불만일회는 고려 때 시행되었다. 고려에 이르러 고성을 고쳐 열산현(烈山縣)으로 하였다. 절은 서봉(西峰)이라 이름하니, 이 때 강주(康州)에 있는 아간장자(阿干長子)가 21명과 함께 연회를 다시 베풀고 같은 마음으로 서원(誓願)하는데 아간의 여종이 날마다 쌀 한 섬을 찢어 공양하였고, 틈틈이 대중을 따라 염불하였다. 어느 날 밤, 뜰 좌우에 말뚝을 세우고 손바닥에 새끼줄을 꿰니 홀연히 공중에서 소리가 들렸다. “정신녀(精進女)야 어찌 도량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냐, 속히 들어가거라.” 아간과 도량의 중생들은 일시에 놀라서 여종을 바빠 도량에 들어가게 하였다. 그 때 그녀는 한결같이 부지런히 힘쓰니 삼칠일에 이르러 육신이 뛰어올라 집의 들보를 뚫고 5리 가량 날아가 몸을 버리고 정토로 갔다.

세 번째 염불만일회는 조선 때 시행하였다. 본조에 이르러 열산을 고쳐 간성군(杆城郡)으로 하였고 절은 또 건봉(乾鳳)이라 이름하였다.

영조 임술년(1742)에 용허석민(聳虛錫旻)이 세 번째 연회를 베푸니 상서로운 조짐이 많았으나 사적을 잃어버려 상고할 수 없다.

네 번째 염불만일회는 철종 신해년(1851) 겨울에 시행하였다. 벽오유충(碧梧侑聰, 1813~1886)이 네 번째 연회를 동지(同志) 영암취학(靈巖就學) 동화축전(東化竺典)

과 함께 베풀었다. 오랜 시간 뒤에 두 사람은 입적하고 벽오화상 홀로 부지런히 힘쓰니 향도가 구름처럼 모였다. 4년이 지난 갑인년 여름에 두타영수(頭陀永守)가 치아사리 2매를 얻었으며, 연회를 베푸는 동안 전후로 모두 합하니 26매였다.

다섯 번째 염불만일회는 신사년(1881)에 시행하였다. 만화관준(萬化寬俊, 1850~1918)이 다섯 번째 연회를 베푸자 조병필(趙秉弼, 1835~1908)이 참선실을 건립하였다.

이후의 내용은 염불만일회를 찬미하는 명(銘)과 연회비를 제작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다. 비문은 조병필이 짓고, 김가진(金嘉鎭, 1846~1922) 썼다. 전액은 정학교(鄭學敎, 1832~1914)가 썼다.

비는 개석과 비신, 하대석으로 구성되었다. 개석과 하대석은 화강암, 비신은 섬록암으로 제작되었다. 개석은 팔작지붕의 형태이다.

비신 전면의 전액에는 주묵(朱墨)을 채운 흔적이 남아 있다. 하대석은 직육면체 형태로 윗면의 모서리를 귀접이하였다.

비좌는 112cm×74cm×32cm의 크기로 각 변의 모를 죽였다.

비신은 58.5cm×183cm×25.5cm의 크기로 3면 비이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2.55m이다.

〈비문〉

大韓杆城乾鳳寺萬日蓮會緣起

崇祿大夫議政府贊政內部大臣兼弘文館學士 趙秉弼撰

崇政大夫議政贊政農商工部大臣 金嘉鎭書

經曰 此去十萬億刹 有世界 名須摩提 譯云極樂國 有佛 號阿彌陀 譯云無量壽 寔上承賢劫七佛 下度苦海衆生之大聖人也 維時唐肅宗乾元戊子 新羅國固城縣圓覺寺 有發徵大和尚 法諱棟樑 住持山門 發誓弘願 請頭陀僧貞信良順等三十一人 刱設彌陀萬日蓮會 結香徒千八百二十八人 千七百人爲粥飯施主 百二十人 爲衣服施主 每歲歷諸家家 出米一斗香油一升五綜布一端 爲長年供具 至二十九年丙辰七月十七日夜半 大水暴漲于道場門外 阿彌陀佛與觀音勢至二菩薩 乘紫金蓮臺 至門前舒金色臂 接引念佛大衆 大衆咸見 歡喜踊躍 得未曾有 于是佛領大衆 上般若船 唱四十八願 往白蓮花世界 令生上上品 時棟樑 巡到金城 宿良茂阿于家是夜大光明 普照其室 棟樑驚起 與良茂阿干及家內男女出見 觀音菩薩 現身告棟樑 曰汝道場僧 蒙佛接引 西方淨土上上品生 速往見之言訖遂隱 棟樑欲卽往 良茂曰我師最初發願 謂如我愚迷等先度然後出世 我等亦謂二十九年 頗有徵勞 今

日何得棄我等 獨自往也 舉身擗地 号泣不已 棟梁乃率良茂等 往見三十一僧 肉身騰化 心生欣慶 向道場千三百與拜 然後茶毘之 因行歷香徒家 則九百十三人與道場衆 一時端坐而逝 餘九百七人尚存 棟梁還至道場七日 又見阿彌陀佛 持船命同載 棟梁白言 我香徒 猶有未度者 獨先往者 非本願 不復告言 十八人 可上品中生 其餘復令往業熟 然後來度也 告已遂隱 香徒聞之 悲泣懊惱 相謂曰我等不知作何罪業 獨未得往生乎 更加精勤 曉夜匪懈 又七日夜半 阿彌陀佛 復以船謂棟梁言 我以本願力 故迎汝與俱往也 棟梁謝而泣曰 若檀越有重罪 無往生分 誓入地獄 代受其苦 永滅其罪 使人人盡往生 然後當往生也 佛言止止 三十一人 上品下生 其餘汝宜先往 蒙佛授記 悟無生忍 智慧神通 還到人生 乃能度盡 棟梁聞佛教勅 信受稽首 卽奉佛足 上般往生西方淨土 其後至高麗 改固城爲烈山縣 寺名西鳳 于時有康州阿干長者 再設蓮會 與二十一人 同心誓願 阿干婢子 日舂一石米 供奉作務 以餘暇 隨大衆念佛 一日夜 於庭中左右釘櫬 貫掌繩次 忽空中有聲曰 精進女 何故不入道場 速往赴也 主阿干及道場衆 一時驚悚 命女赴道場 時其女 一念精勤 至三七日 肉身騰起 透穿屋樑 去五里許 棄身而往淨土也 寺北五里許 有燒身臺磊塔 遺蛻尚存 其後 屋樑之透穿者 自合而佛漏相傳 棟梁蓮會時有監院犯戒 轉身作浮石寺牛 載持華嚴經 如是身轉爲女 以供養念佛人因緣 獲是報云 以上第一第二蓮會 俱載本寺故蹟 至本朝 改烈山爲杆城郡 寺爲名乾鳳 英宗壬戌 有聳虛碩旻和尚 設第三蓮會 多瑞相 惜事佚不可攷 哲宗辛亥冬 有碧梧聰和尚 設第四蓮會 與同志靈岩就學東化竺典二公 矢志廣募 不數歲 二公遷化 碧梧獨力勤苦 香徒雲集 至四年甲寅夏 會得頭陀營守齒珠二 潤宜齒珠 錦允齒眼珠各一 五年乙卯 直覺呂玉閣維後 因放瑞光 收拾靈珠拾七 六年丙辰四月 海月快俊齒珠一 七月善日宜活齒珠各一 童子申應俊叅供養訖齒珠一 前後合二十六枚 皆樹石鐘以藏之 古謂本寺爲千浮屠道場者 至是以符 人莫不異之 至二十九年己卯 而訖功焉 越二年 我奉天承運皇帝階下御極十八年辛巳 萬化寬俊和尚 設第五蓮會 建叅禪室 今二十四年 以故事徵之 過五年 可以告竣矣 嗚呼大法之傳於東土久矣 白石趙姚晉 以及江南慧遠諸人 或有會 或有社 莫下強求至要 普結善緣 未聞有

證正果獲瑞應如是者 此發徵同時 支那則南北分宗 衣法南行 逮乎能公 順世清源 思南岳讓永嘉覺諸祖師 分化各方 其慧根玄解 立佛地位 後世宗之 亦未聞有親蒙接引生者 然則海東萬日之會 其可謂直接靈山龍華 而亘古貫今 獨尊於天下者歟 或曰第一會 見佛直身 第二會 聞空中聲 第四會 只得舍利 無乃今不及古 愈降而愈衰者乎 此大不然 昔我如來 應世化緣 同其時 有親囑咐者 有分遣弟子應化者 有學人自證而自入者 蹟雖殊 而理則一也 今寬俊 以願力 繼其芳躅 苟能一念精苦 時節因緣 果熟蒂落 則又安知不有蛤蜊之菩薩 粥餽之文殊 親降接引 超陞上

上品勝果歟 寺僧雲坡大蓮 將記五度蓮會故事于石 永鎮山門 走維那五百里外 謁余爲銘 余作而曰 善哉美哉 此歷三代千有餘載 未遑之盛舉也 且以自結東林之緣 托名爲幸 茲按其古蹟所記 節略書之 而繼以銘曰 至道之宗 自西而東 白馬馱經 榛棘始通 東而又東 鷄林之國 渤海滄波 悵峯黛色 天作勝區 烈山一方 西北之維 丹鳥若翔 乃降異人 直超大乘 烟附景從 善士高僧 阿闍法日 震旦慧月 馳光走彩 咸萃于一 無量光佛 左右補處 弭節道場 摩頂香侶 恒河倒流 輕風引帆 珠幢花盖 縹緲掩斂 生天成佛 佛命往生 種因得果 如形隨形 丫者徹春 龍女前超 髻者叅供 月光後邀 列星匪高 大地匪廣 百劫人間 一瞬天上 千年古刹 眞佛過處 三山五嶽 詎同日語 閣道虹亘 塔鈴雨紛 有屹穹碑 上罩祥雲 八部隱現 萬品依歸 我作是銘 詔後緇衣

光武八年甲辰三月日立

〈후면〉

青湖學密 惠庵處仁 焉庵永策 應湖師瓊 無影大英 東坡寶日 霽峰日昊 四輪斗三
智衍石■ 改協孝源 啓胤壽天 大永在■ 碧潭大奎 孚好■■ 禪和大■ 錦仙坦法
智■與法 寶輪知柔 白■宣冥 玟休海筌 東昕竺仁 錦完壽粲 玄■一二 漢月昌圭
■林宜還 ■岩布■ 學庵■■ 凌■柱■ ■松孝悅 蓮峰祐宣 求根能孝 智允竺岑
應機興雲 定禪■甲 鏡潭本日 玄應法壯 龍潭太英 遂月■悟 性海道三 大遂■文
雲潭宜荷 ■華普祥 ■觀■紀 錦昕炳根 智宗基煥 浦遂壯■ 性潭法念 雲坡道念
晦暝日昇 古■■■ 凌雲在雲 栗庵千百 ■■東雲 三日■勤 應完亨還 應■普洞
西念■允 月松宗燮 碧應與昨 月庵性旭 鏡月丙云 ■隱法眼 龍雲奉玩 ■爲在柵
■察覺敏 勤祐在根 ■依性玉 在英幸芸 雙月昌信 普應定基 雪巖奉欣 太應處源
映庵錫祚 印應■亨 高峰金容 ■雄智瑩 喆玆應旻 桂祥■學 巨門在順 ■庵天明
東林■■ 應化仁含 龍成■閏 雪爲■權 ■源■章 錦庵宜燠 戒■在律 大瑩■烈
■■■■ 尙念太息 寶■■■ 萬化寬俊 ■應■■ 日崙■■ 東谷■範 華潭斗三
普光再振 應讚法衍 龍珠春■ 普■宅■ ■敏竺曄 東爲玄昊 日坡彰基 太庵應煥
遂湖法守 定遂完順 仁潭■禪 璟湖萬雨 弘琇斗旻 ■祚鼎熙 宗及興祚 仁學幸文

1-11. 건봉사 사적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전서/해서체
- 건립 시기 : 1904년



건봉사 사적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건봉사 사적비(乾鳳寺 事蹟碑)는 건봉사의 사적(事蹟)을 기록한 비로, 1906년에 세웠다.

비문은 전면과 후면에 해서체로 새겼다. 전면 상단에는 자경 14cm 크기의 「杆城乾鳳寺事蹟碑」라는 전액을 새겼다. 전면의 비문은 건봉사의 역사를 시간 순으로 서술하였으며, 후면은 후원자 명단을 썼다.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간성의 건봉사는 신라 법흥왕 7년에 창건하였으니 때는 양나라 천감(天鑑) 19년 경자년(520)이다. 절은 이름을 모두 세 번 바꾸었는데, 처음에는 원각(圓覺)이라 하고, 고려 때에는 서봉(西鳳)이라 일컬었으며, 지금은 건봉(乾鳳)이라 부른다. 이는 절 서북쪽에 봉황과 같이 생긴 바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선 을유년(1465)에 세조가 동쪽으로 행차할 때 이곳에 5일간 머물면서 옛 자취를 살피고 특별하게 여겨 원당(願堂)과 어실각(御室閣)을 정하고 전토(田土)를 하사하였으며, 발원문을 손수 짓고 써서 하사하였다. 성종 경인년(1470)에는 효령대군(孝寧大君, 1396~1486)과 한명회(韓明澮, 1415~1487)를 보내어 사찰의 산을 봉하면서 사방 10리를 경계로 하여 건봉사의 스님들을 요역(徭役)에 동원되지 못하도록 하였다. 숙종 계해년(1683)에는 명성대비(明聖大妃, 1642~1683)가 불아탑(佛牙塔)을 세웠다. 불아(佛牙)는 곧 신라 자장법사(慈藏法師, 590~658)가 당나라 청량산에 들어가 모셔온 것으로 사명대사(泗溟大師, 1544~1610)가 일본에 가서 다시 봉환한 것이다. 영조 을축년(1745)에 봉서루(鳳棲樓) 앞에 있는 홍교가 무너지자 개축하였다. 갑술년(1754)에는 정성왕후(貞聖王后, 1693~1757)의 명으로 팔상전(八相殿)을 세웠다. 같은 해 8월에는 숙종 임금이 직접 그린 주운절함도(朱雲折檻圖)를 하사하였다. 무자년(1828)에 강원감사 정원용(鄭元容, 1785~1873)이 동 200민(緡)을 내어 사명비각을 짓고 또 영당(影堂)을 단청하였다.

이 절은 사명대사가 착발한 곳이며, 임진왜란 때 충(忠)에 의지하여 의승병을 모은 곳이기 때문이다. 헌종 병오년(1846)에 수북(水北)의 공전(公殿)과 요사가 불에 타자 간성군수 정재용(鄭在容)이 감사 박종길(朴宗吉)에게 보고하여 공명첩(空名帖) 300도를 바탕으로 중수하고 정미년(1847)에 공사를 마쳤다. 고종 을축년(1865)에는 화은 호경(華隱護鏡)을 초빙하여 강원(講院)을 개설하였다. 무인년(1878) 4월 3일에 절에 화재가 발생하여 3,183칸의 건물이 모두 불에 탔다. 군수 이주옥(李周鈺)이 관주(官廚)에서 밥을 지어 스님께 공양하였고, 5개 면민을 동원하여 초막을 만들도록 하였다. 곧 감사 홍재현(洪在鉉)에게 보고하고 한양에 전보를 하니, 영의정 이최응(李最應, 1815~1882)이 공명첩 500도를 내리고 예조에 모연문(募緣文)을 내렸다. 이듬해 기묘년(1879)에 대웅전, 어항각, 관음전, 사성전, 명부전, 범종각, 만일회, 보안원,

낙성정사 백화암 등을 중건하였다. 같은 해 7월에는 조정에서 가마와 기지(旗幟)를 하사 하고 범운(梵雲)에게 대웅전을 비롯한 단청불사를 하도록 명하였다.

경진년(1880)에 벽오 유충(碧梧侑聰)은 바다를 통해 배로 시왕상(十王像)을 모셔왔다. 신사년(1881)에는 완화군(緩和君, 1808~1880)을 위한 재를 베풀었으며 괘불번(掛佛幡)과 불기(佛器)를 만들었다. 을사년(1905) 봄에 명부전(冥府殿)을 고쳐 단청하고 논전을 세웠다. 같은 해 7월에는 순명왕후(순명왕후, 1872~1904)의 기일(忌日)에 재를 베풀었으며 이는 상궁 천씨(千氏)가 도왔다. 건봉사의 재와 계로는 세존성도재(世尊成道齋)·강탄재(降誕齋), 열반재(涅槃齋)·등촉계(燈燭契)·육생등갑계(六生等甲契)·상당어산서청계(上堂魚山書廳契)가 있는데 즉 천지와 더불어 서로 시작과 끝마침을 같이 하는 것이다.

건봉사는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기까지 1,400년을 지나왔으며 세 번이나 편역을 고쳐 달면서 3,100여 칸이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다시 복원되어 그 보수를 끝냈다. 병오년(1906)에 이 절의 승려 보운(寶雲)과 만화(萬化)가 산문(山門)의 발자취를 글로써 칭하니 마침내 간략히 써서 찬미한다.

비는 이근명(李根命, 1840~1916)이 짓고,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이 썼다. 전액은 정학교(鄭學敎, 1832~1914)가 썼다. 각자는 미상이다.

비는 이수와 비신, 귀부로 구성되었다.

이수와 귀부는 화강암, 비신은 섬록암으로 제작되었다. 이수의 전면과 후면에 용(龍)을 각각 두 마리씩 조각하였으며, 보주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측면에는 정면을 바라보는 용의 얼굴을 조각하였다. 양 눈과 넓은 코, 그리고 웃는 듯한 입을 묘사하였다. 윗면에 직육면체 형태의 상륜 받침을 두었다. 상륜 받침의 각 면마다 안상을 새겼다. 상륜 받침 위로 보륜, 보개, 보주를 올렸다. 보개는 연잎 형태인데 잎맥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보주의 전·후면은 범자(梵字)를 돌출새김 하였다. 귀부는 목이 두껍고 몸을 웅크린 거북의 형태이다. 머리와 귀갑은 서로 수평을 이룬다. 눈은 둥글며, 눈썹과 큼지막한 콧등이 연결되어 있다. 입은 작게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 사이에 혀와 이빨을 조각하였다. 목주름은 음각선을 새겼다. 앞발은 다소곳하게 앞으로 모은 모습으로 다섯 개의 발톱과 마디를 조각하였다. 등에는 이중으로 된 육각형의 귀갑문을 새겼다.

귀부는 287cm×192cm×70cm의 크기로 머리와 비좌가 수평을 이룰 정도로 평면적이다. 귀두(龜頭)는 길이 104cm, 폭 57cm로 비교적 길다. 비좌는 길이 110cm, 너비 57cm, 높이 1m이다. 비석 전체의 높이는 4.95m이다.

〈비문〉

大韓國 江原道 金剛山 杆城郡 乾鳳寺 事蹟碑

大匡報國崇祿大夫宮內府特進官 全城 李根命 撰
崇祿大夫宮內府大臣弘文館 學士 驪興 閔丙奭 書
通訓大夫前行大邱 判官 羅州 丁學教 篆

大韓皇國之東 有山 曰金剛 秀麗名勝 聞於天下 僧宮僧寮 環山而居者 無慮十百計 以杆城之乾鳳 爲第一新羅法興王七年所刱建時梁鑑十九年庚子也 寺凡三易名 始爲圓覺 在高麗曰西鳳 今稱乾鳳 盖以寺之西北隅 有鳳石故名云 至唐 肅宗乾元戊戌 新羅景德王十七年 有發徵棟樑 和尚 設萬日蓮會 至二十九年丙寅 滿萬日 而阿彌陀佛現身 度頭陀三十一人 肉身騰化 與香徒九百六十一人前後解脫 往生西土 寺北五里 有蛻之曉臺 零骨尙存 接一然所撰三國遺事云 發徵 觀音應現也 又唱云康州有阿干貴珍 募發徵芳每到彌陀寺惠宿所 發心念佛 家婢郁面 隨往庭參 櫛 繩貫掌 精勤不退 有空中教入堂 未幾從天樂 穿屋樑騰去 遺事所載 卽是史筆之詔後者 而發徵之誓願弘深可想也 屬寺有普琳庵 盤 陟絕 以石柱承軒檻 乃普琳祖師悟道處也 本朝乙酉 世祖東幸至此

駐蹕 五日閱故蹟大異之 定願堂御閣 賜田土 御製願文 親書下之 己丑 睿宗又定願堂 成宗庚寅 遣孝寧大君及上堂府院韓公明澮 封寺之山 東六松亭橋前 南革高芥險川 西高鎮嶺下二川 北獐項峙外大川 四方十里以爲界 勿侵徭役明宗庚戌 賜也非吝坪沓十石落 孝宗己丑 又定願堂 肅宗癸亥 明聖大妃建佛牙塔 佛牙卽新羅慈藏法師 入唐清涼山奉來 泗溟政公 往日本 更爲奉還者也 壬辰水北八房災重建焉 英祖乙丑 樓前虹橋圯 改築焉 甲戌 貞聖王后 命建八相殿 秋八月內下 肅宗御製折檻圖 丙申 貞純王后 命說國齊 純祖壬戌 有聳虛碩旻 繼發徵遺跡 設蓮會 多瑞相 戊子 江原監司鄭公元容 出二百緡 閣泗溟碑又丹腹 基影堂 盖寺卽溟落髮之所 而壬辰倭亂 杖忠募義於修 憲宗丙午水北公殿僧寮災 郡守鄭公在容牒報 監司朴公宗吉 啟蒙空名帖三百道重修 至丁未訖工 哲宗辛亥 有碧梧侑聰 繼說蓮會 得諸頭陀童子 齒眼骨舍利 竝浮屠藏之 古稱茲寺 爲千浮屠道場者驗焉 丁巳 郡守李公容學 捐俸六百緡 蠲僧番錢 癸亥 郡守李公仁會 給六百緡 蠲紙菰并付吏廳 今黃帝乙丑 華隱護敬 說法院 開堂普說 爲江北南第一講堂 戊寅四月三日 寺災 三千一百八十三間俱燼 郡守李公周鈺 以官廚飯僧 令五面民 覆草爲幕庇之 牒報監司洪公在鉉 轉報京師 領議政李公最應稟下空名帖五百道 自禮曹 下募緣文 以明年己卯 重建大雄殿 御香閣 觀音殿 四聖殿 冥府殿 泛鍾閣 萬日會 普眼

院 樂西精舍 白華庵 化主碧梧 寶雲栗岩石潭夢虛 靈潭龍湖荷隱翫溟西念越山監
董聖鳳雲溪雙月鶴林 七月 內下五千金乃輦旗幟 特命梵雲 主佛事丹腹役 冬十月
命中官李公敏和 定 萬壽聖節 千秋慶節 祝釐之所 命中官黃公壽筵 鑄雜役 庚辰
碧梧 奉十王像 舶海以來 寶雲十六像移安 仍爲化主 竣兩殿後幘 及丹腹役 又奉
旨 移寧邊藥山金口鍾 以官馬馱至 辛巳 完和君設齊 造掛佛幘 鑄佛器 化主栗岩
是年夏 萬化寬俊 設蓮會 今二十六年 秋中建普琳極樂二庵 丙戌 明聖王后 以宮
田之在高城郡桂月畔程某洞三坪者 折受屬寺 中宮黃公 允明奉 旨給量案完文 爲
祝香資 另助尚宮洪氏 庚寅 重建八相殿影閣爐殿極樂殿及■廠 化主仁坡萬化雲
坡星岩 董役鶴林碧應 辛卯 神貞王后小祥日設齊 癸巳 建獨聖閣化主丙云 建參
禪室 化主萬化 丁酉 明成王后大祥日設齊 戊戌 慶善宮命下 重建鳳巖庵化主晦
溟 己亥 又蒙內下 重建鳳棲樓 及丹腹重修大雄殿 佛相衣金 化主應湖 助尚宮申
氏 乙巳春 重葺冥府殿 枌爐殿 七月 純明妃小祥日設齊 另助尚宮千氏 寺有 世
尊成道齊 降誕齊 涅槃齊 及燈獨契 六生等甲契 上堂魚山廳契 則與天地相終始
矣 夫宮室莊園 有生者之所托也 以俗家言之 卽如石門錫瓦高臺典池 有成則有毀
乃理之常 至若梵宮僧舍 三世諸佛之所莊嚴 十方檀越所依歸 伽那那持 後先護持
獨專其壽 非俗家比者無他 不私於一己也 惟此乾鳳 白馬畢 青鳥升卜 歷三朝千
四百載 更三扁三千百間 災異復之 圯而修之 耽耽爲一國鉅觀 嵬嵬三寶宗刹 以
況迓翠華於蹕路 奉寶墨於仙楣 恩光攸暨 山海崇深 於皇萬年 以介景福 以至長
者居士守宰方伯 舉皆嚮風樂法 發願檀施道場之歷舊長新 寔爲不拔之地基也 其
可謂盛矣 歲丙午 寺僧寶雲萬化 以文踵門而請遂節略書之 讚美其開山之始 而垂
示來後 與無量河沙 同其年數云爾 銘曰維楓之岳 衆山所宗 佛力齋降 維桑之溟
百川所 國恩同大 寺始圓覺 同泰同時 十方住持 彌陀新現 度卅一人 騰虛肉身 寶
蓮三會 肇自發徵 嗣有法僧 鷄林鵠嶺 千四百年 應供福田 逮我昭代 玉趾天章 雲
門寶藏 華山之分 玉帶之鎮 鳳綵龜印 有施斯化 隨圯輒修 復閣重樓 城中相望 名
區巨刹 斯爲第一 丙午暮春 梵衆詢謨 同聲相求 乃勒故實 乃墮嵯峨 樹之山河 撰
次以書 繼之以銘 垂示億齡 咨爾神衆 山君海王 衛護無疆
光武十年丙午立

〈후면〉

乾鳳寺枌建 梁天鑑十九年 庚子新羅法興王七年 萬日會始 建元三年戊戌新羅景
德王十七年 自梁天鑑十九年至大韓光武十年歷年一千四百十五年

〈후면〉

惠庵處仁 碧潭大奎 玉月昌奎 鏡潭本日 浦蓮壯翊 西念妙翊 雙月昌信 寶雲本葉
東谷玄昊 孚如世珉 青庵永策 性潭法念 月松宗燮 普應定基 東林師惠 萬化寬俊
日坡昌基 應湖師瓊 禪化大賢 鶴庵法典 龍潭太英 雲波道念 碧應世旰 雪菴奉欣
應化仁含 錦仙坦法 艸庵世復 蓮月師悟 月庵性旭 晦暝日昇 龍成世閏 日崙明眞
南波寶日 凌虛桂明 性海道三 青隱世杲 鏡月丙云 雪谷善權 寶蓮完順 大蓮德文
凌雲在芸 霽峰仁昊 西輪斗三 寧隱法眼 仁虛時亨 混源世章 仁潭ㄸ禪 白虛宣寅
比丘 祐宣 宣荷 能孝 天錫 玟休 坦文 萬雨 太華 太薰 善宗 善雄 玟協 錫眞 戒眞
東芸 等芸 星察 再振 智寶 再律 斗昊 德蓮 智允 鳳觀 三暉 覺旼 喆玪 大永 龍株
致祚 孝源 笠仁 笠岑 鳳基 勤祐 應昊 相烈 春根 鳳根 東源
沙彌 鼎熙 啓胤 錦完 應機 錦昕 應完 東昕 在永 侑稱 斗弼 善鳳 壽天 興雲 柄根
辛芸 笠哈 枝學 致容 宅善 幸文 大成 玄照 定禪 智宗 宗旻 應訓 奇弘 三一 基口
亨運
三綱 首僧 宜熏
僧統 明虛寶鏡
書記 壽榮
淨閣 柳春實
都監 鶴林宜還
別座 弘秀 永根 宣熏

1-12. 건봉사 세존영아탑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전서/해서, 행서체
 - 건립 시기 : 1906년



세존영아탑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건봉사 세존영아탑비(乾鳳寺 世尊靈牙塔碑)는 적멸보궁(寂滅寶宮) 뒤편에 세워져 있다. 적멸보궁 뒤편에는 건봉사에 안치된 석가모니의 진신 치아사리(眞身齒牙舍利)에 대한 내용을 담은 비로 1906년에 세웠다.

비문은 전면과 좌측면은 해서체, 후면은 행서체로 새겼다. 전면 상부에는 「世尊靈牙塔碑」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으며 측면에 「大韓光武十年丙午立」이라 새겨져 있다.

세존영아탑비의 내용은 우측에 세워진 석가불치상입탑비(釋迦佛齒相立塔碑)(1726)의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관(貞觀) 12년 무술년(638)에 신라 승 자장법사(慈藏法師, 590~658)가 당나라 청량산(淸涼山)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받들어 돌아와 오대산(五臺山) 월정사(月精寺), 취서산(鷲棲山) 통도사(通度寺), 사자산(獅子山) 법흥사(法興寺), 갈래산(葛來山) 정암사(淨巖寺) 등 네 곳에 안치하였는데, 본조(本朝, 조선) 임진왜란 때에 일본이 보물임을 알고 훔쳐갔다. 그 후 갑진년(1604)에 사명대사(泗溟大師, 1544~1610)가 왕명을 받들고 일본으로 건너가서 진신사리를 반환 받아 여러 사찰에 분장(分藏)하였다. 그 때 영아(靈牙) 12매를 간성의 건봉사에 소장하였다. 건봉사는 사명대사의 스승인 신묵대사(信默大師)가 주석하던 곳으로서 관동(關東)의 명승지이다.

숙종 계해년(1683) 봄 궁내에서 금·은합과 비단 보자기를 하사하면서 탑을 세워 갈무리하고 그 옆에 비석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고종 15년인 무인년(1878) 화재로 절이 불탈 때 이 비 역시 훼손되었다. 그로부터 27년(1904)이 지나 어산청(魚山廳) 범음계(梵音禪) 승려 등이 “이렇게 오래되면 자연 소멸되어 만일의 경우 국은(國恩)과 불은(佛恩)을 갚을 길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염려하여 계원들이 계전(契錢)을 염출하여 공장(工匠), 석공을 시켜 돌을 다듬어서 비를 세우면서 자월 병운(慈月丙云)을 서울로 보내 나에게 비문을 청하였다. 나는 이 일이 국가를 위해 큰 다행이라 여기고, 절의 승려들이 부지런히 염불하며 위로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의 복을 비는 것 또한 가상하다 생각하여 마침내 이처럼 비문을 지어 돌에 새기도록 하는 바이다.

비문의 찬자는 윤용선(尹容善, 1829~?)이다. 서자는 박기양(朴箕陽, 1856~1932)이며, 각자는 미상이다.

비좌·비신·이수를 구비한 석비이다. 비좌는 125cm×63cm×45cm의 크기로 각 변의 상단에 모를 죽인 장방형의 형태이다. 비신은 57cm×184cm×27cm의 크기로 3면 비이다. 이수는 폭 100cm×38cm, 높이 90cm의 크기로 여의두문의 형태이다.

전면에는 지름 47cm의 원문 내에 태극문이 있는데, 좌우에도 이를 모본으로 한 문양이 양각되어 있다. 배면에는 상·하에 여의두문을 배치하고, 나머지 여백에는 안쪽으로 끝이 말린 호형(弧形)의 문양이 있다.

〈비문〉

金剛山乾鳳寺釋迦如來佛牙塔奉安碑

正一品大匡輔國崇祿大夫原任議政府議政 奎章閣 學士勳曠一等 海平 尹容善 撰
正二品正憲大夫議政府 前贊政 潘南 朴箕陽書 并篆

唐貞觀十二年戊戌 新羅僧慈藏入唐清涼山 奉釋迦頂骨舍利牙齒牙袈裟數珠而還 藏于五臺驚棲獅子葛來四山 本朝壬辰之亂 日本人以爲寶持去 其後甲辰 僧泗溟 御命入日本 遍尋而奉還 分藏于諸寺 而靈牙十二枚 藏杆城之乾鳳寺 盖寺即泗溟之師信默卓錫之所 爲關最勝之區也 肅宗癸亥春 內下金銀盒綵袱 命建塔而藏之 碑于其傍 今皇帝十五年戊寅 寺災 碑亦燼焉 越二十七年甲辰 寺之魚山廳梵音禪僧等 恐久而事佚 無以報國恩佛恩於萬一 乃出禪錢 命工治石 將碑之 遺其徒慈月炳云 走京師五百里 求余爲文 余未嘗學浮屠家書 然嘗聞其教 以此世爲浮漚 此身爲皮囊 常欲厭棄之 以火代葬 著爲其家法 夫其身且不恤。何有於千年之骨乎 又嘗聞其說 曰說有者 欲人覩相 而生善心 說無者 欲人離相 而見自性高明者 體其無 愚夫愚婦 信其有 然而高明者少 而愚夫愚婦皆是也 故必令天下愚夫愚婦 瞻 萬字而起景 仰八相而懺罪 相與棄惡爲善 舍利取義 然則焉可不有其骨乎 夫其有不有之間 吾不能多辨 然世道之不如古久矣 倘使天下愚夫愚婦 因此而發其善念 以之爲良士 以之爲貞婦 則豈非人國人家之厚幸也 我且聞 梵音禪僧 面壁多年 勤於念佛 一朝奮發 以就鉅役 上爲國家所命 下爲衆生造福是又可嘉也 遂不辭而撰次如右 俾刻諸石。

大韓光武丙午立

〈후면〉

山中

慧庵處仁 碧潭大奎 沃月昌奎 鏡潭本日 浦蓮壯翊 天鳳妙允 雙月昌信 寶雲本葉 東谷玄昊

孚如世珉 青菴永策 鶴林宣還 性潭法念 月松宗燮 普應定基 東林師惠 萬化寬俊 日坡彰基

應湖師瓊 禪化大賢 鶴菴法典 龍潭泰英 雲坡道念 碧應世昨 雪巖奉欣 應化仁含 郎應無法

大庵應煥 錦仙坦法 草庵世復 蓮月師悟 太虛宗源 月庵性旭 晦明日昇 龍成世閏 日崙明眞

枏坡旻旻 智鳳無法 凌虛桂明 性海道三 青隱世杲 鏡月丙云 映庵錫祚 蓮明德守

雪谷善權南谷能範 霽峰日昊 寶蓮完順 蓮德文 西輪斗三 白虛善權 寧隱法眼 凌雲在芸 印虛時亨

混源世章 華潭斗三 仁潭明禪

比丘 祐宣 宣荷 相賢 能孝 泰錫 玟休 坦文 浮荃 重連 万雨 泰乎 泰圭 善宗 善雄 戒眞 應賢 玟協 錫眞 三暉 東芸 ■連 星察 再振 智瑩 再律 是明 斗昊 智允 是眼 象觀 喆玪 大永 龍株 致祚 覺玟

沙彌 孝源 笠仁 笠岑 象圮 象勤 ■祐 應旻 相烈 秀芸 春根 鼎熙 啓鳳 錦完 應機 錦昕 應完 ■侃 桂祥 善象 壽天 壽粲 興雲 柄根 宗昊 道亨 象依 枝學 枝容 興祚 大成 玄照 定禪 智宗 宅善 應訓 東照 興奎 ■得 仁鶴 智律 竺哈 琦弘 三一

施主 金山万 法影成 緣化

都監 鶴林宜還

別座 弘秀 永根 宜熏

三綱 僧統 明虛寶鏡

首僧 宜熏

書記 本昕

淨閣 柳春實

1-13. 건봉사 제2미타회연기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04년



제2미타회연기비

■ 조사내용 ■

건봉사 제2미타회연기비(乾鳳寺 第二彌陀會緣起碑)는 9세기 초에 건봉사에서 조직된 결사(結社)에서 있었다는 여자 종인 옥면(郁面)의 활동을 기록한 비로, 1908년에 세웠다.

비문은 전면에만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전면 우측에는 ‘대한제국금강산건봉사제2미타회연기비(大韓帝國金剛山乾鳳寺第二彌陀會緣起碑)’라는 제명이 새겨져 있다. 건봉사 제2미타회연기비의 내용은 『삼국유사(三國遺事)』 권5 「감통(感通)」7에 나와 있는 ‘옥면비염불서승(郁面碑念佛西昇)’의 기록과 유사하다.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당나라 헌종 원화(元和) 3년 무자년(808)에 화주(化主)인 혜숙 법사(惠宿法師)가 도속(道俗) 21인과 더불어 염불만일회(念佛萬日會)를 결성하였다. 그 가운데 강주(康州,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의 아간 귀진(阿干貴珍)의 여자 종인 옥면(郁面)이 있었다. 옥면은 매일 저녁 일경(一更)에 쌀 두 섬을 찢어 놓고 손바닥을 뚫어 끈으로 묶은 뒤 주인을 따라 정진하였다. 8년째 되던 해 을미년(815) 1월 21일에 홀연히 서쪽 하늘로부터 풍악 소리가 들려오더니 상서로운 기운이 공중에 가득하였다. 이 때 옥면은 밝은 빛을 크게 비추면서 천장을 뚫고 허공으로 날아 올라갔다. 그 뚫고 올라간 구멍이 둥근 데도 비가 새지 않았다. 그녀의 유골은 육신대(肉身台)에 봉안하였다.

비문의 찬자는 만화관준(萬化寬俊), 서자는 상렬(相烈)이며, 각자는 미상이다.

비는 장방형의 비좌와 비신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좌는 112cm×74cm×32cm의 크기로 각 변의 모를 죽였다. 비신은 58.5cm×183cm×25.5cm의 크기로 3면 비이다.

재질은 모두 화강암이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2.85m이다.

〈비문〉

大韓帝國金剛山乾鳳寺第二彌陀會緣起碑

大唐憲宗元和三年戊子 化主惠宿法師 與道俗二十一人 同盟結社 而其中 康州阿干貴珍之婢郁面 每夕一更 舂米二石 穿掌係繩 隨主精進 至八年己未正月二十一日 忽然天樂西來 瑞相滿空 郁面放大光明 透梁騰去 其穴圓而不漏 遺骨奉肉身台 讚曰 西隣古寺佛燈明 春罷歸來夜二更 自許一教成一佛 掌穿繩子眞忘形
隆熙二年戊申孟秋 立 萬化述 并書

1-14. 만화대선사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행서체
- 건립 시기 : 1918년



건봉사 만화대선사비

■ 조사내용 ■

만화대선사비(萬化大禪師碑)는 건봉사 입구 부도전에 세워져 있다. 만화대사를 기록한 비로, 1918년에 세웠다.

비문은 전면에는 해서체, 후면에는 행서체로 새겼다. 전면 상부에는 자경 8cm의 크기의 「萬化堂大禪師碑銘」이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대사의 법명은 관준(寬俊)이고, 성은 정(鄭)씨이다. 조선의 개국 공신인 삼봉(三峯) 정도전(鄭道傳)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가선대부(嘉善大夫)인 진록(振錄)이고 어머니는 최씨(崔氏)이다. 경술년(1850) 11월 23일에 간성 용포(龍浦)의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으며 자(字)를 쌍룡(雙龍)이라 하였다. 일찍이 성품이 총명하고 남보다 뛰어났는데, 나이 13세에 출가할 뜻이 있었다. 부모가 난색을 보이자 허락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여 마침내 부모님의 승낙을 얻었다. 건봉사에 이르러 금현(錦玪) 장로에게 출가하였다. 갑술년(1874)에 건봉사의 승통(僧統)에 오르고, 3년 후 정축년(1877)에는 전등사(傳燈寺) 총섭(總攝)으로 옮겼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건봉사가 불에 탔다. 이에 분연히 일어나 모든 자리를 내놓고 건봉사로 돌아와 화주(化主)로 직접 뛰면서 모연(募緣)하니 몇 년 안 되어 다 복원하였다. 광무 5년(1901)에 승진하여 ‘부정수교 전 불심인 대각등계존자 전 수호 오대산 적멸보궁 겸 팔도승풍규정 도원장’이 되었다. 또 관동도 교정(關東道 敎正)을 맡기도 하였다.

무오년(1918) 가을에 시봉(侍奉)하는 상좌(上佐)에게 말하였다. “올해 9월 13일에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대로 과연 들어맞았다. 대사는 그 날 아침에 일어나서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여러 사람을 불러놓고 열반게송(涅槃偈頌)을 불렀다. “극락 세계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으니(極樂自心地), 삼세의 부처님을 어찌 용납하리오(荷容三世佛), 삼세가 비록 장엄하라고 하지만(三世雖莊嚴), 부처님마다 각각 저 나름의 부처라네(佛佛自佛身), 끝없이 넓은 우주 허공 가운데(十方 허공중), 나라는 부처님도 그러하나네(我佛本如然).” 게송을 끝내고는 단정히 가부좌(坐不坐)를 하고 앉아 서쪽을 향하고 숨을 거두니, 세수는 69세였고 법랍은 57세였다.

비문의 말미에는 만화대사의 업적을 찬미하는 4언 20구의 명(銘)이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만화대사비를 제작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비문의 찬자는 윤희구(尹喜求, 1867~1926), 서자는 김돈희(金敦熙, 1871~1936)이며, 각자는 김창웅(金昌雄)이다.

비는 개석과 비신, 하대석으로 구성되었다. 재질은 개석과 하대석은 화강암, 비신은 흑색사암이다. 개석은 팔작지붕의 형태이다. 개석의 각 귀퉁이에는 추녀와 사래를 조각하였는데, 추녀마루가 날카롭게 조각되어 솟아올라 있다. 개석의 아랫면은 겹처마를 조각하였다. 비신은 파손된 부분이 없지만 비신 전면 하단 부분에 지의류가 남아 있다. 하대석은 윗면의 모서리를 귀접이한 직육면체 형태이다. 비좌는 105cm×88cm×46cm의 크기로 각 면의 모를 죽였다. 비신은 62cm×183cm×35cm의 크기로 2면 비이다. 비석 전체의 높이는 2.72m이다.

〈비문〉

扶宗樹教傳佛心印大覺登階尊者守護五臺山寂滅寶宮兼八道僧風糾正都院長
萬化堂大禪師碑銘 并序

前嘉善大夫碑閣知制誥東宮侍讀 海平 尹喜求 撰

前通政大夫檢事 月城 金敦熙 書并篆

同一法也 或謂東震 殊異乎西竺 而像季之於 古德遠矣者 是大不然 無論自利利他 并無論是大是小 其爲精進則同一修行也 圓滿則同一功德也 我聞諸佛法 有謂萬日念佛會者 雖在彼方華嚴經道場 尙云七處九會而已 今於乾鳳一處 乃至四會 盛矣哉 未曾有也 乾鳳者 金剛淨土也 新羅景德王十四年 發徵和尚 勅第一會 至元聖王二年回向 有善男女等三十一人 肉身騰空 我純祖二年 爲聳虛二會 哲宗二年 爲碧梧三會 並回向如法 至高宗十八年 爲第四會 則萬化堂大師其人也 師諱寬俊 本鄭氏子 開國功臣三峰公之裔也 父嘉善大夫振錄 母崔氏 夢雙龍 感而有身 章帝初元 庚戌十有一月二十有三日 舉于杆城龍浦田舍 就以雙龍字之 夙根聰穎 若有頓悟者然 甫無勺有出家志 父母有難色 不然不廻 竟獲允 遂至乾鳳寺 從錦珖長老 零染受鉢 是於虎巖淨公 爲九燈矣 受淨戒于大虛遊公 禪懺于聖鳳安公 卽壬申 補釋王寺香官 尋選本寺■畫化主 功既藏 翌年甲戌 進僧統 越三年丁丑 遷傳燈寺總攝 無何 本寺燬 稽然解印歸 ■履行化 不數年悉復之 其嗣會之始 則爲辛巳 而師年三十二矣 副開華嚴法會五十數所 化檀越八千數 久之文膺本寺 重建化主 建八相殿極樂殿凝香影閣等 光武五年 陞爲扶宗樹教傳佛心印大覺登階尊者 守護五臺山寂滅寶宮 兼八道僧風糾正都院長 間爲關東道教正 既而爲本寺立石 紀實甚悉 此其因緣作用之餘也 會將滿 爲國家朝宗及法界幽靈 先千日作無遮大會 至隆熙二年九月終焉 於是飛錫嶺湖間 或至漢師 棒喝循循爾 然機鋒微露 無不昨舌也 僧問一座鐵幢高 百仞周十圍 無地可着 可能爲人建樹否 師曰有能舉似者 我當拳碎已 戊午秋 謂侍者 日小子識之 是年九月旬三 吾當歸真矣 果驗 其日味爽 澡浴淨衣 號衆而訣 日極樂自心地 何容三世佛

三世雖莊嚴 佛自佛身 十方虛空中 我佛本如然 說已端坐 向西而化 壽六十九 臘五十七 方涅槃也 有彩虹亘于西 既閣維之 現靈骨一 師身長八尺餘 口四十齒 驅甚重 其聲吼鍾然 然燕坐望之 若喬嶽 ■出定應物 婦孺可狎也 嘗之都鄙 或有惡少 詬弄 亦笑領之而已 座下龍象 無慮數十百衆 今其門徒將碑焉 以予友鎬上人 所爲大師行略 乞予銘 余嘗於法者 惡能知大師乎 惟鎬上人是徵 銘曰

日十二時 一時八刻 分分秒秒 念念正覺 一日二日 至于萬日 念念正覺 萬日如一 是卽修行 是卽功德 天上天下 無他別法 誰歟爲者 爲萬化師 師在何處 念之則來

師在在處 碑則在此 後五百年 如是如是 古所謂人人豪傑者 雖載籍極博 然渺漠千載 吾不得見之 則惡可盡信己 且近前輩中 僅得見三老 曹溪之函溟老 金山之龍溟老 及此楓嶽之萬化老 師真不愧大人豪傑耳 殆以入山藏光 因無大用於天下國家 自不市赫赫技能 然難掩者天資也 故卓穎之氣魄 雋偉之風神 有竊比於廬山遠赤眼宗焉 爾鳴乎 自茲老師 潛輝鳳林 東山寂寞 滄海橫流 端巖蒼稜之容止 得復參觀於何日 賴有繼席龍象 能播揚祖道 圖永先師英烈 使得于堂雅文 惺堂健筆 立石以銘之 若鎬 嘗欽家風 非敢後者 可無附一 言乎驥尾

甲子肇夏 映湖鼎鎬 謹識

〈후면〉

法恩嗣 應化 圓應 月庵 中庵 松岳 慧海 仁牧

法嗣 雪巖 日庵 映庵 東坡 春坡 寶輪 海松 太虛 德雲 龍化 虎山

禪師 無影 桂虛 德船 麒庵 月海 清湖 蓮湖 東昨 西輪 煥巖 混源 鏡濟 坦月 聳荷 影潭 景松 梵山 鏡湖 明玉 智演 三愚 性祐

戒嗣 青雲 石霜 錦巖 白虛 慈雲 錦城 坦庵 寂熙 欽性 玄庵 日丘

法恩孫 大蓮 洪明 應虛 石庵 隱庵 鏡虛 聳湖 古庵 金峰 石頭 尙變

法孫 南坡 霽峯 寶蓮 龍雲 萬巖 華潭 徹虛 東庵 藕潭 金河 龍溟 蓮峰

法思曾孫 古光 世峯 道庵 香巖 聖權 東湖 相奎 鐘雲 燦仁 三龍 良默 昌浩

法曾孫 高峰 大輪 普光 春庵 春坡 萬虛 石荷 蓮藕 幻潭 榮璣

普協 學演 斗石 己炫

法恩高孫 道深 光眞 秉周

法高孫 大愚 靈粲 永悟 重連

法六世孫 景玉 景石

門庭 浦蓮 荷潭 西念 德翁 貫虛 禪和 錦仙 圓翁 連月 坦翁 雙運 楓湖 圓應 圓虛

震宇 瀉虛 惺虛 萬應 應悟 玄鏡 雄坡 應坡 應山 普祥

侄 在鉉 在鎬 在鉢

從長孫 鍾氣

時住持 霽峰

監事 金峰

法務 萬海

書記 義燮

石工 尹東根

刻工 金昌雄

1-15. 건봉사 법우경원대공덕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36년



법우경원대공덕비

■ 조사내용 ■

건봉사 법우경원대공덕비(乾鳳寺 法雨經院大功德碑)는 건봉사의 강당 건물 뒤편에 세워져 있다. 비 주변은 풀밭으로 뒤덮여 있다.

이 비는 백화암 법우경원(法雨經院)을 설립한 청신녀(淸信女) 법우행(法雨行)의 생애와 공덕을 기록한 비로, 1936년에 세웠다.

비문은 전면과 후면, 우측면에 해서체로 새겼다. 전면 상부에는 자경 11cm의 「法雨經院大■■■」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다. 전액 아래에는 세로 두 줄로 「前議政府贊政驪興閔公丙漢」/「淸信女甲子生平昌李氏法雨行」이라는 제명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 세로로 자경 7~11cm의 크기로 「永思不忘碑」라는 제명이 새겨져 있다.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신녀(淸信女) 이법우행(李法雨行)은 평창(平昌)에서 태어났으니, 이름은 효열(孝烈)이다. 고종(재위 1863~1907) 갑자년(1864)에 출생 하였는데, 임신될 때와 어린 날에 이미 오랜 전생에서 심은 선근(善根)을 드러내는 것이 많았다. 장성해서는 의정부찬정(議政府贊政) 여흥 민씨(驪興閔氏) 병한공(丙漢公, 1861~?)을 부군으로 섬겼다. 두 사람이 모두 고관을 배출한 집안이자 고귀한 문벌이었지만 조금도 부귀에 의해 물드는 것이 없었다.

그리하여 항상 청정하기를 염(念) 하며 스스로 행실을 닦고, 묘향산(妙香山) 혜암선사(慧庵禪師)를 예배하여 법우행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리고 이로부터 40여 년을 신봉함이 하루와 같아서 해마다 방생(放生)을 행함이 열 번이며, 다달이 십재(十齋)를 지켜 일생에 걸쳐 조금의 게으름도 피우는 일이 없었다. 그리하여 일금 6,200여 원으로 토지를 구입해 해인사(海印寺)에 기증해 부모의 명복을 빌었다. 또 생각하건대 부처님의 혜명(慧命)을 잇는 길로 학인(學人)들로 하여금 경전의 가르침을 배우게 하여 불교계의 동량(棟梁)이 되게 하는 것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때문에 모아둔 가산을 기울여 『법화경(法華經)』을 공부하는 학인들에게 양식을 공양한 바 있었다. 그리고 이제 경원(經院)을 만들려고 백화암(白華庵)을 중수하여 건봉사의 면목을 일신(一新)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금 2만 수천여 원을 내던져 4만 3천여 평의 땅을 사서 건봉사에 기부하면서 경원을 유지하라고 하였다. 이에 대중들이 한 목소리로 합장하며 말하길 “이 암자(白華庵)는 옛날 사명대사가 주석하던 신령스러운 장소라 지금에 이르도록 창연한 비석이 엄연히 남아 있고, 또 터가 높고 시원하며 숲의 울창하기가 온 금강산 중에서도 으뜸이다. 그러므로 진리의 꽃(法花)이 펼쳐지고 진리의 비(法雨)가 흐르는 곳이기엔 적합하다. 경전을 강론하고 선리(禪理)를 탐구하기에 이곳보다 나은 곳은 없으리니, 가히 장소와 사람, 때와 일이 서로 부합한 것이다. 어찌 그 법명(法名)으로 이름을 삼아서 기념하지 않으랴?”라고 하였다. 그리고는 법우경원(法雨經院)이라 명명하고 나에게 비명(碑銘)을 청하였다.

비문의 찬자와 서자는 권상로(權相老, 1879~1965)이며, 각자는 미상이다.

비는 개석과 비신, 하대석으로 구성되었다. 비신은 흑색사암, 개석과 하대석은 화강암이다. 개석은 팔작지붕의 형태이다. 개석에는 추녀와 사례를 조각하였는데, 추녀마루가 높이 솟아올라 있다. 비신은 전액 부분이 파손되어 글자 일부가 결락되었다. 하대석은 직육면체 형태이며, 윗면의 모서리를 귀절이로 마감하였다. 하대석의 상부에는 낮은 비좌를 조각하였다.

비좌는 장방형으로 76cm×50cm의 크기로, 하부가 매몰되어 있다. 비신은 높이 175cm, 폭 61cm, 두께 30cm의 크기로 3면의 비이다.

〈비문〉

法雨經院設立碑

大本山金剛山乾鳳寺白華庵法雨經院設立
大功德主清信平昌李氏法雨行永思不忘碑銘并序

恭惟證理曰佛載道者 經經尊如佛以也 金剛經云 一切諸佛及 諸佛阿耨多羅三藐三菩提法階從見經出 又云經典所在之處卽爲 有佛若尊重弟子苟 有一卷經雖無塑繪之像零染 之重三寶之自然具足審矣故 書寫受持已登五品之位讀誦解說還勝七寶之施 是之教人持誦與自持誦其 福正等教人研鑽較自研鑽其 事尤難非夙植菩提善根者其 孰能之哉 今有清信女李氏法雨行籍平昌名孝烈考通政大夫諱鍾永妣淑夫人 密陽朴氏生 於高宗元年甲子 胚胎之時鹹齏之日已多宿根現露處 及長事議政府贊政驪興閔公丙漢俱簪纓高族綠綺世閥 然不爲 富貴所染恒念清淨自修禮妙香山慧庵禪師受法雨行號自後四十餘年 信奉如日一年年行放生者十回月月持十齋 於一生未嘗有少懈焉年前 以六千二百餘圓買土 而納諸海印資父母冥福又以爲 續佛慧命莫若使學人讀習經教而成就棟梁及傾 其所儲供法華經糧今 又欲設經院重修白華庵而一新之且損 二萬數千餘圓買地得 四萬三千餘坪而寄附於寺曰 以此作經院維持於 是大衆齊聲合掌曰 希有哉 庵古 泗溟大師卓錫之靈場只今紺碣儼然 且其基址之埭塏林樾之翳蔚爲 一山之最宜乎法花之所 開敷法雨之所 流霑講經談禪舍此靡它則可謂地與人時與事相得矣 盍以其法名名之 而紀念之哉仍命名 以法雨經院馳書走人要余作銘 銘曰 金剛山出東海東磅礴奇峭天下雄 幾多紺園與琳宮 惟茲乾鳳擅其中 地得靈處道不窮 人有信時運自通霑 然法雨下天風 芬陀利華重玲瓏 講鍾欲啞復扣洪 禪燈將熄更則紅 請君看取十方空 功德無邊 同不同

世尊應化二千九百六十三年丙子四月灌佛前三日雲達山安東退耕相老撰并書

〈후면〉

大本山乾鳳寺
住持 寶蓮完順
監務 東庵常一
監事 隱庵學守

法務 雲耕病奎 山中老德 柱虛師旭 錦山坦法 雪巖奉欣 東化大昨 玄庵貞烈 圓翁

德性 凌虛柱明

霽峯日昨 連湖德守 鏡月丙云 大蓮德文 翠庵世徹 西應景熏 寧隱法眼 錦庵宜勳

密雲世運 東溟永根 錦湖坦文 蓮雲世察 鏡峯容國 蓮庵機三

引勸化主 經院講師 日字振鏞

監役 裕庵在晟

監院 海耕己祚

昭和十一年 五月日

1-16. 건봉사 극락교염불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2-1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41년



건봉사 극락교염불비

■ 조사내용 ■

건봉사 극락교염불비(極樂橋念佛碑)는 건봉사 불이문 좌측 건너편에 세워져 있다. 극락교는 원래 묘적천(妙寂川) 입구에 축조되었으며, 그 주변에 비가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1966년에 저수지를 축조하여 극락교와 염불비가 수몰되었다. 현재의 비는 1982년에 수몰지에서 수습된 것이다.

극락교염불비(極樂橋念佛碑)는 건봉사 극락교(極樂橋)의 유래를 기록한 비로, 1941년에 세웠다. 비문은 전면과 후면에 한자 해서체로 새겼다. 비의 전면에는 「極樂橋念佛碑」라는 전액을 새겼다. 그 아래에는 세로로 ‘나무아미타불(南無阿彌陀佛)’이라는 글씨를 가운데 크게 새겼으며, 그 좌우로 6언 8구의 비문을 음각하였다. 비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다리 건설의 주관자는 누구인가
낙서암에 해마다 모이는 사람들이라네
소신했던 산자락에 무지개처럼 솟았으니
묘적동 냇물이 그 아래로 흘러내리네
일 이룬 뒤에는 깨달음의 바다로 나아가고
일 있기 이전에는 종사들을 본받았네
현세에 맹세코 자성을 닦으면
내세에는 반드시 극락으로 가리라

비의 후면에는 비의 제작 시기와 제작 당시 건봉사의 승중(僧衆)이 247명이었다는 기록이 새겨져 있다. 비문의 찬자, 서자, 각자는 모두 미상이다.

비는 개석과 비신, 하대석으로 구성되었다. 재질은 모두 화강암이다. 개석은 3단의 타원형이 겹친 듯한 여의두 형태인데, 개석 전면의 1단에는 3개, 2단에는 1개의 원을 새겼다. 원 안에는 범자(梵字)가 새겨져 있다. 원 바깥의 여백에는 꽃무늬가 음각되어 있다. 개석 후면에는 2개의 선이 그려진 원이 새겨져 있다. 비신 전면 상단에는 아래로 향하고 있는 연꽃 줄기가 좌우 대칭으로 배치되어 있다. 전면 하단은 화반(花盤)에 꽃힌 연꽃을 중심으로, 좌우대칭으로 갈라져 나온 연꽃 줄기 문양을 장식하였다. 비신 전면의 우측 모서리는 가로 8cm, 세로 9cm 크기로 파손되었다. 하대석은 지면 위에 윗면만 드러나 있어 온전한 모습을 알 수 없다.

〈비문〉

本橋建之主誰 樂西庵之歲會
燒身麓之虹亘 妙寂洞之川流
南無阿彌陀佛
功后推之貫海 事前效之宗師
現盟修之自性 來卽去之蓮邦

〈후면〉

昭和 十六年 秋 立
時 本末僧衆 二四七人

1-17. 군수 이공최원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788년



군수 이공최원 영세불망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군수 이최원 영세불망비는 부도전 입구에 세워져 있다.

장방형의 비좌는 95cm×40cm×40cm 크기로 상면에는 66cm×21cm×9cm 크기의 비공이 있다. 비신은 66cm×145cm×20cm의 크기로 3면 비이다.

비의 전면 중앙에 「郡守李公最源補寺愛僧永世不忘碑」라 새기고 우측에 4행씩 「一寺拱後 我公恩德」 좌측에는 「榻前秦除 山以海如」라 새겨져 있다. 비의 후면에는 「崇禎後五百十二戊申立」라 새겨져 있으며 건립 시기는 1788년(정조 12)에 건립되었다.

1788년(정조 12) 8월 「정조실록」에 따르면 임금이 건봉사(乾鳳寺) 중의 폐단을 전주 판관(全州判官) 이최원(李最源)에게 물었다. 건봉사는 간성(杆城)에 있는데, 그가 전직 간성 군수였기 때문이다. 전교하기를 “이 절은 중요함이 여느 절과 다르다. 이미 열성조(列聖朝)의 어필(御筆)을 봉안하였으니, 지금에 미쳐 소생 시키고 구제하는 일을 잠시도 늦출 수 없다.

이른바 궁납(宮納)과 잡비(雜費)가 면세(免稅) 받은 전결에서 생산되는 것에 비하여 10배 뿐만 아니라 하니, 이미 그런 말을 듣고서 어찌 그대로 둘 수 있겠는가. 특별히 아울러 탕감하라. 그리고 당해(當該) 궁(宮)에서 만일 다른 방도로 수탈하는 폐단이 있거든 순영(巡營)은 그 사실을 보고하라”고 하명하였다.

1-18. 군수 이공용학선정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군수 이용학 선정비

■ 조사내용 ■

군수 이공용학 선정비는 부도전 중앙에 세워져 있다.

장방형의 비좌에 1석으로 조성된 비신과 이수를 올렸다. 비좌는 83cm×53cm×15cm 크기의 자연석이다. 비신은 95cm×35cm×20cm로 자경은 6cm이며 비의 전면 중앙에 ‘郡守李公容學善政碑’라 새겨져 있고, 우측에 4자씩「審役銅補, 我僕功德」 좌측에는 「寺役亦滅, 永世頌祝」라 새겨져 있다.

이수는 전면에 초화 문양이 새겨져 있고 크기는 39cm×23cm×23cm이다. 비의 전체 높이는 1.37m이다. 1928년 한용운의『사적지』에는 1857년(철종 8)에 간성군수 이용학이 자기의 봉급에서 600꾸러미를 마련하여 관아에 보관하고 그 이자로 매년 70여량씩 남한산성에 납부하는 승번전(僧番錢)을 대납토록 하였다.

1-19. 대공덕주능허당대선사기념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28년 3월



능허당대선사기념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능허당(凌虛堂, 1868~1949)대선사 기념비는 건봉사 부도전 북쪽에 세워져 있다.

장방형의 비좌와 비신, 이수를 갖추고 있다. 비좌는 103cm×70cm×32cm크기의 자연 석이다. 탑신은 52cm×138cm×21.5cm의 크기로 각 면의 모를 죽였다.

비신은 95cm×35cm×20cm로 자경은 6cm이며 비의 전면에 3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앙에 자경 10cm의 크기로「大功德主凌虛堂大禪師紀念碑」라고 새겼고, 후면에는 자경 4cm의 크기로「佛紀三九三五年戊辰三月日立」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옥개 석은 8작 지붕의 형태이다. 비석 전체의 높이는 1.93m이다.

〈비문〉

大功德主凌虛堂大禪師紀念碑

許施萬金巨額 守護三寶之道 願納數十筆沓 特爲獨擔檀越 重輯虹橋之役 永作無量功德

〈후면〉

主事時 住持 大連德文

監務 日宇振鏞

監事 世峰圭鉉

法務 東庵常一

副院長 寶雲本葉

前住持 雲坡淨念 霽峰日昨

1-20. 보성당두석대종사탑비

개요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오석, 예서체
- 건립 시기 : 2000년 9월 3일



보성당두석대종사탑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보성당두석대종사탑비(寶城堂斗石大宗師塔碑)는 건봉사 부도전 북쪽에 세워져 있다. 방형의 비좌의 상면에 비신과 이수를 놓았다. 비좌는 80cm×55cm×7cm의 크기로, 각 면의 모를 죽였다. 비신은 138cm×50cm×19cm의 크기이다. 1면비로 자경 7cm의 크기로 「寶城堂斗石大宗師塔碑」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수는 연화형(蓮花形)으로 너비 87cm, 두께 47cm 높이 54cm이며, 비석의 전체 높이는 2.05m이다.

스님의 법명은 두석(斗石)이요 법호는 보성(寶城)이며 태고보우선사(太古普愚禪師) 22세 법손으로 한국불교 태고종(太古宗)의 제12세와 15세 종정(宗正)을 지낸 스님으로 속명은 수길(洙吉), 호는 응산(應山) 자는 운석(雲石)이다. 1906년(병오) 4월 28일 함경남도 이원군 동면 상선리에서 하동(河東) 정씨 중신공(仲信公)을 부친으로, 이 씨를 어머니로 탄생 하였으며 어려서부터 남달리 총명하였다.

13세 (1918년)에 설암(雪巖)스님의 인도로 건봉사에 가서 보운(寶運) 스님을 은사로 출가 득도하였고 23세 (1928년)에 건봉사 보안강원(寶眼講院)에서 김일우(金日宇) 강백에게 대교를 마치고 보운스님께 심계(心契)를 얻어 입실건당(入室建幢)하여 보성(寶城)이란 당호를 받았다. 서울로 유학하여 26세에 중앙 불교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강원도 삼본산 연합강릉포교소 교사, 29세 금용사(金龍寺) 상주포교소의 상임(常任) 포교사, 31세에 건봉사 양양포교소 포교사, 금천유치원, 능인유치원장으로 일찍부터 현대불교, 대중불교를 실천하여 널리 포교에 진력하였다.

일본의 식민 압제에서 속히 벗어나는 길은 신학문을 배워 교육을 통해 민족의 힘을 기름에 있음을 직시하고 동경으로 건너가서 일본 대학에 유학하여 35세 되던 해 3월에 종교과, 37세에 사학과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교육계에 투신하였으니 승속이 둘이 아니요,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닌 불이법(不二法)을 실천하신 최고승보살(最上乘菩薩)의 삶을 사셨던 것이다. 대신상업. 경기중학 서울중학의 교사를 거쳐 44세에 동국대학교 교무처장을 지냈다. 동란이 한창이던 46세 되던 해에 진해 육군사관학교 교수로서 사관생도들에게 투철한 국가관과 함께 호국불심을 심어주었으며 48세 되던 해에는 6·25 전란으로 폐허가 된 건봉사의 본말사 재건위원장으로 지금의 낙산사를 중창하고 전란으로 부모를 잃은 아이들을 위한 고아원을 설립하여 자비를 실천하였다.

54세에 숙명여대 교무처장, 54세에 한국사학회 이사, 동국대학교 교무처장에 취임하였으며 제34회 국가보통고시 위원을 역임하였고 55세에 숙명여대 문리과 대학장에 취임하였으며, 이듬해 동국대학교 총장으로 임명되어 현대적인 동국대학교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은 학덕으로 57세 12월에 모교인 일본대학으로부터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단법인 법시사(法施社) 이사장 재단법인 광동학원

이사장, 59세 사단법인 한국불교도 회장에 취임하여 교육계에 투신한 보살로서 제2세의교육은 물론 불교와 교단의 발전에도 크게 공헌하셨다.

63세에 설악산 오색에 운석정사(雲石精舍)를 창건하고 다음해에 설악도서관을 설립하였으며 여름 어느 날 밤 설악산 깊은 골에 흰 구름이 일고 비가 내리는 소리를 듣다가 사바가 바로 불국토임을 심득하고 오도송을 지었다. 69세에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승위원장에 취임하여 종단의 종지종풍을 거량한 바 있으며, 70세에 태고종의 중앙종화의장에 취임하였고 74세부터 십여 년간 파주 적성의 감악산 범륜사(梵輪寺) 강원과 정릉 천중사(天中寺) 강원의 강주로 후학양성에 원력을 다하였으며 같은 해 11월 한국불교 태고종 제12세 종정에 취임하여 종단의 중흥불사를 발원 서울 성북동에 중앙 불교회관 태고사를 건립하였다.

73세 때는 동국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모시었고 89세 되던 해에 한국불교 태고종의 제15세 종정에 다시 추대되셨다.

이처럼 스님을 종정에 두 번씩이나 모신것은 스님의 덕과 지혜가 뛰어나기 때문이다. 시은(施恩)의 두꺼움을 어려워하여 사찰불사를 마다하시던 스님은 90년에 이르러 당신이 가고 난 다음 문도들이 모일터전으로 치악산 줄기인 백운산에 보림사(寶林寺)를 마련하여 산과 구름을 벗 삼아 지내시더니 93세 되시던 무인년 7월13일 열반계를 남기시고 임종하시니 백운산의 빛이 모두 바래였다. 한국불교 태고종의 종단장(宗團葬)으로 보림사에서 다비를 모시니 맑은 하늘에 햇무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으며 다비를 마치고 사리를 수습하니 전신이 사리인지라 수천과의 사리를 수습하였으며 심지어는 스님께서 평생을 벗 삼으시던 금강단주(金剛短珠)마저 고열의 불속에서 사리처럼 되었던라, 출가 본사인 금강산 건봉사(乾鳳寺), 감악산 범륜사(梵輪寺) 석종 고성 반야사(般若寺), 인천 백룡사(白龍寺), 용인 동탁사(東度寺) 스님의 마지막 주석처이자 열반 지역인 백운산 보림사(寶林寺)에서 사리탑과 탑비를 세워 후세에 기리고자 한다.

불기 2543년 을묘 10월 10일 탑을 세웠으며. 2547년 계미년 4월 28일에 비를 세웠다.

〈비문〉

寶城堂斗石大宗師塔碑

悟道頌

雪嶽高白雲底 五色深谷流水長 雲石孤庵睡禪客 月下方聽細雨聲

涅槃頌

除盡法我是滅度 清淨無餘涅槃心 習氣煩惱永不生 方度生死大海苦

1-21. 금강갑계발기취지문비

개요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9년



금강갑계발기취지문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금강갑계발기취지문비는 불이문 좌측에 능파교신창기와 함께 나란히 세워져 있다. 장방형 비좌의 상면에 자연석을 얹어 놓여 있다.

비좌는 한 변의 크기가 105cm로 각 변의 모를 죽였다. 비신은 너비 41cm, 높이 86cm, 두께 34cm 크기의 비신을 세웠다. 전면에는 자경 4cm로 「금강갑계 발기 취지문(요지)」와 후면에는 「비문」이라는 한글이 새겨져 있다.

이영선의『금강산건봉사사적』에 의하면 건봉사에는 예로부터 갑계가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 이를 기록으로 통해 보면 「건봉사사적비」 가운데 「육생등갑계(六生等甲契)」라는 말이 보이고 또한 『건봉사급건봉사말사사적』 가운데에서도 1909년 무오(戊午)·갑자(甲子) 양계(兩契)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그밖에 문수교 명문에도 1940년 임오갑계, 1941년에 기묘갑계가 결성되었다는 것이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하여서도 건봉사에서 갑계가 활발히 전로 한 금강갑계에 관련된 비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비면〉

금강갑계 발기 취지문(요지)

무릇 고름을 통하여 살펴 보건데 인생의 오고 감이 수레바퀴 도는 것처럼 시작과 끝이 없음은 인연 때문이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아로새겨 잊지 못하는 것은 계(契)라고 할 수 있다. 늘그막에 혹은 멀리서 혹은 가까이 있으면서 모임체가 없어 안타까운 마음 금치 못하던 차에 찾아 만나는 이런 마음은 오래도록 변치 않을 것인즉 그러함에 뜻 있는 동갑네들이 한 데 모여 계를 만들고 세칙을 정했으니 바라옵건대 여러분들이시여 한 번 생각하여 봄이 어떠한가!

도원의 의리 중하니 바라보는 모든 이 두려워하고 관포의 정감 두터우니 보는 이 부러워 할 것인즉 정분이 두터우면 주위가 다 형제이고 우애가 일그러지면 동기간도 남과 다를 바 없으니 정(情)과 의(義) 두 글자는 그 뜻이 참으로 소중한 것이다.

바라건데 우리 동갑네들은 명심하여 시작과 끝맺음을 잘 이어간다면 우리의 후손들이 크고 아름다운 자취를 새겨보고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구름 같이 피어올라 서로 친목하기를 오늘 우리들과 같이할 것이니 이와 같은 인연으로 계를 맺은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알고 지내는 벗들 중에 유고 시는 인륜지도와 의리의 마음으로 찾아가 안부를 묻게 되던 차 금번 정겨운 우리들은 각자 흩어져 있지만 같은 동갑이어서 서로 모여서 뜻을 함께 하는 계를 모았다. 계원의 자격으로는 모두가 응락하고 모인 까닭에 친하건 친하지 않건, 소홀하건 소홀하지 않건, 귀하건 귀하지 않건, 인격자이건 그렇지 않건

가리지 않고 네 색깔이 한데 어울려 평등의 원칙에서 계원이 되었으니 이제 한 뜻이 된 것이다.

우리 계원들은 계칙을 잘 지켜 서로 친목하고 뜻을 모아 의무와 권리를 다 할 것 같으면 나라와 민족의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어 타의 모범이 될 것이며 이 뜻이 대대손손 전해지고 계속 발전시키면 다음 대에 이르러 사촌 형제의 의리도 영세불멸 될 것이다. 법과 같은 계칙은 절개에 있어 장작을 쪼개는 것 같이 곧고, 등불을 밝히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도리에 어긋남이 없이 융합 될 것이니 초목이 산에서 함께 자라 모든 이에게 덕을 베푸는 것처럼 우리 동갑네도 정분은 없지 않으니 인륜도 덕과 천리에 어김이 없게 무궁한 발전을 도모하기를 바라 마지 않는다.

서기 1935년 3월 25일 봄 강태훈 이금암

〈후면〉

이 비를 세우며

건봉사는 우리나라 4대 사찰의 하나로 손꼽히는 대 명찰이다. 구한말 의병으로 활약하다 건봉사에 은신하여 수행승이 된 이금암(1879~1943) 선생께서는 건봉사의 염불만일회 제5대 화주로 정토불교의 진면목을 세우고자 이웃사랑과 구국 개화 운동을 실천하고 신학문을 통해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이 자리에 봉명(鳳鳴)학교를 설립하다. 또한 수성청년회(遯城靑年會), 명덕청년회(明德靑年會), 봉서소년회(鳳棲少年會) 등을 조직하여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한편, 마을마다 상두계, 세찬계, 혼수계, 장학계 등을 통해 친목 도모와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초석을 놓았으며 이러한 상부 상조계를 금강갑계로 통칭하였는데 현재는 기묘계(1879년생) 후손들에 의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건봉사에서 발상된 금강갑계는 부처님의 4대 명절 행사를 비롯하여 단오와 추석 명절에 체육대회 개최, 설 명절에 불우이웃돕기, 경로잔치 등의 민속 명절 행사를 실시하였고 불우 청소년들에게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섰다.

이러한 금강갑계를 주도적으로 이끄신 이금암 선생께서는 암울했던 일제치하에 징병, 징용, 정신대, 학병, 공출, 창씨개명, 일어상용 등 일제의 식민지 정책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4,8만세사건을 일으켜 일제에 항거하고 우국청년 박태선(朴泰善), 최용달(崔容達) 등을 은신 보호하는 등 애국활동으로 인하여 수차례에 구금 연행되어 고초를 겪으셨으며 건봉사내의 봉명학교는 조선어 폐지 운동에 순응치 않는다는 구실로 폐교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금암 선생께서는 민족대표 33인의 한 분인 만해 한용운(韓龍雲) 선생의 비밀결사체인 만당(卍黨)의 일원으로 재정책임을 맡으면서 급기야

일제에 의해 강제로 승적이 박탈되고 환속 당하는 비운을 맞게 되자 1941년 이곳 묘적천에 극락교와 동 염불비를 건립하여 고해에서 극락으로 이르는 길을 닦아놓아 중생들로 하여금 질곡에서 하루속히 해방의 그날이 오도록 염원하였다.

기묘년 겨울, 배달문화선양회 총재 설산 朴準瑢 찬

〈좌측면〉

己卯楔譜案錄

晉州 姜泰勳 密陽 朴元祚 旌善 全錫俊 昌原 黃南老 晉州 姜泰振 晉州 姜文善 楊根 咸秉圭 晉州 鄭光祿 平澤 林順化 礪山 宋錫峰 寧海 朴寅赫 江陵 崔能熙 奉化 鄭在鎬 咸從 魚秉善 安東 權泰燮 仁同 張基順 旌善 全承模 慶州 金寅熙 江陵 崔斗澈 江陵 金九燮 慶州 李永浩 金海 金泰根 達城 裴俊燮 坡平 尹福根 延安 李錦庵 全州 李元弼 淸州 韓國範 慶州 李德奉 平澤 李成玉

〈우측면〉

二世

姜秉春 姜秉昱 姜秉星 姜秉旻 朴泰善 朴泰鳳 朴準瑢 全應斗 全應奭 黃鍊弼 黃鍊鞋 姜秉暹 姜泰敬 咸榮基 鄭守亨 林春鳳 林春植 宋昌權 宋明根 宋昌文 朴勸業 崔壽岩 崔九岩 崔東岩 鄭鍾淑 鄭鍾源 鄭鍾振 魚在龍 魚在玉 魚香菊 權寧煥 鄭洛初 鄭洛台 全伊讚 金曰賢 金曰春 金曰秀 崔東杓 崔東乙 金敬命 金德命 李斗漢 南福潤 金玉男 裴致善 尹弼夢 李永宣 李永承 李永子 李明薰 韓泰鎬 李在元 林光洙

三世

姜煥明 姜煥龍 姜煥錫 姜煥錦 朴祥震 朴南震 黃一順 黃基淳 姜煥奭 姜煥喆 姜煥敬 姜煥善 姜煥蓼 姜炳燦 林鍾薰 林鍾成 林美淑 朴熙建 宋炳熙 崔應喆 崔再喆 崔三喆 崔仁喆 鄭禧洙 鄭東洙 鄭日淳 魚星勳 魚東勳 魚承勳 魚相勳 全濟南 全濟周 崔峰烈 崔應烈 崔景烈 崔石烈

崔應烈 崔景烈 崔石烈 金成寧 金東勳 金東浩 金東洙 尹恒竣 尹大竣 李東殷 李文榮 李東起 李浩榮 李相雨 韓普光 林德相 林燕相

四世

姜亨軫 朴아람 朴가람 朴重宣 朴重垣 姜成圭 姜弘圭 姜仁圭 姜德圭 姜夏圭 姜
志勳 崔東秀 崔基秀 崔柄秀 鄭柄燦 魚起準 魚起碩 魚起殷 魚振萬 魚錦姬 魚銀
淑 魚錦淑 魚知淑 魚惠淑 魚知英 魚珍英 李鍾喆 金栽植 金相圭 全成泰 全俊榮
崔志範 崔志赫 崔志鉉 崔志光 崔志玟 崔志文 尹允銖 李祥勳 李政勳 李智勳 李
姓郁 林大源 林大景

鄭椿學

五世

姜錫旻 姜銓錫 崔永植 崔惠植 崔憲植 崔根英 崔雲道 魚瀚鎮 魚維眞

六世

崔峻赫

1-22. 청신월성당정인지탑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청신월성당정인지탑비

■ 조사내용 ■

청신월성당정인지탑비(淸信月城堂正仁之塔碑)는 건봉사 부도전에 세워져 있다. 장방형 비좌의 상면에 비신만 놓여 있다. 비좌는 한 변의 크기가 105cm로 각 변의 모를 죽였다.

비신은 너비 41cm, 높이 86cm, 두께 34cm 크기로 세워져 있다. 전면에는 자경 4cm로 「淸信月城堂正仁之塔碑」이라 새겨져 있다.

1-23. 전불심인대각등계 용허당석민대선사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08년



용허당석민대선사비

■ 조사내용 ■

이 비는 건봉사 부도전에 세워져 있다. 장방형의 비좌의 상면에 비신과 이수를 놓았다. 비좌는 80cm×55cm×7cm의 크기로, 각 면의 모를 죽였다. 비신은 138cm×50cm×19cm의 크기이다. 전면에는 자경 8cm 크기의 「傳佛心印大覺登階 龍虛堂錫旻大禪師碑」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이수는 화형(花形)으로 너비 87cm, 두께 47cm 높이 54cm이며, 비석의 전체 높이는 2.05m이다.

건봉사의 제3회 염불만일회(백련결사)의 화주이신 전불심인대각등계 용허당 석민 대선사께서는 1802년 여름에 시작하여 1829년 가을에 회향하였는데, 속성은 봉화 정씨이고 고향은 간성의 차동이다. 융희2년 무진년(1908) 초가을에 감동을 만화가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문〉

乾鳳寺第三白蓮結社 化主
傳佛心印大覺登階 龍虛堂錫旻大禪師
嘉慶壬戌夏創 道光己丑秋終
俗姓 奉化鄭氏 杆城差洞
隆熙二年戊申孟秋立 監董 萬化

1-24. 금암당대선사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오석/대리석, 전서/행서체
- 건립 시기 : 불기2542년(서기1998년)



금암당 대선사비

■ 조사내용 ■

이 비는 건봉사 부도전에 있다.

스님의 속명은 이교재(李敎宰)이며 법명은 금암의훈(錦巖宜勳)이다. 1879년 12월 3일 황해도 금천군 좌면 만호리 이기준의 장남으로 출생했다.

한학을 수학하고 대한제국 윤참위의 천거로 군에 복무하던 중 군대해산으로 의병에 가담했다. 이후 이인영대장의 휘하에서 전투에 참가하다 의병투쟁이 한계에 이르자 금암(錦巖)으로 개명하고 금강산 건봉사로 출가했다. 그는 만화(萬化)스님의 제자가 되어 염불만일회 5대 회주로 선임되었으며, 당시 관동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신학문을 가르치는 봉명학교(鳳鳴學校)의 창립에 참여해 인재양성에 나섰다. 또한 해외유학생을 파견하고 스포츠와 민속놀이를 장려하고 신학문사조와 개화사상을 고취하면서 만해 한용운을 지도자로 한 19인의 비밀결사조직인 만당(卍黨)의 일원으로 운동자금을 조달했다. 아울러 금강갑계, 수성청년회, 명덕청년회, 봉서소년회를 조직하고 독립사상과 상부상조의 정신을 지도 계몽하던 중 1934년 사월초파일 가장행렬 중에 일어난 만세사건으로 왜경에 구금, 연행되어 환속을 강요받고 승적을 박탈당했다.

간성으로 쫓겨나온 그는 양양, 인제, 고성을 중심으로 기묘갑계를 조직해 독립정신을 고취하다 1943년 3월 24일 65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비의 높이 245cm, 폭은 40cm 정도이다.

〈비문〉

錦巖堂大禪師碑

諸法從緣生 亦從因緣滅 我佛大沙門 常作如是說

戊辰(一九二八)十二月日 楓岳山人

自讚

金剛雲起 順盡希望 誠城蘭登 錦巖眞影

〈후면〉

法緣弟子 震宇河圖現 滿虛李幸芸 宋璟琳 和山李錫根 月英張宗甲 雪山朴準瑢 全萬應 世緣弟子 辛氏小鳳華 李永宣 金鳳南 李永承 崔英振 咸善一 李永子 張祥植 李仁淑 李東殷 李相任 許萬俊 李設淑 鄭然哲 李和榮 李美榮 李文榮 任孝璟 李東起 金善我 李浩榮 金惠仁 咸鍾君 尹貞化 張秀美 李昭美 李祥勳 李寶琳 李政勳 咸泳昔 鄭潤聖 李嘉苑 許丞濟 許丞我 李旻柱 趙成福 咸志受 張秀赫 李智勳 鄭有眞 趙乾熙 趙彧熙

1-25. 설산당 향엄 대선사탑비명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오석/대리석, 예서체
- 건립 시기 : 오석/대리석, 예서체



설산당 향엄 대선사탑비명

■ 조사내용 ■

건봉사 부도전에는 설산당(雪山堂) 부도탑과 표석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높이 170cm, 폭은 60cm, 두께 30cm 정도이다. 기단은 대리석으로 만든 위에 오석을 올려놓았다. 전면에는「雪山堂 香巖 大禪師塔碑銘」이라 새겼다.

비명의 내용을 살펴보면 설산 스님은 15세에 금강산건봉사의 의산(義山)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여 계허(桂虛)스님을 수계스님으로 건봉사의 봉명학교 중등과와 동사의 불교전문강원 대교과를 수료한 후 오대산 상원사에서 방한암(方漢岩)스님을 모시고 10 하안거(夏安居)를 성취하고 혜화전문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한 후 성지를 두루 순례하고 선지식으로 항상 석문의 도리를 용맹정진하는 수행자로서 조계종단의 정회위원을 지냈다.

1974년 4월 염불 본산이고 출가 본사인 건봉사의 인법당에서 염불만일회를 결사하고 1998년 8월 건봉사의 복원을 기념하여 김해장(金海藏)주지, 김재일(金在日)법사, 한보광(韓普光)교수 등이 공동 발의 결사한 제6차 전국 염불만일회 증명법사로 적극 후원하는 등 2001년 음력 9월 9일에는 자신이 개설한 염불만일회의 회영법회를 금강산건봉사 결사현장에서 800여명 향도와 함께 원만성취하시고 서울 삼각산 정토사회주로서 염불삼매경속에서 2007년 3월 6일에 세수 90세 법랍 75세로 입적하였다. 다비식 때에 사리 48과를 수습하여 건봉사 부도에 분봉하였다.

오도송은 아미타 부처님을 부지런히 염(念)하며 정진하였네, 꿈 가운데 구십년 뜬 구름인 것을 오늘에야 이 일을 밝게 알았네. 영원토록 신령스러운 이 지혜 편안한 즐거움으로 누리리라「阿彌陀佛勤精進 夢中九十如浮雲 今日之中明此事 億劫靈明安隱樂」이다. 대표작으로는 ‘지옥을 불태워 버려라’, ‘뚜껑 없는 조선역사책’, ‘구름에 달 가듯이’, ‘전국 사찰 순례’ 등이다. 스님은 내가 존양하는 분이며 평생을 지근에서 같이 한 바 사양할 처지가 아니어서 불문(不文)을 무릅쓰고 삼가 스님의 발자취를 간추려 본 대로 느낀 대로 애오라지 기함이다. 한국정토학회 이사 겸 금강갑게 고문, 건봉사사적 편자이신 봉산(鳳山) 이영선(李永宣)이 찬하였다.

〈비문〉

悟道頌

阿彌陀佛勤精進 夢中九十如浮雲 今日之中明此事 億劫靈明安隱樂

1-26. 정원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정원당 면양종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89cm×84cm×5cm의 크기로 상면에는 원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받침부 중 하단에는 방형지대석 상면에 2단의 받침이 있다. 하단에는 복엽 14판의 복련을 조식하였고, 상면은 1단의 받침을 놓았다. 석종형 부도는 높이 97cm로 상단에는 2단의 돌출대를 마련한 후 보주를 조출하였다.

탑신에는 자경 5cm의 크기로「井源堂 勉揚鐘」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2m이다.

1-27. 용봉당 서진종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용봉당 서진종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 길이 103cm, 높이 11cm의 크기로 상면에 3단의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받침의 하단부에는 복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중단은 8각형의 받침이, 상단에는 1단의 원형이 받치고 있다. 석종형 부도는 높이 1.2m로 상단에는 1단의 돌기 위에 보주를 놓았다.

탑신에는 자경 15cm의 크기로「龍峯堂 舒眞鐘」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5m이다.

1-28. 담연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담연당 재민종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 길이 100cm, 높이 11cm의 크기로 상면에 원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받침의 하단부에는 복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상면에는 1단의 8각형의 받침이 조출되었다. 탑신의 높이 1.2m로 상단에는 1단의 돌기 상면에 연봉형 보주를 놓았다. 탑신에는 자경 9cm의 크기로「湛然堂 載敏鐘」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45m이다.

1-29. 포운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포운당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구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 길이 111cm×95cm×41cm의 크기로 상면에 원형 1단의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지대석의 전면에는 100cm×22cm크기의 장방형 액내에 초화문을 조각하였다. 원형의 받침부에는 단엽 26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돌려져 있으며, 간지에 간엽이 새겨졌다. 탑신의 높이 90cm로 상단에는 옥개석 및 보주가 놓여 있다.

탑신에는 자경 12.5cm의 크기로「抱雲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탑신의 상면에는 7곳의 판내에 화문이 새겨진 보상화문이 배치되어 있다.

8각형의 옥개석은 상륜과 1석으로 구성되었는데, 낙수면의 합각선은 두툼하게 처리하였다. 낙수면에는 U자형의 파상형문이 양각되어 마치 옥개석의 상면을 덮고 있는 듯하다. 상면에는 연주문대가 있고, 이어 상·하에 U자형 5개가 교차 시문되어 유려한 곡선미를 보이고 있다. 상면에는 1단의 돌대 위에 연봉형 보주를 마련하였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2.1m이다.

1-30. 법해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법해당최씨생사리지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 길이 101cm, 높이 11cm의 크기로 상면에 원형 2단의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받침의 하단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상단에는 1단의 원당의 받침대가 조출되었다. 탑신의 높이 104cm로 상단에는 4개소에 꺾수문이 양각된 낮은 보주가 조출되어 있다. 탑신의 표면에 자경 10cm의 크기로「法海堂崔氏生舍利之塔」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15m이다.

1-31. 용안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765년



용안당탑

■ 조사내용 ■

8각의 지대석 상면에 탑신과 옥개가 1석으로 조성된 부재를 놓았다.

하대석은 지름 75cm, 높이 46cm로 상다리 모양으로 각면을 구성하였다. 상면에는 8각형의 1단 받침 위에 낮은 원형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탑신은 상·하면이 평평한 원당형으로 전면에 자경 9cm의 크기로「龍岸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4모 지붕의 형태이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34m이다.

1-32. 일암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765년



일암당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하대석 및 탑신과 옥개석을 놓았다.

지대석은 123cm×120cm×8.5cm의 크기로 상면에 8각형의 2단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받침의 하단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상단에는 각 면의 내부에 안장이 1구씩 조식된 29cm×8cm의 장방형 액이 모각되어 있다. 상면에는 지름 62cm의 음각 원문을 돌린 후 탑신을 안치하였다.

탑신은 상·하가 평평한 원당형으로 높이 89cm인데, 전면에는 자경 10cm의 크기로 「日庵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된 옥개석은 낙수면의 합각선에 두툼한 우동선이 표현되어 있고, 경사가 급하다. 옥개석의 하면에는 서까래가 표현되어 있으며, 상면에는 각면 1개씩의 연속되는 U자형의 파상문이 양각되어 마치 개석의 상면을 덮고 있는 듯하다. 상면에는 연주문대, 상·하 교차되는 U자형의 파상문대 상면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2.07m이다.

1-33. 석봉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석봉당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각 1석으로 조성된 하대석과 탑신 및 옥개석을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 길이 111cm, 높이 23cm의 크기로 상면에 높이 26cm의 원형 2단 받침대를 마련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받침의 하단에는 관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8판의 복련이 조식되었으며, 간지에는 간엽이 있다. 이 상면에 1단의 낮은 원형 받침대가 있다. 받침의 상단에는 연판의 중앙에 세로선이 있는 단엽 18판 양련이 조식되어 있는데, 간지에는 간엽이 표현되어 있다.

탑신은 상·하가 평평한 원당형으로 높이 75cm인데, 전면에 16cm×34cm, 11cm×30cm의 2중 장방형 액내에「石峯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8각형으로 낙수면의 합각선에 두툼한 우동선이 표현되었고, 각 면의 상단에 1구씩의 화문을 조식하였다. 상면에는 부등변 8각형의 부재를 놓았는데, 넓은 면에는 범자문(梵字文)이, 좁은 면에는 U자형의 문양이 양각되어 있다. 상면에는 연봉형의 보주를 놓았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85m이다.

1-34. 해운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해운당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각 1석으로 조성된 탑신과 옥개석을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 길이 124cm, 높이 21cm의 크기로 상면에는 1단의 8각형 받침대를 조출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탑신은 상·하면이 평평한 원당형으로 높이 76cm인데, 전면에 자경 10cm의 크기로「海雲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지대석과 부도의 하면이 비례가 맞지 않는 것으로 보아, 다른 부도의 부재와 혼합되어 세운 것으로 보인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33m이다.

1-35. 진곡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진곡당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 길이 108cm, 높이 25cm의 크기로 상면에 2단의 8각형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하단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고, 상단에는 8각형의 1단 받침이 조출되어 탑신을 받치고 있다.

석종형의 탑신은 높이 76cm로 전면 16cm×44cm, 13.5cm×42cm의 2중 장방형 액내에 자경 14cm의 크기로「震谷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탑신의 상면에는 판이 넓은 8엽의 화문이 배치되어 있으며, 화문의 사이는 ㄱ형으로 파였다. 상면에 넓고 낮은 원형 1단의 받침이 있으며, 1단의 돌대 위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보주의 하단에는 단엽 5판의 앙련이 있고, 간지에도 5판의 연화문이 조식되어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74m이다.

1-36. 청담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청담당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각 1석으로 조성된 탑신과 옥개석을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 길이 80cm, 높이 24cm의 크기로 상면에 깊이 2cm, 크기 33cm×44cm의 장방형 홈이 있다. 탑신은 상·하면이 평평한 원통형으로 높이 67cm인데, 측면에 자경 11cm의 크기로「淸潭堂」의 명문이 있고, 뒷면에도 자경 15cm의 크기로「淸潭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8각형으로 처마가 넓고,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여 합각선이 두툼하게 표현되었다. 낙수면의 상면에는 U자형의 연속된 화문이 있어 마치 개석을 덮고 있는 것과 같다. 1단의 돌대 위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현상으로 보아 지대석과 상면의 부재는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인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36m이다.

1-37. 용근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용근당종탑

■ 조사내용 ■

원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지름 97cm, 높이 27cm의 크기이다. 탑신은 높이 113cm로 전면에 자경 13cm의 크기로「龍根堂■鐘」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면에는 연봉형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36m이다.

1-38. 청신대범화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청신대범화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 길이 92cm, 높이 8cm의 크기로 상면에 2단의 원형 받침대를 조출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받침의 하단에는 복엽 17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상단에는 1단의 낮은 원형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탑신은 높이 155cm로 전면에 자경 10cm의 크기로「淸信大梵華」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탑신의 상면에는 1단의 돌대 위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82m이다.

1-39. 연하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연하당탑

■ 조사내용 ■

원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 길이 116cm, 높이 27cm의 크기로 상면에 1단의 원형 받침대가 조출되어 있다. 탑신은 높이 130cm로 전면에 자경 7cm의 크기로「蓮河堂■宣 蓮池堂寺 二 萬日會同時生舍利塔 蓮海堂蓋二」,「池湖堂錦允 乙卯九月日」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면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57m이다.

1-40. 해월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해월당 생사리탑

■ 조사내용 ■

원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지름 72cm, 높이 13cm의 크기로 부등변 8각형에 가까운 원형의 지대석이다. 탑신은 높이 110cm로 전면에 자경 10cm의 크기로 「海月堂 生舍利塔」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정상에는 연봉형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23m이다.

1-41. 정파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정파당탑

■ 조사내용 ■

8각형의 기단과 원통형의 탑신 및 옥개석을 구비한 부도이다.

기단의 높이 55cm로 하대·중대·상대석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대석에는 판 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다. 중대석은 각 모서리에 동자주가 표현되어 있는데, 각 면에는 지름 13cm의 원내에 범자문(梵字文)이 양각되어 있다.

상면에는 1단의 받침을 조출하여 상대석을 받치고 있다. 상대석은 하단에 2중 단엽 16판의 양련이 조식되었는데, 간지에 간엽이 표현되어 있다. 각 면에는 12.5cmX8cm의 장방형 액내에 2구씩의 안상이 조식되어 있다.

탑신은 상·하면이 평편한 원통형으로 높이 67cm인데, 전면에 자경 10cm의 크기로 「井波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8각형으로 낙수면이 짧고, 합각선이 두툼하게 표현되어 있다. 상면에는 U자형의 화문이 파상문을 그리며 각 면에 1구씩 조식되어 있다. 상면에는 원형의 받침대가 있고, 그 위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82m이다.

1-42. 처사김계화치사리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처사 김계화 치사리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탑신과 옥개석이 1석으로 조성된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76cm×74cm의 크기로 상면에 8각형의 2단 받침이 조출되어 있다. 상·하가 평평한 원당형으로 높이 60cm인데, 전면에 자경 10.5cm의 크기로「處士金桂花 齒舍利塔」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된 옥개석은 탑신의 상면만을 덮을 정도로 작다. 낙수면이 짧고, 합각선에는 우동선이 두툼하다. 상면에는 U자형의 파상문이 화문을 구성하고 있고, 상면에는 돌 위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옥개석이 일부가 파손되어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15m이다.

1-43. 하운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하운당탑

■ 조사내용 ■

비좌 상면에 탑신과 옥개석이 1석으로 조성된 부도를 놓았다.

비좌는 장방형으로 70cm×56cm×31cm 크기인데 상면에 장방형 비공이 있다. 탑신은 상·하가 평평한 원당형으로 높이 53cm인데, 전면에 자경 10cm의 크기로 「河雲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8각형으로 낙수면이 짧고, 합각선이 두툼하게 표현되었다. 상면에는 연속된 U자문이 파상문을 그리며 각 면 1구씩의 화문을 구성하고 있다. 상면에 보주를 받기 위한 낮은 받침대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08m이다.

1-44. 몽월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몽월당탑

■ 조사내용 ■

부등변 팔각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120cm×128cm×8cm의 크기로 상면에는 높직한 8각형의 탑신 괴임대를 조출하였다. 높이 123cm로 하단은 탑신보다 작은 8각형으로 상면에 낮은 8각형 받침이 있다. 이로부터 탑신부로 올라가면서 호형으로 1조의 돌대가 있고, 안쪽으로 2조의 음간선을 돌리며 탑신부를 형성하고 있다. 탑신부는 원당형이며, 전면에 자경 14cm의 크기로「夢月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탑신의 상면에는 복엽 15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상면은 평평하다. 낮은 보주에는 정상으로부터 음각선이 완만한 바람개비 모양의 S자형 탑신을 그리며 5엽의 화문을 구성하고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04m이다.

1-45. 풍곡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풍곡당탑

■ 조사내용 ■

기단과 탑신 및 옥개석을 갖추고 있다.

기단은 8각 원당형으로 하대·중대·상대석이 1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대석에는 판 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다.

중대석의 각 면에는 지름 12cm의 원내(圓內)에 범자(梵字)가 1구씩 양각되어 있는데, 각 모서리에는 우주가 모각되어 있다. 상·하에 각형 1단의 받침대를 조출하고 있다. 상대석은 하면에 종선이 뚜렷한 16판의 양련이 조식되어 있다. 상대석의 각 면에는 23cm×8cm의 장방형 액내(額內)에 안상이 1구씩 있다. 탑신은 상·하단이 평평한 원당형으로 전면에 자경 18cm의 크기로 「楓谷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옥개는 8각형으로 낙수면이 짧고, 합각선이 두툼하게 표현되었다. 상면에는 U자형의 파상문을 그렸으며 각 면에 1구씩의 화문이 양각되어 있다. 상면에는 연봉형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05m이다.

1-46. 금월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금월당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100cm×88cm×42cm의 크기로 상면에 원형 1단의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을 받고 있다. 조성되어 있다. 괴임대에는 간지에 간엽이 있는 단엽 34판의 앙련이 조식되었고, 상면에 낮고 높은 2단의 원형 받침대가 조출되었다.

탑신은 높이 130cm로 전면에 자경 11cm 크기의 「錦月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면에는 판이 넓은 단엽 10판의 앙련이 선각된 돌대가 있다. 상면에는 보주가 있는데, 측면에는 파상문을 그리며 4엽의 화문이 형성되어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83m이다.

1-47. 송악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송악당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각 1석으로 조성된 탑신과 옥개석을 놓았다. 지대석은 100cm×92cm×13cm의 크기로 상면에 부등변 8각형의 1단 괴임대를 조출하였다.

탑신은 높이 44cm로 상·단이 평평한 원구형인데, 전면에 자경 12cm 크기의「松岳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탑신에 비해 높고 넓다.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여 합각선이 두툼한데, 상면에는 U자형의 파상문이 화문을 그리며, 각 낙수면을 덮고 있다. 상면에는 별성으로 조성된 받침과 보주가 있다. 지대석과 탑신이 일치하지 않은 현상으로 후대에 별도의 부재를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47m이다.

1-48. 제봉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제봉당탑

■ 조사내용 ■

부등변 8각형의 지대석 상면에 각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93cm×100cm×11cm의 크기로 상면의 1단 받침에는 단엽 27판의 복련을 조식하고 있다. 탑신은 높이 120cm로 전면에 자경 15cm 크기로「齊峯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면에는 판이 넓은 단엽 8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정상에는 낮은 2단의 원형받침 위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40m이다.

1-49. 진각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진각당탑

■ 조사내용 ■

부등변 8각형의 지대석 상면에 각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70cm×80cm×13cm의 크기로 상면에 1단 낮은 원형 받침대가 조출되어 있다. 탑신은 높이 117cm로 전면에 자경 12cm의 크기로 「眞覺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면에는 단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정상에는 낮은 1단의 받침과 1조의 돌대 상면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보주의 측면에는 간지에 간엽이 있는 단엽 6판의 양련이 조각되어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30m이다.

1-50. 운파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운파당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107cm×105cm×9cm의 크기이다. 탑신은 높이 181cm의 크기로 전면에 자경 18cm의 크기로「雲波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정상에는 연봉형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90m이다.

1-51. 순화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순화당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133cm×145cm×11cm의 크기로 상면에 원형 1단의 높직한 받침대를 조출하였다. 측면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내면에는 1조의 홈으로 된 원형 받침대가 있다. 탑신은 높이 152cm의 크기로 전면에 자경 8cm의 크기로 「馴華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정상에는 연봉형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70m이다.

1-52. 청신대인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청신대인당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101cm×87cm×5cm의 크기로 상면에 1단의 원형 받침을 조출하였다. 받침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2판의 복련이 조식되었다.

탑신은 높이 143cm의 크기로 전면에 자경 10cm의 크기로「淸信大印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단에는 판이 넓은 단엽 9판의 복련을 조식하였는데, 상면에 1단의 원형 돌대를 마련하고 보주를 놓았다. 보주의 측면에는 단엽 9판의 앙련이 선각되어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52m이다.

1-53. 영운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영운당탑

■ 조사내용 ■

지대석은 파괴된 채 석종형 부도만이 놓여 있다.

탑신의 전면에는 자경 13cm의 크기로「影雲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단에는 단엽 24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다. 정상에는 한 면이 파손된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15m이다.

1-54. 석파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석파당탑

■ 조사내용 ■

원통대좌의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높이 25cm의 크기이며, 탑신의 높이는 130cm로 전면에는 자경 8cm의 크기로「石坡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단에는 판이 넓은 단엽 8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정상에는 1단의 원형받침 위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지대석과 탑신이 일치하지 않은 현상으로 후대에 별도의 부재를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15m이다.

1-55. 화은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화은당탑

■ 조사내용 ■

부등변 8각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높이 123cm×140cm×20cm의 크기로 상면에 1단의 원형 받침대를 조출하였다. 받침대의 상면에는 복엽15판의 복련을 조식하였다.

탑신의 높이는 167cm로 전면에는 자경 12.5cm의 크기로「華隱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단에는 판이 넓은 단엽 8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정상에는 1단의 원당 받침 위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92m이다.

1-56. 벽하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벽하당탑

■ 조사내용 ■

지대석과 탑신 받침, 탑신과 옥개석이 각 1석으로 조성된 부도이다.

지대석은 높이 90cm×83cm×8cm의 크기의 장방형으로 각 변의 모를 죽였다. 상면에는 중앙이 잘록한 2단의 원형 받침이 있다. 하단 판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2판의 복엽을 조식하였고, 중앙에 1조의 돌대를 양각하였다. 상단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단엽 12판의 양련이 조식되었는데, 간지에 간엽이 있다.

탑신의 높이는 52cm로 전면에는 자경 7cm의 크기로「碧河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소형으로 낙수면이 짧고, 합각선을 두툼하게 표현하였다. 상면에 각 면 1구씩 U자형의 파상문이 화문을 형성하고 있다. 상면에는 1조의 돌대가 있고 그 위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23m이다.

1-57. 운암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운암당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탑신과 옥개석을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 길이 84cm, 높이 6cm의 크기로 상면에 중앙이 잘룩한 2단의 원형 받침대를 조출하였다. 받침의 하단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12판의 복련이 조식되었고, 중앙의 1조의 돌기 판내에 고사리문이 있는 단엽 12판의 복련을 돌렸다.

탑신의 높이는 73cm로, 22cm×46cm의 2중 장방형 액내에 자경 9.5cm의 크기로「雲巖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합각선이 두툼하다. 상면에는 연속된 U자형의 파상문이 각각 1구씩 화문을 형성하고 있는데, 정상부는 평평하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92m이다.

1-58. 임행복 사리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임행복 사리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구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높이 94cm×92cm×10cm의 크기로 상면에 상·하 2단의 8각형 받침대를 조출하였다. 하면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6판의 복련을 조식하였고, 상면에는 지름 54cm의 탑신 받침이 있다.

탑신의 높이는 88cm로 전면에는 자경 11cm의 크기로「林幸復 舍利塔」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지대석 앞에는 28cm×22cm×3cm의 오석이 있다. 상면에는 1단의 돌기가 있고 그 위에 낮은 보주가 있다. 지대석과 탑신이 일치하지 않은 현상으로 후대에 별도의 부재를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10m이다.

1-59. 동봉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동봉당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높이 92cm×94cm×30cm의 크기로 상면에 2단의 원형받침을 조출하였다. 받침의 하단에는 복엽 13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고, 상단에는 각형 1단의 원형 받침대가 있다. 탑신의 높이는 127cm로 하단에 단엽 13판의 양련이 선각되어 있고 상면에 1조의 돌대가 있어 몸통부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전면에는 자경 12cm의 크기의 「東峯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면에는 간지에 간엽이 있는 단엽 15판의 복련이 선각되어 있고, 상단에는 낮은 각형 1단의 원형 받침의 위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지대석과 탑신이 일치하지 않은 현상으로 후대에 별도의 부재를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07m이다.

1-60. 월봉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월봉당탑

■ 조사내용 ■

장8각형의 기단에 원당형 탑신과 옥개석을 놓았다.

기단은 하대·중대·상대석을 갖추고 있다. 하대석은 각 면 29cm×9cm의 장방형 액내에 안상이 1구씩 있으며, 중대석은 각 모서리에 우주가 모각되었는데, 각 면에는 지름 14.5cm의 원내에 범자문(梵字文) 1구씩 양각되었다. 상대석은 28cm×9cm의 장방형 액내에 안상을 1구씩 조식하고 있다.

탑신의 높이는 70cm로 전면에 19cm×45cm의 2중 방형 액내에 자 경 9cm의 크기로 「月峯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8각형을 낙수면의 경사가 급하고, 합각선은 두툼하게 처리하였다. 상면에는 연속된 U자형의 파상문이 각 면 1구씩의 화문을 형성하고 있고, 정상에는 1단의 돌대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82m이다.

1-61. ■■■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탑

■ 조사내용 ■

부등변 8각형의 지대석 상면에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120cm×126cm×26cm의 크기로 상면의 판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8판의 복련을 조식하였다. 상면에 상·하 2단의 원형 받침대가 있는데, 하단은 낮은 각형이고, 상단에는 간지에 간엽이 있는 단엽 21판의 양련이 선각되어 있다. 상면에는 지름 66cm의 별석으로 조성된 탑신 괴임대가 있다.

부도의 탑신과 옥개석 및 보주 1석으로 조성되었는데, 높이 120cm이다. 탑신은 높이가 67cm의 크기로 전면에 명문이 있었으나 모두 마멸되어 알 수 없다. 지대석, 별석받침, 부도는 각각 다른 부재로 구성되었다.

옥개석은 짧고 단축하며, 합각선은 두툼하다. 정상에 1단의 받침 위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76m이다.

1-62. 송암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771년(영조 47)



송암당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 길이 80cm, 높이 18cm의 크기로 상면에 원형 1단의 받침을 조출하였다. 받침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선각 단엽 17판의 양련이 조식되어 있다. 탑신의 높이는 120cm로 전면에 자경 13cm의 크기로「松巖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정상에는 1조의 돌대 상면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지대석과 탑신이 일치하지 않은 현상으로 후대에 별도의 부재를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45m이다.

1-63. 청암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771년(영조 47)



청암당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100cm×75cm×25cm의 크기로 상면에 원형 2단의 받침대를 조출하였다. 받침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선각 단엽 17판의 양련이 조식되어 있다.

탑신의 높이는 118cm로 전면에 자경 10cm의 크기로「靑巖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정상에는 1단의 돌대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탑신과 옥개석을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 길이 100cm, 높이 19cm로 상면에 복엽 16판의 복련이 원형을 그리며 조식되어 있다. 상면에는 낮은 각형 1단의 탑신 받침대가 조출되어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39m이다.

1-64. 목양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731년



목양당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탑신과 옥개석을 놓았다.

지대석은 100cm로 상면에 복엽 16판의 복련이 원형을 그리며 조식되어 있다. 상면에는 낮은 각형 1단의 탑신 받침대가 조출되어 있다. 탑신의 높이는 85cm로 전면에 자경 10cm의 크기로「牧羊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8각형으로 낙수면에 짧고 합각선이 두툼하다. 각 낙수면이 W자형을 보이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16각형의 형상이다. 1단의 보주 받침대 위에 단엽 4판의 복련과 간엽이 표현된 원구형 부재가 있고, 상면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보주의 부재는 다른 재료이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87m이다.

1-65. ■암당탑

■ 개요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 암당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탑신과 옥개석을 놓았다.

지대석은 일변의 길이가 65cm×95cm로 상면에는 낮은 각 형 1단의 탑신 받침대가 조출되어 있다. 탑신의 높이는 57cm로 전면에 자경 10cm의 크기로「■岩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옥개석은 8각형으로 낙수면에 짧고 합각선이 두툼하다. 상면에는 U자형의 파장문이 화문을 그리며 각 낙수면을 덮고 있다. 상면에 1단의 보주 받침대 위에 단엽 4판의 복련과 간엽이 표현된 원구형 부재가 있고, 상면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지대석과 탑신이 일치하지 않은 현상으로 후대에 별도의 부재를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29m이다.

1-66. 월곡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월곡당탑

■ 조사내용 ■

원형대좌의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탑신의 높이는 100cm로 전면에 자경 8cm의 크기로 「月谷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단에 판이 넓은 단엽 4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다. 정상에는 1단의 원형받침 위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지대석과 탑신은 별개의 부재이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24m이다.

1-67. 석종형부도1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없음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석종형부도탑 1

■ 조사내용 ■

현재 적멸보궁에 있다. 부등변팔각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147cm×157cm, 높이 21cm 크기의 부등변 팔각형으로 상면에는 16cm의 받침부를 조출하여 탑신을 받고 있다. 받침의 주위에는 단엽 복판 32엽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고, 상면에는 1단의 돌출대를 중심으로 내면에 폭 3cm의 홈이 파여 있다. 상면에는 탑신과 1석으로 구성된 보주가 있다. 전면에 글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석가여래치상입탑의 경호 부도로 추정된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60m이다.

1-68. 석종형부도2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없음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석종형부도탑 2

■ 조사내용 ■

현재 적멸보궁 뒤편에 있다.

지대석 상명에 하대석 및 탑신과 옥개석이 1석으로 조성된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부등변 팔각형으로 116cm×116cm, 높이 16cm의 크기이다. 하대석은 팔각형으로 1변 길이 35cm, 높이 25cm의 크기이다. 탑신은 원통형으로 높이 80cm의 크기인데, 상면에는 7각형의 옥각석이 한 돌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면이 깨어져 있다. 낙수면은 길이가 짧고, 움푹 패인 형상인데 합각선은 우동이 두툼하다. 상면에는 연봉형 보주 1석이 있다. 전면에는 글자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석가여래치상입탑의 경호 부도로 추정된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69m이다.

1-69. 석가여래치상입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없음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석가여래치상입탑

■ 조사내용 ■

석가여래치상입탑(釋迦如來齒相立塔)은 현재 적멸보궁 뒤편에 있다.

방형의 지대석에 기단부·탑신부·상륜부를 구비한 팔각원당형의 부도이다. 지대석은 67cm×177cm, 높이 24cm의 크기인데, 각 변은 모를 죽여 약간 경사지게 하였다.

기단부는 팔각형으로 하대석·중대석·상대석을 완전히 구비하고 있다. 하대석은 일변 길이 48cm, 높이 37cm의 크기인데,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단에는 각면에 안상을 1구씩 조식하고 있는데, 이의 상단 좌우에는 고사리문을 1구씩 음각하고 있다. 상면에는 1단의 각형받침을 조출하여 상단과 구분을 하고 있다.

상단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6판 복련을 조식하고 있는데, 판단에는 낮게 쥐꽃이 표현이 있다. 중대석은 팔각형으로 1변 길이 25.5cm, 높이 30cm이다.

각 면에는 16cm×10cm 크기의 장방형액내에 지름 18cm의 원문(圓紋)을 새기고, 내면에 범자(梵字)를 양각하였다. 상대석은 1변 길이 42cm, 높이 31cm의 크기로, 하면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6판의 양련이 조식되어 있다. 연판의 끝은 좌·우에서 말아 올렸다. 상면에는 각면의 내면에 십자형문이 음각된 16cm×10cm 크기의 장방형 액을 2구씩 음각하였다. 탑신은 높이 53cm의 원구형으로 표면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다. 옥개석은 팔각형으로 낙수면과 상면이 별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수면은 깊게 패여 있고, 처마는 U자형에 가까울 정도로 반전이 심하다. 각 낙수면을 연결하는 합각선은 두툼하게 표현되었다. 낙수면의 상부는 상륜부와 일석으로 조성되었는데, 합각선을 사이에 두고 U자형문이 연속 표현되어 파상문을 이루고 있어 마치 옥개석을 덮고 있는 듯하다.

1석으로 조상된 상륜부는 연주문대, 편구형 부재, 상단에 여의두문이 하단에 화문이 조식된 부재가 있다. 이 위에 완만한 U자형이 상하에서 교차 시문된 부재 및 연봉형 보주가 하단에서 부터 순차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당초 경호부도 중간 현 금강계단 불사리탑 위치였으나, 회수된 석존치아사리 재봉안 할 때 현 위치로 옮긴 것이다.

사리탑의 전체 높이는 1.6m이다.

1-70. 금강계단 불사리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없음
- 건립 시기 : 1996년



금강계단 불사리탑

■ 조사내용 ■

금강계단 불사리탑은 적멸보궁 뒤편에 있다. 원형의 지대석에 기단부·탑신부·상륜부를 구비한 석종형의 부도이다.

하대석은 일변 길이 48cm, 높이 37cm의 크기인데 상·하 2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단에는 각 면에 안상을 1구씩 조식하고 있는데, 이의 상장 좌우에는 쥐꼴이 문을 1구씩 음각하고 있다. 상면에는 1단의 각형받침을 조출하여 상단과 구분을 하고 있다. 상단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16판 복련을 조식하고 있다. 하대석은 원형으로 1변 길이 340cm, 높이 47cm의 크기로 복엽 12판의 복련을 조식하고 있고 탑신 하면에는 판내에 화문이 있는 복엽 24판의 양련이 조식되어 있다.

탑신은 종형으로 양면의 문양이 있다. 연화좌에 앉아 두 손을 모아 공양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성덕대왕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만든 신종과 동일한 공양비천상이 새겨져 있다.

보주는 높이 42cm, 지름은 135cm로 연꽃봉우리 모양으로 조식되어 있다. 상륜부에는 월반형의 양화석은 상하 2중으로 단판 연화문 14개의 꽃잎을 교차시켜 배열하였고 상판(上板) 사이에 간엽(間葉)이 드러나 있다. 또한 각 연판(蓮瓣)내에는 두 겹으로 연잎이 조각되어 있다. 양화석의 최대 높이는 40cm, 지름은 148cm이다. 양화의 상면을 비스듬하게 접어 올린 위에 고복형(鼓腹形) 복발을 올렸다. 정상에는 연꽃 봉우리 형태의 보주가 올려져있는데 상면에는 둥근 띠와 그 위에 4개의 꽃문양이 장식되어 있다. 금강계단에는 올라가는 계단과 문(門)이 설치되어 있고 각 모서리에는 1.2m 크기의 4개 석등이 존재한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96m이다.

건봉사에서 다시 되찾은 부처님 진신사리 8과 가운데 3과는 적멸보궁 금강계단 불사리탑에, 나머지 5과는 염불만일월에 봉안하여 참배 불자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건봉사 진신치아사리는 사명대사가 봉안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분명해 의미가 더 크다. 특히 치아사리는 전 세계에 15과에 불과하며 그 중 12과가 건봉사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으로도 명성이 높다.

1-71. 금암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8년 건립



금암당탑

■ 조사내용 ■

원형대좌의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185cm×128cm×28cm의 크기로 상면에 1단의 원형 받침대를 조출하였다. 상단에는 판이 넓은 단엽 6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고 정상에는 2단의 원형받침 위에 연봉형 보주가 있다.

탑신의 높이는 98cm로 전면에 자경 21cm의 크기로「錦巖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스님의 속명은 이교재(李敎宰, 1847~1943)이며 법명은 금암(錦巖)이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40m이다.

1-72. 설산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2007년 10월 17일



설산당탑

■ 조사내용 ■

원형대좌의 상면에 1석으로 조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185cm×128cm로 탑신의 높이는 100cm이다. 전면에 자경 17cm의 크기로 「雪山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단에는 연꽃 봉우리가 조식되어 있다. 기단부는 장방형으로 하대석·중대석·상대석을 1석으로 구비하고 있다.

스님의 속명은 박준용(朴準瑢, 1919~2007)이며 법명은 설산(雪山)이다. 경북 문경에서 출생한 후 15세에 금강산 건봉사 들어가 사미계를 받고 봉명학교 졸업한 후 혜화전문학교(惠化專門學校) 불교학과 졸업하였다. 도선사(道詵寺) 실달학원 원장을 지냈고 정토사(淨土寺)의 주지를 역임하였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40m이다.

1-73. 원각당 영도대종사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예서체
- 건립 시기 : 2008년



원각당영도대종사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을 구비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175cm×71cm×22cm 크기로 탑신의 높이 110cm의 석종형 부도를 올려놓았다. 부도의 전면에 자경 9cm의 크기로 「圓覺堂映道大宗師塔」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하단에 판이 넓은 단엽 6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다.

스님의 속명은 정문백(鄭文伯, 1949~2008)이며 법명은 원각영도(圓覺靈道)이다. 전북 남원에서 출생한 스님은 1964년 성준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후 1965년 부산 범어사에서 사미계를, 1970년 강원 속초 신흥사에서 비구계를 받았다. 스님은 1977년 동국대 승가학과를 졸업한 뒤 강원 철원군 심원사 주지를 거쳐 1987년 조계종 포교원 연수부장과 포교부장을 지냈고 2001년부터 건봉사 주지를 맡아 왔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24m이다.

1-74. 회명대선사지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예서체
- 건립 시기 : 1991년



회명대선사지탑

■ 조사내용 ■

원형대좌의 지대석을 구비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163cm×33cm×30cm 크기로 상면에 놓인 보보주는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되었으면 탑신과 보수사이에 돌대를 돌렸다. 탑신의 높이는 100cm로 전면에 자경 12cm의 크기로「晦明大禪師之塔」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하단에 판이 넓은 단엽 8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다. 상단에 연꽃 봉우리 모양의 보주가 있다.

스님의 속명은 이회명(李晦明, 1866~1951)이며 사미명은 일승(日昇)이다. 경기도 양주군 시둔면 직동리 이관석(李寬錫)의 독자로 출생하였다. 아호는 우경(牛庚)이다. 11세에 출가하여 1883년 금강산 건봉사에서 하은 열가(荷隱列柯) 율사에게 비구계와 보살대계 수지 받았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70m이다.

1-75. 조영암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예서체
- 건립 시기 : 2000년



조영암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에 기단부·탑신부·상륜부를 구비한 팔각원당형의 부도이다.

지대석은 63cm×163cm의 크기인데 상면에 놓인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되었으며 탑신과 보주사이에 5단 돌대를 돌렸다. 탑신의 전면에 자경 6cm의 크기로 「趙靈巖塔」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하단에 2단 받침대에 판이 넓은 단엽 6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다.

스님의 본명은 조승원(趙乘元) 또는 성원(星元)이다. 강원도 회양에서 태어나 용정의 대성중학을 나왔다. 15세에 건봉사(乾鳳寺) 김일우(金一字) 대강백의 은사자가 되었다. 19세에 월정사(月精寺)에서 백초월(白初月, 1878~1944)의 전강을 받았고, 20세에 동학사 강주에 취임했다. 1943년 혜화전문을 졸업했다. 해방 후 북한에서 교사를 하다가 1948년 월남하였다. 건봉사의 승려로 있을 때 한용운·조영출 등의 영향을 받아 문학에 입문하여, 1938년 『조선일보』에 시 「파초」를 발표하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종군작가로 활동하였으며 다수의 전쟁시를 제작하였다. 건봉사에 부도(浮屠)와 '출정사(出征詞)' 시비가 세워져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24m이다.

1-76. 보성당두석대종사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2000년



보성당두석대종사탑

■ 조사내용 ■

원형의 지대석에 1석으로 조성된 팔각형 부도를 놓았다.

탑신의 높이는 100cm로 전면에 자경 8cm 크기의 황서로「寶城堂斗石大宗師」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스님의 속명은 정두석(鄭斗石, 1906~1998)이며 법명은 보성(寶城)이다. 건봉사 봉명학교 출신이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24m이다.

1-77. 등공기념지탑

개요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산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15년 7월



등공기념지탑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에 1석으로 구성된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 위에는 탑신 받침을 원형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지대석과 일체하고 있다. 지대석은 158×153×36cm의 크기이다. 탑신의 전면에 자경 8cm의 크기로「三十一人騰空 遺蹟紀念塔¹⁾」,「四年乙卯七月日立²⁾」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면에 탑신과 일체로 보주를 올려놓았다. 탑신과 보주의 높이는 172cm, 탑의 둘레 310cm이다. 현재 탑신부에는 20여발의 총탄흔적이 남아 있다. 기단부에는「石工 李元浩」라고 새겨져 있다. 탑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는데 크기는 55.5cm×42.5cm×28cm이다.

『건봉사 사적지』에 따르면 758년(신라 원성왕 3) 발징화상(發徵和尚)이 정신(貞信), 양순(良順) 등 수행승 31인과 신도 1,820명의 참여로 미타염불회(彌陀念佛會)를 결성하여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여 만일동안 신행을 닦았던 행사로 당시 신도 1,700인은 쌀 한말과 향유 한 되의 시주를 하였고 신도 102인은 오종포 한 단의 의복 시주로 만일을 공양하였다.

29년이 지난 787년 7월 17일 수행승 31인이 극락세계로 승천하였고 신도 1,820인이 크게 기뻐하고 수행을 계속하여 나머지 신도 또한 극락세계로 승천하였다.

이후 오랫동안 돌을 쌓아서 모시던 곳에 제5회 만일염불회 때에 양씨(梁氏) 성을 가진 ‘연대월(蓮臺月)’이라는 여성이 천원(千圓)을 기부하고 이에 승려들이 호응하고 신도들이 협조하여 건봉사에서 5리 떨어진 북쪽 묘적(妙寂) 고개에 등공기념탑을 세웠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24m이다.

1) 2014년 이전에는 「三十一人騰空 遺骨紀念塔」으로 되어 있다.

2) 2014년 이전에는 「大正四年乙卯七月日立」으로 되어 있다.

1-78. 십바라밀 쌍석주

■ 개요 ■

- 유형 : 석주(石柱)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8-1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없음
- 건립 시기 : 일제강점기



십바라밀쌍석주 향좌



십바라밀쌍석주 향우

■ 조사내용 ■

가) 향좌(向左)

능파교를 건너 대웅전으로 오르는 봉서루 앞 좌·우측에 각 1기씩 건립되어 있다.

장방형의 대좌 상면에 석주를 세웠다. 대좌는 일변 길이 53cm의 방향으로 높이 38cm인데, 상단은 모를 죽여 경사지게 하였다. 전면에는 장방형 액을 양각하고 있다.

석주는 일변 33.5cm, 높이 158cm의 사각형으로 전면에 반월(半月)-지계(持戒), 가위-정진(精進), 금강저(金剛杵)-지혜(知慧), 전후쌍정(前後雙井)-대원(大願), 성중원월(星中圓月)-대지(臺地)형을 음각하였다. 우측면은 장방형 액내에 지름 20cm의 원월문(圓月紋) 5개를 음각하고 있는데, 나머지 2면에는 아무런 조식이 없다.

나) 향우(向右)

대좌는 일변 길이 51.5cm의 방향으로 높이 37cm인데, 상단은 모를 경사지게 하였다. 전면에는 43cm×29cm 크기의 장방형 액을 양각하였다.

석주는 32.5cm×34.5cm×195cm의 사각형으로 원월(圓月)-보시(布施), 신랄-인욕(忍辱), 고리두테-장방(正方)형을 음각하였다. 좌측면에 24cm의 원월문(圓月紋) 5개를 조각하였는데, 나머지 2면은 아무런 조식이 없다.

1-79. 나무아미타불 석주

■ 개요 ■

- 유형 : 석주(石柱)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8-1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28년



나무아미타불 석주

■ 조사내용 ■

석주의 길이 4.15m 폭 2.1m, 높이 60cm의 자연석 기단에 홈을 파고 36cm×38cm, 높이 295cm의 석주를 세웠는데, 전체 높이는 345cm로 정북향이다. 1면에는 자경 35cm의「南無阿彌陀佛」, 2면에는 자경 23cm의「佛紀二九五五戊辰夏」, 3면에는 자경 35cm의「大方廣佛華嚴經」, 4면에는 자경 35cm의「南無阿彌陀佛」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석주의 상면에는 봉황새 1마리를 놓았다. 그런데 대부분의 민속학자들은 마을 입구에 세워놓은 솟대의 오리로 본다. 그래서 이를 일명 건봉사의 돌 솟대라고도 한다.

예부터 사찰 앞에는 절을 수호하는 장승이 놓여 있었다. 이 석주는 불이문을 거쳐 사역(寺域)으로 진입하는 통로에 있어 멀리서도 바라볼 수 있으므로 하나의 사지 표석이 될 수 있으며, 신앙의례상 경배의 대상물이 될 불상의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1-80. 연지 석주

■ 개요 ■

- 유형 : 석주(石柱)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일제강점기



연지 석주

■ 조사내용 ■

극락전지와 낙서암지의 중간에 연지(蓮池)의 입구 좌우로 1기씩 세워져 있다.

석주의 높이 245cm, 폭은 40cm 정도이다. 장방형의 기단위에 역시 방형으로 만든 석주로 남측은 자경 23cm의 「龍蛇活地」를 북측은 자경 23cm의 「放生場界」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측면과 뒷면은 만자(卍字)와 연화(蓮花), 범자(梵字)를 새겨 놓았다.

즉 “이곳은 용과 뱀이 함께 사는 땅이요 모든 생명이 자유를 얻는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석주의 뒷면과 측면 기둥에는 모두 여섯 자의 진언과 함께 몇 가지 문양이 새겨져 있다.

1-81. 만해당 대선사시비

■ 개요 ■

- 유형 : 석주(石柱)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예서체
- 건립 시기 : 2000년 1월 1일



만해당 대선사 시비

■ 조사내용 ■

건봉사 만해 한용운 기념관(萬海 韓龍雲記念館) 앞에 있다.

높이 245cm, 폭은 40cm 정도이다. 자연석 기단위에 역시 타원형으로 만든 석주로 전면에는 한용운의 「사랑하는 까닭」시가 새겨져 있다.

만해(萬海)한용운(韓龍雲, 1879~1944)의 행적을 살펴보면 근대의 독립운동가, 승려, 시인으로 1920년대 후반 건봉사에 주석하면서『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을 펴내고 건봉사에서 설립한 근대식 학교 봉명학교에서 강연을 하면서 불교사상과 독립정신의 고취시켰다. 또한 만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한 항일비밀결사단체 ‘만당(卍黨)’의 활동도 건봉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한용운은 충남 홍성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서당에서 한학을 배우다가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으나 실패하자 1898년 설악산 오세암(五歲庵)에 들어갔고 이러한 인연으로 출가하게 되었다. 만해는 승려로서의 본격 수행정진에 들어가 건봉사 만화(萬化)스님에게서 법을 이어받았다.

1-82. 조영출 시비

■ 개요 ■

- 유형 : 시비(詩碑)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2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예서체
- 건립 시기 : 2000년 1월 1일



조영출 시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건봉사 만해 한용운 기념관(萬海 韓龍雲記念館) 앞에 있다.

높이 245cm, 폭은 40cm 정도이다.

시비 후면에는 1913년 충남아산에서 출생. 1927년 15세에 건봉사에서 법명 중연(重連)으로 출가. 건봉사의 사비(寺費)로 1935년 서울 보성고등학교 졸업. 1941년 일본 와세다대학 불문과 졸업. 1934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 '동방의 태양을 쏘라'로 당선되었고, 조명암(趙鳴巖)이란 필명으로 작사한 480여 곡의 가사 중 '고향초', '알뜰한 당신', '선창', '낙화유수' 등은 당시의 히트곡들이다. 시나 노래 가사 내용은 일제치하의 암울했던 우리 민족 감정을 잘 드러냈었다.

시비에는 조영출의 '참냉쿨'이 새겨져 있다. 이 시에서는 어려서부터 살던 건봉사의 자연과 일상이 여실히 표현되고 있다.

1-83. 조영암 시비

■ 개요 ■

- 유형 : 시비(詩碑)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2-1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예서체
- 건립 시기 : 2004년 6월 6일



조영암 시비

■ 조사내용 ■

조영암(趙靈巖, 1918. 5.27 ~ ?)은 한국의 승려이자 시인, 작가이다.

강원도 회양에서 태어났으며, 본명은 조승원(趙乘元) 또는 조성원(趙星元)이다. 용정의 대성중학을 나왔다. 15세에 건봉사(乾鳳寺) 김일우(金一愚) 대강백의 은사좌가 되었다. 19세에 월정사(月精寺)에서 백초월(白初月, 1878~1944)의 전강을 받았고, 20세에 동학사 강주에 취임했다. 1943년 혜화전문을 졸업했다. 해방 후 북한에서 교사를 하다가 1948년 월남하였다.

건봉사의 승려로 있을 때 한용운·조영출 등의 영향을 받아 문학에 입문하여, 1938년 『조선일보』에 시 「파초」를 발표하였다. 한국전쟁 중에는 종군작가로 활동하였다.

건봉사에 부도(浮屠)와 '출정사(出征詞)' 시비가 세워져 있다. - 해설: 이희중 -

1-84. 금강갑계발상지

■ 개요 ■

- 유형 : 표석(標石)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2-1번지 (건봉사로 723)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9년 12월



금강갑계발상지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건봉사 불이문 좌측에 세워져 있다.

표석은 높이 245cm, 폭은 40cm 정도이다. 장방형의 자연석 기단위에 방형으로 만든 석주로 전면에는 자경 20cm 크기의 「金剛甲稷發祥地」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뒷면은 건립시기의 관계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이 표석은 1999년 건봉사의 ‘금강갑계’ 건립을 위한 준비 모임을 고성문화원에서 개최하였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 당시의 건봉사 주지 김해장(金海藏), 금강갑계 회장 이영선(李永宣), 고성군수 황종국(黃鍾國), 고성문화원장 이병찬(李炳燦), 금강갑계 여러 위원 등이 적극 후원하여 건립되었다.

〈후면〉

建立關係者

顧問 朴華瑢

建立關係者

會長 李永宣

副會長 金德命 鄭禧洙

總務 崔東秀

財務 金濟南

監事 魚星勳

委員 姜煥鐵 全應來 姜秉暹 姜炳燦 林春植 宋炳熙 崔峰烈 南福潤 尹恒峻 李相

雨 韓泰鎬 林燕相

住持 金海藏

郡守 黃鍾國

文化院長 李炳燦

乾鳳寺 裴靑蓮花

雪山 獎學會

一九九九年 十二月

1-85. 건봉사 표석

개요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204-2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글 및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불상



표석 서편 면 / 남편 면 / 동편 면

조사내용

건봉사 사찰을 안내하는 표석으로 비신의 크기는 높이225cm×너비95cm×두께90cm 사각형 화강암 자연석이고 비석 서편과 동편 중앙에「乾鳳寺」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각각 음각되어 주기하였고 자형은 가로35cm×세로35cm이다. 남쪽 측면에는「금강산건봉사」한글로 음각되어 주기하였고, 건립 시기는 확인할 수 없다.

1-86. 화암사 영담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영담당탑



화암사 전경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을 구비한 석종형 부도이다. 지대석을 83cm×71cm×15cm 크기로 상면에 높이 112cm의 석종형 부도를 올려놓았다. 부도의 상면에 1조의 음각선을 돌리고 위쪽에 7엽의 삼각형 모양의 화문을 음각하였다. 부도의 전면에는 자경 13cm 크기의 「影潭塔」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정상에는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된 낮은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28cm이다.

1-87. 원봉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원봉당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을 구비한 석종형부도이다. 지대석을 103cm×110cm×15cm 크기로 상면에 높이 175cm의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부도의 상면에는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된 높직한 보주를 배치하고 그 아래 돌대를 돌리고 있다. 전면에는 자경 14cm 크기의「圓峯塔」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부도의 뒷면에는 4개의 흑독이 자리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93cm이다.

1-88. 청암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



청암당탑

■ 조사내용 ■

자연석의 장방형 지대석을 구비한 석종형 부도이다.

지대석은 126cm×112cm×23cm 크기로 상면에 높이 134cm의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상면에 놓인 보주는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되었으면 탑신과 보주사이에 돌대를 돌렸다. 부도의 전면에 자경 14cm 내외크기의 「淸巖塔」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48cm이다.

1-89. 춘담당대선사비명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행서체
- 건립 시기 : 1877년(고종 14)



춘담당대선사비

■ 조사내용 ■

화암사춘담대선사비(春潭大禪師碑, 1776~1863)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에 위치한 화암사 부도전에는 약 17여 부도와 3기의 비가 세워져 있다.

춘담(春潭)대선사비는 동현대사(東峴大師)의 생애를 기록한 비로, 1877년에 세웠다. 비는 전면과 후면에 행서와 해서로 비문을 새겼다. 전면 상부에는 자경 8cm 크기의 「春潭堂大禪師碑銘」이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다.

관동(關東)의 간성 승려들이 나를 찾아 가오리(嘉梧里)로 왔네. 작년 가을 그대는 동쪽 골짜기에 노닐며 자연을 실컷 보다가 돌아왔는데 우리 선생님 춘담(春潭)의 이름을 또한 들어보았는가. 내가 이르길 ‘지난날 청간정(淸澗亭)에서 쉬고 있는데 한 승려가 손에 문서를 들고 그 스승의 비명을 부탁하였는데 그 스승이 춘담인가?’하였다. 여러 승려들이 공수하며 절하며 이르길 ‘그렇습니다. 그대의 여행짐이 훌쩍 떠날 것처럼 가벼우니 감히 청하며 머물게 할 수 없겠습니다.’하였다. 내가 웃으며 이르길 ‘내가 이미 어림잡아 지었다네.’라고 하였다.

춘담선사(春潭禪師)는 하나는 동현(東峴)이고, 춘담(春潭)은 머무는 방의 이름이다. 본관은 해주 오씨(海州吳氏)로, 벽성군(碧城君)의 10세손이다. 아버지는 진광(振光)으로 양양(襄陽) 현산(峴山) 아래에 대(代)를 이어 살았다. 어머니는 문화유씨(文化柳氏)이다. 용(龍)이 여의주를 품은 기이한 꿈을 꾸고 태어났다.

선사는 어려서 남들과 다르게 영특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다. 나이 11세(1764)에 이르러 부모님을 여의고 드디어 금강산 화엄사(華嚴寺)에 들어가 응암(應庵) 훈경대사(訓敬大師)에게서 머리를 깎고 영해(影海) 여훈장로(呂訓長老)에게 계율을 받아 불가(佛家)의 연원(淵源)을 이었다. 대개 청허(淸虛)를 이어 10대 적통이 되었다. 여러 사람들에게 천거되어 석왕사 성지 수호선교 양종 도총섭(釋王社聖地守護禪敎兩宗都摠攝)과 오대금강계단도원장(五臺金剛戒壇都院長)이 되었다.

이 선사의 선속(禪俗) 친족들이 오대금강계단도원장을 지냈다. 어느 날 꿈에 하늘에서 작은 용이 내려왔는데 천막을 치고 상자에 가두었다. 이 이후로 글재주가 나날이 나아지고 경서에 해박하게 되었다. 안경을 걸치는 곳이 후에 질병이 되었는데, 꿈에 보타산(寶陀山)에 가서 관음현성(觀音顯聖)에 닿으니 즉시 나아졌다.

어찌다 또아프게 되었는데 문도들을 불러 여러 말을 하기를 ‘전에 천막에서 용이 상자에 들어가던 꿈을 꾸었는데, 지금은 나와서 들어갔다. 내가 장차 죽으려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갑자기 병이 들어 나빠지니 단지 용(龍)이 선사에게서만 보여서 내내 그랬단 말인가. 선사가 저 세상을 갈마 들어 보니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곳이다.

이로써 즐거워하여 평소 거처하는 곳이 치우쳐 얽매임이 없고, 약(藥)이 미치지 못하였다. 사람을 대하는데 가까운 사람이거나 먼 사람이거나 두텁거나 얇지 않았는데,

스스로 받으니 검소하거나 사치로 그 마음이 번거롭지 않았다. 거주하는 절이 불이나자 선사가 즉시 경영하고 관리하였는데, 공이 산문(山門)에서 으뜸이어서 사람들이 지금도 칭송한다. 선사께서 을미년(乙未年, 1775) 8월 18일에 입적하시니 나이가 88세이고 법랍(法臘)이 77세이셨다.

비문의 찬자는 이유원(李裕元)이 짓고, 서자는 김병학(金炳學)이 썼다. 비좌, 비신, 이수를 갖춘 비석이다. 비좌(碑座)는 장방형으로 131cm×93cm×46cm의 크기로 양면 상명 각 변의 모를 죽여 약간 경사지게 하였다. 비신(碑身)은 79cm×163cm×20cm의 크기로 양면에 명문을 새기고 있어 2면비임을 알 수 있다. 자경은 양면이 모두 4cm로 동일하다. 음기(陰記)에 「光緒三年丁丑三月 日立」이라 명문으로 보아 1877년(고종 14)에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수는 123cm×85cm×96cm의 크기로 전면에는 장방형 액(額) 3개가 산(山)자형을 이루고 측면에는 음각된 장방형 액(額) 2개를 중앙에 놓고 좌우에 소형 액을 음각하였다. 이수의 하단은 각 변의 모를 죽여 굽형을 이루고 있고, 정상에는 2개의 보주석을 놓았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3.16m이다.

〈비문〉

春潭堂大禪師碑銘

關東之杆城僧徒 尋余于嘉梧里 昨秋子遊東峽 飽看山水而來歸 吾師春潭之名亦聞之乎 余曰曩日憩清澗亭 一僧手狀 乞銘其師 師其春潭乎 諸僧拱而拜曰然 子行李飄然 不敢請留 余笑曰吾已 領略矣 按師法名法咸 一字東峴 春潭入室號也 其仙海州吳氏 碧城君之十世孫 父曰振光 世居襄陽峴山下 母文化柳氏 夢有龍珠之異而生 師幼而穎悟 稟賦溫和 年至十一 失怙恃 遂入金剛之華嚴寺 祝髮于應庵訓導大師 受戒於影海呂訓長老 嗣法之淵源 蓋系於清虛 爲十世嫡派也。以公衆薦爲釋王社聖地守護禪教兩宗都摠攝 五臺金剛戒壇都院長 此師之禪俗族派閱歷也 一日夢 天降小龍 幕械而藏之篋 自是文藻日進 博通經文 鏡有安下之方 後寢疾 夢到寶陀山 被觀音顯聖 而卽愈 亡何又疾 召徒衆語 曰前有幕龍入篋之夢 今也出而復入 吾將逝矣 俄而病差 抑龍之隱見於師 而終始之歟 師遞主覽絕界 人所未到處 以爲樂 平居無偏係 雌黃不及 對人無厚薄於親疎之際 自奉則不爲儉奢惱其心 所居寺荐火 師隨而經理之 功甲于山門 人到今稱之 師歸寂於乙未八月十八日 壽八十八 法臘七十七 噫我入峽 已聞師之行蹟 雖靡狀草 庶可言之 況於諸僧之告 益聞其所不聞乎 甚奇其緣 迺排續如右 以歸之詞曰 繫關東多名山 山之中 高僧閑 華嚴寺兮 海嶽環 翱翔終老兮 杆城之縣隔一灣 我偈載好聽者環

嘉梧退士 李裕元 撰

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弘文館 大提學 金炳學書并篆

〈후면〉

崇禎紀元後五丁丑三月日立

1-90. 춘담대법사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877년(고종 14)



춘담대법사탑

■ 조사내용 ■

자연석으로 된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136cm×82cm×17cm의 크기로 상면에는 높이 5cm의 부등변 8각형 단받침을 형성하여 석종형 부도를 받치고 있다. 부도는 높이 170cm로 전면에 자경 12cm 크기로 「春潭大法師塔」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부도의 상면에는 삼산형의 고사리 문양이 음각되어 있고, 상단에는 높직한 단 위에 탑신과 일석으로 조성된 보주를 놓고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90cm이다.

1-91. 인봉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인봉당탑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80cm×67cm×25cm 크기이다. 부도의 전면에 자경 약 12cm의 크기로「印峯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상면에는 탑신과 1석으로 구성된 보주가 있는데, 상면에 12엽의 삼각형 화문이 조식되어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17cm이다.

1-92. 화곡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화곡당탑

■ 조사내용 ■

8각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지름 76cm, 높이 48cm의 8각형으로 전면에는 단엽 8판의 2중 앙련이 돌려져 있고, 연화문 사이사이에는 간엽이 조식되어 있다. 정상에는 1단의 받침을 마련하고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된 보주를 놓았다. 부도의 전면에 자경 약 12cm의 크기로「華谷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75cm이다.

1-93. 월송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월송당탑

■ 조사내용 ■

평탄한 자연석을 지대석으로 삼아 하대석, 탑신석, 옥개석을 놓았다.

지대석은 192cm×160cm×17cm 크기로 가공한 흔적이 있다. 2단으로 구성된 높이 30cm의 원형 하대석의 하단에는 복엽 16판 복련이, 상면에는 단엽 21판의 앙련이 선각되어 있다. 탑신의 높이 74cm의 원당형인데 전면에 자경 약 10cm의 크기의 「月松堂」 명문이 새겨져 있다.

8각형의 옥개석은 보주까지 1석으로 조성되었는데, 합각선이 두툼하고 낙수면의 경사가 급할 뿐만 아니라 낙수면의 길이가 짧아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다. 각 낙수면의 상단에는 화문이 1구씩 조사되어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216cm이다.

1-94. 무생당 동환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무생당 동환탑

■ 조사내용 ■

지대석, 하대석, 탑신석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별개의 부재이다.

지대석은 100cm×100cm×21cm 크기로 상면에는 복엽 16판의 복련이 원형을 이루며 음각되어 있다.

음각된 상면에는 단엽 16판의 양련이 조식된 8각형의 하대석이 놓여 있다.

전면에 자경 약 10cm의 크기의「無生堂 東煥」명문이 새겨져 있다. 탑신의 높이 141cm의 원당형으로 상면에는 복엽 8판 복련이 조식되어 있는데, 정상부는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62cm이다.

1-95. 죽암당부도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



죽암당탑

■ 조사내용 ■

131cm×131cm×36cm의 방형 지대석 상면에 높이 50cm의 2단으로 구성된 9각형 괴임대를 조출하였다.

괴임대의 향면에는 8각형의 2단의 하대석을 놓았는데, 향면에 복엽 16판의 복련대가 조식되어 있다. 하대석의 상면에 8각형의 중대석과 고복형 석재 등 1석으로 조성된 부재가 놓여 있고, 상면에 옥개석을 놓았다. 옥개석은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합각선이 두툼하다. 현상으로 보아 2기 이상의 부도재를 모아 조립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면 우측에 자경 약 10cm의 크기의「竹岩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200cm이다.

1-96. 능허당부도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능허당부도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98cm×86cm×25cm 크기이다. 탑신의 상단에는 화문이 양각되었고, 보주의 하단에도 단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다. 보주의 하단과 탑신의 화문 사이에는 단엽 8판의 복련이 있다. 전면에 약 10cm의 크기의「凌虛堂」명문이 새겨져 있다.

탑신의 높이는 88cm이며 지대석과 탑신이 일치하지 않은 현상으로 후대에 별도의 부재를 조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13cm이다.

1-97. 화월당부도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화월당 부도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석종형 부도를 놓았다.

지대석은 75cm×95cm×14cm의 크기로 자연석의 평평한 면을 활용하여 부도를 놓았다. 부도는 석종형으로 높이 105cm 크기이며 상면에는 단엽 12판의 돌출된 앙련대 상면에 삼지창형의 양각선이 형성 되어 있다. 전면에 자경 약 10cm의 크기의「華月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정상에는 탑신과 1석으로 조성된 낮은 보주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266cm이다.

1-98. 자운당부도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자운당부도

■ 조사내용 ■

방형의 지대석 위에 아무런 조식이 없는 평면 8각의 부재를 놓았다.

지대석은 1매석으로 물빠짐 홈이 있다. 상대석은 상단에는 복엽 8판 연화문이 반전하고, 판단과 마주보며 하단에 단엽 8판의 연화문이 대칭되게 조각되어 있다. 전면에 자경 약 9.5cm의 크기의「慈雲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탑신은 원구형으로 표면에는 아무 조식이 없다. 옥개석은 사모 지붕의 형태인데, 지붕 위 상면에는 기와 골이 모각되어 있고 4우(隅)의 합각선은 두툼하다. 옥개석의 상면에는 보주형의 상륜부를 놓았다. 이 부도는 현상을 보아 2기의 부도재를 합하여 하나의 부도를 건립한 것으로 보인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45cm이다.

1-99. 광명당부도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광명당 부도

■ 조사내용 ■

장방형의 지대석 상면에 기단, 탑신, 옥개석을 받치고 있다.

지대석은 128cm×128cm×27cm 크기의 장방형인데, 상면에는 부등형 8각형의 받침을 조성하여 기단을 받치고 있다. 기단은 팔각형으로 높이 12cm, 일변 길이 35cm, 지름 72cm의 크기로 상면에 복엽 11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다. 전면에 자경 약 10cm의 크기의 「廣明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탑신은 원구형으로 높이 50cm, 지름 72cm의 크기이다. 옥개석은 상면의 모를 죽인 사모지붕의 형태로 합각선이 두툼하여 전체적으로 둔중한 느낌을 주고 있으며 향면에는 옥개석 상면에는 방형의 상부 부재를 놓았던 자리가 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73cm이다.

1-100. 무명부도1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무명 부도1

■ 조사내용 ■

지대석, 하대석, 탑신석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별개의 부재이다. 지대석은 84cm×81cm×17cm 크기로 상면에는 복엽 16판의 복련이 원형을 이루며 음각되어 있다. 음각된 상면에는 단엽 16판의 양련이 조식된 8각형의 하대석이 놓여 있다. 탑신은 높이 90cm의 석종형으로 상면에는 복엽 8판 복련이 조식되어 있는데, 정상부는 평탄하게 처리되었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135cm이다.

1-101. 무명부도2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없음
- 건립 시기 : 조선후기(추정)



무명 부도2

■ 조사내용 ■

지대석 상면에 원당형의 탑신을 놓았다. 지대석은 94cm×90cm×14cm 크기로 상면에 높이 20cm의 2단으로 구성된 원형 받침부를 조출하였다. 받침의 하단에는 복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고, 상단은 1단의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탑신의 상면이 수평인 원구형으로 높이 60cm, 지름 44cm 크기이다. 부도의 전체 높이는 97cm이다.

1-102. 담연당탑

■ 개요 ■

- 유형 : 부도(浮屠)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2014년



담연당탑

■ 조사내용 ■

131cm×130cm×18cm의 방형 지대석 상면에 높이 19cm의 2단으로 구성된 8각형 괴임대를 조출하였다. 지대석은 80cm×67cm×25cm 크기이다. 괴임대의 상면에는 8각형의 2단의 하대석을 놓았는데, 향면에 복엽 16판의 복련대가 조식되어 있다. 하대석의 상면에 8각형의 중대석과 고복형 석재 등 1석으로 구성된 부재가 놓여 있고, 상면에 옥개석을 놓았다. 옥개석은 높이 131cm 크기로 낙수면의 경사가 완만하고, 합각선이 두툼하다. 현상으로 보아 2기 이상의 부도재를 모아 조립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전면에 자경 약 10cm의 크기의 「湛然堂」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부도의 전제 높이는 289cm이다.

1-103. 담연당도명선사탑비

■ 개요 ■

- 유형 : 비문(碑文)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 -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2014년



담연당탑비

■ 조사내용 ■

지대석 상면에 부등형의 탑신을 놓았다. 지대석은 119cm×100cm×17cm 크기로 상면에 높이 20cm의 2단으로 구성된 방형 받침부를 조출하였다. 받침의 중앙에는 복엽 16판의 복련이 조식되어 있고, 상단은 1단의 받침을 조출하여 탑신을 받치고 있다. 탑신의 상면이 수평인 원구형으로 높이 75cm, 지름 40cm 크기이다.

비는 전면 상부에는 자경 8cm 크기의「湛然堂道明禪師塔碑」이라는 전액이 새겨져 있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232cm이다.

1-104. 강산당정휴대종사탑비

■ 개요

- 유형 : 비문(碑文)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2010년



강산당탑비

■ 조사내용 ■

화암사 부도전 우측에 여러 부도와 함께 세워져 있다.

비는 이수와 비신, 귀부로 구성되었다. 이수와 귀부는 화강암, 비신은 오석으로 제작되었다. 귀부는 152cm×151cm×73cm의 크기로 머리와 비좌가 수평을 이룰 정도로 평면적이다. 귀두(龜頭)는 길이 100cm, 폭 65cm로 비교적 길다. 비좌는 길이 110cm, 너비 57cm, 높이 1m이다. 전면에는 자경 13cm 크기의 「悟證無生隨緣行化, 剛山堂正休大宗師塔碑」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고 비신은 73cm×34cm×76cm의 크기이다.

이수의 110cm×65cm×100cm의 크기로 전면과 후면에 용(龍)을 각각 두 마리씩 조각하였으며, 보주를 두고 다투는 모습을 표현하였다.

측면에는 정면을 바라보 용의 얼굴을 조각하였다. 양 눈과 넓은 코, 그리고 웃는 듯한 입을 묘사하였다.

윗면에 직육면체 형태의 상륜 받침을 두었다. 상륜 받침의 각 면마다 안상을 새겼다. 상륜 받침 위로 보륜, 보개, 보주를 올렸다. 보개는 연잎 형태인데 잎맥을 사적으로 표현하였다.

보주의 전·후면은 범자(梵字)를 돌을 새김하였다. 귀부는 목이 두껍고 몸을 웅크린 거북의 형태이다. 머리와 귀갑은 서로 수평을 이룬다. 눈은 둥글며, 눈썹과 큼지막한 콧등이 연결되어 있다. 입은 작게 벌리고 있는 모습으로, 그 사이 혀와 이빨을 조각하였다. 목주름은 음각선을 새겼다. 앞발은 다소곳하게 앞으로 모은 모습으로 다섯 개의 발톱과 마디를 조각하였다. 등에는 이중으로 된 육각형의 귀문을 새겼다.

비석의 전체 높이는 3.49m이다.

1-105. 화암사 선시(禪詩)의 길

■ 개요 ■

- 유형 : 시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외, 한글 궁서체 및 한자 해서체 혼용
- 건립 시기 : 2015년



화암사 선시의 길 / 동곡스님 오도송



보우국사 열반송 / 경허선사 오도송



백운화상 열반송 / 명조스님 열반송



성철스님 오도승 / 나옹선사 열반송



일타스님 열반송 / 경봉대종사 오도승

■ 조사내용 ■

화암사는 일주문에서 절 입구에 이르는 도로 포장공사를 시작하면서 사색과 명상이 있는 선시(禪詩)의 길을 만들었다.

절로 올라오는 오른 편에는 현대에서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이루었던 고승들의 오도송(悟道頌)을 중심으로 비를 만들고 다시 절에서 내려가는 오른 편에 고승들의 열반송(涅槃頌)을 위주로 비(碑)를 세워서 탐방객들에게 명상과 사유의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이 되고 있다.

일주문에서 좌측 첫 번째 자연석 화강암 가로200cm×세로210cm×두께60cm에는 「선시의 길을 조성하는 취지」가 한글 가로쓰기로 새겨져 있는 것을 비롯해 화암사 진입로 좌우로 가로110cm×세로160cm×두께80cm 내외의 자연석 화강암 26개에 선지식의 오도송과 열반송 선시(禪詩)가 가로쓰기 한글과 한자 혼용으로 새겨져 있다.

1. 선시(禪詩)의 길을 조성하는 취지

선(禪)의 핵심은 깨달음에 있고 선(禪)에 의해 깨달음의 지혜가 열린다.

순수한 집중과 깊은 사유로 자기실상을 자각하고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선(禪)이다. 그리고 자기응시와 깊은 탐구로 신(神)과 내통하고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부처를 돈오(頓悟)하여 자기존재의 핵심에 도달케 하는 것이 선(禪)이다.

선시(禪詩)는 스스로 깨닫고 체험된 세계를 언어로 형상화하고 표현한 것을 말한다. 즉 돈오(頓悟)적 직관으로 존재의 실상을 깨닫고 내심자증(內心自證)된 세계를 언어로 표현한 작품을 선시(禪詩)라고 한다.

화암사는 일주문에서 절 입구에 이르는 도로 포장공사를 시작하면서 이 길을 사색과 명상이 있는 선시(禪詩)의 길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다.

절로 올라오는 오른편에는 현대에서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깨달음을 이루었던 고승들의 오도송(悟道頌)을 중심으로 비를 만들고 다시 절에서 내려가는 오른편쪽에 고승들의 열반송(涅槃頌)을 위주로 비(碑)를 세워서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명상과 사유의 즐거움을 누리는 공간을 만들기로 하였다.

진리를 배우다는 것은 자기를 배우는 일이다.

자기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내려놓고 비워야 본래 자기 모습이 드러난다.

올라오는 길에서는 깨달음을 배우고 내려가는 길에서는 내려놓고 비우는 지혜를 통해 자기현존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2. 효봉대종사 오도송

오도송(悟道頌)

효봉(曉峰) / 찬형(燦亨) (1888~1966)

- 평남 양덕 출신
- 일본 와세다 대학 법학부 졸업
- 평양 등지에서 고등법원 판사 역임
- 치열한 정진 끝에 견성을 체험하고 나서 죽음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체득
- 비구·대체 통합 종단 초대 종정 역임

海底燕巢鹿抱卵 바다 밑 제비집에 사슴이 알을 품고
해저연소녹포란

火裡蛛室魚煎茶 불속 거미집엔 고기가 차를 달이네
화리주실어전다

此家消息誰能識 이 집안 소식 누가 알리
차가소식수능식

白雲西飛月東走 흰 구름 서쪽으로 날고 달은 / 동쪽으로 가고 있네
백운서비월동주

3. 한암대종사 오도송

오도송(悟道頌)

한암(漢岩) / 중원(重遠) (1876~1951)

- 강원 화천 출신
- 젊어서 제자백가를 통달하고 산물에 들어와 일체 경전을 섭렵하고 가부좌를 틀고 앉아 본래면목을 깨달은 눈 밝은 선지식
- 오대산 상원사에 주석한 후 27년간 동구 밖을 한 번도 나가지 않았으며 앉아서 열반하였다.

着火頭中眼忽明 부엌에서 불 붙이다 문득 눈이 밝았나니
착화두중안홀명

從者古路譏緣清 일로부터 옛 길은 인연 따라 맑아지네
종자고로기연청

若人問我西來意 누군가 서래의(西來意) 뜻을 묻는다면
약인문안서래의

岩下泉鳴不滋聲 바위 아래 물소리는 젖는 일이 없다 하리
암하천명부자성

4. 경허선사 오도송

오도송(悟道頌)

경허(鏡虛) / 성우(惺牛) (1849~1912)

- 전북 전부 출신
- 근세 선종의 중흥조
- 출가하여 삼장을 두루 섭렵 통달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콜레라에 걸려 죽음 속에서 생사여일을 깨달은 해탈인, 경허 때문에 수행의 삶은 풍족해졌고 자유가 훨씬 확대되었다.

忽聞人語無鼻孔 문득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들으매
홀문인어무비공

眈覺三天示我家 온 우주가 나 자신임을 깨달았네
돈각삼천시아가

有月鰲岩下山路 유월 연암산 아래 길
유월연암하산로

野人無事太平歌 하릴없는 들사람이 태평가를 부르네
야인무사태평가

5. 성철스님 오도송

오도송(悟道頌)

퇴옹(退翁) / 성철(性徹) (1912~1993)

- 경남 산청 출신
-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법어로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의 물결을 일으키게 한 정신적 거인
- 십년을 장좌불와하고 4개 국어를 독파하여 선교에 막힘이 없었고 깨달음의 경지를 한층 높인 눈 밝은 선지식

黃河西流崑崙頂 황하는 역류하여 곤륜산을 후려치니
황하서류곤륜정

日月無光大地沈 해와 달은 빛을 잃고 대지는 잠기네
일월무광대지침

遽然一笑回首立 넉넉히 웃으며 고개 돌리고 서 있나니
거연일소회수립

靑山依舊白雲中 청산은 옛날 그대로 흰 구름 속에 있네
청산의구백운중

6. 일타스님 오도송

오도송(悟道頌)

동곡(東谷) / 일타(日陀) (1920~1999)

- 충남 공주 출신
- 출가하여 남다른 재주로 경, 율, 론 삼장을 통달하고 율을 통해 생명을 사랑하고 화해와 화쟁으로 갈등을 해소하고 사람의 마음에 안심입명을 심어준 선교에 밝은 해탈인.

頓忘一夜過 몰록 하룻밤을 잊고 지냈으니
돈망일야과

時空何所有 시간과 공간은 어디에 있는가
시공하소유

開門花笑來 문을 여니 꽃이 웃으며 다가오고
개문화소래

光明滿天地 광명이 천지에 가득 넘치는구나
광명만천지

7. 경봉대종사 오도송

오도송(悟道頌)

원광(圓光) / 경봉(鏡峰) (1892~1982)

- 경남 밀양 출신
- 깨달음을 얻고부터 일체만물과 더불어 걸림이 없었고 선적 낭만과 풍류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맛보게 한 한국불교 최고의 선승

我是訪吾物物頭 내가 나를 온갖 것에서 찾았는데
아시방오물물두

目前卽現主人樓 눈 앞에 바로 주인공이 나타났네
목전즉현주인루

呵呵逢着無疑惑 하하, 이제 만나 의혹이 없으니
가가봉착무의혹

優鉢花光法界流 우담발화 꽃 빛이 온누리에 흐르네
우발화광법계유

8. 향곡대선사 오도송

오도송(悟道頌)

혜림(蕙林) / 향곡(香谷) (1912~1978)

- 경북 영일 출신

- 일생동안 참선 정진에만 전념한 눈 밝은 수행인
- 정진을 통해 몸 안에 부처가 가부좌를 틀고 있음을 깨닫고 난 후 한 번 할을 하면 부처님이 쏟아지고 한 번 발길로 수미산을 거꾸로 뒤집는 힘을 가졌던 선지식

忽然兩手全體活 홀연히 두 손을 보니 전체가 살아났네
홀연양수전체활

三世佛祖眼中花 삼세의 불조는 눈 속의 꽃이요
삼세불조안중화

千經萬論是何物 천경만론(千經萬論)이 무슨 물건인고?
천경만론시하물

從此佛祖總喪身 이로부터 불조들이 모두 몸을 잃었도다
종차불조총상신

鳳岩一笑千古喜 봉암사에서 한 번 웃음은 천고의 기쁨이요
봉암일소천고희

曦陽數曲萬劫閑 희양산 굽이굽이 만겁토록 한가롭네
희양수곡만겁한

來年更有一輪月 내년에도 또 있겠지 둥글고 밝은 달
내년갱유일륜월

金風吹處鶴戾新 가을 바람이 부는 곳에 학의 울음이 새롭구나
금풍취처학려신

9. 서산대사 오도송

오도송(悟道頌)

청허(淸虛) / 휴정(休靜) 西山大師 (1520~1604)

- 말 없음으로써 말 없는 세계에 이르는 것이 선이요, 말로써 말 없는 세계에 이르는 것이 교이다.
- 선과 교를 명확하게 정의하여 조선조 선종을 중흥하고 임란 당시 승병을 일으켜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선교양종사를 역임.

髮白非心白 머리는 희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고
발백비심백

古人曾漏洩 옛 사람은 이미 말했네
고인증루설

今聞一聲鷄 지금 대낮에 닭 우는 소리 들나니
금문일성계

丈夫能事畢 대장부의 할 일은 다 마쳤네
장부능사필

10. 월산스님 오도송

오도송(悟道頌)

성림(聖林)/월산(月山) (1913~1997)

- 젊어서 삶과 죽음을 고민하다가 해탈을 얻은 후 집착을 내려놓고 자유인이 되어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한 평화인 안심입명을 깨닫게 한 푸른 눈을 가진 선지식

忽覺本來事 참모습 깨닫고 보니
홀각본래사

佛祖在何處 부처와 조사 어느 곳에 있는가
불조재하처

肚裏藏乾坤 몸속에 하늘과 땅 본래 감추어 있으니
두리장건곤

轉身獅子吼 몸을 뒤쳐 사자후를 하노라
전신하자후

不入 세우지 않고
불입

不捨 버리지 않고
불사

不休 쉬지 않다.
불휴

11. 서옹선사 오도송

오도송(悟道頌)

서옹(西翁) (1912~)

- 충남 출신
- 천축산 무문관에서 6년 동안 삶과 죽음이 한 덩어리가 된 채 6년이 지나 눈을 뜨니 삶과 죽음은 사라지고 밝고 밝은 광명한 점 남아 있는 것을 깨달은 선지식
- 조계종 7대 종정을 역임.

象王嘯呻獅子吼 상왕은 위엄을 떨치며 소리치고 사자는 울부짖으며
상왕빈신사자후

閃電光中辨邪正 번쩍이는 번갯불 가운데 사(邪)와 정(正)을 분별하도다.
섬전광중변사정

清風凜凜拂乾坤 맑은 바람이 능름하여 하늘과 땅을 떨치는데
청풍릉릉불건곤

倒騎白岳出重關 백악산을 거꾸로 타고 겹겹관문을 벗어나도다.
도기백악출중관

12. 고암스님 오도송

오도송(悟道頌)

고암(古庵) (1899~1988)

- 마음 밖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일생동안 실천한 푸른 눈을 지녔던 선지식.
- 지혜와 자비로 상대를 절복시키고 하심으로 충생을 제도한 자비가 몸과 마음에 가득했던 해탈인.
- 조계종 3대.4대. 6대 종정을 역임

禪定三昧壺中日月 선정삼매는 향아리 속의 일월 같고
선정삼매호중일월

涼風吹來胸中無事 시원한 바람부니 가슴속엔 일이 없네
양풍취래흉중무사

13. 성철스님 열반송

열반송(涅槃頌)

퇴옹(退翁) / 성철(性澈) (1912~1993)

- 해인사로 출가 한 후 봉암사에서 도반과 함께 결사를 하고 팔공산 성전에서 십년도안 장자불와를 통해 내심자증의 세계를 체득
- 해인사 방장과 조계종 7대 종정을 역임.

生平詐狂男女群 한평생 사람들을 속였으니
생평사광남녀군

彌天罪業過須彌 그 죄업을 하늘에 넘치네
미천죄업과수미

活陷阿鼻恨萬斷 산채로 지옥에 떨어져 그 한이 만갈래니
활함아비한만단

一輪吐紅掛碧山 한 덩이 붉은 해는 푸른 산에 걸려 있네
일륜통홍괘벽산

14. 효봉선사 열반송

열반송(涅槃頌)

曉峰(효봉)/燦亨(찬형) (1888~1966)

-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한 후 평양등지에서 판사를 하다가 오판을 하여 판사직을 그만두고 옛장수를 하다가 출가한 수행인
- 한번 앉으면 엉덩이 살이 빠져나갈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을 만큼 치열한

정진을 한 눈빛에서 안광이 쏟아졌던 선지식

◦ 조계종 통합종단 초대 종정 역임

吾說一切法 한평생 내가 말한 이 모든 것들
오설일체법

都是早駢拇 이 모두가 불필요한 군데기네
도시조변무

若問今日事 오늘 일을 묻는다면
약문금일사

月印於千江 달이 일천 강에 잠긴다 하리
월인어천강

15. 일타스님 열반송

열반송(涅槃頌)

동곡(東谷)/일타(日陀)(1929~1999)

◦ 깨침을 이룩하기 위해 연비를 하고 훗날 태운 손가락마다 사리가 출현한 신통을 보였고 삼장에 해박했을 뿐만 아니라 선교에도 혜안이 번득이었던 특별한 기용을 갖춘 선지식

一天白日露真心 하늘에 밝은 해가 참된 마음을 드러내니
일천백일로진심

萬里清風彈古琴 만리에 맑은 바람 옛 거문고를 타는구나
만리청풍탄고금

生死涅槃曾是夢 생사와 열반이 일찍이 꿈이려니
생사열반증시몽

山高海闊不相侵 산은 높고 바다 넓어도 서로 방해롭지 않구나
산고해활불상침

16. 향곡스님 열반송

열반송(涅槃訟)

혜림(蕙林)/향곡(香谷) (1912~1978)

○ 그가 지냈던 기용은 대방무외하여 산과 바다를 누르고 한 번 할 을 하면 산악이 무너지고 봉을 휘두르면 바다가 뒤집히고 입으로 백억화신을 토해내던 걸림이 없었던 선지식

木人嶺上暇玉笛 목인은 고개 위에서 옥피리를 연주하고
목인령상가옥적

石女溪邊示作舞 석여는 시냇가에서 춤을 추도다
석녀계변시작무

威音那畔進一步 위음왕불 이전으로 한 걸음 나아가라
위음나반진일보

歷劫不昧常受用 영원히 밝고 밝아 언제나 수용하리.
역겁부매상수용

17. 월산스님 열반송

열반송(涅槃頌)

성림(聖林) / 월산(月山) (1913~1997)

○ 죽음은 왕생도 아니고 소멸이요 본래자기로 돌아가는 귀환이다. 누구나 자신이 지냈던 그 위치를 벗어날 수 없다.

廻廻一生 일생을 돌고 돌았으나
회회일생

未移一步 한 걸음도 옮긴 바 없나니
미이일보

本來其位 본래 그 자리는
본래기위

天地以前 하늘과 땅보다 먼저이니라
천지이전

18. 보우국사 열반송

열반송(涅槃頌)

태고(太古)/보우(普愚)(1301~1382)

- 고려말기 불교계를 대표한 수행인
- 그는 정진을 통해 깨달음을 얻은 만큼 존경을 받았고 한국 불교 종조로 추앙받는 영예까지 누린 이사에 눈이 열린 선지식이었다.

人生命若水泡空 사람의 목숨은 물거품처럼 빈 것이어서
인생명약수포공

八十餘年春夢中 팔십여 년이 봄날 꿈속 같았네.
팔십여년춘몽중

臨終如今放皮帛 죽음에 다다라 이제 가죽 부대 버리노니
림종여금방피대

一輪紅日下西峰 수레바퀴 붉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 가네
일륜홍일하서봉

19. 서산대사 열반송

열반송(涅槃頌)

청허(淸虛)/휴정(休靜) 西山大師 (1520~1604)

- 육신이 불에 타 재가 되면 봄이면 꽃으로 다시 환생되고 앞산에서 빼꾸기가 올면 선사의 법음을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무엇인가?

千計萬思量 천가지 계책과 만가지 생각
천계만사량

紅爐一點雪 불이 타고 있는 화로에 한 송이 흰 눈이네
홍로일점설

泥牛水上行 진흙소가 물 위로 가니
니우수상행

大地虛空裂 대지와 허공이 찢어지네
대지허공열

20. 백운화상 열반송

열반송(涅槃頌)

백운(白雲) / 경한(景閑)(1299~1375)

- 고려 후기 선승으로 그와 동시대에 있던 수행인들은 왕사나 국사란 이름으로 운수의 삶을 욕되게 하였으나 백운경한 만큼은 구름처럼 얹매인대가 없었고 흐르는 물처럼 집착이 없었던 진정한 해탈의 자유인

人生七十歲 사람이 일흔까지 살기란
인생칠십세

古來亦希有 예로부터 드물다고 했는데
고래역희유

七十七年來 이 몸 오고 감이여
칠십칠년래

七十七年去 일흔일곱 해속의 일이어라
칠십칠년거

21. 나옹선사 열반송

열반송(涅槃頌)

나옹(懶翁)/혜근(惠勤)선사 (1320~1376)

- 젊은 날 친구가 죽는 것을 보고 출가한 고려시대 눈 밝은 선지식
- 중국을 건너가 지공을 친견하고 평산처림선사를 만나 인가를 받았다. 평산을 만나 인사를 하자 누구를 만났느냐고 묻자 지공을 만났다고 했다. 지공을 항상 무엇을 쓰더냐 묻자 천검을 쓰고 있다고 대답하니 지공의 천검은 그만두고 너의 검 하나를 가져오너라. 스님은 좌구를 가지고 평산선사를 치자 이 도둑놈이 나를 죽인다 소리쳤다.

七十八年歸故鄉 칠십팔 년 고향으로 돌아가나니
칠십팔년귀고향

天地山河盡十方 이 산하대지 온 우주가 다 고향이네
천지산하진십방

刹刹塵塵皆我造 삼라만상 모든 것은 내가 만들었으며
찰찰진진개아조

頭頭物物本眞鄉 이 모든 것은 본시 내 고향이네.
두두물물본진향

22. 고한스님 열반송

열반송(涅槃頌)

고한(孤閑)/희언(熙彦) (1561~1647)

- 조선조 눈 밝은 수행납자로 스스로 몸과 마음에 욕망의 덩어리를 깎고 덜어내어 임종에 이르러 자신의 육신을 산짐승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다. 이 서슬 푸른 유언 앞에 누구나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허욕을 살펴보아야 한다.

空來世上 공연히 이 세상에 와서
공래세상

特作地獄滓矣 지옥의 찌꺼기만 만들고 가네
특작지옥재의

命布體林 내 뼈와 살을 저 숲속에 버려두어
명포체림

麓以飼育獸 산 짐승들 먹이가 되게 하라
록이사육수

23. 명조선사 열반송

열반송(涅槃頌)

허백(虛白) / 명조(明照) (1561~1647)

- 삶과 죽음의 얽매임에서 벗어난 후 사명스님에게 귀의하여 임란에 참가하여 전승을 남긴 후 묘향산 불영대에서 입적

劫盡燒三界 세월이 다하여 이 누리는 불타고
겁진소삼계

靈心萬古明 신령한 마음은 만고에 밝네
영심만고명

泥牛耕月色 진흙소는 달빛을 밟갈이 하고
니우경월색

木馬製風光 나무말은 풍광을 이끌고 가네
목마제풍광

24. 석가모니 부처님 열반 유훈

너희들은 저마다 자신을 등불삼고 자기를 의지하여라.
또한 진리를 등불삼고 진리를 의지하여라.
이 밖에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안 되느니라.
모든 것은 덧없나니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여라.

25. 작자 미상(作者未詳)

石虎山前鬪 석호산전투

蘆花水底眠 노화수저면

돌 호랑이는 산 앞에서 싸우는데
갈대꽃은 물 밑에서 잠들었네.

사유가 깊어져야 보이고 영혼이 맑아져야 들린다.
사람들은 안으로 여물어지고 성숙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허둥되고 있다.
맑은 영혼이 되돌아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26. 설악무산(雪嶽霧山 1932~)

경남 밀양 출생, 현재 설악산 신흥사 조실(祖室) 시인.
그가 지닌 기용(機用)은 때론 산과 바다를 누르고 사람의 마음에 해와 달을 뜨게도 한다.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까고 죽는 하루살이 떼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 있지만 그 어느 날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 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떼(아득한 성자)

1-106. 화암사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62-55번지 외 2개소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0년경 / 2019년



인흥리 산62-55번지 표석



원암리 산108-10번지 표석



인흥리 산62-11번지 표석

■ 조사내용 ■

화암사(禾巖寺) 표석은 군도와 미시령옛길 도로변 등 모두 3개소에 위치하고 있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62-55번지와 원암리 산108-10번지 화암사 표석은 치석한 화강암으로 높이420cm×폭110cm×두께85cm 표석 양면에 「金剛山 禾巖寺」라는 전액이 한자 세로쓰기 해서체로 각각 새겨져 있고 금강산(金剛山)는 빨간색, 화암사(禾巖寺)는 흑색으로 도색되어 있다. 자형은 45cm×60cm이다.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리 산62-11번지 화암사 표석은 치석한 화강암으로 가로 620cm×세로195cm×두께35cm로 대리석 판석 받침돌이 있다. 표석 전면 상단에는 「대한불교조계종」 한글 고딕 가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자형 60cm 「金剛山」과 자형 100cm 「禾巖寺」라는 표석의 전액을 한자 가로쓰기 해서체로 새겼는데 특이한 것은 자색무늬 판석과 오석을 글자에 입혔다.

1-107. 극락암 공덕주비구니 박법선 기념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산62번지 (극락암 경내)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1년 경



박법선 기념비

■ 조사내용 ■

비갓과 받침돌은 대리석이며 탑신은 오석으로 높이180cm×폭55cm×두께27cm으로 중앙 전면에「功德主比丘尼朴法善紀念碑」,오른쪽에「許施萬金巨額 再建極樂庵役」, 왼쪽에「完成二十三間 守護三寶之道 永作無量功德」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극락암(極樂庵)은 고려 전기인 945년(혜종 2)에 창건된 사찰로 창건주나 창건 배경은 확인할 수 없다. 조선시대 말인 1878년(고종 15) 4월 산불로 인해 인근의 건봉사(乾鳳寺)와 함께 소실되었는데 1881년 봉진(奉眞) 스님이 중건했다. 일제강점기에는 건봉사 산내 암자 5개 중 규모가 가장 컸고, 비구니들의 수행처였다고 한다. 해방 후에는 38도선 이북에 편제되었다.

1950년 6·25전쟁 때 절이 소실되었고, 휴전 후에는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에 위치하게 되었다.

당초 건봉사 서북쪽 1km 지점 묘적동에 위치했던 극락암자(極樂庵子)를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에 위치하여 접근할 수 없게 되자 1956년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관상3리에 임시 암자(庵子)를 마련했다가 1962년 경 현재의 위치에 극락암 중창(重創) 불사(佛事) 공로의 법선(法善)스님 공덕을 기리는 공덕비로 1990년 6월25일 입적한 이듬해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극락암 전경

1-108. 법선스님 부도

- 개요 ■
- 유형 : 석종형 부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산62번지 (극락암 경내)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1년 경



법선스님 부도

■ 조사내용 ■

전체 높이165cm×둘레195cm의 대리석 석종형부도로 기단부분은 복련, 상단에 보주가 있다. 극락암을 중창하신 법선스님의 부도를 극락암 경내에 둔 것이다.

부도 표면에 「法善尼」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1-109. 합씨보명화와 강릉후인 김영찬 공덕비

- 개요 ■
- 유형 : 공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산62번지 (극락암 경내)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1년 경



공덕비

■ 조사내용 ■

비갓과 받침돌은 대리석이며 탑신은 오석으로 높이118cm×폭42cm두께17cm으로 중앙 전면에「楊根孺人咸氏寶明華 江陵后人 金公榮燦 功德碑」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더 이상 비문기록이 없어 공덕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데 극락암 중창 불사(佛事)의 공로를 기리기 위한 공덕비로 추정된다.

1-110. 무량사 송덕비와 표석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08-2번지 (무량사 경내)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글
 - 건립 시기 : 1983년



장건 공덕비 전면 / 후면 / 무량사 표석

■ 조사내용 ■

송덕비는 조계종 무량사 경내에 안치되지 않고 있는데 당초 위치에서 이전하려고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고 했다.

호형으로 치석한 오석 탑신은 높이100cm×너비30cm×두께13cm이고 비석 전면 중앙에 「고광선 김학복 창건공덕비」 한글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비석 이면에는 「유심의 고해 속에 두분 고광선 김학복 / 오직 심불만이 불합하여 발향산 무량사 / 청정도량을 창건하였길래 불자후세 빛이 / 나고져 이 한 공덕비를 건립하옵니다. / 내역 표시 법당四동 요사채四동 전답七〇〇평 / 一九八三年 五月 / 건립시주 고광원 증 / 이귀성 합장」 한글과 한자 해서체 세로쓰기 병서로 음각되어 있다.

미타도량무량사 안내표석은 사찰 입구 노변에 위치한 사각 대리석으로 상단은 사각뿔형 표지석은 높이125cm×폭30cm×두께30cm로 비석 2개 면에 「미타도량 무량사」 한글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자형 20cm×20cm이다.

1-111. 동화사 표석

개요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08-4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8년12월



동화사 표석 전면 / 입구 안내 표석

■ 조사내용 ■

천태종동화사(東華寺)사찰 표지석은 화강암 자연석으로 높이230cm×폭130cm×두께100cm로 서남쪽 방향 정면 중앙에「東華寺」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이면에는「佛紀貳五四壹年十二月日龍谷 曹基銅 書」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어 1998년12월 용곡 조기동이 쓴 것이다.

도시계획도로 노변에 위치한 천태종 동화사 안내표석은 사각 대리석으로 상단에 원형뿔과 앙련으로 치석하였고 표지석은 높이141cm×폭33cm×두께 33cm로 비석 2개면에「천태종 동화사」한글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자형 10cm×10cm이다.

1-112. 약수암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250-29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예서체
- 건립 시기 : 1985년(추정)



약수암 표석

■ 조사내용 ■

약수암 사찰의 표석은 자연석 화강암으로 높이160cm×폭110cm×두께55cm로 전면 중앙에「藥水庵」한자 예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자형은 35cm×35cm이다. 약수암 주지스님에 따르면 법화종 종정 일봉 서경보 스님의 글씨라고 한다.

1-113. 금강삼사 송덕비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3-20번지 (금강삼사 입구)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글 / 오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68년 음력 3월 / 1995년 3월 3일



공덕주거진지서장 비



임화도 대화상 공덕비 전면



후면

■ 조사내용 ■

금강삼사 금강산문(金剛山門, 일주문) 입구 오른쪽 사면 측구에 호박돌로 정리한 자리에 2기의 송덕비가 나란히 있다.

오른쪽 비석은 호형으로 치석한 화강암 탑신으로 높이110cm×너비39cm이고 비석 전면 중앙에「공덕주거진지서장 박훈 전정자 양주 공덕비」한글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그 오른쪽에「금강산삼불사 창건」그 왼쪽에「서기一九六八年음삼월」로 새겨져 있어 1968년에 삼불사 창건에 기여한 공로의 송덕비인 것으로 추정된다.

왼쪽 비석은 호형으로 치석한 오석 탑신으로 높이88cm×너비30cm×두께11cm이고 비석 전면 중앙에「功德碑 比丘僧林華禱大和尚」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비석 이면에는「西方淨土極樂世界中 / 兜率天內院宮往生 / 極樂九品蓮台之發願 / 佛記二五三八年甲戌三月三日記」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어 임화도(林華禱) 스님의 공덕을 기리고 극락왕생을 발원하기 위해 1995년 3월 3일 세운 비석이다.

1-114. 세계법왕일불기원 평화통일불사리탑

■ 개요 ■

- 유형 : 기념비(기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2-25번지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한자 예서체
- 건립 시기 : 1987년12월27일



7층 불사리탑



불상 건립 내력



탑 기단부 명문

■ 조사내용 ■

불사리탑은 7층 대리석 석탑으로, 기단부 석면 가로137cm×세로85cm에「世界法王—鵬祈願 / 平和統一佛舍利塔」한자 해서체 2줄 가로쓰기로 탑명이 음각되어 있다.

각 오석에 한글과 한자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일봉 서경보 스님과 법화종단의 평화통일 염원을 담아 불탑을 건립한 것으로 추정되며, 건립 시기는 종단 확인결과 1987년12월27일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리탑 외곽 북쪽 벽면에는 주변에 입상과 좌불상 건립과 관련한 건립 내력을 사각 오석에 한글과 한자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어서 하나가 되자 / 아 저기 / 손에 잡힐 듯 / 가지 못하는 故鄉땅 / 겹겹이 가로 막은 철조망 / 끊어진 내 허리여 / 달려가고 싶은 발들이 / 여기 벼랑 위에 서서 / 동동 땅을 구른다 / 東海의 푸른 물결 / 굽이굽이 밀려와 너를 흔들고 / 海潮音 울부짖어 / 구름에 사무친다 / 깨어나거라 / 가위눌린 山河여 / 無量慈悲 彌勒부처님 / 굽어 살피사 저 하늘 밑 / 兄弟여 / 智惠의 눈 和合의 門을 열라 / 우리는 본디 한 배 아들 딸 / 더운 핏줄 땅속으로 뚫다 / 아 어서 / 하나가 되자 / 慧法 頌 // 奉佛記 / 大韓佛教曹溪宗第三敎區 本寺 神 / 興寺 住持 金慧法 큰 스님이 祖國의 平 / 和統一을 發願하여 여기 北으로 向하는 / 길이 끊긴 언덕에 높이 四十七尺의 彌勒 / 佛을 奉安하고 / 佛紀二五三二年 / 檀紀四三二一年十五日에 点眼하다 / 金慧法 큰 스님의 委囑을 받아 佛教美術 / 館長 金成浩居士 삼가 彫成하고 康熙權居 / 士 삼가 쓰다」

그 아래 사각 오석에 통일전망대 정재수 소장의 불상 건립 내력 동부전선 이곳 / 금강산과 입석마음이 바라보이는 곳 / 북녘 동포를 제도하여 남북통일을 / 기원하기 위하여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 정재수 거사가 발원을 실시하였음 / 발원일시 / 서기 一九八五-一九八八년까지 三년간 / 불상건립(미륵부처님) / 서기 一九八八-一九八九년 三월까지 / 김혜법 스님께서서 조성 / 좌불상건립(관세음보살상) / 서기 一九九二.九.十八-十.十八까지 / 정재수 거사의 발원으로 / 태성석재 우종태 거사 조성 / 부처님의 원력으로 남북통일이 / 꼭 실현되리라 / 각자 정해천 / 이병기 / 불기二五三六年十月十八日 / 정재수 거사 합장」한글과 한자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1-115. 세계평화국태민안 일봉기원시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시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2-25번지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한자 예서체
- 건립 시기 : 1987년 12월 27일



시비 전면



시비 전경

■ 조사내용 ■

시비는 대리석으로 이수와 비신, 기단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리석 이수(螭首)로써 용상이 조각되어 있고, 비석은 넓이90cm×높이304cm×두께67cm, 기단석은 사각으로 넓이152cm×높이104cm×두께121cm 연꽃 문양의 부조가 있다.

시비 남쪽 면에는 平和統一 國泰民安 祈願 一鵬法王詩碑」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시비 북쪽 면에는 「世界平和國太民安一鵬祈願詩 疆土兩分南北線忠心祈願浚漣漣 平和統一三千里國泰民安萬萬年 世界法王一鵬徐京保 韵」, 한자 해서체 4줄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일봉 서경보 스님의 세계평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마음의 한시(漢詩) 시비로써 건립 시기는 1987년12월27일이라고 종단에서 밝혔다.

1-116. 차갑인 보살 공덕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2-25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글 궁서체
- 건립 시기 : 1994년 4월



공덕비



공덕비 전경

■ 조사내용 ■

비석은 대리석 이수(螭首)와 오석 비신(碑身), 대리석 기단석(基壇石)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수는 넓이67cm×높이50cm, 비신은 높이135cm×넓이46cm×두께21cm, 기단석은 2단으로 상단 가로64cm×세로40cm×높이8cm, 가로88cm×세로63cm×높이20cm이다.

비신 중앙 전면에는 비명(碑銘) 「지장보살시주 / 차갑인 보살 공덕비」, 오른쪽 측면에는 「증명대법주 : 세계불교초대법왕 일불서경보존자」라고 한글 궁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비신 후면에는 건립위원장 우영명, 도남선, 추진위원장 고현수, 고인덕, 고문 현기홍 외 6명, 설판시주 차갑인 외 33명의 이름이 각각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불사리탑과 시비 등 건립과 관련하여 건립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가장 많은 공로가 많았던 차갑인 보살 공덕비로 추정되며 건립 시기는 1994년 4월 통일전망대에서 세웠다.

併三

種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2. 유교문화 분야

2-1. 공부자묘정비

개요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663-1번지 간성향교 내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88년 10월 30일



간성향교 공부자묘정비 전면 / 이면

■ 조사내용 ■

비석은 향교 내 명륜당 앞에 위치하고 있고 비석은 오석 탑신 높이134cm×폭45cm×두께20cm, 대리석 이수와 귀부가 있고 오석 비신 전면 중앙에「孔夫子廟庭碑」라고 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자형은 15cm이다.

비석은 공부자탄강(孔夫子誕降)2539년10월30일 대성전(大成殿) 중건 준공일에 건립한 것이다. 비의 이면에는

「天地는 吾知其至廣也니 以其無所不爲履載오

日月은 吾知其至明也니 以其無所不 / 照臨이며 江海는 吾知其至大也니 以其無所不容納이라 料廣以寸管하고 測景以尺 / 圭하고 航大以一輦라 廣不能逃其數하고 明不能私其質하고 大不能忘其險이니 偉 / 哉라 夫子는 後天地而生하사 知天地之始하시고 先天地而沒하사 知天地之終하시 / 니 非日非月이나 光之所及者遠이요 不江不海나 浸之所及者博이라 三代禮樂은 / 吾知其損益이요 百王憲章은 吾知其消息이라 君臣이 以禮하고 父子가 以親하고 / 家國이 以肥하고 鬼神이 以享이라 道未可詮其有物이요 釋未可證其無生이니 一 / 以貫之라 我先師夫子는 聖人也라 帝之聖者曰堯요 王之聖者曰禹요 師之聖者曰夫 / 子니 堯之德도 有時而息하고 禹之德도 有時而窮이나 夫子之道는 久而彌芳하고 / 遠而彌光하니 用之者昌하고 舍之者亡이라 昔否於周하고 今泰於唐하니 不然이 / 何被■而垂裳하고 冕旒而王者哉아 / 唐人 彼日休」라 한글과 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역문〉

하늘과 땅은 지그시 넓어 만물을 덮고 실지 앎이 없음을 우리는 알며 해와 달은 지극히 밝아서 땅위의 만물을 비추지 앎이 없음을 우리는 알고 가람과 바다는 지극히 넓고 커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없음을 우리는 안다.

한 치의 대롱으로 하늘과 땅의 넓음을 헤아리며, 해 그림자를 자로 때를 헤아리며 하나의 조각배로 넓은 바다를 항해하며 너른 천지는 그 운행의 이치를 숨길 수 없으며 해와 달의 밝음은 그 바탕을 숨기거나 없애지 못하며 넓고 큰 가람과 바다는 그 자체로 세를 지닌다. 위대하신 공자이시여! 하늘과 땅이 생긴 뒤에 나셨어도 천지의 시초를 알았으며 하늘과 땅보다 먼저 돌아가셨어도 이미 하늘과 땅의 종말을 아셨다. 해와 달과 아니면서 공부자의 빛은 오랜 세월에 걸쳐 멀리 비추고 강과 바다가 아니면서도 공부자의 덕은 천하 만물에 미치어 적시는 범위가 넓구나.

하·은·주 세 나라의 예약으로써 덕이 떨어지거나 보태지는 것을 알고 지난날 모든

임금의 제도와 법도로써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

공부자는 윤리로 임금은 어질고 신하는 충성을 하는 예를 갖추고 아버지와 자녀는 자애와 효(孝)로써 화합하며 나라는 백성을 부유하게 하며 하늘과 땅의 신은 은혜를 베풀어 복을 누리게 하였다.

노자는 만물이 도에서 생겨난 이치를 헤아리지 못하고 석가모니는 삶과 죽음이 윤회한다고 하였으니 전생이 있다는 징후를 밝히지 못하였다. 만물에 깃들 하나의 이치를 밝혀 도를 이룩한 이는 바로 나의 앞선 스승인 공자이시니 성인이로다.

황제로서 성스러운 이는 요 임금이며 임금으로서 성스러운 이는 우 임금이고 스승으로서 성스러운 이는 공자이다. 요 임금의 덕으로써의 다스림은 어느 한 때가 되어 꺼져 소멸하고 우임금의 공덕은 어느 한때가 되어 다하여 없어졌고 공자의 덕은 오래되어도 널리 명성이 더욱 드러나며 멀리까지 더욱 빛나는 구나.

이들 성인의 도를 쓰면 나라가 번창하며 이를 버리면 망하게 된다. 옛날에는 주나라에 의해 공부자의 덕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지금은 당나라에서 공부자의 덕을 우러르고 있다. 공부자의 덕이 펴지지 않는다면 어찌 곤룡포와 꽃을 수놓은 임금의 옷을 입고 천자가 쓰는 12류의 면류관을 썼다고 임금이라 하겠는가.

당나라 사람 피일휴(834?~883?)

2-2. 간성향교 표석(1)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680-2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73년



간성향교 표석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표석은 향교정문 입구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치석한 화강암으로 상부가 호형으로 높이 110cm×폭 41cm×두께 16cm 표석 전면 중앙에는「杆城鄉校」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이면에는「典校 金正吉 會長 權在浩 鄭乙洙 全在龍 魚命德 李明浩 崔春源 李德八 黃炳洛 崔泰根 咸在洙 咸炯鶴 金逸碩 劉贊基 韓 麒 韓益相 聖紀二五二四年 月 日」로 명단이 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2-3. 간성향교 표석(2)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680-2번지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불상



간성향교 입구 좌측 표석

■ 조사내용 ■

표석은 향교정문 계단 입구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대리석으로 가로184cm×세로49cm×두께3.5cm 표석 전면에는「杆城郷校」가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자형은 약40cm로 대리석 기둥 높이150cm×폭22cm×두께22cm 2개로 세워져 있다.

2-4. 간성향교기적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524-2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흑색),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805년



향교기적비 전면 / 이면



기적비각 전경

■ 조사내용 ■

비신은 치석한 화강암으로 높이141cm×폭61cm×두께22cm, 비갓은 화강암 호형으로 비신에는 간성향교기적비명(杆城鄉校紀蹟碑銘)이 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임진왜란 당시 향교를 점거한 왜군에 맞서 향교 재임이었던 김자발과 박응열(동계 선생) 등이 목숨을 걸고 성인의 위패를 거두어 정결한 곳에 봉안했고 왜군에 의해 전소된 향교를 두 공의 발의로 선조25년(1592년) 10월 성묘의 중건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 봉행할 수 있도록 김자발과 박응열 등 제공의 공적을 기리기 위해 건립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원문〉

杆城鄉校紀蹟碑銘

杆城卽先祖文靖公遺愛之鄉也余嘗奉使關東而過之愛其風醇俗美三十年不能忘也歲乙丑(1565)適入京師杆之士人金生孝範袖金朴諸公事蹟遍謁公卿大夫士賁之以詩發文行具立碑于夫子廟之旁或有難之者曰匹士而碑禮歟禮也禮有抗大難則祀有大功則紀之文苟可祀可紀則碑固不係于官也曰何如其抗難而有功具大也曰在昔宣廟壬辰(1592)倭奴陸梁魚爛我八路之于杆營窟于夫子廟坵講堂爲馬棧守土之臣鼠竄莫敢嬰其鋒時齋任金公諱自發朴公諱應烈相與痛哭曰聖廟污辱至此吾輩義當死各率其弟自澤自溶及應勳冒白刃直入叱之曰汝雖狡具蠢豈不聞吾夫子乎何敢污衊乃爾也賊噴舌不敢動遂手抱群聖板櫨以歸埋于淨地賊火其廟而去諸公乃盡傾家資鳩木石用翼年孟冬(十月)之旁死魄重建聖廟粵甲午仲春之生魄落之與諸生行釋菜之禮道臣鄭述以聞上嘉之命以諸公爲各邑訓導(1)自潑爲高城(2)自澤爲通川(3)自溶爲歙谷(4)應烈爲襄陽(5)應勳爲三陟教旨若曰自爲致力護聖造成鄉校其志可尙聖人一言之褒至矣嗚呼當諸公之抗賊也豈自料其全身護聖以克復廟哉殆天以諸公賜夫子而避其腥羶之垢也諸公得畢

義於夫子者亦天所以幸諸公而發其義烈之光也其難也其功也其視古之何歐諸人豈不尤有光哉奚下宜碑況又聖廟紀其蹟乎按家傳(1)金公自潑의 字 活鄉 號는 海隱이다. (2)自澤의 字는 君五요 號는 宋齋이다. (3)自溶의 字는 土涵이고 號는 怡悅齋로 江陵人 溟州郡王周元之裔也.(4)朴公應烈의 字는 景武요 號는 東溪이다. (5)應勳 字 景堯 寧海人이며 寧海君提上之裔也諸公居家至行純篤訓鄉人必以忠孝鄉皆感悅推以爲鄉先生及其歿而尸祀之數百年不廢云

銘曰嗚呼夫子聖人之盛覆載照濡莫不尊敬彼狡者奴虺于杆治奕奕聖廟壘之棧之惟金朴公旣厥三弟罵賊如噴狗不敢獬手抱版櫨乾淨土旋膽鄭校遂化楚炬捐盡家私鳩財奏功龍星周末周輦構重崇廡序庖福咸復舊制爰集青襟祗我舍菜

聖后曰嘉俾訓東土煌煌恩旨輝映萬祺雲孫伐石一鄉風趨聖若儼臨有屹龜趺君君臣臣父父子子民之爲生皆夫子賜報死之義諸公不貳瀛海茫茫示來無止崇禎紀元後三乙丑(1625) 月 日 立

大匡輔國崇祿大夫原任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弘文館藝文館春秋館

觀象監事世子師

李秉模 撰

資憲大夫刑曹判書

徐榮輔 書

杞溪

俞漢芝 篆

〈역문〉

간성은 나의 선조 문정공이 다스리던 고을이다. 내가 일찍이 공부로 관동(關東)에 갔을 때 간성을 지나다 온후한 민심, 순박한 풍속에 느낀 바 커서 삼십년이 지난 오늘도 잊을 수 없다. 을축년 서울에 갔을 때 간성 사람 김효범이 김박 제공의 사적을 가지고 두루 공경대부(公卿大夫)와 문사를 찾아다니면서 묘정에 비를 세우기 위하여 비문을 받으려 하기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일개 사인의 비를 묘정에 세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고 비를 세우려면 그만한 예가 있어야 할 것이며 예에 이르기를 큰 난에 항거하여 이를 극복하였으면 사(祀)하고 대공이 있으면 가문으로 전하는 법인데 사하고 기할만한 행적이 있으면 벼슬에 관계하였을 것이니 이들이 어떻게 항난 하였기에 입비하려고 하는가 하고 물었더니 그가 이르기를 옛날 선조조의 임진왜란 때 왜구가 육해로 침략하여 우리 팔도강산을 제멋대로 휩쓸 때 간성에 와서는 부자묘(夫子廟)에 유하면서 강당을 마구간으로 재축하는 등 행패가 심하였으므로 수직하던 사람도 도망하여 그들의 세를 감히 막을 수 없었다.

이때 재임 김자발과 박응렬이 통곡하면서 왜구의 행패가 공자의 성묘를 이와 같이 모욕하니 우리는 의를 위하여 죽자고 그 아우 자택 자용과 응훈을 거느리고 왜구의 창검을 두려워 않고 교궁에 뛰어 들어 “네놈들이 교활하고 포악한 도적이라 할지라도 여기가 공부자의 묘인 것을 모르느냐. 여기가 어디라고 피를 뿌려 성역을 더럽히느냐”고 호통하니 왜구들이 감히 대항치 못하였다. 급히 열성의 위패를 거두어 청결한 곳에 봉안했고 그 뒤 얼마 아니하여 왜구는 향교를 불태우고 떠나가 버렸다. 그 후 제공이 사재를 털어 자재를 구하여 익년 시월 중 성묘의 중건에 착공하여 그 다음 해 2월초 낙성하였기 제생들과 제례를 봉행하였다. 도백 정술이 이 사실을 조정에 주달하여 상이 가상히 여기어 자발은 고성훈도 자택은 통천훈도 자용은 흡곡훈도 응렬은 양양훈도 응훈은 삼척훈도에 명하고 그 교지에 자력으로 호성하고 사재로 향교를 중건하였으니 그 지기는 고상하다 성인의 일언 포상의 극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제공이 항왜 할 때 신상의 위해를 돌보며 호성복묘 하였겠는가. 이것은 하늘이 제공으로 하여금 부자께서 피비린내를 피하게 함이요. 제공으로 하여금 부자에게 의를 바치게 하여 의열을 빛나게 하였으니 비에 그 사적을 기록치 아니하리요. 가전에 김공자발의 자는 활경이요 호는 해은이다. 자택의 자는 군오요 호는 송재이다. 자용의 자는 사함이고 호는 태열제로 강릉인이며 명주군왕 주원의 후손이다. 박공 응렬의 자는 경무요 호는 동계이다. 응훈의 자는 경요로 영해인이며 제상군의 후손이다. 제공이 집에서는 소행이 순독하고 향인에게 충효를 가르치니 향인이 심복하여 향선생으로 추대하고 사후에 신전에 사(祀)를 받드니 백년을 이어왔다.

○명(銘)

아 부자시여, 성인의 성덕은 천지를 덮고 만물을 바치며 적시다. 중인이 다 존경하여 왔는데 고약한 왜구가 간성을 짓밟고 성묘에 진을 치고 성역을 마잔(馬棧)으로 만들었다. 김박제공이 형제를 거느리고 이들을 꾸짖어 항거치 못하게 하였다. 위패를 정한 곳에 이봉하고 보니 교궁은 이미 적수에 불타고 있다. 사재로 교궁을 중건하니 일년이 못가서 웅장한 성전이 이룩되었다. 회랑과 학궁이며 포주와 욕실이 옛 규모와 같아 유생들이 모여 대제를 봉행했다. 성상의 포상으로 동사의 훈도되니 황황한 은지는 만세에 빛나도다. 후손이 치비하니 일향이 협조하다. 임금이 임금답고 신하가 신하다우며 아비가 아비답고 자식이 자식답다. 사람의 삶은 부자의 규범이요 성훈에 보답함은 제공들이 한결 같다. 바다가 망망하듯 끝없이 번성하리.

대광보국송록대부원임의정부영의정겸령경연홍문관예문관춘추관상감사세자사 이병모가 짓다.

<杆城鄉校誌, 2013년, 간성향교, 150쪽 참조>

2-5. 효자 전봉상려 등

■ 개요 ■

- 유형 : 충효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산62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619년 등



효자 전봉상려 / 탁본



효자 전재후려 / 탁본





전공순려 / 탁본



효자 전봉상려각

■ 조사내용 ■

비석은 치석한 화강암으로 상부가 호형으로 전봉상려 높이112cm×폭48cm×두께18cm로 전면 중앙에「孝子 全鳳祥閣」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오른쪽 측면에 전공순려 높이115cm×폭48cm×두께16cm로 전면 중앙에「孝子 全孔淳閣」한자 해서체로, 왼쪽 측면에 전재후려 높이115cm×폭44.5cm×두께11.5cm로 전면 중앙에「孝子 全載厚閣」로 각각 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비각의 뒷편에도 1기의 비가 뒤집어져 있는데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비각은 정면, 측면 각 1칸(245cm×248cm)이며 팔작기와 지붕이다. 효자각의 내부를 살문으로 양분하여 그 안쪽에 효자비 3기를 배치하였고 그 바깥쪽은 쪽마루로 놓았다. 3기의 효자비 중 중앙의 것은 전씨 문중 46대손 전봉상의 것으로 ‘효자전봉상려(孝子全鳳祥閣)’라 새겼다.

우측(동편)은 51대손 전공순(全孔淳)의 것으로 ‘효자전공순려(孝子全孔淳閣)’, 그 맞은편의 것은 54대손 전재후(全載厚)의 것으로 ‘효자전재후려(孝子全載厚閣)’라 새겼다.

모두 1930년 시월(庚午年十月)에 중건(重建)하였다.

『관동읍지』와 『고성군지』에 의하면 전봉상이 7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병석에 눕자 잉어가 특효라는 소문을 듣고 추운 겨울에 동호리 호수에서 잉어를 구해 간병 하였고, 후일 다시 아버님이 병석에 눕자 단지하여 간병하였으며, 부모의 상을 당하여는 3년 동안 시묘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집에 돌아오지 않아 정려가 세워졌다고 한다.

이 효자각에는 전봉상뿐만 아니라 전씨 문중의 46대손 전종상과 51대손 전공순, 그리고 54대손 전재후의 효자비가 함께 모셔져 있으며, 매년 4월 1일과 추석날에 그 유덕을 추모하는 제를 올리고 있다.

비각이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앞쪽의 배수로도 막혀 있어 역류로 인해 비각이 잠긴 흔적도 남아있는 등 주변의 정리가 시급함에 따라 1997년11월 사업비 3천만 원을 들여 현재 위치로 새롭게 이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2-6. 고성훈도해은김선생 묘비명

- 개요 ■
- 유형 : 묘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산136-3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73년



고성훈도 김해은 선생 묘비 전면



고성훈도 김해은 선생 묘비 / 이면 / 오른쪽 측면

■ 조사내용 ■

대리석 전형적인 비각의 묘비로써 오석을 치석한 탑신의 크기는 높이 150cm×너비 53cm×두께 24cm이다. 비의 전면 중앙에는「將仕郎高城訓導海隱金先生之墓碑銘」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묘표 후면에는 고성훈도 해은 김 선생의 행적을「大匡輔國崇祿大夫原任議政府領議政

兼領經筵春秋館藝文館弘文館觀象監事世子師 趙寅永 撰 通政大夫前內部書記官 宋之憲 書 孔夫子沒後四十週年甲 癸亥二月 日 立」세로쓰기로 새겨져 있어 최초 비석은 1923년 조인영(趙寅永)이 짓고 송지헌(宋之憲)이 쓴 것이다.

묘표 오른쪽 측면에는「因 六.二五動亂毀損癸丑仲春重新 宗孫 敬命」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어 6.25전쟁으로 비석이 훼손되어 1973년 봄 종손(宗孫) 경명(敬命)이 새롭게 중수한 것이다.

〈비문〉

奧在戊申我 /

英宗大王諭太學諸生曰曩者逆亂儒生渙散古有爲賢受鍼今則聞賊聲而不顧 聖廟養士賢關之 / 意安在哉嗟呼世級降士氣弛猝然臨之以患難見死不更其守以衛斯道者鮮 聖主之歎盖欲激起 / 之也當是時有若以杆之海隱壬辰事言者表章之典豈足道哉夫蹈白刃抱神版庭叱賊酋用使 廟 / 儀重新籩豆如舊其所樹立非不卓然著矣而遐土也故掌故家漏之無以概見於後惜乎不幸而不之 / 聞且建虜之變學宮有護聖典僕旌其門載之國典如斯人也又何何終泯沒乎祭之社銘之石固 / 鄉黨禮也若乃尚義敦彝撰次稱述以備學校之一故事顧不在於薦縉紳諸君子歟謹爲之叙公卽新 / 羅溟王之裔中樞院參議子鏗五世孫翰林府使仲衡玄孫監察泓曾孫將軍護軍天壽孫護軍希縉子先正 / 栗翁的源也自潑字活卿號海隱嘉靖庚申生崇禎己卯卒享八十學履準的誘掖後進策功茂實妥 / 護先 聖勒銘聖廟報享忠顯爲道墓階恐不愧諸名家云 /

大匡輔國崇祿大夫原任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春秋館藝文館弘文館觀象監事世子師 趙寅永 撰 /

通政大夫前內部書記官 宋之憲 書 /

孔夫子沒後四十週年甲 癸亥二月 日 立

〈역문〉

무신년 구중궁궐에 계시던 우리의 영종대왕께서는 태학의 여러 생도에게 말씀하시길 지난 역란이 일어났을 때 여러 유생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갔다. 옛날에는 현숙한 이를 위하여 화살도 서슴없이 제 몸으로 막았는데 오늘은 도적이 쳐들어온다는 소문만 듣고서도 성묘를 돌보지 않으니 선비들을 키운다는 성균관의 의의가 어디 있느냐? 어허, 세상인심이 사나워지니 선비들의 의기가 저락되어 갑자기 닥친 환란 앞에서도 죽음을 겁내지 않고 도를 지키는 자가 드물어졌다고 하셨다.

성주의 탄식은 아마도 선비들의 걱정을 불러일으키자는데 있었으리라. 이런 때를 당해서 간성의 해은공처럼 임진왜란 때 공을 세워 포상을 받는 일과 같은 사실을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으리오?

서슬푸른 칼밭을 헤치고 성현들의 신주를 모셔 안고 나오면서 왜적들 앞에서 적장을 꾸짖고 성묘를 새로 중수하고 예전처럼 제사까지 지내면서 예의를 갖추었으니 이분이 세운 공적이 어찌 탁월하다고 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하지만 멀고 외진 산간벽지가 되어 훌륭한 사실을 수집하는 관리가 누락 시킨 것이다. 하여 그 높고 굳은 절개를 후세 사람들이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니 참으로 가석하고도 불행한 일이다. 그런데 왜란의 가혹 처절한 환경 속에서도 학교를 고쳐 짓고 성현들의 신위를 보호했으니 우리들이 그 가문을 빛내고 국전에 올려야 할 사람이 바로 이런 분인 것이다. 그러니 어찌 그 공적을 마멸되게 할 수 있으리오?

사당을 짓고 제를 지내는 것은 우리 동네가 지켜야 할 예의인 것이다. 만약 의리를 숭상한다면 제상이라도 풍성하게 차려 제를 지내주고 그 사실과 공적을 순서대로 서술하여 학교의 강의 꺼리로 대비해 둘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 높은 사람들과 군자들이 기리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여 삼가 이 글을 쓰는 바이다. 공은 신라 명주왕의 후예이며 중추원 참의 자갱의 5세손이요. 한림부사 중형의 현손이며 감찰 홍의 증손이요. 장군 천수의 손자이며 호군 희진의 아들이요. 선정 율응의 원이시다. 자는 활경이며 호는 해은이신데 가정 경신년생이요. 숭정 기묘년에 세상을 떠나셨다. 향년 80세다.

학교에서 항상 원칙을 지켰으며 후배들을 이끌고 부축하면서 훌륭한 방책으로 많은 공적을 이루었으며 성현들의 신위를 잘 보호하였다. 하여 그 공적을 성묘에 있는 비석에다 새기고 나라에 알렸더니 도를 지키기 위해서 충정을 바친 의사의 대우를 받는다. 그러니 이 무덤의 계단을 오르는 여러 명사들의 칭찬에 부끄러울 것이 없다.
<2014년 해상리 마을조사 자료 참조>

2-7. 양양훈도동계선생박공 묘비

- 개요 ■
- 유형 : 묘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산176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전서체 및 해서체
- 건립 시기 : 1984년



양양훈도 동계 박선생 묘비 전면 / 오른쪽 측면 / 이면

■ 조사내용 ■

비석의 탑신은 치석한 오석으로 높이150cm×폭60cm×두께30cm, 이수는 대리석으로 높이85cm×폭105cm×두께60cm로 원형 삼각으로 치석한 것이다. 기단석은 사각으로 치석한 대리석으로 가로110cm×폭80cm×두께15cm이다.

비석 전면, 왼쪽측면, 후면 상단에는「襄陽訓導東溪先生‘朴公■■■」전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그 아래 동계 박응열(東溪 朴應烈 1564년3월1일~1633년11월 1일) 선생의 행적과 가계 내력을 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왼쪽 측면과 후면까지 음각되어 있다.

비석은 최초 1936년 세웠으나 1984년 후손들에 의해 다시 세운 것으로 추정되며 비석 주변은 견치석 쌓기와 제초작업 등으로 비교적 관리상태가 양호하다.

동계 선생 오공(五公) 사후에 향선생(鄉先生)으로 추존하였고 또한 충현사를 세우고 매년 춘추 향교에서 보낸 향폐(香幣)로 향사하였으나 경인(1770년) 큰 불로 사당이 타버린 후 사림은 오공미적(五公美蹟)을 추모하여 영상 이병모(李秉模) 찬(撰)의 비를 향교 옆에 세웠다고 간성향교지에 전하고 있다.

〈비문〉 - 간성향교지(杆城鄉校誌) 참조

‘襄陽訓導東溪先生朴公墓碑銘 并序

公壬亂護聖五義士之一也葬三百有餘年舉如者故無恙而施紀則關矣尋常行路無不指點而太息曰世之有名位而死無可稱者猶得以螭首龜趺之碑誇張其墓以公之宅尚關一笏之石歟一日其裔仁植千里問銘按公諱應烈字景武東溪其號也朴出新羅始祖赫居世王至忠烈公諱堤上君于寧海爲杆城人且累葉矣曾祖諱幹殷進士祖諱玉堅考諱彥遜皆參奉妣奉化鄭氏公明宗甲子三月一日生終仁祖癸酉十一月一日享年七十入葬西岑南麓庚坐從先兆也公之性寬洪有大度不拘小節言必稱仁義少學于清虛而爲高弟學于公而高弟者李校理之屏魚進士震昌朴大士天章矣公年二十九爲宣祖大王二十五年壬辰倭人大學入冠八路魚爛杆之校宮爲壘廐矣時公避兵山谷間文變而憤欲死即與弟應勳應熹及金公自潑昆弟排陳直入青袍黻布玉立罵賊曰吾夫子日月耳何敢汙蔑乃爾耶賊愕然相顧不敢兵之遂抱羣聖賢板櫨歸瘞于淨地冠退而廟灰矣公與諸公競賣田宅重建聖廟會諸生行釋菜之禮諸位改題亦公之筆也道臣以聞以上褒以各邑訓導公襄陽次公三陟次公蔚珍其教旨若曰自爲致力護聖造成鄉校其志可尙聖王一言之褒至矣及其沒校多士推爲鄉先生營建忠賢祠每歲春秋自鄉校具香幣以不幸庚寅大火延及祠屋士林尊仰無處前輩之美跡莫徵又樹豐碑于聖廟之旁以紀其蹟即李相國秉模文也弟應勳字景堯號渭溪

弟應熹字景舜號晴溪二 配曰延日鄭氏楊根咸氏封以宜人男曰景輜嘉善孫曰文彬文絢曾孫曰世貞世椿世柱世逸世益世喆也始公赴敵也戟如林而刃如束屍骸撐柱視死如歸正色叱賊何其髣髴乎何蕃也雖然吾見太學之左有何氏祠而未見朴氏祠且聞施褒扈聖廟避亂者國有常典而未聞綽楔之典及公之門報不足以稱其德名不足以彰其實矣其何以勵士氣於一時樹風聲於百世也噫然聖祖褒重於大呂縱使今世士人操筆而書其賢曷敢有家斯者惟願士裔講斯學而明斯道以矜式于公則庶斯文賴而不墜焉

銘曰此吾夫子忠臣之宅樵牧勿來行旅必式

通政大夫楊根郡守原任 奎章閣直閣 皇太子侍講院侍讀官 恩津 宋奎憲 撰

崇祿大夫前判敦寧院事 海平 尹用求 書

孔後二千四百八十七年丙子 月 日立 宗孫 斗軫 昌植

〈역문〉

박공(朴公)은 임란 때 호성(護聖) 오의사(五義士)의 일인(一人)이다. 휘(諱)는 응열(應烈)이고 자(字)는 경무(景武), 호(號)는 동계(東溪)이다. 신라시조 혁거세왕 충열공 세상군주의 영해(寧海) 자손이며 누엽(累葉) 영해(寧海) 간성인(杆城人)이다. 부(父)는 언손(彦遜)이요 모(母)는 봉화 정씨(奉化 鄭氏)이다.

응열(應烈) 공은 명종 갑자(明宗 甲子, 1564년) 3월 1일에 태어나서 인조 계유(1633년) 11월 1일 향년 70세에 장(葬)하셨다. 선조대왕 25년 임진왜란 당시 간성향교를 점거한 왜군에 맞서 향교의 재임이었던 제(弟) 응훈(應勳) 응희(應熹) 김공자발(金公自潑) 곤제(昆弟) 등 오공(五公)이 목숨을 돌보지 않고 성현(聖賢)의 위패를 거두어 정결한 곳에 봉안하였다.

왜군에 의해 전소된 향교를 공여제공의 사재를 매각 성묘(문묘)의 중건에 착공하여 다음해 2월 초에 낙성하여 성묘회 제생들과 석채제례를 봉행하였다. 이후 관찰사 정술(鄭述)의 상주로 가상히 여기여 응열(應烈)은 양양훈도, 응훈(應勳)은 삼척훈도, 응희(應熹)는 울진훈도에 명하고 그 교지(校誌)에「자력으로 호성(護聖)하고 사재(私財)로 향교를 중건하였으니 그 지기(志氣)는 고상하다. 성인의 일언이 포상의 극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오공(五公) 사후에 향선생(鄉先生)으로 추존하였고 또한 충현사(忠賢祠)를 세우고(건립연대미상) 춘추향교에서 보낸 향폐(香幣)로 추모하던 차에 영상(領相) 이병모 찬(撰)인 귀중한 비(碑)를 세웠다고 기술되다.

(杆城鄉校誌, 1989년 11월 11일, 간성향교 大成文化出版社, 155쪽, 644~645쪽)

2-8. 절충장군양근함계업지묘

- 개요 ■
- 유형 : 묘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탑동리 산135-1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7년 4월 5일



절충장군 함계업 묘비 전면 / 이면

■ 조사내용 ■

묘비는 오석으로 치석한 호형으로 높이113cm×폭35cm×두께15cm이며, 전면에는「折衝將軍楊根咸公啓業 配淑夫人英陽南氏 之墓」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이면에는「孝子 貴淸 金水里 小宗中 西紀一九九七年四月五日立碑」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관대암과 고성산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고 봉분 관리상태가 다소 허술하다.

※ 절충장군(折衝將軍) : 조선시대 무신 정3품 당상관의 품계명

2-9. 고려홍문박사 죽계공 함부열 충의비

■ 개요 ■

- 유형 : 충의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산93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예서체 및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8년10월12일



고려홍문박사 함부열 충의비 전면



이면 / 오른쪽 측면

■ 조사내용 ■

이 비석은 대리석 이수(螭首)와 귀부(龜趺), 오석 비신(碑身)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신의 크기는 높이143cm×너비55cm×두께23cm이고 비석 전면 중앙에「竹溪公咸傳說忠義碑」세로쓰기 한자 예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자형은 가로15cm×세로15cm이며 오른쪽에는「高麗弘文博士」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비신 이면에는 한국계보학회 마만주(馬萬走) 간사장이 지은 함부열 시조에 대한 행적과 내력을 세로쓰기 한글과 한자 해서체로 병서하여 음각되어 있다.

〈비문〉

楊根咸氏入杆城始祖咸公은諱가傳說이고竹溪는號이다咸氏는옛馬韓의 疆域인楊根에서發源하여龍門의 / 咸王을始祖로삼고繼世하여오다가高麗開國과더부러크게나타났으니翊贊開國功臣銀青光祿大夫廣評侍 / 郎諡襄厚公諱規를貫祖로받들고■■簪■이承襲되어왔다諡良敬諱有一은仁宗의公臣으로工部尙書를지 / 냈으며諱脩(初諱淳)는進士에及第하여兵部侍郎을지내고二文章과節行으로名聲이높았다考가恭愍王乙未 / 年에登第하여寶文閣提學을지낸諱承慶인데두아드님을두셨으니長이朝鮮開國功臣東原君에封한諱傳霖이다官職이刑曹判書■道觀察使를歷任하고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諡定平을받았다次가公이다 / 公은麗末에弘文閣博士를지냈다四百年社稷이衰盡하여洪武壬申一三九二年王을廢出하여原州로追放할 / 때世子■■嬪이從行하니公께서欽然陪從하였다瑞氣있는땅을찾아原州에서杆城으로옮김에公은古城山壽 / 庵寺에서二年間復位를圖謀하니다시三陟宮村으로再流配되어옮긴지三年(甲戌年)에서恭讓王은薨하셨다 / 朝廷은公에게官職을내려召命하였으나不應하여玉이■■으로 / 있다하여그빛이玲瓏하지않으며蘭이幽谷에있다하여그香氣가新鮮하지않으리오 詩를남기고金谷(金水里)에隱居하여杜門守義하셨다九皋의鶴이하늘 / 높이날을때先王의冥福을빌고亡國의恨을自放하며여생을보내시다一四四二年이곳古城山西麓元丁洞에 / 길이잠드시다 嗚呼라 公의忠節은마땅히■■에새겨烈詞에躋食을해야할선비이며大義를分別할줄알아 / ■掌과魚肉같은■祿을辭讓하고말었으니衆民은이를歎息하고欽慕함을더하더라配位南陽洪氏가一男을 / 두었으니諱가禹忠(一名克忠)이고孫에諱致遠과永近(致近)이있다公의李朝逆叛으로子孫들은隱密히奉祀하여 / 오다가이제그違大한祖上の뿌리를찾고불타는忠義心の얼을이어받아碑를建立하니譜■■과行狀을살 // 玆遺德을天下에告하노라 / 西紀一九九八年戊寅十月十二日 謹攄

그 좌측에 「韓國系譜學會 幹事長 馬萬走 謹撰」로 새겨져 1998년 10월 12일 건립하였고, 문중에서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2-10. 홍문관대제학 남당 이사형 묘비

- 개요 ■
- 유형 : 묘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26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76년 3월(1935년 3월)



남당 이사형 묘비 전면



우측면 / 이면 / 좌측면



1935년 세웠던 당초 묘비 / 묘비 이면



가평대 묘비 전경

■ 조사내용 ■

묘의 상석 오른쪽 묘비는 대리석 비각과 오석 비신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신은 높이 160cm×폭 60cm×두께 30cm로 전면 중앙에「藍塘李先生之墓」한자 해서체 세로쓰기, 그 왼쪽에「忠烈公杆城君崇祿大夫吏曹判書 弘文館大提學」한자 해서체 2줄 세로쓰기, 그 오른쪽에「配 貞敬夫人 密陽朴氏 附」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왼쪽 측면에는「先生諱師衡字文伯號藍塘勝朝名相文景公亨齋先生四子也 先生生…」등 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비의 이면과 오른쪽 비면에는 성주(星州) 이씨(李氏) 간성군(杆城君) 시조(始祖)에 대한 가계 내력과 묘의 위치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 측면 말미에는「…檀紀四千三百九年三月下澣傍裔 孫鳳勳謹撰后孫完植謹書」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어 1976년 3월에 다시 세운 것이다.

묘비 뒤에는 대리석 비각과 오석 비신은 높이 140cm×폭 67cm×두께 11cm로 전면 중앙에「杆城君諡忠烈李公師衡之墓」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그 오른쪽에「配 貞敬夫人 密陽朴氏 附」, 그 왼쪽에「崇祿大夫吏曹判書 弘文館大提學」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각각 새겨져 있다. 비의 이면에는「…昭和十年乙亥春三月」으로 1935년 3월에 세운 것으로 전자의 묘비 이전에 세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분묘는 화진포 호수의 남쪽 좁은 산록, 일명 가평대(嘉平臺)에 자리하고 있으면서 화진포 호수를 북쪽으로 안고 있는 형상이며, 분묘 2기가 동서로 이어지고 상석 앞에는 높이 180cm 석등이 있고, 석등 앞으로 높이 160cm의 문인석 2기, 분묘 서쪽에는 높이 160cm의 망주석이 있다.

남당 이사형은 이직(李稷)의 넷째 아들로 호를 남당이라 했다. 성품이 온화하고 겸손, 효도와 덕기(德器)가 컸다고 한다. 단종(端宗) 손위(遜位)를 당해 벼슬을 버리고 화진포(花津浦)로 퇴거하였다.

벼슬은 승록대부 이조판서, 홍문관 대제학(崇祿大夫 吏曹判書 弘文館 大提學)에 이르렀고, 간성군(杆城君)에 봉해졌으며 충열(忠烈)이라 시호(諡號)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정면 비문〉

先生諱師衡字文伯號藍塘勝朝名相文景公亨齋先生四子也 先生生於忠義世閥之家謹厚恭謙 / 孝友隆篤德器宏大官至吏曹判書弘文館大提學封杆城君諡忠烈見浩亭河相公文集與城州大觀 / 名賢編不敢強爲之贊焉配貞敬夫人密陽朴氏兵部典書基修女也有三子長洪次擎次元吉當 端 / 宗遜位棄仕 如脫屣摯家蒼海花津浦仍爲茲州之名族矣文景公嘗有詩曰學問能變化存心須正直 / 事君思盡忠居官思盡職克守此訓杜門好讀不墜家聲世娛林泉累世不振嗚呼先生以拔萃之資力 / 爲己之晚謝宦途超然遠引若無意於當世而愛君憂國之心未嘗不倦倦干中也論其
■成就豈非//

隱居以求志歟先生姓李氏星州人始祖諱純由號牧隱以新羅宰相封京山君鼎■時義不事二君麗 / 朝廢徙京山府生諱雲宥高麗追封漢陽君諡文孝公生諱煥唐太宗亂巍棲殉節封河陽平壤兩大君 / 諡文敬公生諱慶弘封武州君諡貞烈公生諱凡生諱■生諱冲京官參奉生諱瑩生諱孝參生諱敦 / 文安逸戶長生諱得禧安逸戶長生諱長庚高麗追封京山府院君又元 朝宣勅大封隴西郡公生諱 / 兆年號梅雲堂以政堂文學錄翊贊功臣封星山侯諡文烈公其文章節行炳煥麗史退溪李先生嘗稱 / 高麗五百年第一人詩梨花에 月白하고銀漢은三更인데一枝春心を子規야알라하는多情도病人 / 양하여잠못드리하노라 妣八溪郡夫人鄭氏密直允誼女生諱褒官待中諱敬元公史稱循循蹈禮妣 / 慶州郡夫人薛氏大司成文遇女生諱仁敏號慕隱官大提學 太祖贈領議政封星山府院君妣貞敬 / 夫人福州陳氏判開城尹良平公承緒女育一男一女繼妣貞敬夫人咸安尹氏提學禔女生諱稷本朝 / 拜推忠翊戴同德開國佐命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領議政兼領經筵事監春秋館書雲觀事 / 封 世子師 星山府院君 太祖在咸興時慰問使往則殺之故俗稱咸興差使也公自願往拜 太祖引 / 見賜橘公懷之 太祖問何爲對曰以遺子孫 太祖感其意公因極陳 太宗誠孝 太祖遂命 駕還 / 豐壤宮諡文景公詩가마귀검다하고白鷺야웃지마라겉이검은듯속조차검을소냐겉히고속검은 / 이는너뿐인가하노라妣馬韓國夫人陽川許氏陽川君時女也卽先生高曾祖禰與妣也長諱洪號鶴 //

洲贈左贊成領議政諡忠武公次諱擎號白沙平安道觀察使諡文忠公次諱元吉號星巖行郡守選清 / 白吏贈吏曹參判子男也孫曾不錄先生考妣諱日難詳爲恨猶大而尙保遺怙杆城邑誌河浩亭文集 / 確徵往日幸莫大焉墓花津浦嘉平臺辰坐上下兆墓碑距今三百餘年之久爲風磨苔纏殆不可記后 / 孫誠鎬大植泳鎬鳩金錫吉達源錫範董役特此彈誠謀合衆力而改豎之補修先生之靈如在豈不 / 曰吾有后矣銘曰無暴彼日何遜我君相望杆越此義卽倫朝湧吐紅感動連賢明沙十里啼鶻泣人忠 / 魂毅魄松竹永傳欲知先生察此貞珉檀紀四千三百九年三月下澣傍裔孫鳳勳謹撰

〈측면 비문〉

金剛之南舊杆城邑治之北二十里許花津浦嘉平垵山巽原有藍塘李忠烈公諱師衡之壽藏焉卽隴西 / 郡公諱長庚之后星山君文景公諱稷之第四子也■有成德麗末出仕李朝官亞卿盡忠事之■以■讓 / 之移杆城懷常熱中一朝辭任退寓昱郡改名松老累招不就而終焉邑宰啓聞以爲李■王而有忠慕前 / 王而有烈下諡致祭記蹟勒碑可無愧於公之德立也古有美門儀物兵■累過子孫分離中有失護後■ / 掃塋使口碑傳乘矣目今世道弛廢區域改革后孫尤懼公之偉德之將湮立數尺之石■■焉是歲則 / 昭和十年乙亥春三月 日 也

后孫 光鎬(61명 명단 생략)

2-11. 가선대부 호조판서 광산 탁장옥 묘비

■ 개요 ■

- 유형 : 묘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용하리 99-9번지 (비석거리)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62년



가선대부 호조판서 탁장옥 묘비 전면



이면

■ 조사내용 ■

화강암을 다듬은 비신과 비각, 기단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신(碑身) 높이220cm×폭72cm×두께30cm, 비각 상단 가로125cm×높이80cm, 기단석 가로105cm×세로100cm이다.

비신 전면 왼쪽에는「嘉善大夫戶曹判書光山卓公章郁之墓」그 오른쪽「配 貞夫人慶州金氏」配 貞夫人金寧金氏」라고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비신 후면에는「光山卓氏入杆城事蹟 …」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광산 탁씨의 27세 손(孫) 장욱(병신(1776)년12월10일생)이 간성 입향 내력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임인년(1962년) 5월6일 세운 것으로 음각되어 있으나 서체가 희미하다.

탁씨의 본향은 홍천 원당이며 탁장욱은 당초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에 묻혔으나 자손 번성을 희망한 둘째 아들 영기(永基)에 의해 현재의 거진읍 산북리 오동골 이씨 선산 옆에 이장하였고, 그 후 자손이 번성하여 문중에서 현재 비석거리에 1962년 경 비석을 세우고 시제를 지내오고 있다고 문중에서 전하고 있다.

〈비문〉

光山卓氏入杆城事蹟

始祖諱之葉字王立號學■卓氏系出光山府高麗宣宗朝太師封光山君諡文成公■九十貞烈夫人開城王氏基女墓光州 / 石池面長子山子坐案對卯峯二十七世孫諱章郁字乃亨丙申十二月十日生官■■大夫戶曹參判公■■巨■■當其■ / 自襄陽郡縣北面漁城田開國五百二年祭巳三月入杆至龍湖村來胥其字公性清廉潔白■好山明水麗其仁智之■可知 / 矣蓮治崖■廣■地使其■仍教授學■■■一世以至今日不■大夫之行由此觀之則公之智明千古感■■■■三■ / 二十七日卒墓杆城郡梧垵面山北里梧桐谷乾坐配貞夫人慶州金氏墓三子■基恒基■明后配貞夫人金寧金氏生三子 / 興基鳳基龍基二十八世孫諱永基字順汝乙卯三月十四日生學問卓越宜都正聖正六品嘉善大夫漢城判尹以善政治民 / 民皆仰■耳生七男皆以羽經國旅世晚年以回婚禮以答一鄉世咸福德矣癸酉正月二十九日卒配貞夫人江陵咸氏子七 / 人鉉洙鉉必鉉益鉉龜鉉哲鉉聲鉉斗恒基甲子九月十六日生壽五十二配全州李氏桂明號凌虛氏戊辰二月十日生公慈 / 悲之性早入禪門圓覺道理稱爲道僧矣公雖在山門志在蒼生之道圖其■宜■升而■其■民民號曰卓凌■判■有之門 / 通道路使■衆生以開不通民號曰卓凌■出其■源以救貧民民皆曰,生佛復來以此■之則慈悲之■千古尼■也

壽八十 / 回興基■未七月十八日生壽六十二配江陵咸氏鳳基庚辰五月二十日生
 配全州李氏■■癸未五月十一日生■城津尹 / 氏二十九世孫鉉洙配南陽洪氏子
 慶■■必配全州李氏生三子慶■慶眞慶夏鉉益配密陽朴氏生三子■■雲澤雲鶴
 鉉 / 龜出系鉉哲配三陟金氏■四子慶祚慶燮慶圭慶海鉉聲配光山金氏生五子慶
 弘慶煥慶賢慶俊慶律鉉■配宜寧南氏生 / 三子慶株慶漢慶植恒基系子鉉龜配清
 州韓氏生三子慶澤慶文慶再興基子德配水原白氏子宗澤鳳基 ■子鉉泰配全 / 州
 李氏龍基子德煥必以下不盡錄

■歲在壬寅(1962년)五月六日 立 三十世孫 ■■■■■■■■■■

2-12. 고성 부호군 황성일 묘비

■ 개요 ■

- 유형 : 묘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불상번지 CIQ 동쪽 산자락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정해년(丁亥年)



부호군 황성일 묘비와 상석 전면



상석 전면



상석 우측면



묘비 이면



혜손돈 묘비



부호군 황성일 묘 전경

■ 조사내용 ■

명파리 마을에서 통일전망대 쪽으로 옛날 7번 국도를 따라 북상하다 보면 '명파 3교'라는 콘크리트 다리가 나오는데, 이 다리에서 동편(해안 쪽) 120m거리 야산(지도 상에는 소봉바위로 표기되어 있는 남쪽산) 서쪽 사면에 자리하고 있음.

묘소 앞에는 장대석으로 된 기단(940cm)이 있다. 좌우에는 문인석 높이110cm 2기와 1기의 망주석 높이146cm가 배치되어 있고, 봉분은 오랜 세월 방치되었던 관계로 잡목으로 뒤덮여 있어 형태를 알아볼 수 없다. 전면에는 혼유석과 복련과 안장이 조식된 비대좌위에 파손된 채로 서 있는 묘표 높이54cm×폭38cm×두께14cm가 있고, 3면에 각자 되어 있는 상석 가로111cm×세로76cm×높이43cm와 향로석 28cm×23cm×22cm이 놓여 있지만 다른 석물들과 같이 한국전쟁 때의 상흔으로 심하게 파손되어 있다.

발견된 묘표 중간부분의 석재 전면에는「副護軍黃公之墓」라 되어 있고, 후면에는「丁亥 五月十六日」「儉曾■」, 상석에는 피장자인 부호군 황성일(黃聖一)의 가계, 묘의 위치, 재산현황 등이 3면에 새겨져 있다. 비갓 여부는 확인할 수 없고 비신 상부는 파손되었고 발견된 비신은 중간부분이 부서진 채 엮혀 있다.

석물의 재질은 모두 화강암으로 되어 있고 조각 수법으로 보아 조선 후기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며 훼손된 글자가 많아 정확한 내용을 확인치 못했다.

명파마을에서 예부터 장군바위라 칭하고 별초 등 관리했으나 현재는 방치된 상태이다. 보호 관리가 요망된다.

〈상석 전면〉

公姓黃諱聖一卽 / 我襄武公支齊蹟 / 在家譜公墓良坐 / ■原自南去五里 / 許猪
津壬坐之原 / 卽公之室李氏之 / 墓自南去五里許 / 明波陪洞西坐■ / 之原卽公
之子 / 耆國夫婦兩墳 / 噫此三處墓墳 / ■■百歲後眞 / 外子孫世絶則 / ■他姓
四時修■ / 耆於此有田二石 / 有畓一石耕而食 / 之不勤禁伐耆面 / 室論公揮李
氏之 / ■有■耆更代之 / 莫使人■■吾子

〈상석 오른쪽 측면〉

育字五十■■十三 / 卜二東二十■■■ / 只北金■■■■■ / 山西大路向字六
十 / 二田九束六頭■■■ / 東北小路西南川■ / 字二什一百五十■ / 畓十卜六束
一百五 / 十四畓三卜二束四 / 夜味東西■人畓南 / 肯敏畓北小路 / 不肖子著國
泣血 / 書守著國忌 / 室忌五月十六日

〈상석 왼쪽 측면〉

孫子雖在貧困 / 賣此田畓而文 / 記己燒將何■ / 考雖買耆他墓 / 田畓誰能生心
/ 厥律在■興受 / 同罰噫■吾子 / 孫耆豈■先人 / 之教哉 / 忌十二月十五日 /
配忌六月三日

※부호군(副護軍)

조선시대 5위(五衛)의 종4품의 관직. 관계상(官階上)으로는 정략장군(定略將軍)·선
략장군(宣略將軍)이라 별칭. 태종 초에는 섭호군(攝護軍)이라 하였다가 5위체제가
갖추어지면서 1467년(세조 13)의 관제개혁 때 종4품 부호군으로 개칭되어 법제화
되었음.

『경국대전』 - 정원 54인, 『대전회통』 - 68인

2-13. 양근함씨4세5호자지정려

■ 개요 ■

- 유형 : 충효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396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해서체
- 건립 시기 : 1984년 음 3월 5일



양근함씨 4세5호자정려비각 전면



효자비

조사내용

효자비는 왕곡마을 입구 어귀에 위치해 있다. 함성육을 비롯한 인흥, 인흥, 덕우, 희용 등 양근함씨 4대에 걸쳐 5효자가 모두 단지(斷指)하여 부친의 생명을 연장하는 등 보기도문 효행을 실천하여 이를 기리기 위해 1820년 효자비를 건립하고 ‘4세5효 자정려(四世五孝子旌閭)’라 명명하였다.

정측면 각 1칸(210×210cm)의 팔작지붕 건물인 효자비각은 1983년 건립되었으며, 양

기둥 안쪽으로 홍살문이 별도로 설치되고 그 안쪽으로 5기의 효자비가 배치되었다. 효자비는 각각 그 이면에 효자의 효행과 행상을 기술하고 있다. 비각의 초석은 화강암체로서 한쪽을 절단한 형태이다. 효자각 내에는 5기의 효자비가 세워져 있다. 중앙을 3기가 있고 좌우로 각 1기가 옆으로 세워져 있다.

〈비문〉

- ① 孝子 贈 通政大夫 漢城左尹 咸仁興之間
- ② 孝子 贈 嘉善大夫 童蒙教官 咸成郁之間
- ③ 孝子 贈 通政大夫 敦寧府副正 咸仁弘之間
- ④ 孝子 贈 通訓大夫 同知中樞府事 咸德祐之間
- ⑤ 孝子 贈 通訓大夫 義禁府都事 咸熙龍之間)

2-14. 함희석 효자비

- 개요 ■
- 유형 : 비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379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871년 12월



함희석 효자비



함희석 효자각

조사내용

오헌(五軒) 함희석 효자각은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마을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함덕인(咸德仁.1828~1860)의 장남으로 효행이 뛰어나 조정으로부터 정려(旌閭)를 받았다. 1869년에 건립한 효자비는 화강암재로 팔작지붕 모양의 비각을 엮었다.

1871년 12월 건립한 비각은 전면 1칸, 측면 1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며 전면 기둥 안쪽으로 홍살을 세운 것이 이채롭다. 비각의 주춧돌은 3단의 고주형이고 앞 초석 2매의 전면에는 전서(篆書)로 ‘구(龜)’를 새겨 놓았다. 주변은 토석 혼축의 담장을 두르고 그 위에 기와를 엮었다.

비의 전면에는 「孝子通訓大夫敦寧府都正江陵咸熙錫之閭」라고 붉은 글씨로 새겨져 있으며, 후면에는 그 효행과 행상이 기록되어 있다.

〈비문〉

銘蹟公平生惟考且慈 禮讓己任勤儉家齊 兄友弟恭日和墳簾克配賢哲並與稱其
子孫衆多福履綏之 百世令德有此螭甍 歲辛未孟秋上浣
資憲大夫議政府贊政掌禮院卿原任侍講院詹事 完山 李載現 撰
子 泳斗 泳俊

〈측면〉

五辛未十二月日立

2-15. 이지병 묘비

■ 개요 ■

- 유형 : 묘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69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31년(辛未年) 8월



이지병 묘비

■ 조사내용 ■

이지병 묘비는 고성공설묘원에서 서쪽으로 뺀 능선상에 평창이씨 묘소5기가 일렬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 중 3번째 묘소에 해당된다. 현재 묘소의 봉분은 일부 삭평되어 있고, 봉분 아래에 비갓이 없는 묘표형식의 묘비가 비받침돌 위에 세워져 있으며 묘비 바로 아래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갖추어져 있다. 묘비는 9세손 이창순(李昌舜)이 신미년에 건립했으며 비의 크기는 104cm×39cm×19cm이다.

이지병(李之屏, 1597~1660)은 자는 수백(樹伯) 또는 위보(衛甫)이다. 본관은 평창(平昌)이고 부친은 성립(成立)이며, 부인은 봉화정씨(奉化鄭氏)이다. 거주지는 간성(杆城)으로 1618년(광해군 10)에 식년시 생원에 입격하고 1624년(인조 2) 식년시 병과에 합격하였다. 중앙관직은 예조 및 이조좌랑(吏曹佐郎), 교서관 교리(校理)을 제수했고, 지방관직은 인제 현감(麟蹄縣監) 및 울진 현감(蔚珍縣監), 회양부사(淮陽府使)를 각각 역임했다.

〈비문〉

平昌李公之屏之墓子坐
配貞夫人奉化鄭氏合祧
文科典籍行蔚珍縣監麟蹄縣監淮陽府使
禮曹佐郎吏曹佐郎校理

〈후면〉

辛未八月 日(1871)
九世孫昌舜

2-16. 이지한 묘비

■ 개요 ■

- 유형 : 묘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가진리 산69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5년 2월



이지한 묘비

■ 조사내용 ■

이지병 묘비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묘소는 봉분 아래에 혼유석, 상석, 향로석을 갖추고 있고, 그 좌측 가까이에 묘비가 세워져 있으며 묘소 아래쪽으로는 망주석 2기가 있다. 장방형의 비받침돌 위에 별도의 비갓이 덮인 묘비는 12세손 이병장(李炳長)이 1995년 건립했으며, 비의 크기는 165×48cm×20cm이다.

묘비 전면에는「副護軍平昌李公之翰之墓」「配淑人江陵崔氏合窆)」이라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公姓李氏諱之翰平昌人始祖諱潤張高麗光祿大夫開國功臣大司馬白烏府院君諡文成公二十四世祖也八傳諱匡麗太師副護軍平昌李公之翰之墓」이 새겨져 있다.

이지한의 평창이씨 족보에 따르면 이성립(李成立)의 아들이며 인제현감 이지병의 아우이다. 관직은 25세에 무과에 합격하여 부호군(副護軍)을 역임하였다.

〈비문〉

副護軍平昌李公之翰之墓

配淑人江陵崔氏合窆

公姓李氏諱之翰 平昌人 始祖諱潤張 高麗光祿大夫開國功臣 大司馬白烏府院君
諡文成公 二十四世祖也 八傳諱匡麗太師 副護軍平昌李公之翰之墓

2-17. 김옥광 묘비

■ 개요 ■

- 유형 : 묘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2리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21년 4월



김옥광 묘비

■ 조사내용 ■

김옥광(金玉光, 생몰년미상) 묘비는 고성군 죽왕면 적동리 남쪽 6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묘소는 봉분 아래에 상석, 향로석을 갖추고 있고, 그 좌측 두 개의 묘비가 세워져 있으며 묘소 아래쪽으로는 망주석 2기가 있다.

장방형의 비받침돌 위에 별도의 비갓이 덮인 묘비는 17세손 김정희(金鼎熙)와 18세손 김용갑(金龍甲)이 건립했으며, 비의 크기는 160cm×85cm×21cm이다.

묘비 전면에는 「嘉善大夫江原道觀察使兵馬水軍節度使巡察使原州牧使龍宮金公之墓」이라 새겼고, 후면에는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1940년 발간한 『강원도지(江原道誌)』에 따르면 “김옥광은 호는 휴암(休菴), 본관은 용궁(龍宮)이다. 고려 태자(太子) 소보(少保) 존중(存中)의 후손이다. 조선 단종 때 강원도 도백이 되었고, 아울러 원주의 목사(牧使)가 되었다. 조서(詔書)에 대략 이르기를, ‘단아한 그 모습, 사물에 통달한 식견, 명성 널리 드러나, 내각(內閣) 두루 개혁하니, 홍악(紅幄)의 반열에, 재주와 꾀 환히 빛났도다.’라고 하였다. 세조가 왕위를 오르자 수성(水城)에 은둔하였다.

2-18. 최봉년 묘비

- 개요 ■
- 유형 : 묘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9년 4월 6일



최봉년 묘비



최봉년 묘소

■ 조사내용 ■

최봉년 묘비는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서쪽 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묘소는 봉분 아래에 상석, 향로석을 갖추고 있고, 그 우측 한 개의 묘비가 세워져 있으며 묘소 아래쪽으로는 망주석 2기가 있다. 장방형의 비받침돌 위에 별도의 비갓이 덮인 묘비는 강릉 최씨 오봉 종친회가 건립했으며, 비의 크기는 132cm×44.5cm×20cm이다.

묘비 전면에는「武科通政大夫玉浦僉使江陵崔公諱鳳年子聖微之墓淑夫人安東權氏」라 새겼고, 후면에는 최봉년(崔鳳年, 1583~1641)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시조 1세 휘는 흔(欣)이고, 자는 봉(奉)의 후손으로 세세만대 오봉에서 융성번영하고 있다. 선조(先祖) 12세손 휘는 입지(立之)로서 충익사(忠翊司) 공신으로 추대되었고 평장사(平章事)에 봉해졌으며 강릉에서 한양으로 들어간 것이 평장공이시다.

선조 20세조의 휘는 숙남(叔男)이며 아들 6형제 가운데 오봉(五峯)에 입성하신 선조가 21세조이시다. 선조께서는 조선 명종(明宗) 때에 학문과 무술 문무에 재능이 탁월하여 조선 13년간 명종임금으로부터 소명되어 왜군방어를 위해 국가는 선조를 필요로 하여 항상 충성심이 강하고 직무 수행과 보필의 능력을 인정받아 명종임금으로부터 종 3품의 의빈(儀賓)에 문무관(文武官)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와 감군어사(監軍御史)의 보직을 명받았고 수군의 진수부(鎭守府)인 수영(水營)과 대마도(對馬島)에서 왜군 침공을 2년간 외직 무관으로 승려들의 교육을 위해 쌀을 제공하는 등 수군 통솔의 책임을지고 혁혁한 공훈을 세웠다. 이는 현 정부의 장관급에 해당되며 해군 참모총장 격에 따른다. 선조는 생애를 통해 이름난 선조로서 활동 중 현재의 임야 일만오천여평, 답 백 여평을 후손들에 양도해주었다.

서기1996년 4월 봄철 큰 산화로 산 일대가 전소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으나 점차 회복되었다. 매년 10월 7일 운명 일을 추모하여 매년 한 번씩 제사를 지내고 있다. 1559년(명종14) 6월에 돌아가신 조비(祖妣)와 합봉(合封)하여 오봉 순방동(順房洞) 신좌(辛坐)에 안장하였다.

2-19. 최응복 묘비

- 개요 ■
- 유형 : 묘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9년 4월 6일



최응복 묘비



최응복 묘소 전경

■ 조사내용 ■

최응복(崔應福, 1504~1565) 묘비는 고성군 죽왕면 오봉1리 서쪽 8부 능선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의 묘소는 봉분 아래에 상석, 향로석을 갖추고 있고, 그 우측 한 개의 묘비가 세워져 있으며 묘소 아래쪽으로는 망주석 2기가 있다. 장방형의 비받침돌 위에 별도의

비갓이 덮인 묘비는 강릉 최씨 오봉종친회가 건립했으며, 그 규모는 전체높이 170cm×비신높이, 130cm×너비, 45cm×두께 21cm 이다. 묘비 전면에는「嘉善大夫水使公/武江陵崔公諱應福字福地之墓/貞夫人全州李氏」라 새겼고, 후면에는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조부는 이십일세 휘는 응복(應福),가선대부는 조부이시며 이십이세 휘는 극추(極樞) 영흥교수(永興敎授)는 부친이시다. 또한 장인을 비롯한 가문一家가 관직생활을 한 집안이다.

선조께서는 인조(仁祖)임금으로부터 신망이 두터워 재능과 학문, 무예에 탁월하여 무과 통정대부를 임명받아 무예와 병서를 통한 인재선발, 무관의 당하관 과거실행 등의 공적을 세웠다. 또한 옥포(玉浦)에서 수군검열단장(水軍檢閱團長)으로 활동하였다.

가선, 통정대부, 봉순대부의 수석으로서 직무를 통제하였으며 문관품계로 정3품 의빈(儀賓)에 대한민국정부 차관급에 해당된다.

서기1637년 인조 정축 칠월에 합봉(合封) 현지에 안장되어 있다.

2-20. 가선대부 광산김학현 묘비

■ 개요 ■

- 유형 : 묘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138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43년 9월 20일



김학현 묘비

■ 조사내용 ■

가선대부 광산김공휘학현지묘비(嘉善大夫光山金公諱鶴鉉之墓碑)는 신평1리 마을의 서남쪽에 위치한 해발 40.7m 정상부의 동쪽으로 뻗은 능선 상에 광산 김씨(光山金氏)묘역이 조성되어 있는데, 김학현 묘소는 이 묘역의 남쪽 아래 도로변에 홀로 자리하고 있다. 묘소의 봉분 앞에는 묘비, 혼유석, 상석, 향로석을 갖추고 있다.

후손 백수(白洙)에 의해 1943년에 건립된 묘비는 화강암으로 제작되었으며, 비감이 있다. 비의 크기는 115cm×40cm×17cm이다.

비의 전면에는「嘉善大夫光山金公諱鶴鉉之墓」(當千年遺)'이란 명문이 새겼다. 후면에는 김학현의 관련한 이력이 적어 놓았다. 김학현은 김재윤(金在潤, 1835~1867)의 둘째 아들이며 김석현의 동생이고 김두현의 형이다. 생몰년대는 미상이다. 후손 김백수는 훈도와 공의(公醫)를 지낸 바 있다.

〈비문〉

嘉善大夫光山金公諱鶴鉉之墓

公卽光城君諱鼎十八世孫也祖諱箕燮父嘉善大夫在潤有三男一女長碩鉉三次斗鉉次卽公也忌三月四日葬亥坐原子通■ 旭墓在水清峙大坪巽坐有碑石孫伯洙歷襄陽高城■ 學校訓導現任襄陽公醫次孫仲洙億洙仁洙也今■ 公之行狀以竣後之立言君子不敢述焉

〈우측면〉

癸未九月二十日 孫伯洙勤識

2-21. 김해김씨 효녀각

■ 개요 ■

- 유형 : 충효비(목판)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54-11번지(동해대로 5110)
- 재질 및 서체 : 목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00년(개축 1970년 7월 28일)



김해김씨 현판



김해김씨 효녀각

조사내용

효녀각(孝女閣)은 현재 청간정 군부대내의 만경대 암석의 절벽 아래에 있다. 원형 주 초석 위에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 기와지붕의 구조이다.

내부에 효행명선(孝行命旌)에 대한 가로 111cm×세로 31cm 현판이 걸려 있다.

현판 내용은「孝女嘉善大夫朴貴龍妻貞夫人金海金氏之門命旌上之甲午八月日 光武四年庚子十月日 重修 本郡郡守李鼎夏書」라 새겨져 있고, 그 옆에는 덧붙여「改築西紀一九七〇年七月二十八日 陸軍大領 蘇珠英」라고 되어 있다. 현판의 간지로 보아 1900년에 만들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한국전쟁 이후 1970년에 효녀각을 개축하면서 정려현판 역시 다시 제작하여 게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김해김씨의 효행사실에 대하여는 1884년(고종 21)에 만들어진『간성읍지』에 의하면 “양인(良人) 김석봉(金石奉)의 딸이며 이름은 돌례(玆禮)이다. 결혼하기 전 명화적(明火賊)이 그의 집에 침입하여 사람을 죽였다. 목숨이 찰나임에도 늙은 아버지를 시루로 덮어 숨긴 덕에 목숨을 구했다.”고 한다. 이러한 용기가 조정에 알려져 정문을 세우고 표창하였다.

2-22. 효열 연안김씨 정려비

■ 개요 ■

- 유형 : 정려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546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52년 10월 10일



연안김씨 정려비



연안김씨 기문

■ 조사내용 ■

효열 연안김씨비(孝烈 延安金氏碑)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2리 마을 중앙에 소재하고 있다.

연안김씨의 효부와 열녀의 행적을 기리기 위해 광주 노씨(光州 盧氏) 문중에서 열녀비각을 건립하였다.

열녀비의 크기는 165cm×89cm×12cm이다. 비의 전면에는 자경 7cm 크기의「孝烈學生盧炳琨妻孺人延安金氏之碑」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고, 좌우 여백에 4구씩「割膚立節, 嘗夫殫誠」,「永垂閨範, 克孝興貞」이라고 적어 그 효행을 기리고 있다.

비각의 전면에는 고석주(高碩柱)에 의해 작성된 기문(記文)이 게판되어 있다.

2-23. 영월엄씨 정려비

■ 개요 ■

- 유형 : 정려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67-1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30년 9월



영월엄씨 정려비



영월엄씨 정려비 전경

■ 조사내용 ■

열녀 영월엄씨 비는 고성군 토성면 용암~성대리로 연결되는 304번 군도의 도로변 우측, 성대리 마을 앞을 흐르는 하천 건너 동편 길가에 세워져 있다.

비석은 화강암재이며 크기는 140cm×44cm×21cm이고 이수위 크기는 77cm×47cm이다.

행적에 의하면 엄씨는 엄씨는 어려서부터 천성이 온순하고 부모에 효도함이 극진하였다. 뒤에 경주김씨 김동경(金東經)에게 출가하였으며, 남편이병으로 자리에 눕자 백방으로 약을 구하는 등 간병을 극진히 하였지만 차도가 없어 단지 주혈하는 지극 정성으로 남편이 완쾌되었다고 한다.

그 후「烈女嚴氏褒彰完議文」에 의해 행실이 널리 알려졌다. 1928년 열녀로 표창되었으며 1930년 9월에 비를 세웠다.

비의 형태는 사각의 대좌와 비신에 옥개석이 얹혀 있고 전면에는 2행으로「前參奉金東經之妻, 烈女寧越嚴氏之碑」후면에는 효행과 행장이 각자되어 있다.

마을 주민에 의하면 이 비는 원래 위치보다 약 7m정도 도로변에서 후퇴하였으며 태풍 루사로 인해 가침석은 망실되고 현재 가침석은 새로 만든 것이다.

併三

種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3. 선정·송덕비

3-1. 군수 이정하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02년



군수 이정하 영세불망비 / 탁본



와우산 선정비군 전경

■ 조사내용 ■

비석은 개석(蓋石)이 없이 비신만 있고 비신의 크기는 높이163cm×너비52cm×두께23cm이며 비문 전면 중앙에는「郡守李公鼎夏永世不忘碑」비명이 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새겨져 있고 전면 우측에는「百里仁風 均施一境」, 좌측에「如水其清 如日其昞」이라고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후면에는「壬申三月日」1902년(광무2) 3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이정하(李鼎夏, 생몰년 미상)는 1899년(고종36)에 6월25일 간성군수로 부임하여 1902년까지 역임하였다. 재임기간 중 어진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선정을 고루 베풀어 임기를 마치고 떠나는 해에 간성군민들에 의해 읍내에 비(碑)가 건립되었다. 당초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85년 고성문화원 주관으로 지역 내에 방치되거나 관리가 부실한 선정비와 영세불망비, 거사비 등 18기 비석을 현재 위치로 옮겨와 관리하고 있다.

	⑩	⑪	⑫	⑬	⑭	⑮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⑬	①군수 박희남 군정구호						⑬군수 송재의 영세불망비	
	②군수 이정하 영세불망비						⑭군수 김시보 영세불망비	
⑭	③군수 육군참령 이준구 영세불망비						⑮군수 구음 청백거사비	
	④통훈대부 박근형 불망비						⑯관찰사 정태호 영세불망비	
⑮	⑤군수 김용 영세불망비						⑰군수 서유여 선정비	
	⑥군수 성준길 추사비						⑱군수 이용학 거사비	

3-2. 군수 구음 청백거사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696년(숙종22)



군수 구음 청백거사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개석(蓋石)이 없이 화강암 계통의 비신만 있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112cm×너비55.5cm×두께15cm이다.

비의 전면 중앙에는「郡守具公峯清白去思碑」라고 세로쓰기 명문이 음각되어 있고 후면에는「丙子十二月日立」 1696년(숙종22) 12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구음(具峯, 1614~1683)의 본관은 능성(綾城)이고 자는 차산(次山)이며 호는 명곡(明谷)이다. 1652년(효종3)에 참봉으로 증광문과에 급제하여 1670년(현종11)에 정언이 되었고 1678년에 다시 장령을 거쳐 헌납이 되고, 이듬해 사간·승지에이어 간성군수(杆城郡守)를 지냈다.

저서로는 『명곡집(明谷集)』이 남아 있고 간성 지역에 대한 시가 남아있다. 1680년(숙종6) 간성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백성들을 선정으로 다스렸고 고을 재정 관리에 심혈을 기울였다. 도중에 억울한 일도 있었는데 이웅징(李熊徵)의 「묘갈명(墓碣銘)」에 의하면, 그때 선생과 이름이 같은 사람이 죄인과 시를 주고받은 일이 있었으므로 언관(言官)이 선생으로 잘못 알고 추고(推考)만을 명하였으나, 선생이 자진 출두해서 사실 규명하고서야 사건이 마침내 밝혀졌다고 한다.

선생이 이 일을 계기로 벼슬을 버리고 몇 해 동안 몸조리하다가 운명하였으니 이때가 1683년(숙종9) 12월 7일이었다. 여러 관직을 수행하는 동안 얼음처럼 깨끗한 마음가짐으로 일관하였다. 이 비는 간성군민들에 의해 읍내에 건립되었으며 현재 와우산 중턱에 여러 개의 선정불망비와 함께 있다.

3-3. 군수 육군참령 이준구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04년



군수 이준구 영세불망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개석(蓋石)이 없이 화강암 계통의 비신만 있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 110cm× 넓이 39cm×두께 10.7cm이며 비문 전면 중앙에는「郡守陸軍參領李峻九永世不忘碑」라고 명문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전면 우측에는「捐稟滂澤 恤燼成社」좌측에「百弊矯革 衆民安泰」라는 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선정의 내용이 음각되어 있다. 후면에는「甲辰八月 日」1904년(광무8) 8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이준구(李峻九, 생몰년 미상)는 1904년(광무8) 12월부터 1906년(광무10) 8월까지 간성군수를 지냈다. 간성군수로 부임해 오던 해에 화재로 인하여 35호(戶)가 전소가 되었고 역답(驛畚) 130석(石)이 몰소(沒燒) 당했을 때 장계를 올리고 청휼(請恤) 하는 등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읍내에 건립하였으나 현재 와우산 중턱에 여러 선정 불망비와 함께 있다.

3-4. 군수 김시보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722년



군수 김시보 영세불망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개석(蓋石)이 없이 비신만 있고 비신의 크기는 높이117cm×너비55cm×두께24.4cm이며 비의 전면에는「郡守金公時保/待士勸學/永世不忘碑」라고 세로쓰기 명문이 음각되어 있고 후면에는「崇禎后三月日立」1722년(경종2) 3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김시보(金時保, 1658~1734)의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사경(士敬)이며 호는 모주(茅洲)이다. 진사를 거쳐 음직으로 벼슬을 하여 공조 좌랑·무주 부사 등을 거쳐 도정에 이르렀다. 저서로는 『모주집(茅洲集)』이 남아 있다.

1712년(숙종38) 12월 18일에 간성군수로 부임하여 이듬해에 윤(潤)5월 5일까지 역임하였다. 간성군수로 재임 동안 선비들을 양성하고 학문을 장려하는 등의 공적을 남겼다. 이 비는 간성군민들에 의해 읍내에 건립되었는데, 현재 와우산 중턱에 여러 개의 선정불망비와 함께 있다.

3-5. 통훈대부 박근형 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20년



통훈대부 박근형 불망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개석(蓋石)이 없고 화강암 계통의 비신만 있는데 비의 윗부분은 밋밋한 사선으로 처리한 원수형(圓首形)이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96.2cm×너비39cm×두께10.7cm이며 비문 전면 중앙에는「通訓大夫朴根亨不忘碑」세로쓰기 전면 우측에는 4자씩「棟宇益峻 賴有捐力」, 좌측에「竹立千秋 風雲不息」이라는 세로쓰기 한자 해서체 명문이 음각되어 있고, 후면에는「庚申三月日」1920년 3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박근형의 불망비는 본래 고성군 토성면 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1986년 이후에 와우산 중턱에 옮겨와 이 지역의 다른 선정불망비와 함께 있다. 비문의 내용으로 보아 동헌(東軒)을 건립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것을 잊지 못하여 이 비를 건립하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3-6. 군수 송재의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831년



군수 송재의 영세불망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개석(蓋石)이 없이 비신만 있고 원수형(圓首形)에 가깝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99cm×너비40cm×두께17cm이며 비의 전면에는「郡守宋公在誼永世不忘碑」라 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새겨져 있고 우측면에「體念保障 矯揉後弊」라는 명문이 세로로 음각되어 있고 후면에는「辛卯十二月 日立」1831년(순조31) 12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송재의(宋在誼, 1783~?)의 본관은 진천(鎭川)이고 자는 의지(宜之)이며 호는 수제(修齊)이다. 간성군수로는 1825년(순조25) 7월 16일에 부임하여 1828년(순조28) 5월 서울에 있을 때 체직되었다. 1928년 『건봉사급건봉사말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史蹟)』에 의하면 재임 중인 1826년(순조26) 건봉사(乾鳳寺)의 잡역(雜役)을 감해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 비는 승도들에 의해 건봉사에 세워졌으나 현재 와우산 중턱에 여러 개의 선정비와 함께 있다.

3-7. 군수 김용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870년



군수 김용 영세불망비 / 탁본

■ 조사내용 ■

이 비석의 형태는 비신의 위쪽을 둥글게 다듬은 월두형(月頭形)이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100cm×너비37cm×두께18cm이며, 비문 전면에는「郡守金公鎔 永世不忘碑」라고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후면에는「丁卯十二月 日立」1870년(고종7) 12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김용(金鎔, 1812~1879)의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장백(莊伯)이다. 1821년(순조 21) 6월30일에 문의현감(文義縣監)에서 이배되어 1825년(순조25) 6월까지 간 성군수를 지냈다. 1822년(순조22)에 군수 김용(金鎔)이 건봉사에서 나라에 바치는 두꺼운 종이 3권, 흰 종이 7권, 잡지 30여 권, 대나무 그릇을 만드는 농골(籠骨) 네 수레를 감해주는 일들을 추진하였고 열산관(烈山館)을 대진(大津)으로 옮겨 새로 짓는 등의 치적을 남겼다.

본래 건봉사에 건립되었으나 현재 와우산 중턱에 여러 개의 선정비와 함께 있다.

3-8. 군수 이인정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871년



군수 이인정 영세불망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개석(蓋石)이 없이 비신만 있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120cm×너비46cm×두께22cm이며 비의 전면 중앙에는「郡守李公寅正永世不忘碑」라고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전면 우측으로「海陸俱頌 舒營重薦」, 좌측에「捐稟補英 遂及我田」이라는 선정의 내용이 세로 쓰기로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辛未二月 日」1871년(고종8) 2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이 비는 『조선지지자료(朝鮮地誌資料)』 간성군 편에 의하면 1871년(고종8)에 간성군민이 안심리(安心里, 현 신안리)에 건립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인정(李寅正, 1799~1876)의 본관은 전주(全州)이고 자는 공직(公直)이다. 사마시(司馬試)에 급제하여 군수·복정·공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간성군수로는 1866년(고종3) 4월17일 시작으로 1870년(고종7) 12월에 과체(瓜遞)되었다.

1897년 만들어진 『수성읍지』에 의하면 재직 시에 많은 치적(治績)을 남겼는데 그 가운데 ‘동고(東庫)’를 고쳐지었고, 1869년(고종6) 여제단(厲祭壇, 신주 모신 곳) 1칸, 제물소(祭物所) 1칸, 제관방(祭官房, 제사를 맡아보는 관리의 방) 1칸을 지었다. 또한 1870년(고종7) 객사(客舍)를 다시 짓고 담장과 더불어 동쪽 대청 앞으로 작은 문을 내고 허물어진 청사를 헐어내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현재 와우산 중턱에 여러 개의 선정비와 함께 있다.

3-9. 군수 성준길 추사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625년



군수 성준길 추사비 / 탁본

■ 조사내용 ■

이 비는 와우산 중턱에 위치한 18기의 가운데 가장 오래된 비석으로 비신의 형태는 위쪽을 둥글게 다듬은 월두형(月頭形)이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66cm×너비21cm×두께18cm이며 비의 전면에는「郡守成公俊吉追思碑」라고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우측면에 작은 글씨로「乙丑九月日立」 1625년(인조3) 9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성준길(成俊吉, 1579~1624)은 조선 중기의 무신,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자는 수재(秀哉)이다. 1608년(선조36)에 무과(武科)에 급제하였다. 1615년(광해군7) 간성군수(杆城郡守) 겸 조방장(助防將)으로 부임하여 1617년(광해군9) 12월10일까지 3년간 역임하는 동안 백성에게 정사를 잘 살피고 선정을 베풀어 가자(加資)되었으며, 1616년 간성사람 최운익(崔雲翼)을 무과(武科)에 급제시키는데도 기여하였다. 그 뒤 길주목사, 영변목사, 경기수사 등을 역임하였다.

3-10. 군수 이면익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09년



군수 이면익 영세불망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화강암 재질로 관석(冠石)과 비신이 하나의 석재로 만들어졌고 관석에는 초화문이 새겨져 있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111cm×너비45cm×두께21cm이며 비의 전면에는「郡守李公冕翼永世不忘碑」라고 세로로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己酉三月 日」1909년(康熙2)3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이면익(李冕翼, 1813~?)의 본관은 연안(延安)이고 자는 경간(景幹)이다. 음사(蔭仕)로 벼슬을 시작하였고 1908년 1월에 간성군수로 부임하여 1911년 9월까지 역임을 하였다. 재임 기간 동안 근대 신식학교인 간성 ‘수성학교’설립에 기여했다.

1928년 발간된 『건봉사급건봉사말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지방관리공덕비」에 의하면 건봉사의 비 현황에 기록돼 있다. 이 비석은 현재 와우산 중턱에 옮겨 와 여러 개의 선정비와 함께 있다.

3-11. 군수 김계렴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807년



군수 김계렴 영세불망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개석(蓋石)이 없이 비신만 있는데, 비의 윗부분은 둥글게 처리한 원수형(圓首形)이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139cm×너비56cm×두께19cm이며, 비의 전면 중앙에는 「郡守金公啓濂永世不忘碑」라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전면 우측에는「民賴蔘貢猗歟公德」, 좌측에「士振絃誦 山海深重」이라고 세로로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후면에는「丁卯十二月 日立」1807년(순조7) 12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김계렴(金啓濂, 1749~ ?)의 본관은 강릉(江陵), 자는 경무(景茂)이다. 1793년(정조 17) 5월부터 1797년(정조19)12월까지 간성군수를 지냈다. 그 뒤 광주판관으로 영전되었다. 간성군수 재직 중 양반의 자제들을 양성하여 학문 진흥을 장려하는 등의 치적을 남겨 군민들이 서문리(현, 간성읍 상리) 37번지에 건립했으나, 현재의 위치에 옮겨왔다고 한다.

3-12. 군수 정재용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847년



군수 정재용 영세불망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개석(蓋石)이 없이 비신만 있는데, 비의 윗부분은 둥글게 처리한 월두형(月頭形)이고, 비신의 크기는 높이96cm×너비42cm×두께20cm이다.

비의 전면 중앙에는「郡守鄭公在容永世不忘碑」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전면 우측에는「愛民之惠 及于山門」, 좌측에「如此功德 何不立石」이라는 세로쓰기로 명문이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丁未十二月 日立」1847년(헌종13) 12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정재용(鄭在容, 1793~?)의 본관은 동래(東萊)이고 자는 사룡(士龍)이다.

1810년(순조10) 식년시(式年試)에 급제한 후 1842년(헌종8) 8월에 간성군수로 부임하여 1847년(헌종13) 6월까지 5년간 역임하였다. 1897년 만들어진 『수성읍지』에 의하면 “부임해 오던 해에 청간관(淸澗館)을 다시 고쳐지었으며, 1846년(헌종12) 4월 11일 금강산 건봉사 북쪽에 있는 요사채(寮舍寨) 건물이 불에 타자 상부에 서면(書面)으로 보고하였고 강원도 관찰사 박종길(朴宗吉, 1783~?)이 임금님께 아뢰어 공명첩(空名帖) 300장을 내려 주는 혜택을 받기도 하였다”고 한다. 『건봉사급건봉사말사적(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 건봉사의 비(碑) 현황에 기록돼 있고 본래 건봉사 경내에 세워져 있었으나 현재 와우산 중턱에 여러 개의 선정불망비와 함께 있다.

3-13. 군수 김상복 선정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629년



군수 김상복 선정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화강암 재질로 관석(冠石)과 비신이 하나의 석재로 만들어졌고 관석에는 고깔 형태와 초화문이 새겨져 있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163cm×너비52cm×두께23cm이며 전면에는「郡守金公尙宥善政碑」라고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후면에는「崇禎紀元后二年 己巳五月初三日立」1629년 5월 3일 세웠다는 건립연대가 새겨져 있다. 김상복(金尙宥, 1573~1652)의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자는 중정(仲靜)이다. 1591년(선조24) 19세에 사마시에 급제하여 사옹원봉사·장례원사평·한성부서윤·형조참의·돈령부도정의 중앙관직과 온양군수·대구부사·상주목사·경주부윤 등의 여러 외직을 거치면서 맡았던 고을에 선정을 베풀어 명성을 떨쳤다. 성품이 강인하고 떳떳하였으며, 매사에 업무를 상세히 살펴서 이속(吏屬)들이 모두 두려워하였다. 부임하였던 여러 고을에 선정비가 세워졌다.

남인출신으로 1624년(인조2)에 간성군수로 부임하여 1629년(인조7)까지 5년 남짓 재임하는 동안 고을백성을 구휼하는 등의 선정을 베풀었다. 본래 간성군민들에 의해 읍내에 건립되었으나 현재 와우산 중턱에 여러 개의 선정불망비와 함께 있다.

3-14. 군수 이도식 선정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887년



군수 이도식 선정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개석(蓋石)이 없이 비신만 있는데 비의 윗부분은 밋밋한 사선으로 처리한 원수형(圓首形)에 가깝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118cm×너비47cm×두께15cm이며 전면 중앙에는「郡守李公道植善政碑」라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전면 우측에는「■■■■■」 좌측에「民■之■」 명문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으나 서체가 희미해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후면에는「丁亥十月 日立」1887년(고종24) 10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이도식(李道植, 1816~?)의 본관은 전주(全州)이다. 음서(蔭敍)로 1879년(고종16) 6월 포천 현감(抱川 縣監)을 거쳐 1880년(고종17) 3월 20일에 간성군수를 역임하고 1882년(고종19) 12월 29일 돈녕도정(敦寧都正)에 제수되었다. 이 비는 1882년(고종19) 간성군수로 재직 중에 금강산 건봉사의 사적을 정리하는 등의 선정을 베풀어 승도(僧徒)들에 의해 금강산 건봉사 경내에 건립되었으나 현재 와우산 중턱에 옮겨와 여러 개의 선정불망비와 함께 있다.

3-15. 관찰사 정태호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887년



관찰사 정태호 영세불망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개석(蓋石)이 없이 비신만 있는데, 비의 윗부분은 둥글게 처리한 원수형(圓首形)이고, 비신의 크기는 높이123cm×너비52cm×두께15cm이다. 비의 전면 중앙에는「觀察使鄭公泰好永世不忘碑」라고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전면 우측에는「惠漣遐鄉」, 좌측에「化流一省」이라는 명문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후면에는「丁亥十月日立碑」1887년(고종 24) 10월 건립연대가 음각되어 있다.

정태호(鄭泰好, 1837~ ?)의 본관은 온양(溫陽)이고 자는 대래(臺來)다. 1858년(철종9)생원으로 정시문과에 급제하였다. 1861년(철종12) 부교리로서 집례(執禮)를 맡아 포상을 받고 가자(加資)가 되었고 1886년(고종23)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면서 금강산 건봉사(金剛山乾鳳寺)의 사적기 발문(跋文)의 기록을 남기는 등 사찰에 각종 혜택을 베풀었다.

이 비는 건봉사 경내에 건립되었으나 현재 와우산 중턱에 이 지역의 다른 선정비와 영세불망비와 함께 세워져 있다.

3-16. 군수 서유여 선정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854년



군수 서유여 선정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관석(冠石)과 비신이 하나의 석재로 만들어져 있는데, 관석에는 초화문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96cm×너비42cm×두께20cm이며 비의전면 중앙에는「郡守徐公有畬善政碑」라고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전면 우측으로 4자씩「特下軫念 稅推役滅」, 좌측에「我公息慮 加山如海」라는 선정의 내용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후면에는「甲寅八月 日立」1854년(철종5) 8월 건립연대가 새겨져 있다.

서유여(徐有畬, 1792~1879)의 본관은 대구(大邱)이고 자는 낙삼(樂三)이다. 1848년 12월부터 1853년 6월까지 4년 7개월을 간성군수로 역임하였다. 치적으로 간성군 고을에 170량(兩)을 3번 나누어 주고 원금은 유예하여 15좌(坐)에 대한 이자만 받게 하였고 마을이나 종중(宗中)에 돈을 변통해 주고 원금은 존치시키고 증식된 이자만 납입케 하였다. 1853년(철종4)에 건봉사의 사패토지(賜牌土地) 가운데 땅세 5결 가량을 고을 세금장부에 감춘 자를 찾아내게 하여 그 가운데 1결을 건봉사에 되돌려 주도록 하였다.

간성군민들이 선정을 베푼 것을 길이 전하고자 읍내에 세웠으나 현재 와우산 중턱에 옮겨와서 여러 개의 선정비와 영세불망비와 함께 있다.

3-17. 군수 이용학 거사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857년



군수 이용학 거사비 / 탁본

■ 조사내용 ■

비석은 개석(蓋石)이 없이 비신만 있는데, 화강암 계통의 암질이며, 비의 윗부분은 둥글게 처리한 원수형(圓首形)이다.

비신의 크기는 높이88cm×너비35cm×두께11cm이다. 비의 전면 중앙에는「郡守李公容學去思碑」, 우측에는「鄉俗整齋」, 좌측에「儒化始興」이라고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후면에는「丁巳十二月 日立」1857년(철종8) 12월 건립 연대가 새겨져 있다.

이용학(李容學, 1818~1881)의 본관은 광주(廣州)이고 자는 이습(而習)이며 호는 만취당(晩翠堂)이다. 음보(蔭補)로 벼슬에 올라 1854년(철종5) 양구현감(楊口縣監)을 거쳐 동년 8월 11일 간성군수(杆城郡守)로 부임하여 1857년(철종5) 6월 20일까지 역임하였다. 현재 남아 있는 비석들은 금강산 건봉사 경내인 부도밭과 와우산 중턱에 각각 1개씩 남아있다. 간성군수로 재직하는 동안 여러 건물을 건축하였다.

1897년 『수성읍지』에 의하면"1854년(철종5)에 열산관(烈山館)을 다시 고쳐지었다"라고 하는 기록과 1856년(철종 7)에 군수 이용학(李容學)이 자신의 봉급 600꾸러미를 마련하여 관부에 붙여두고 이자 70여량으로 건봉사 승번전(番錢)을 대납하고 진흙에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비석은 간성주민들에 의하여 서문리(西門里, 현 간성읍 상리)에 건립되었으나 현재 와우산 중턱에 옮겨와서 이 지역의 선정비와 영세불망비와 함께 있다.

18. 현감 택당선생 이공 거사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663-1번지 향교 담장 밖 동편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661년(현종2)



택당 선생 거사비 / 탁본



간성향교 거사비 전경

조사내용

비석은 호형으로 치석한 화강암 높이135cm×폭62cm×두께24cm으로 비석 전면에「縣監澤堂先生李公去思碑」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1661년(현종2) 거사비를 건립하였으나 1922년 경 일제강점기 신작로 개설 시 매몰된 것을 1981년 3월14일 발견, 이듬해 4월24일 향교 앞에 다시 세운 것이라 전한다.

택당 이식(李植, 1584~1647)은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서예가이다.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택풍당(澤風堂)·남궁외사(南宮外史)·택구거사(澤癯居士), 본관은 덕수(德水)이다. 좌의정을 지냈던 이행(李荇)의 현손이며, 부친은 이안성(李安性), 모친은 무송윤씨(茂松尹氏) 윤옥(尹玉)의 딸이다.

1610년 별시문과에 급제하여 시강원설서를 거쳐 북평사·선전관을 지냈으나 1618년 인목대비(仁穆大妃) 폐모론이 일어나자 사직하고 낙향했다. 이때 택풍당(澤風堂)이라는 당호를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는데 주위에서 택당이라 부르기 시작한 것이 호가되었다. 1623년 인조반정(仁祖反正)이후 지평으로 재기용되었고 대사간·대사헌·형조판서·예조판서·이조판서 등 요직에 올랐다.

간성현감으로 재임기간(1631~1632) 동안 간성지(杆城志) 기록 등 고성군사(高城郡史)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3-19. 현감 택당선생 이공 거사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663-1번지 향교 담장 밖 동편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7년 2월 7일



현감 택당선생 거사비 전면 / 이면

■ 조사내용 ■

비석은 대리석 개석(蓋石)이 있고 치석한 오석 높이 146cm×폭54cm×두께24cm으로 비석 전면 중앙에「縣監澤堂先生李公去思碑」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비 이면에는 비석의 설립 내력이 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현 비석은 택당 선생의 행적과 전쟁으로 잃어버렸던 당초 비석인 거사비를 찾아 외삼문 국도변에 세웠는데 오랜 세월 풍우로 훼손되어 1997년 2월 7일 유림들이 다시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면 비문〉

可噫大夫人其功其德永世不忘之義澤堂先生則是而歷代略距今三百六十八年前仁祖辛未年 歷史也以澤堂 / 李先生貫德水諱植號澤堂諡文靖公先生四十八歲出宰八月除杆城縣監十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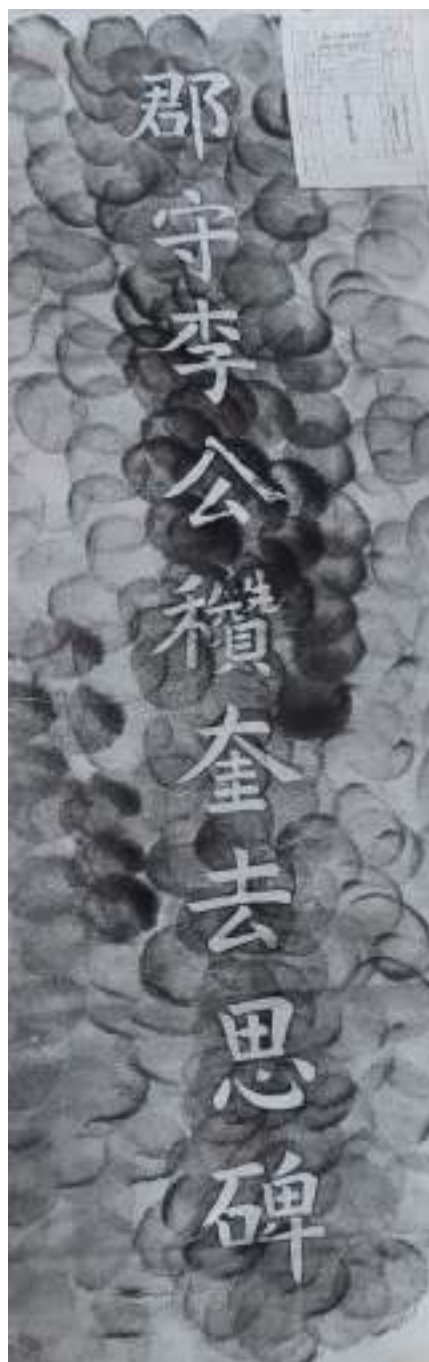
赴任也性靜而溫化人情而柔融 / 容貌可端正學文而卓越優秀於官民審察治政則是亦民生學文而稀疎唯貴以愛民恤恤於學文教養宣佈指示 / 以百廢僻鄉學堂設置建立則然以民生而相與又慎無違晝夜讀書不休勤學於先生受訓學習儒生而孔孟聖賢 / 之道禮儀範節而透徹三綱五倫人倫道德而確固明々則受模諸儒生文藝可能熟賢士多出仁才興盛斯文而連 / 續增進先生寬厚善政稱頌而四海振揚則立功謂德而何不偉尊■也官察省民行政而善政則守禮高掀先生門 / 下修學儒生等而惜別落淚先生惠恩慕心之義有恨於去思碑石謂於重豎表瑩也以此亦距經世中循間時運而 / 不幸動亂變遷于去思碑石失忘矣而哀哉悲哉也去思碑石埋沒所在處不知以四方探問尋訪則潛々默々時不 / 顯■以憂於傷心念々中前掌議孫昌範畚溝間忽然發見則勞力人役■土求得於西紀一九八二年壬戌三月仲 / 春文廟外三門左側國道邊改重豎則其後舊碑石至于今十六年間歲月而流々長久以上風下雨風雨不庇■恥 / 險傷則目見其心不安也以典教林亢植會長尹秉竣儒林任員澤堂先生後孫新碑石具備更重豎相議爲計以是 / 亦瑛珍一片貞璫去思新碑石萬世千秋無亂不變■而去思碑文題詩不肖愚生伏頓者恭心新改碑文先生功 / 德其遺蹟題詩銘刻於去思惜別新碑石謹以仰慕重豎 /

澤堂先生杆城縣監移任癸酉年 先生五十歲 正月除副提學 二月 承召 上疏 / 孔夫子誕降二千五百四十八年 西紀一九九七年丁丑二月七日 儒林 一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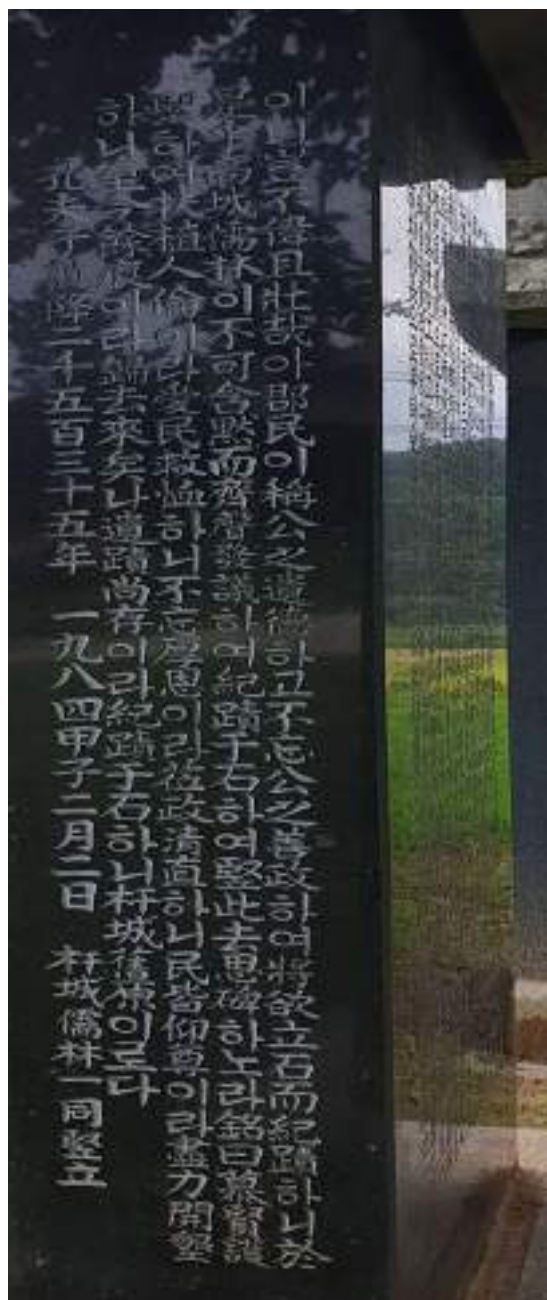
3-20. 군수 이찬규 거사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663-1번지 향교 담장 밖 동편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84년 2월 2일



군수 이찬규 거사비 전면 / 탁본



왼쪽 이면 / 오른쪽 측면 / 왼쪽 측면

조사내용

비석은 대리석 비갓과 치석한 오석 높이 143cm×폭 54cm×두께 23cm으로 비석 전면 중앙에 「郡李公禔奎去思碑」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비(碑)의 왼쪽 측면부터 이면, 오른쪽 측면에는 향교삼문 목재 제공, 청간정 중수, 거진소도읍가꾸기 공유수면 철도부지 불하 주택건설, 개간지 균유지화, 군청 청사조경, 향교저지대 매립과 택당 거사비 개수 등 이찬규 군수의 치적을 한자 해서체와 한글 병서하여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비문〉

「士者是國之元氣라出仕엔恒念爲國愛族之道하고在野엔常思孝友敦睦之道하니是則 / 齊其家而後에治其國之理也요忠臣은出於孝門之理也라然後에有忠烈之卓異者와善 / 行■蹟之非凡者면列聖이褒揚하여爲樹風立聲之資하니是則先 / 王之制度요今則異於先王之制度하여朝無旌表之典하고士無薦幽之道하니緣何而化風淳俗乎아爲世道所恨이라 / 然則制有古今之異나士無古今之差하니豈可含默而不揚美事乎아此有善行而不可泯 //

沒者하니郡守李穰奎公이是也라公은生長于儒門하여其所學은孔孟이요其所行은禮義 / 而已라且稟性이寬厚慈仁하고言語簡重하며步履安詳하니一見而可知有德君子矣라公 / 이一九八〇年度에出宰于第二十代高城郡守하여在任中治績이炳朗하다盖高城은自古 / 名山紫秀麗하고人心은淳厚矣라經亂中에不幸히도鄉校의外三門이없는지오래되었으 / 니所謂儒者로서不忍看過라公이赴任之初에勸諭儒林하고所要木材를提供하여儒林合 / 心盡力으로不日成三門하니校宮이煥然하다次關東八景之一이며地方文化財第三二號 / 인淸澗亭을重修하여公開于一般人하고土城面仁興里所在荒蕪地幾千坪을盡心竭力으 / 로開墾沃土而爲郡有地化하여配于住民而救恤하다郡廳舍新築後周圍造景에豫算不足 / 으로活用自然石而役畢하고巨津小都邑가꾸기사업엔公有水面埋立地는港灣廳에鐵道 / 敷地는鐵道廳으로부터郡廳에서拂下받아實需住民에廉價로賣渡하여住宅建立과新設 / 幹線道路를完工하고鄉校前底地帶를埋立하여朝鮮朝仁祖當年の縣監澤堂李植先生の / 去思碑를推覓改豎하다噫라公之一生所行이無非愛民愛族之道요亦莫非護聖慕賢之誠 / 이라成均館長으로부터受感謝牌하니如公之行義者는實是群陰之線陽이며昏■之一燭//이니豈不偉且壯哉아郡民이稱公之遺德하고不忘公之善政하여將欲立石而紀蹟하니於 / 是乎高城儒林이不可含默而齊聲發議하여紀蹟于石하여豎此去思碑하노라銘曰慕賢護 / 聖하여扶植人倫이라愛民救恤하니不忘厚恩이라莅政淸直하니民皆仰尊이라盡力開墾 / 하니至今餘痕이라歸去來矣아遺蹟尙存이라紀蹟于石하니杆城舊原이로다 / 孔夫子誕降二千五百三十五年 一九八四 甲子二月二日 杆城儒林 一同豎立」

3-21. 군수 최승호 거사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663-1번지 향교 담장 밖 동편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86년 6월



군수 최승호 거사비 / 탁본





후면

■ 조사내용 ■

비석은 대리석 비갓과 치석한 오석 높이126cm×폭42cm×두께17cm으로 비석 전면 중앙에「郡守崔公乘虎去思碑」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비(碑)의 이면에는 특이한 비문은 없고 왼쪽「孔子誕降二千五百三十七年丙寅六月 日 杆城儒林」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1986년 6월 간성향교 유림이 건립한 것이다.

3-22. 관찰사 조학년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해상리 903-1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불상



관찰사 조학년 영세불망비 / 비문

■ 조사내용 ■

개석(蓋石)이 없고 호형으로 치석한 화강암 비석은 비신의 크기가 높이 154cm×폭 57cm×두께 25cm인데 비신 하단 18cm은 땅에 묻혀있다.

기단석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당초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이동하여 현 위치에 임의로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 위치는 1970년대 군부대 관사가 있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비신 전면 중앙에는「觀察使趙公鶴年永世不忘碑」비명이 세로쓰기 한 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었으나 서체가 시기 불상 인위적으로 훼손된 채 방치되었다.

전면 비명(碑銘) 우측에는 ‘愛■■■■■■更完’ 좌측에는 ‘■■■■■■■■德’로 관찰사의 공적이 각각 음각되어 있었으나 서체 대부분이 훼손되어 선정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건봉사 기록에도 공적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건립 시기가 비신 이면에 새겨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훼손 상태가 상당하여 확인할 수 없고『乾鳳寺及乾鳳寺末寺史蹟』(1928년)에 건봉사의 비(碑)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 육송정 홍교 주변에 있었던 비석이 유실되어 현 위치에 세워 둔 것으로 추정된다.

조학년(趙鶴年, 1786(정조10)~1854)은 조선후기 문신, 본관 풍양(豐壤), 자 윤화(允和)·화중(花仲), 시호 문헌(文憲). 1819년(순조19)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동몽교관을 지냈다. 1828년에 화성유생(華城儒生) 응제시(應製試)에서 뽑혔고, 교관으로서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수찬·응교·전직 등을 역임하고, 1835년 부사과로 진하겸 사은사의 서장관으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1843년 1월부터 1844년 12월까지 강원도관찰사를 재임하였고, 1844년에 이조참판, 1845년 예조판서와 형조판서를 거쳐, 1846년 평안도관찰사로 나갔다. 그 뒤 중앙으로 돌아와 1848년에 대사헌이 되고, 이어 이조·형조·예조판서를 두루 지내고, 1849년(철종 즉위년)에는 지실록청사가 되어 헌종실록, 편찬에 참여하고,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에 묘가 있다.

<참고문헌> 헌종실록, 승정원일기, 국조방목, 경기인물지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6), 강원도사 10권 인물 하편(강원도사편찬위원회, 2014년 2월) 899쪽

3-23. 면장 함동석 시은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55-10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32년



면장 함동석 시은비 / 탁본





선정비군 전경

■ 조사내용 ■

1900년경 재해로 인해 마을에 흉년이 들어 온 마을이 식량난을 극심하게 겪게 되자, 이에 당시 이장인 김치원의 보고를 받은 면장 함동석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 마을의 실상을 상세하게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구호양곡을 요청하였고, 이로써 구호미가 지원됨으로서 극심한 식량난을 극복할 수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면장 함동석의 적극적인 활동을 높이 평가한 마을 주민들에 의해 공덕비가 건립되었다고 전한다.

비 전면에는「面長咸公東錫施恩碑」라고 세로쓰기로 새겼고, 그 좌우로「寒谷春回 恩山澤海 口我窮民 募金移粟」이라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오른쪽 측면에는「壬申(1932) 10월」에 건립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비갓 없이 치석한 화강석을 사용하였고 상부 호형 폭이 다소 넓은데 규모는 높이 100cm×폭42cm×두께16cm로 화강암 기단석에 세웠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고성군지>

3-24. 구장 김치원 자혜불망비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55-10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32년



구장 김치원 자혜불망비 / 탁본



■ 조사내용 ■

면장 함동석과 함께 1931년 흉년으로 인한 마을의 식량난을 해결 하는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고, 흘리 구장으로서 주민들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한 점을 높이 평가하여 역시 1932년에 주민들에 의해 건립되었다고 전한다.

비 전면 중앙에는「區長金公致元慈惠不忘碑」라 세로쓰기로 새겼고, 그 좌우에는「十載勤務 承上恩下 採金先稅 禁火勸業 引是荒年 救飢問寒 嘉樂君子 活我千口」라고 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비갓 없이 치석한 화강석을 사용하였고 상부 호형 폭이 다소 넓은데 규모는 높이 106cm×폭46cm×두께16cm로 화강암 기단석에 세웠고, 왼쪽 면장 함동석 시은비 보다 규모가 다소 크다.

<참고문헌>

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 <고성군지>

3-25. 나병규 선생 공덕비

■ 개요 ■

- 유형 : 공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55-10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39년



나병규 선생 공덕비 / 탁본



■ 조사내용 ■

진부령 정상에서 알프스 리조트 방향으로 들어서 가다 콘도와 박물관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에 면장 함동석 시은비와 구장김치원자혜불망비와 함께 위치한다.

일제강점기 이 지역 청장년들에게 구학문과 신학문을 교육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컸던 나병규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그 제자인 한도성(韓道成)을 비롯한 9인이 1939년에 건립하였다고 전한다. 비의 전면 중앙에는「羅先生炳奎紀念碑」라고 세로쓰기로 새겼고, 이 좌우에「赤心教育 丹沈誠理」이라 하였으며, 비문 아래「韓道成, 郭應化, 尹錫順, 尹華善, 金致元, 李華景, 金德鳳, 尹雲善, 郭應烈」제자들의 이름이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화강암 치석으로 비갓 없는 호형 비의 규모는 높이114cm×폭42cm×두께16cm로 왼쪽 김치원자혜불망비와 함동석시은비 보다 다소 크지만 오른쪽으로 약간 기울듯 세워져 있고, 비 전면에는 피탄 자국으로 추정되는 훼손 흔적이 세 군데 있다.

<참고문헌>고성군·강릉대학교박물관, 1995,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고성군지>

3-26. 전참봉 김의종 동부인 류귀녀 기념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자산리 72번지 (거진초교 교정 입구)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22년 8월



전 참봉 김의종 동부인 류귀녀 기념비



학교 입구 재건기념비와 함께

■ 조사내용 ■

비석의 규모는 높이110cm×폭41cm×두께13cm 석재는 화강암으로 비갓은 없고 상부를 삼각으로 다듬었고 기단부도 사각 화강암이다.

전면에는 비명(碑銘)「前參奉金義鍾 同夫人柳貴女紀念碑」오른쪽「□□補缺」왼쪽「一新」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는데 서체가 희미하고 일부 마모되었다.

후면에는「大正十一年八月」으로 1921년 학교 설립 과정에서 기여한 공로로 기념비를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3-27. 군수 권익룡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영세불망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산학리 43-6번지 (속칭 외솔박이)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712년



군수 권익룡 영세불망비 / 탁본



외솔박이 비석 전경

■ 조사내용 ■

마을 남부 산자락 논 사이 300여년 노송 아래 비갓은 없고 상부가 둥근 화강암 비신(碑身)과 자연석 화강암 기단석 위에 있고, 비신은 높이155cm×폭75cm×두께5×45cm, 비신과 기단석 사이 시멘트로 이음을 고정했고, 시멘트에는 ‘1973. 3.28 산학예비군’이라고 새겨져 있다.

서편 비신 전면 중앙에 비명(碑銘)「郡守權公益隆永世不忘碑」4자씩 4행으로 치적을 기록한 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으나 마모상태가 심해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 후면에는「崇禎后壬辰」으로 음각되어 있어 군수 재임기간이 1708~1712이므로 건립 시기는 1712년 경으로 추정된다.

마을 중 뜰에 위치하고 있었고 정확한 건립연대는 알 수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비석을 1반으로 옮기면 1반이 궁하고, 2반으로 옮기면 2반이 궁하여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협의하여 현 위치에 세웠다고 한다.

권익륜은 조선 후기 문인으로 본관은 안동 자는 대숙이다. 호는 하처산인으로 1708년(숙종34) 양성 현감을 지냈고, 1710년 간성군수로 부임했다. <풍아별곡> 6수의 연작시가 전해진다.

3-28. 고성군교육장 김세용 송덕비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264번지 명파초등학교 운동장 서편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72년 10월 10일



고성군교육장 김세용 송덕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비신은 화강암 자연석 높이 115cm×넓이 40cm×두께 30cm 중앙 전면 사각 평면에 비명(碑銘)「頌德碑」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기단석은 자연석 화강암 가로 50cm×높이 70cm×두께 65cm 전면 사각 평면에 건립 동기를 한글과 한자로 새겨져 있다. 「高城郡教育長 金世容 / 은 이 학교 신축에 있어 / 그 공적이 많으므로 / 불망비를 건립함 / 1972.10.10. / 명파초등학교 학부형 일동」

3-29. 관찰사 조석여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51-11번지 (동해대로 5110)
 - 재질 및 서체 : 현무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03년 11월



조석여관찰사영세불망비

■ 조사내용 ■

관찰사조석여영세불망비는 현재 군부대 안에 위치해 있다. 조석여(觀察使 曹錫興, 1813~1889) 본관은 창녕(昌寧)이고 자는 치경(稹敬)이며, 호는 하강(荷江)이다. 1848년(헌종 14) 별시문과에 급제하고 경상도 암행어사를 거쳐 1866년(고종 3)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하였다.

비는 약간 검은색을 띠는 현무반암계통의 암질이며, 비갓이 없는 형태이고 상부는 중앙의 좌우를 맞맞한 사선으로 처리한 방부원수(方趺圓首) 형태로 비의 크기는 98.5cm×37cm×12cm이다.

비의 전면에는 자경 8cm 크기의「觀察使曹公錫興永世不忘碑」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후면에「癸卯十一月」이라는 건립연대가 새겨져 있다. 비의 건립 시기는 1903년 11월로 추정된다.

1867년(고종 4) 9월 13일 양양(襄陽)·간성(杆城) 지역에 큰 수해(水害)로 많은 집과 사람이 떠내려갔고 무너진 집에 깔려 죽은 사람도 많이 발생하여 감사가 보고하여 흥전을 베풀도록 하였다. 이때 간성군민이 감사의 은덕을 기리기 위해 만경대 옆에 세운 것으로 추측되는 비석이다.

3-30. 김행음선생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국도7호선 노변
- 재질 및 서체 : 현무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03년 11월



김행음영세불망비

■ 조사내용 ■

김행음선생영세불망비는 고성군 토성면 봉포리 속초~고성 간 7호선 국도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봉포(鳳浦) 삼거리가 나오는데 이봉포 삼거리 서편 펜션 건물 바로 앞에 위치한다.

현 위치는 신도로 건설로 인해 약 150m 정도 설악물산 쪽으로 이진된 상태이다.

비는 비신과 비갓은 화강암재로 이루어져 있고 비의 크기는 135cm×48cm×16.5cm이다. 비의 전면에「金杏陰先生永世不忘碑」라고 되어 있고 이수는 117cm×59cm이다. 전면 우측에는「公試百草, 我棠再生」, 좌측에「石語不朽, 用表微襄」라는 송덕을 기리는 내용을 새겼다. 후면에는「己卯四月日 安東裴永昌立」이라 음각된 것으로 보아 김행음 선생(金杏陰, 생물미상)의 의술로 많은 사람을 구제했음을 알 수 있고 건립연대는 1939년이다.

비의 앞에는 오석(烏石)으로 만든 표석이 있으며 후손으로 추측되는 가족들의 인명이 적혀 있다. 설립연도는 2001년 6월이다.

3-31. 가의대부 이근철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73-1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31년



이근철영세불망비

■ 조사내용 ■

가의대부 이근철 영세불망비는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295전(田)에 위치해 있었으나 토지소유권 문제로 토성면 아야진리 173-1번지 현 위치에 이전하였다.

비는 화강암 계통의 암질이며 비갓(碑首)이 없고 비신의 크기는 98cm×38cm×19cm이다.

비의 전면에는「嘉義大夫李根喆永世不忘碑」라고 되어있고 전면 우측에 4행씩「百家活患, 務救濟民」이라고 되어 있고, 좌측에「一片語石, 千載感人」이라 명문이 음각되어 있다.

이근철(李根喆, ?~1852)은 1840년(헌종 6) 동해안 일대의 폭풍·폭우·해일로 가옥이 유실되는 등의 피해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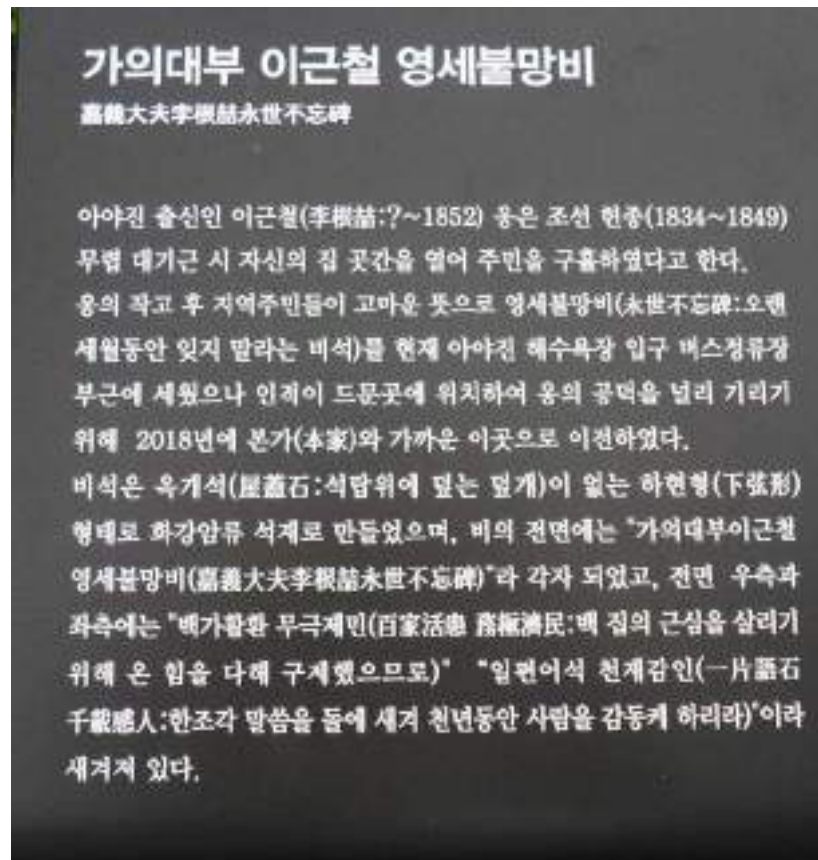
당하자 마을 주민들을 구휼해 살렸으므로 인근마을까지도 칭송이 자자하자 주민들이 영원토록 공적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한조각 빗돌에 새겨 놓은 비석이다. 건립연대가 명문으로 음각되어 있는 후면은 마모가 더욱 심하여「■■■■十二年■■二十」만 판독되고 있다. 김삿갓(金炳淵, 1807~1863)이 25세 때인 1831년, 금강산에 가는 도중 이근철 집에 묵으면서 써준 한시(漢詩)가 후손에 전한다.

〈참고문헌〉

<금석문탁본조사보고서 강원도1, 2018, 불교중앙박물관>

<고성건봉사 복원종합정비(사적지정 및 정비) 계획수립 학술연구 용역보고서, 2010, 재단법인 강원고고학 문화연구소>

<고성군 문화분포지도, 2005, 강원문화재연구소>



안내판

3-32. 통정대부 김정권 영세불망비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671 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해서체
- 건립 시기 : 1904년 3월 15일



김정권영세불망비 전면 / 이면

■ 조사내용 ■

통정대부 김정권 영세불망비는 영월 엄씨 정려비에서 약 90m 동편 도로가에 있다. 옥개석이 덮인 비는 콘크리트기단에 오석으로 만들었으며 크기는 111×42×15.5cm이다. 비의 전면에는 자경 6cm 크기의 「通政大夫金正權永世不忘碑」라 새겼으며, 후면에는 「병바우湫開珥引水慈善紀念碑」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비석은 보(湫)의 축조과정에서 자선을 베푼 김정권(金正權, 생몰미상)의 공덕을 기려 1904년 3월에 보(湫) 몽리민 일동이 건립하였다.

이 비에 각자(刻字)된 병바우는 약 400m 동쪽 낮은 야산의 바위를 말한다.

3-33. 면장 한치용 영세기념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177-6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20년 8월



한치용 영세기념비 전면 / 이면 / 측면

■ 조사내용 ■

면장 한치용 영세 기념비는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 소재 천학정으로 들어가는 입구 우측 공터에 위치하고 있다.

비는 자연 암괴의 평평한 윗면에 흙을 파서 세웠다. 비갓이 없는 형태로 크기는 110cm×41cm×18.5cm이다. 비의 전면에 자경 6cm 크기의 중앙에는「面長韓公致龍永世紀念碑」라고 각자 되었으며, 좌우에는 그의 치적에 대해 4자씩 8행을 기록하고 있다. 우측에「昔我松契」「芮芮其林」,「拓地禁養」「拓地禁養)라고 새겼고 좌측에「益益更靑」「以時入山」「伊誰之力」,「利用厚生」「今我面長」라 새겨져 있다.

그 뒷면에는「檀紀四二五三年庚申八月日橋巖松契」라 음기 하였고 석수는 김정칠(金定七)이 새겼다. 1920년에 이 지역 송계 계원들에 의해 건립되었음을 밝혀주고 있다.

3-34. 증통훈대부예조판서광산김공두현지비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138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31년 3월



김두현비 전면 / 측면 / 이면

■ 조사내용 ■

증 통훈대부 예조판서 김두현 기념비는 신평1리 도로변에 위치해 있다.

비는 화강암 암질이며 비의 크기는 132cm×55cm×21.5cm이다. 이수는 97cm×40cm로 비의 전면에는 자경 7cm 크기의「贈通訓大夫禮曹判書光山金公斗鉉之碑」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고 전면 우측에는 4행씩「教子論孫」「活人救濟」「言語無玷」「慈善普施」이라 새겼다. 우측면에「昭和六年辛三月日」1928년 3월 건립연대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김두현은 1863년(철종 14)에 출생하여 1898년(광무 2) 통훈대부에 증직 되었으며 1929년에 사망했다. 이 비는 광산 김씨 문중에서 건립하였다.

〈전면〉

贈通訓大夫禮曹判書光山金公斗鉉之碑

銘 性姿沈重義允高 喜怒不形處事中矢見

教子論孫 活人救濟 言語無玷 慈善普施

次孫仲洙億洙仁洙也今■ 公之行狀以竣後之立言君子不敢述焉

公卽光城君諱鼎十八世孫也祖諱箕燮父嘉善大夫在潤有三 公諱斗鉉系光山忠穆公十四世孫也 三月四日葬亥坐原子通■ 旭墓在水清峙大坪巽坐有碑石孫伯洙歷襄陽高城■ 學校訓導現任襄陽公醫次孫仲洙億洙仁洙也今■ 公之行狀以竣後之立言君子不敢述焉

〈우측면〉

昭和六年辛未三月日

3-35. 송정대부광산김두현기념비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89-2번지 (동해대로 511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30년 4월



김두현기념비

■ 조사내용 ■

충정대부 김두현(崇政大夫 金斗鉉, 1863~1929) 기념비는 청간정 자료전시관 앞에 위치해 있다.

비는 화강암 암질이며 비갓이 없다. 비의 크기는 95.5cm×37cm×19cm이다. 비의 전면에는 자경 6cm 크기의「崇政大夫光山金斗鉉紀念碑」라고 음각되어 있고 전면에 우측에는 4행씩「數千載亭」「孝芳其子」좌측에「五百捐金」「偉哉斯門」이라 새겼다. 후면에「庚午年四月日立」 1930년 4월 건립연대가 있다.

이 비는 1929년 청간정을 건립할 때 500 의연금을 희사했다는 내용이 있다.

3-36. 숙인밀양박복선기념비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89-2번지 (동해대로 511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30년 4월



박복선 기념비

■ 조사내용 ■

숙인 박복선기념비는 청간정 자료전시관 앞에 위치해 있다.

비의 크기는 높이 105cm×40cm×21cm이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비갓이 없고 비의 전면에는 자경 6cm 크기의 「淑人密陽朴福先紀念碑」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전면 우측에 4행씩 「勝地依舊」「六百金捐」이라 새겼고 좌측에 「名亭待時」「當千年遺」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우측면에 「庚午年四月日立」이라 기록하고 있고 1930년 4월 건립연대가 있다.

박복선(淑人 朴福先, 생몰미상)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1929년 청간정 중수할 때 600 의연금을 희사했다는 내용이 있다.

3-37. 면장 김용집 선정비

■ 개요 ■

- 유형 : 선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89-2번지 (동해대로 511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30년 5월



김용집 선정비

■ 조사내용 ■

면장 김용집 선정비는 청간정 자료전시관 앞에 위치해 있다. 비의 크기는 110cm×42cm×23.5cm이며 재질은 화강암이다. 비갓이 없고 비의 전면에는 자경 6cm 크기의「面長金公溶集善政碑」라고 음각되어 있는데 선정비(善政碑) 끝에 두 글자가 멸실되었다. 전면 우측에는「蓼組防砂」「勸業■■」 좌측에「露峰造林」「乾洪■■」이란 명문이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庚午年五月」1930년 5월 건립연대가 있다.

김용집(金溶集, 1868~1942)은 자는 혜명(惠明)이고 호는 회재(徊齋)이며 본관은 경주(慶州)이다. 1868년 4월 24일 태어났으며 1942년 2월 26일에 세상을 떠났다. 향년 75세이다. 김용집은 일제강점기 1925년 토성면장에 부임하여 1930년까지 역임하였다. 1929년 7월 청간정이 오랜 세월 무너져 있는 것을 지금의 위치로 옮겨서 복원을 하였다. 김용집의「관동명승 중건 청간정기」에서 마지막 구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후대의 사람들이 이어가며 수리한다면 이 정자의 수명은 저 주춧돌과 함께 영원할 것이리라.”

3-38. 김순권 송덕비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3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30년 4월



김순권 송덕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김순권 송덕비는 금강산 화암사 일주문에서 동쪽으로 옛길 중간쯤에 펼쳐진 광활한 평탄지대의 숲속에 위치한다. 신평 2리의 가난한 농촌을 위해 헌신한 김순권(金順權, ?~?)의 공을 기리기 위해 1965년에 군수와 면장 마을동민들이 건립하였다. 현재의 송덕비는 시멘트를 이용하여 2단의 기단을 구성한 후 그 위에 화강암 비 받침돌을 놓고 비갓이 없는 형태로 세웠다.

김순권 송덕비의 전면에는 자경 8cm 크기의「故 保社局長金順權頌德碑」라 새겼고 비의 크기는 99×34.5×13.5cm으로 오석(烏石)이다.

후면에는 김순권 보사국장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先生은 이 땅 가난한 농민의 벗이 되어 농민의 선봉에서 우리의 복리를 위하여 힘차게 이끌어 주셨다. 아 슬프도다 先生은 숨지시는 순간까지 가난한 농민을 위하여 일하시다가 순직하셨다. 아 聖 스런 그 모습이며 그 仁慈하고 고결한 심령은 우리농민들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시리로다. /1965년 3월 일 /건립 군수 주우영 / 면장 박주하 신평이구 일동”

3-39. 박정호 송덕비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2리 마을입구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해서체
 - 건립 시기 : 2005년 5월 10일



박정호 송덕비

■ 조사내용 ■

박정호 송덕비는 고성군 토성면 도원2리 보건소 앞에 화단에 위치한다.

박정호(朴貞浩1931~2005)는 도원2리에서 출생하여 보건소 건물 건축에 사용 될 때까지 224평을 기부하였고 지역사회 발전에 치적이 있어 그 공을 기리기 위해 2005년 5월 10일 마을주민들이 건립하였다.

비의 크기는 36×168×14.5cm로 시멘트를이용하여 기단을 구성한 후 그 위에 비 받침돌을 놓고 비갓이 있는 형태로 세웠다. 비의 전면에는 「密陽朴後裔諱朴貞浩 / 頌德碑」라고 2줄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다.

3-40. 주풍미 공덕비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101-5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행서체
- 건립 시기 : 1991년



주풍미 공덕비

■ 조사내용 ■

주풍미 공덕비는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6리 국도 7호선 노변에 위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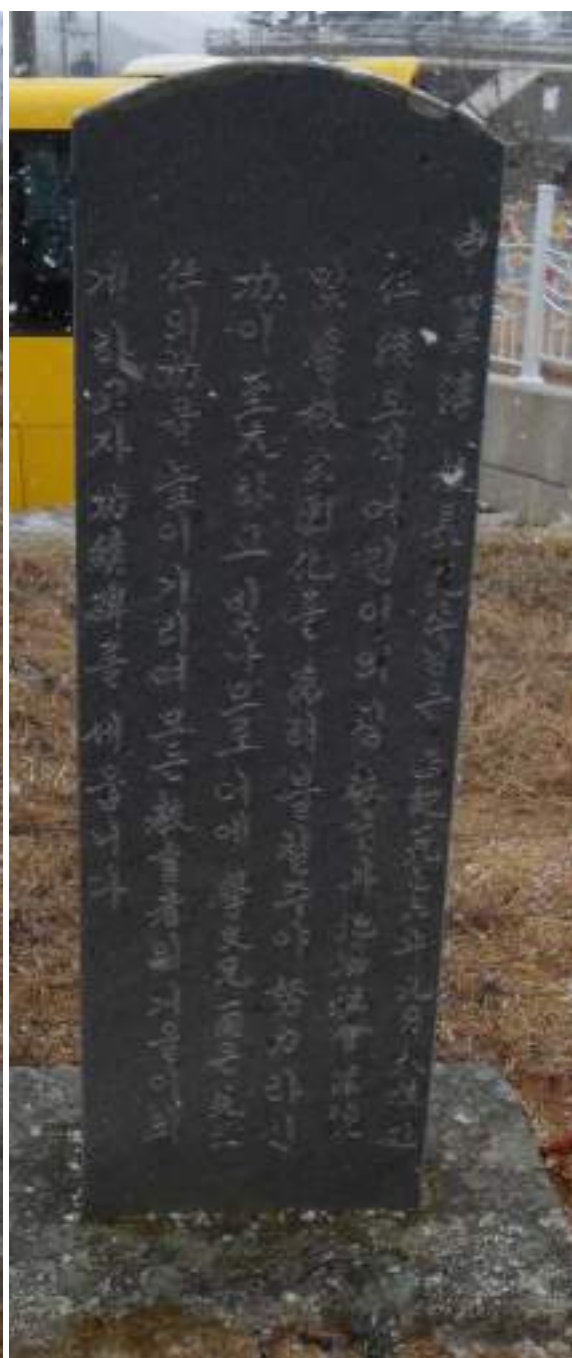
비의 크기의 133×93×58cm 시멘트 기단위에비가 세워졌으며 옥개석이 있다. 이 비는 1991년에 아야진 주민들이 건립하였다. 비의 후면에는 그의 기록되어 있다.

주풍미(朱豐美, 1911~?) 선생은 경북 안동군 풍산읍 괴정동 392번지 1911년 10월 23일 출생 다년간 공직에 근무 1968년 아야진노인회(老人會)를 책임지고 노인복지를 위하여 물심양면의 원조를 아끼지 않고 쇠신분골(碎身粉骨)하여 고귀한 애향심과 열렬한 애국심을 발휘하여인자한 모습으로 노인회 발전을 위해 노구를 무릅쓰고 희생하였음을 길이 빛내기 위하여 공덕비를 건립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건립자	김일산	전동원	박해선
	오인수	이치묵	문창홍
	최경식	함상동	
	이성집	이경도	

3-41. 신익순 공적비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1길 26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해서체
 - 건립 시기 : 1981년 3월 20일



신익순 공적비 전면 / 이면 / 측면

■ 조사내용 ■

신익순 공적비는 고성군 토성면 인흥2리 인흥초등학교 정문 주차장 부근에 남병목 공적비와 나란히 세워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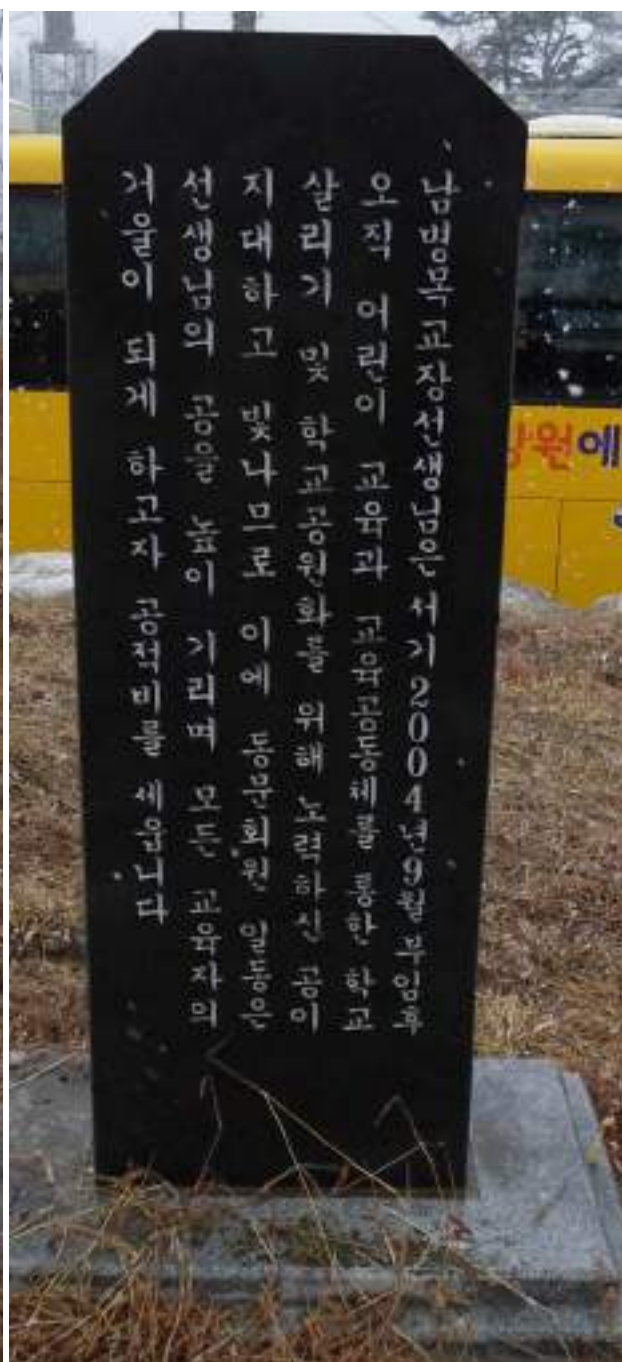
공적비는 시멘트를 이용하여 기단을 구성한 후 그 위에 화강암 비 받침돌을 놓고 비 갓이 없는 형태로 세웠다. 비의 92cm×29cm×12cm 크기의 전면에는 자경 11.5cm「功績碑」라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그의 행적을 새겨 놓았다.

‘신익순 교장선생님은 서기1977년 9월 부임한 후 오직 어린이의 참 교육과 지역사회 및 학교공원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신 공이 지대하고 빛나므로 이에 학부형 일동은 선생님의 공을 높이 기리며 모든 교육자의 거울이 되게 하고자 공적비를 세웁니다.’

3-42. 남병목 공적비

■ 개요 ■

- 유형 : 송덕비
- 위치 : 원도 고성군 토성면 인흥1길 26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해서체
- 건립 시기 : 2008년 8월 30일



남병목 공적비 전면 / 이면 / 측면

■ 조사내용 ■

남병목 공적비는 고성군 토성면 인흥2리 인흥초등학교 정문 주차장 부근에 신익순 공적비와 함께 세워져 있다.

비의 88cm×31cm×11cm 크기의 전면에는 자경 10cm「功績碑」라 새겨져 있다. 후면에는 그의 행적을 새겨 놓았다. ‘남병목 교장 선생님은 서기 2004년 9월 부임 후 오직 어린이 교육과 교육공동체를 통한 학교 살리기 및 학교공원화를 위해 노력하신 공이 지대하고 빛나므로 이에 동문회원 일동은 선생님의 공을 높이 기리며 모든 교육자의 거울이 되게 하고자 공적비를 세웁니다.’

3-43. 전기덕 공덕비

■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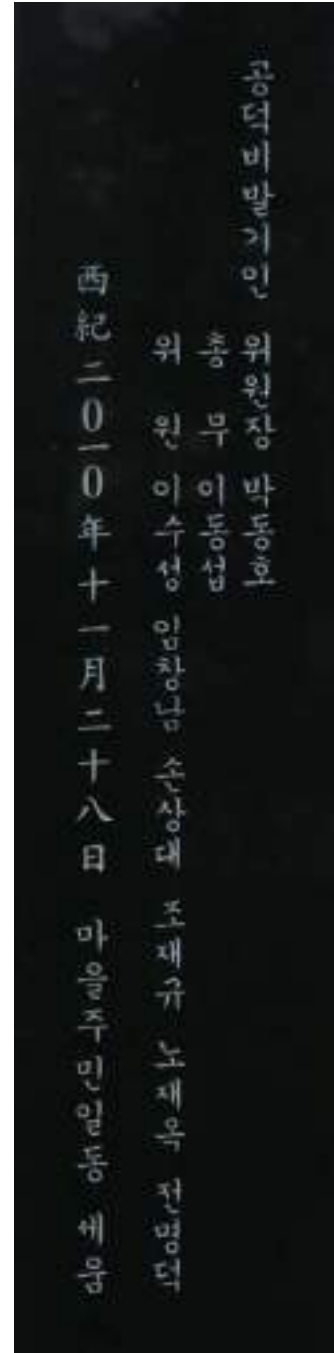
- 유형 : 송덕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1리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해서체
- 건립 시기 : 2010년 11월 28일



전기덕공적비 전면



전기덕공덕비 이면 / 측면



■ 조사내용 ■

전기덕 공덕비는 고성군 토성면 도원1리 마을 입구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비는 거북 모양의 비좌에 비를 세워 이수를 얹어 놓았다.

비의 크기는 147×54.5×24.5cm이다. 비의 전면에는 자경 18cm 크기의「功德碑」라 새겨져 있고 좌측면에는 2010년 11월 28일 마을 주민 일동이 세웠다고 기록하고 있다.

비의 후면에는 공덕비 주인공의 공적이 새겨져 있다. “선생의 본관은 정선이시고 부친 전정섭 공과 모친 위계하 여사의 장남으로 서기 1934년 4월 10일에 이 곳 도원리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전기덕 선생은 천성이 근면성실하시고 청렴결백한 성품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시어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영남화학 측과 수차례 교섭하시어 후원금 사백오십만원을 지원받아 마을 발전에 초석을 놓으셨고 관공서와 교섭하여 마을진입 도로를 이차선 도로로 확장 포장하여 버스가 운행하게 되었으며 탁월한 지도력으로 범죄없는 마을이 되어 일백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마을 발전에 기여하셨고, 텔레비전 난시청 지역으로 육백만원을 지원받아 텔레비전 난시청을 해결하셨고 마을회관 건립자금 일억원을 지원받아 마을회관을 건립하셨고, 마을에 적립한 기금을 마을의 전기공사에 투입하여 주민들이 문화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성황당 건축기금 오백오십만원을 지원받아 성황당을 신축하였으며, 선생의 탁월한 지도력이 청와대에 알려져 대통령께서 삼백만원을 하사하시어 마을발전에 기여하셨고 마을화관에 심야보일러 지원금 오백오십만원을 지원받아 난방을 해결하셨으며, 선생은 마을에 휴양지를 조성하여 마을관리 휴양지에 초석을 놓으셨습니다.

전기덕 선생은 1966년에 마을 리장으로 선출되어 탁월한 지도력이 인정되어 30년간 마을을 이끌어 주셨고 노인회장으로 선출되어 8년간 노인회를 이끌면서 노인복지에 일익을 담당하셨습니다. 전기덕 선생은 강길자 여사와 결혼하여 전영표, 전성표, 전광표, 전정표, 전한표, 전은희 5남1녀를 두셨습니다.

전기덕 선생님의 위와 같은 업적을 후대에 남기기 위하여 공덕비를 건립하였습니다.”

併三

種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4. 전적·충혼·위령·기념비

4-1.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37번지 (달흘공원 내)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글
- 건립 시기 : 2020년 8월15일



3.1독립만세운동기념탑

고성 지역 항일 애국지사 (85명)

1907년 의병 (7인)

권형원(權亨源) 권석근(權錫根) 김백룡(金伯龍) 박광봉(朴光奉)
이덕근(李德根) 주광석(朱光錫) 최용구(崔容九)

1919년 3.1 독립만세운동 (31인)

김동원(金東元) 김두만(金斗萬) 김백운(金白雲) 김연수(金延洙)
김영집(金永集) 김응섭(金應涉) 김형석(金亨錫) 김기수(金基洙)
남기봉(南基鳳) 남기일(南基一) 박마리아(朴瑪麗亞) 박성준(朴成俊)
박종진(朴鍾鎭) 서병택(徐炳澤) 이근옥(李根玉) 이내구(李乃九)
이동진(李東鎭) 이석규(李錫圭) 이응규(李應奎) 유낙명(禹洛榮)
유시국(劉時國) 안흥식(安興植) 임갑룡(任甲龍) 문명섭(文命燬)
정남용(鄭南用) 정종구(鄭鍾龜) 최상린(崔祥麟) 최희길(崔和吉)
함기석(咸基錫) 함성희(咸聖熙) 함청일(咸淸一)

1920년대 항일 운동 (8인)

김용득(金容得) 김종화(金鍾和) 박대일(朴大一日) 박태천(朴泰善)
하용락(河容洛) 한명찬(韓明燦) 함연호(咸演皐) 함창래(咸昌來)

1930년대 항일 운동 (26인)

김갑성(金甲誠) 김은규(金殷奎) 김종희(金宗熙) 김춘봉(金春奉)
김오경(金五景) 김충일(金忠一) 남익환(南益煥) 박용덕(朴龍德)
박응남(朴熊南) 박춘섭(朴春燬) 우종국(禹宗國) 장수연(張壽演)
장홍섭(張弘燬) 전인목(全寅穆) 정재현(鄭在鉉) 장의경(鄭義敬)
정평국(鄭平國) 천성환(千成煥) 최봉수(崔鳳洙) 최용규(崔龍奎)
하명식(河明植) 한귀현(韓龜鉉) 최봉현(崔鳳鉉) 함재승(咸在承)
황동연(黃東淵) 황창갑(黃昌甲)

1940년대 항일 운동 (13명)

강경석(姜璟錫) 김상정(金相廷) 김운봉(金雲鳳) 김인석(金仁錫)
김학조(金學祚) 김원호(金元浩) 김서주(金徐周) 김현호(金成賢)
신형준(申亨均) 이완익(李完益) 정춘(鄭重) 최창규(崔昌圭)
홍태식(洪泰植)

항일애국지사 명단

고성 3·1 독립만세운동 기념비 건립문

우리가 일제에 국권을 잃을 당하고 그 포악무도한 압정(壓政)에 시달리던 1919년 3월 1일, 한민족의 물분과 강개(剛果) 영웅적 독립선언은 만만 1년 역사를 이룬 해방전쟁의 위대한 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천명하였다.

우리 지역 청년, 학생, 농민과 노동자 등 수많은 민초들은 일본제국주의 괴포(巨砲)한 칼날 앞에서 '고성-강토를 파달리며 고성재만이라는 독립선언서를 만민에게 알렸으며, 조선독립선언서를 군중들에게 나눠주며 독립의 열망을 삼아주었다.

이들은 총칼을 든 형에게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당하여 결국 총살되고 말았으나, 당시 김동원 등과 간성보통학교 150명의 학생들, 300여 민초들이 태를 토하며 외친 그날의 함성은 독립의 횃불이 되었다.

이처럼 고성 3.1 독립만세운동은 일제 강점기에 가장 빛나는 민족운동으로서 자주독립의 열망과 의지를 확인하는 화물이었다.

장하다 그 충절
조국을 되찾고자 항거한 그 절규를 머리 잊으리외

여기에 비를 세우는 것은 용해한 최초 자주독립 의지로 항복을 높이 울며 항거한 고성 지역 애국지사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아 이 강도를 길이 지키고자 함이다.

2020년 3월27일

고성군수 서국



기념비 건립문

작품 설명

작품명 : 햇빛을 쫓다

재료 : 대리석, 화강암, 청동, 스테인리스 스틸

규격 : 9.7m X 10.3m X 8m(H)

사건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리 157(남출출원)

빛과 햇빛의 형상을 모티브로 주탑의 형상을 디자인 하였다.

3.1운동을 의미하는 3개의 주탑은 단단한 하루에서 날렵한 상부로 이어지는 유려한 곡선을 통해 그날의 행복을 표현하며 웅장하게 하늘로 솟아오른다.

기념탑의 중심은 독립운동의 이루어진 정수를 본따고 바닥에는 우리나라 꽃 무궁화의 패턴을 적용하였다. 또한, 주탑의 앞면에 동상을 세워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독립운동의 현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주탑의 귀면으로 고성군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에 관한 역사와 독립운동가의 공적 등을 담은 설명판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고성군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을 이해하고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이어 받도록 하였다.

계단과 슬로프를 적용하여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계단과 항로를 설치하여 추모하는 마음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체적인 재료는 화강석을 사용하여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다.

이곳의 3.1 독립만세운동 기념탑을 찾는 법은 후손들이 선열들의 그날 형편 형성과 독립의 열망을 다시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2020년 3월 1일

조각가 신 중 태

(남성 44회, 고성출 18회, 고성교 17회)



작품설명 내부 중앙

고성군 3·1 독립만세운동사

현대의 고성군은 3·1 독립만세운동 당시에는 고성군(杆城郡)이었다. 이곳은 강원도 동해안에서 기암 만지(3월 17일) 만세시위
가 일어난 곳이며, 일본 경찰이 주둔한 다른 지역과 달리 독립운동이 활발하여 일제 헌병의 군할이었다. 고성면(高城面)에서는
1919년 3월에 이미 일제의 보병부대인 26사단 74연대 1개 소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고성군 신북면(新北面) 개암리(桂岩里) 청년 김홍만(金鴻萬, 22세)이 3월 초순에 「조선독립선언서」 1통을 입수하여 3월 13일
밤에 고성면사무소의 동사민을 자택으로 가지고 와 찾아와 「고성개면」이라는 제목을 붙인 독립선언서 50여통을 몰래
다들일 14일 고성을 방계에서부터 간성까지, 지경리(智井里)까지 계사면에 붙이거나 길 위에 뿌려 민중의 각성을 촉구하고 독립운동
의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이 일로 김홍만은 출판법 위반으로 징역 10월형의 판결을 받았다.

한편 강원도 철원(鐵原) 일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철원유격단(鐵原游擊團)」 단원의 토성(土城) 출신 김형석·이근욱·
이석규·김만수·문영복 등이 태극기를 준비하고 주한 약 300여 명을 규합하여 3월 14일 토성면 고암(高岩)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벌였다.

이처럼 군내면(郡內面) 하대(下臺) 출신인 미동천(米東川)은 개성 천명서원에 다니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친구인 간성보통학교
학장 유기대(成德大) 장씨 1919년 3월 17일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차에서 「지금 전국 각처에서 독립운동
을 일으키니 문명교화를 받은 누구라도 책임을 회피하여 만세를 부르지」라는 내용의 선언문을 만든 후 간성 보통학교 4학년 교실
벽구에 붙였다. 이 선언문을 읽고 자극받은 장정규 외 12명이 8월 150여 명을 운동장에 모으고 대한독립을 외쳤다.

2월 27일에는 군청과 함께 고성군 고암·죽도·봉평·간성김치에서 태극기를 본뜬데 걸었던 만세운동을 벌였고, 이를 계기로
영광 등 동해안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통탄하듯도 이들 주도하였던 승려 김택은 등 22명은 관병에 체포되어 1년
여상의 모진 고문을 겪으면서 옥고를 치렀다.

이처럼 통천군 임남면(臨南面) 장전리(長前里, 1919년 3월 15일 고성군 편입) 기독교인 최상관(崔相幹) 중심으로 신북면
(新北面) 서문소에서 김부만·한홍식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 50여 통을 몰래 가지고, 3월 31일에는 태극기 250개를 만들어 4월 1일
신전리 기독교인의 집을 찾다다녀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유하였다. 4월 2일에는 기독교인 약 20여 명을 모아 마지
민트 태극기를 해부하고 팔장서기 봉리(高靈寺) 다라미재 관세사위를 주도하고 다음날 100여 명을 모아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영광 수채소까지 행진하는 등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거사를 도모한 최상관·김부만·한홍식·우낙영·박성준·유시국 등은 방위
지원반의 원시지령에 소위 보안병 및 출판법 위반 혐의로 구속·수감되었는데, 또한 1년 이상의 모진 고문을 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문화적 이득을 거머쥔 일제는 3·1 독립만세운동의 규모를 과소평가 그들의 안전을 감추려 하였다. 실제로 일본 헌병
이 검거하고 투옥된 독립운동가 수는 실제로 기록보다 훨씬 많았다.

3·1 독립만세운동은 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주독립투쟁이며, 개항(開港)과 자주독립 외치를 세계에 천명하여 우리인
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이로써 일제가 동서침략을 꾀하지 않을 수 없는 금지로 돌아섰었다.

특히 3·1운동을 계기로 1919년 3월 7일 조국 일대에 대한 민족대표 33인의 단행하였고, 백들이 된 3·1 독립만세운동은
이제야 위대한 민족운동과 저항정신의 선구가 되었다.



1958년 간성(현 농협사거리)

1958년 간성(농협사거리)

그날에

이선국

저레여, 동포여
새벽이 처음 열리던
오천년 역사의 자존감으로
단박에 일어나라 소리쳤으리라

뜨거운 가슴
피 끓은 함성으로
어둠의 사슬을 끊고
깨어나라 일어나라 외쳤으리라

삼천리금수강산
끝없는 아우성으로 길을 열고
선열의 핏빛으로 물든 이 땅에
민족의 뜨거운 혼불을 들길에 홀뿌렸으리라

아, 그날의 함성으로
오등은 자에 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목 놓아 불렀으리라
대한독립 만세! 우리나라 만만세!

기념시 (그날에)



해동지도(고성군:북고성) 1722~1746년도

해동지도(북고성군)



1930년 간성보통학교



1960년 간성보통학교

간성보통학교 사진



3.1독립만세운동기념탑 내부 / 외부

■ 조사내용 ■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은 동해안 최초의 간성지역 3.1독립만세운동을 기리기 위해 2020년 8월15일 준공된 탑으로 기념탑의 설명은 조형탑 주변 높이143cm×폭70cm×두께32cm 대리석에 사각 오석을 부착하여「고성지역 항일 애국지사(85명)」명단이 시대별 가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대리석에 부착된 또 다른 스테인레스에 작품설명, 고성3.1독립만세운동기념비 건립문, 고성군3.1독립운동사, 3.1독립선언서, 1958년 간성시가지 전경, 해동지도(간성군), 해동지도(고성군), 1930년 간성보통학교, 1960년 간성보통학교, 헌시(그날에) 등이 각각 코팅되어 표석별로 세워져 있다.

4-2. 와우산 충혼탑

■ 개요 ■

- 유형 : 위령탑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196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시멘트, 동판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73년 9월29일 준공(1984년 5월25일 보수)



충혼탑과 반공의거순국비 전경



충혼탑 이면 / 좌측면 표석

조사내용

충혼탑은 시멘트 조형물로 외벽을 흰색으로 도포하였으며 규모는 높이 약1000cm×하단 폭500cm 4면 사각 곡선 형상, 상부에 원형 통구가 있고, 2/3 위치 정면 중앙에「忠魂塔」한자 해서체 세로쓰기 동 주물을 부착하였다.

이면 사각 오석 가로70cm×세로100cm에는「奉安英靈 陸軍 大尉 金秉權…」등 17인의 장병 명단이 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그 아래 민간인「金仁植…」등 20인씩 3줄로 60인의 명단이 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탑의 왼쪽 사각 오석 가로40cm×세로50cm×두께11cm에는「高城郡守 朴壽均 忠魂塔 建立委員會 委員長 劉贊基 副委員長 朴洙彬 全寅鶴」에 의해 1973년 9월29일 준공(竣工)되었고,「高城郡守 崔乘虎」에 의해 1984년 5월25일 보수(補修)된 것으로 새겨져 있다.

이 충혼탑은 6.25전쟁 중 이 지역에서 전사한 63위를 포함하여 1,274위 호국영령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건립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참조 고성군지(2020년, 고성군, 530쪽)>

4-3. 반공의거순국비

- 개요 ■
- 유형 : 위령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196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66년



반공의거순국비 전면



측면 / 이면

■ 조사내용 ■

충 비신의 크기는 높이190cm×너비73cm×두께37cm이다. 비의 전면 중앙에는「反共義舉 殉國碑」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자형은 약20cm×20cm로 음각되어 있다.

비 좌측 면 상단에「殉國志士名單」가로쓰기 한자 전서체로 음각되어 있고「杆城面 林亨熙」를 비롯해 읍면별 64인의 명단이 한자 예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비신 후면에는 반공의거순국비건립위원회(反共義舉殉國碑建立委員會)의 건립 이유를 한자 예서체와 한글로 병서하여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고성군에서 1965년 6월 애국회사건에 참여한 지사들의 순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기념비건립을 추진하였다.「고성군은 반공의거순국비 건립위원회를 구성한 후 6·25전쟁 이전 고성군 지역에서 반공의거에 참여한 63명의 애국지사를 선정하고 그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1966년 광복절을 기해 고성군청 뒷산에 박정희 대통령의 친필 휘호로 반공의거순국비를 건립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고성군지(1998년), 155쪽 참조>

〈비(碑)후면〉

이碑를세우며一九四五年八十五日聯合軍의勝利로國恥民辱三十六年만에드디어民族的宿願인祖國光復의聖業은이룩되었다이얼마나 / 感激的인歷史의快事가아니었으랴그러나이고장

은三八線以北이라는宿命的條件으로췌聯軍의進駐를보게되었으니그들은世界赤化野慾 / 을품고解放軍이란美名아래갓은掠奪과蠻行을恣行하였으며이에便乘한北韓共產黨들은惡辣한手段方法으로祖國의聖地와同族까지도췌 / 聯의祭物로犧牲시켜日帝以上の絶望과暗黑의強酸으로再現시켰던것이다屈辱은죽음보다도참기어렵고自由는生命보다도貴重한것이어서이 / 에抗拒한反共愛國志士들의烽火는마침내뜨거운불길로化하였던것이다이들反共鬪士들은莫府三相會議에서託治가議決되자決死의으로反 / 託運動의先驅가되었으며北韓의所謂黑白函選舉보이코트및그妨害反共빠라의撒布大韓民國政府樹立을위한五·十選舉의積極支持와UN韓國 / 委員會에보내는呼訴文傳達및南韓右翼政界와不斷한連絡等으로反共鬪士의헛불을높이밝혔던것이니이어찌愛國愛族의龜鑑이아니리오 / 嗚呼라하늘도無心토다그들의自由와正義의抗拒는六·二五動亂과때를같이하여虐殺이란苛酷한이름아래不歸의孤魂이되었도다一九五四 / 年十一月 이고장이大韓의行政權下에收復되어님들의夢寐에도그리던自由天地의樂土가된지於焉十三年이제世人의忘却속에無心히사라지 / 려는그들의偉業을더듬어後世에이崇高한넋을이어받들고자戰火의傷痕이가신反共堡壘의最前線地區인여기陽地바른臥牛山기슭에愛國同 / 志들의誠金을모아이碑를세워英靈들의冥福을빈다實로이곳은自由와正義의先鋒이요民族의갈길을밝혔던反共愛國志士들의넋이고이잠든聖 / 地이니누구나여기오는者옷깃을여미라그리고勝共統一만이우리의살길임을다시금깨닫고새롭게도盟誓하자「附記」이곳에登載된六十三 /

名外에도資料蒐集不充分으로收錄못함을못내遺憾으로生覺하는바이며 또한이분들과같이싸우다九死一生으로脫出에成功하여살아남은 많 / 은 人士가歷史의證人으로지켜보고있음을아울러添記한다 이碑를세우는데있어命名揮毫와建立基金을下賜하여주신 朴正熙大統領閣下를 / 비롯하여物心兩面으로協贊하여주신 各界人士 그리고資料調査蒐集및募金運動에東奔西走하신여러분께삼가深甚한謝 意를表하는바이다/

一九六六年八月 日 反共義舉殉國碑建立委員會 一同

4-4. 화랑사단전적비

■ 개요 ■

- 유형 : 전적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리 213-4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59년 11월 30일



화랑사단 전적비 전면

■ 조사내용 ■

비는 치석한 화강암으로 상부는 호형으로 높이145cm×폭64cm×두께20cm이며, 전면에는「花郎師團戰蹟碑」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전적비의 좌대는 2단 대리석 판석이다.

비의 이면에는「아! 향로봉 남강 기슭은 / 옛산 옛물이로되 / 눈보라 내리치던 / 처참한 싸움터에 쓰러진 전우들의 / 옛모습은 간 곳이 없도다 / 단기4292년11월30일 / 소장 오덕준」한글로 새겨져 있다.

1951년 5월 공산군과 국군 사이에 밀고 밀리던 향로봉지구 전투에서 우리 국군은 고지를 사수하기 위해 싸우다 많은 장병들이 장렬히 산화함으로써 이들 호국용사들의 넋을 추모하고 전승을 기념하기 위해 화랑사단 장병들이 1959년11월30일에 건립하였다고 한다.



비신 이면

4-5. 향로봉지구전투전적비

■ 개요 ■

- 유형 : 전적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11번지 진부령미술관 오른쪽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57년 7월15일(최초), 1973년 9월29일



향로봉지구전투전적비 전면



비석이면



비석이면

■ 조사내용 ■

국도46호선 진부령 영상의 진부령미술관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 전적비는 향로봉지구 전적 기념 및 육군 제11사단, 수도사단 전사자들의 호국 영령을 추모하기 위해 육군 제3군단에서 1957년 7월 15일 최초 건립하였다고 한다.

비석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노후 됴에 따라 1973년 9월 29일 최초의 위치에 다시 건립하였고, 현재의 비석은 1989년 8월 진부령도로확포장으로 이전 보전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2단의 대리석 판석 기반석 위에 세워진 화강암 비석은 호형 상부로써 높이226cm×폭105cm×두께37cm 중앙 비명부분을 평탄으로 치석한 자리에「香爐峰地區戰鬪戰蹟碑」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6.25전쟁 중 동부전선에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 향로봉지구전투를 기념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이다. 이 전선을 확보함으로써 현재의 38도선 이북지역이 수복될 수 있었다.

기단부 이면에는

「향로봉지구전투 전적비 맹호 수도사단 용사들은 단기 4284년 5월 7일부터 동년 6월 9일까지에 / 걸쳐 양양과 간성을 탈환하고 계속하여 설악산으로 진격하였으나 패주하던 / 적은 중동부 요충지인 인제를 방비하기 위하여 설악산과 향로봉 일대에 견고한 / 진지를 구축하고 괴뢰 제5군단 예하 제11,12,13사단을 증원하여 우리 수도/사단 및 제11사단에 89회라는 희유의 반격을 기하여 왔었으나 도처에서 / 연전연승을 자랑하는 용사들은 그 반격을 격퇴 분쇄하고 설악산 및 향로봉을 / 확보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는 오늘의 광범위한 중동부 일대를 수복하는데 / 혁혁한 공훈이 되었으며 전 장병들의 영웅적인 전투는 높이 찬양되었다. / 이 지구에서 장렬하게 호국의 신으로 산화한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며 자손 / 만대에 길이 그 위훈을 전하고자 여기에 전적비를 세우고 이를 기념한다. / 단기4290년 7월15일 // 제3군단 세움」이라고 스테인레스 철판에 한글로 음각되어 있는데 서체가 희미하다.

4-6. 설화희생충혼순국비

- 개요 ■
- 유형 : 위령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11번지 향로봉지구전투전적비 왼쪽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56년 3월31일



설화희생충혼순국비 전면

■ 조사내용 ■

대리석 판석 기단석 위에 세워진 자연석 화강암 비석은 높이130cm×폭71cm×두께35cm이며, 상부 호형으로 중앙부분을 평면으로 치석하여 비명「雪禍犠牲忠魂殉國碑」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향로봉지구전투전적비 좌측에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은 1956년 1월16일부터 18일까지 3일 동안 향로봉 일대 3m 이상의 폭설이 내려 눈 속에 길을 뚫고 이동하던 많은 장병들이 눈사태로 인해 희생당해 이를 기리기 위해 단기4289년 3월31일 제3군단 장병들이 세운 것으로 전한다.

<참고문헌 : 고성군지, 1998년, 고성군>

4-7. 당포함전몰장병충혼탑과 자유의 탑

■ 개요 ■

- 유형 : 위령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29 -1번지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한글 궁서체 동판
- 건립 시기 : 1970년 5월10일(최초)



당포함전몰장병 충혼탑 전면 / 자유빛



충혼탑 측면 오석

■ 조사내용 ■

대리석 판석의 사각 위령탑으로 높이 등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고 탑신 전면 중앙에는「당포함전몰장병충혼탑」세로쓰기 한글 궁서체 동판 부조로 부착되어 있다.

왼쪽 측면 오석에는「건립취지문 / 충혼탑은 서기1967년 1월19일 오후1시30분경 동해안 / 어로보호작전 중 북괴의 만행으로 격침된 56함(당포함) 장병 중 / 꽃같이 사라진 고 해군 대위 박태만 등 39명의 영혼과 / 명복을 추모하기 위하여 재고성군 해군 예비역 장병과 해군 / 당국 및 역대 총장님 그리고 지방 각 기관장 유지님들의 협조 / 로서 서기1970년 1월19일에 제3주기를 맞아 위령제와 기공식 / 을 올리고 동년 5월10일 완공과 동시 제막을 하게 된 것임.」한글로 음각되어 있다.

이면에는 오석으로 협조해 주신 분과 1998년10월 1일 해군제1함대사령관의 정화 사업 취지문이 음각되어 있고, 오른쪽 오석에는 전몰장병 명단이 한글로 음각되어 있다.

위령비 왼쪽에는 전화 사업을 기념하기 위한 등근 ‘자유의 탑’이 세워져 있고 대리석 판석 표면에는 ‘자유의 탑’ 한글 동판 글씨가 돌출 부착되어 있다.

4-8. 충혼비

■ 개요 ■

- 유형 : 전적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510-8번지 (충혼탑 공원)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금속(스테인레스)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88년 8월15일



충혼비 전면



기단부 후면

■ 조사내용 ■

충혼비는 대리석 판석 조형탑으로 탑신 전면에 「忠魂碑」세로쓰기 스텐레스 부조로 양각되어 있고, 후면 기단부에 「雪岳山地區 전투, 향로봉 月比山地區 전투, 351高地及防禦作戰, 충혼비 이전 건립경위」 등이 상세히 음각되어 있다.

후면 하단에 「충혼비 이전 건립경위 / 6.25 당시 산화한 호국 명령 / 들의 충혼이 넷을 기리기 위하여 / 一九五六年九月三十日 대대리 / 302-1번지에 건립된 것을 / 88서울올림픽 성화봉송로 주변 / 정비 사업으로 고성군에서 시행 / 하여 작가 이일영이 제작, 이 자 / 리에 옮겨져 후세에 자유수호의 / 증표로 길이 전하고자 함. / 一九八八. 八.十五」 한글과 한자로 음각되어 있는데 서체가 희미하다.

<고성군지(2020년, 531쪽 참조)>

기단부 이면에는 향로봉월비산지구 전투, 설악산지구 전투, 351고지급방어작전, 충혼비 이전 건립 경위가 대리석에 음각되어 있다.

이 비(碑)는 1956년 9월30일 대대 삼거리에 세워졌으나 88서울올림픽 성화봉송로 주변 정비계획에 따라 이곳으로 옮겨졌다.

4-9. 북진통일비

■ 개요 ■

- 유형 : 전적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510-8번지 (충훈탑 공원 내)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자연석), 한자 초서체
- 건립 시기 : 1954~1955년(추정)



북진통일 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비석은 자연석 타원형 화강암으로 규모는 높이350cm×폭165cm×두께30cm, 둥근 자연석 기단은 넓이지름230cm×폭지름200cm이다.

비석 전면은 평평하게 다듬어 「北進統一」 그 왼쪽에 「雩南」이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호(雅號)가 한자 초서체로 각각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이면에는 「杆城地區復興功勞者 第一 軍團長 金鍾五 將軍 第十五師團長 金炳徽 將軍 第十五師團工兵大隊 徐潤河 少領 朴桂洙 大尉」 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비석은 수복직후 고성군청 앞 사거리에서 간성지구 부흥탑(復興塔)으로 세웠었으나 도로 확포장으로 이전 방치되었다가 시기 불상 이곳으로 옮겨왔다.



4-10. 월남전 참전기념탑 및 참전용사추모비

■ 개요 ■

- 유형 : 위령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510-8 번지 (충혼탑 공원 내)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글 백송체
- 건립 시기 : 2004년 11월 5일



월남참전 기념탑 / 추모비 전면



월남참전 기념탑 / 월남참전용사 추모비 전면

■ 조사내용 ■

기념탑 높이 700cm로 조형탑 전면 오석바탕에 「월남전참전기념탑」 한글 백송체가 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기념탑 왼쪽 건립취지문은 대리석 높이80cm×폭210cm 기단석 폭220cm×높이33cm 사각오석에 음각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같은 크기의 대리석과 오석에 참전자 명단이 음각되어 있다.

추모비는 탑신235cm와 이수90cm, 귀부150cm와 기단석으로 구성되고, 오석 탑신은 높이235cm×폭77cm×두께45cm 전면중앙에는 「월남전참전용사추모비」 한글 휴먼엣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월남전 참전기념탑과 참전용사추모비전면에는 가로71cm×세로64cm 오석 8개에 맹호부대, 백마부대, 비둘기부대, 청룡부대, 은마부대, 백구부대, 주월사, 십자성부대 등 참전부대명과 마크가 각각음각되어 있다.

월남전 참전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탑과전사자 추모비를 2004년11월 5일 국·도·군비 지원으로 월남전참전유공자회고성군지회에서 세운 것이다.

4-11. 6.25한국전쟁참전용사공적비

■ 개요 ■

- 유형 : 공적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510-8 번지 (충훈탑 공원 내)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2005년 6월 3일



공적비 전면

北韓共產軍은 戰車 및 / 重火器로 武裝하고 自由大韓民國을 不法南侵을 敢行하여 大戰爭이 일어났다. 當時 우리 國軍은 戰勢가 / 不利하여 大邱 洛東江까지 後退하기에 이르렀으나 우리 國軍은 UN16個 國軍이 參戰함으로서 UN軍 司令官 / 맥아더將軍의 仁川上陸作戰으로 大反擊作戰에 依하여 9.28 首都 서울을 奪還의 餘勢를 몰아 北進 北進하여 / 平安北道 宣川, 戩城, 禁山은 勿論 東部戰線으로는 咸鏡北道 清津, 鴨綠江, 惠山鎮, 豆滿江, 會寧 戰鬪 등 / 北進하여 南北統一을 눈앞에 두었으나, 北韓共產軍은 中共軍의 支援을 받아 合勢하여 다시 南侵을 거듭하게 / 되여 戰勢가 不利, 따라서 “너는 태어나서 祖國과 民族을 爲하여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 오신다면 나는 / 젊음을 草介와 같이 바쳐, 나라의 運命이 암흑 世上에 빠졌을 때, 燈火를 밝혀 나라를 救하고 自由民主主義 / 守護와 繁榮을 이룩하는데 礎石이 되었다고 對答합니다. 우리 6.25 參戰勇士는 이러한 淒慘한 戰鬪過程에서 / 살아남은 役戰의 老兵은 1953年 7月 27日 字에 休戰으로하여금 軍服務를 名譽롭게 마치고 歸鄉하여 第2 國家 / 安保에도 한 몫을 다해 戰爭으로 인하여 焦土화된 땅을 再建함으로서 幽命을 달리한 戰友들의 讖을 기르고, / 다시는 이 땅에 悲劇의 戰爭이 없는 이 나라 平和統一을 祈願 하며, 오늘까지 生存하고 있는 大韓民國 / 6.25 參戰 有功者會 高城郡支會 會員들의 뜻을 모아 이 功績碑를 建立 하노라. //

2005年 6月 3日 // 社團法人：大韓民國 6.25參戰 有功者會 / 高城郡支會 會員一同」

4-12. 호림유격전적비

■ 개요 ■

- 유형 : 전적비(위령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1-2번지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한자 해서체 동판
- 건립 시기 : 1986년 9월30일



유격전적비 전경



기단부 오석 전면



이면(건립개요)



이면(유격대원 명단)

■ 조사내용 ■

1947년 7월 강원지역 청년들과 서북청년 단원이 주축이 된 민간인 316명이 ‘호림유격대’를 조직해 북한군에 맞서 항전하다 사망한 대원들을, 생존대원들이 1967년 7월 혈맹의 뜻으로 전적비를 1986년 9월30일 이곳에 세운 것으로, 대리석 판석으로 외장하였고 상단에 햇불을 치켜든 유격대원 형상의 조형탑이다. 전적비는 대리석 판석으로 가로520cm×세로150cm×높이 좌500cm(우350cm), 상부 용사 동상 높이 약270cm이다.

동상 아래에는 동(銅)으로 된 한자 해서체의 비명(碑銘)「虎林遊擊戰績碑」가 세로 쓰기 동판 부조로 부착되어 있다. 동상이 위치한 하단에는 제단 200×100cm 대리석 상석과 지름20×높이33cm의 대리석 향로가 있고 그 하단에는 350×350cm와 430×430cm 2단 대리석 판석 받침대가 있다.

전면 오른쪽 120×135cm 오석에는 「자유인에게 전하여다오! / 여기 / 군번도 없는 호림용사들이 / 자유대한을 수호하기 위해 / 반공전선에서 싸우다 산화한 / 사랑하는 전우들의 영전에 / 생존한 동지들의 뜻을 모아 / 님들의 충혼을 추모하고 저 / 격전지인 갈림길 마루턱에 / 돌하나를 다듬어 기리나니 / 부디 / 조국의 수호신이 되어 / 이 나라 이 민족을 / 굽어 살피주시옵소서.」가 한글 명조체로 음각되어 있고, 왼쪽 120×135cm 오석에는 「약사 /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동란 직전 북괴 무장 게릴라의 남침을 / 저지, 분쇄하기 위하여 숭고한 희생을 치루었던 애국청년들이 있었기에 / 여기 그 위훈을 아로새겨 그들의 충혼을 기리고, 용전사실을 널리 선양 / 하고자 이 비를 세운다. // 1949년 2월 강원지역 청년들과 서북청년 단원이 주축이 된 민간인 / 316명이 유격대를 조직 “호림”이라 이름하고, 북괴와 맞서 유격활동을 / 전개하다 산화하였으며, 그들은 오직 자유수호의 일념으로 북괴의 / 무력책동을 저지 분쇄하였다. // 1949년 7월 그들은 머리카락을 담배갑 은종이에 싸서 묻고 생무덤을 / 만들며 “누구든지 한명이라도 살아 남으면 동지들의 유해를 거두어 장례를 / 치루어 주기”로 혈맹하였다. // 1967년 7월, 생존 동지들이 18년 전 이곳 생무덤에서 전우들의 / 분신을 찾아 설악산 기슭에 안장하였다. // 이분들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흘린 피의 대가가 오늘의 영광과 번영을 / 가져오게 하였으니 후세에 자유수호의 증표로 길이 전하여질 것이다.」가 한글 가로쓰기로 각각 음각되어 있다.

4-13. 351고지전투전적비

■ 개요

- 유형 : 전적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2-25번지 통일전망대 앞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57년 7월15일(최초), 2020년 7월26일(현재)



351고지전투전적비

■ 조사내용 ■

6.25전쟁 시 격전지였던 351고지 전투의 전공을 기리기 위해 육군 3군단에서 1957년 7월15일 최초 현내면 대진5리에 전적비를 건립하였고 통일전망대 개관이후 1988년12월26일 통일전망대 건물 왼쪽 입구에 이설하여 육군 8군단에서 관리하였고, 2020년 7월 현재의 자리로 보강하여 이설한 것이다.

전체 전면 하단 넓이320cm×폭117cm 대리석 판석, 오른쪽 상단에는 호형 치석한 화강암 넓이96cm×높이190cm×두께38cm에 비명「三五一高地戰鬪戰績碑」가 한자 해서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왼쪽 상단에는 지름60cm×높이120cm 화강암으로 부서진 철모 조형의 조각상이 있다.

전면 왼쪽 오석높이 120cm×폭80cm에는 2020. 7.10. 이전 건립내역 「이 기념비는 6.25 당시 351고지 전투에서 / 호국의 신이 되신 전몰장병의 전공을 기리고자 / 1957년 7월15일 제3군단에서 강원도 /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에 최초로 건립하였음. / 이후 민족분단의 아픔을 알리고 자유수호의 / 증표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1988년 12월26일 / 그날의 격전지가 직접 바라다 보이는 통일 / 전망대로 이전하여 8군단에서 관리하여 / 오던 중, 2020년 통일전망대 리모델링 / 공사에 따라 국군의 합동작전으로 통한 / 국토방위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해 / 공군전투전적비가 있는 현 위치로 이전하였음. / 2020. 7.10」으로 음각되어 있고 3군단과 8군단 부대마크가 유색 판석으로 부착되어 있다.

4-14. 공군 351고지 전투지원작전기념비

■ 개요 ■

- 유형 : 전적비(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2-25번지 통일전망대 앞
‘351고지전투전적비’ 왼쪽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자연석), 한글 옛체
- 건립 시기 : 2001년 7월18일



공군351고지 전투지원작전기념비

■ 조사내용 ■

기념비는 화강암 자연석 넓이175cm×높이125cm에 비명은「공군 351고지 전투지원작전기념비」로 한글 옛체 2단 가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하단 받침대 대리석으로 상단넓이60cm×하단넓이100cm×높이100cm, 전면에는 오석 가로50cm×세로88cm로 기념비 건립내용 「우리 공군은 6.25전쟁 기간 중 무려 / 8,000여 회의 출격을 감행하여 탁월한 / 작전능력을 발휘, 저 후방차단작전· / 근접 항공지원작전 등을 실시함으로써 / 막대한 전과를 거두었다. // 특히, 동부전선에서는 육군 제1군단이 / 1952년 7월10일부터 휴전 직전인 / 1953년 7월18일까지 격전을 치른 / 351고지 전투시에 F-15 전폭기가 / 900여 회 출격하여 긴밀한 공지 합동 /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마침내 / 이 작전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지대한 / 공헌을 하였다. //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곳 통일전망대 / 경내에 기념비를 세워 참전 조종사들의 / 빛나는 공훈을 길이 기리고자 한다. / 2001. 7.18 / 공군참모총장」이 한글 가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4-15. 고성지역 전투 충혼탑

■ 개요 ■

- 유형 : 충혼탑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2-25번지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및 오석, 한글 옛체
- 건립 시기 : 2003년 6월19일



충혼탑 전경



고성지역전투 충혼탑 표석 / 안내문

■ 조사내용 ■

보훈시설 관리번호 17-2-52로써 충혼탑은 통일전망대주차장 북쪽 사면, 통일전망대 중턱에 높이 약6m의 대리석 햇불 조형탑과 양측 사각 대리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형물 오른쪽에 자연석형 대리석 기단석 높이84cm×두께50cm 위에 오석 표석 가로136cm×세로45cm×두께18cm 전면에「고성지역전투 충혼탑」자형 15cm 크기의 한글 옛체 가로쓰기 탑명이 음각되어 있다. 탑명 이면에는「이 충혼탑은 6.25전쟁이래 고성지역에서 조국수호를 위해 / 산화하신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그분들의 빛나는 우국충정과 용감무쌍한 투혼을 길이 계승하고자 육군제5861부대와 고성군이 함께 건립함./2003. 6.19 / 고성군수함형구 육군제5861부대장 이성출」한글 가로쓰기로 충혼탑 건립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중앙 조형탑 좌우측 사각 대리석에는 수려한 산세를 양각하였고 좌측 이면에는 가로270cm×세로120cm 오석에 6.25전쟁시기 순직자 명단이 10줄씩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우측 이면 가로270cm×세로120cm 오석 하단에는 사단창설 이후 순직자 명단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우측 전면에 가로70cm×세로178cm×두께8cm의 사각 스텐레이스에 고성지역전투 충혼탑에 대한 설명이 영문과 함께 새겨져 있다.

사단 순직자 194인 위패가 건봉사에 봉안된 설명으로 미루어 사단에서 이용하는 충혼탑으로 추정된다.

4-16. 애국지사구국충정 송모비

- 유형 : 송모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운봉리 산62-10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예서체
- 건립 시기 : 2007년 6월



애국지사구국충정송모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애국지사구국숭모비(愛國志士救國忠情崇慕碑)는 3.1운동 직후 상해임시정부를 돕기 위해 조직된 비밀결사단체 ‘대한독립애국단’의 산하조직인 강원도단(철원 애국단)에 가입하여 핵심 단원으로 활동한 고성출신 독립운동가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후세에 길이 남기고자 비를 건립하였다.



측면

강원도단(철원 애국단) 소속의 윤봉리 이근옥, 김연수, 문명섭과 아야진리 김형석, 백촌리 이석규는 상해임시정부의 선전활동, 재정자금조달, 군중집회 선전문 게재, 비밀문서 전달 등 상해임시정부의 국내조직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정부는 이들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 김연수, 문명섭, 이석규, 김형석에게 건국훈장애족장, 1991년 이근옥에게 건국훈장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이 비는 2007년 6월 윤봉리 애국지사구국숭모비건립위원회에서 건립하였으며, 2009년 7월 애국지사의 후손인 문덕기, 김형중이 기부한 부지에 고성군에서 확장 조성하였다.

4-17. 36지구대원 위령비 및 현충탑

- 개요 ■
- 유형 : 위령비·현충탑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도원리 산103-3번지 (국군 제5192부대 내)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오석, 한글 한자(예서체)
 - 건립 시기 : 2001년12월31일 / 2009년 12월



위령탑 전면



기단석 하단 건립취지 / 기단석 이면



현충탑 정면



현충탑 이면 / 입구 안내판

■ 조사내용 ■

보훈시설 관리번호 17-2-9로써 묘역은 전체 4단으로 되어 있고 3단에 위령비와 현충탑이 위치하고 있다.

위령비는 현충탑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고 치석한 대리석 높이270cm×너비 110cm×두께50cm 전면에「三六地區隊員慰靈碑」한자 예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자형은 26cm이다. 지대석과 기단석은 사각 대리석으로 전체 높이160cm×너비139cm×두께80cm이며, 기단석 전면에는 가로85cm×세로60cm의 오석에「慰靈碑를 건립하면서 // 여기 젊음을 바쳐 六·二五 동란 당시 / 동해안일대 원산만의 여도 웅도 함경 / 북도 양도섬 강원도 통천 장전 등에서 / 조국을 수호하다 산화하신 三六지구 대 / 원들의 명령이 묻혀 있는 성스러운 터 / 전입니다. // 조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번 / 없는 의혈 남아들이 분연히 일어섰고 / 동해의 거치른 푸른 파도를 가르며 적 / 진을 넘나들다 초개와 같이 산화한 三六 / 지구 대원들이시여 ! // 태백의 험준한 산하와 설악의 영봉을 / 주름잡던 三六 지구 대원들이여 대원들 / 의 용맹함이 동해에 퍼져 오늘의 조국 / 발전과 후손들의 번영이 온 누리에 뻗 / 어 가리라. // 三六지구 대원 명령들이시여 이제 이곳에서 편히 잠드소서. 후배들의 가는 / 길을 항상 이끌어 주신 명령들의 영원 / 한 안식처가 되길 비읍니다. // 三六지구대원 일동은 경건히 머리숙여 / 명복을 비읍니다. // 三六地區隊員 一同」한글과 한자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후손에 길이 기리고자 이 비를 세우니 / 영혼들이시여... / 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묘역 하단 중앙에 대리석의 현충탑은 높이 500cm로 전면 중앙 오석에「현충탑」한글 궁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자형은 50cm이다. 글씨 좌우에는 태극기와 특수임무수행자 상징마크가 새겨져 있다.

현충탑 뒷면 상단 오석에는 상단「忠獻文」이 한자 해서체 가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그 하단에「오로지 조국과 민족의 안녕과 영달을 위하여 / 임무수행 중 작렬히 산화한 고귀한 님들의 뜻과 / 빛나는 업적을 지키려 목숨까지도 / 초개와 같이 바치신 조국의 품안에 평안히 영면하소서 / 님들이시여... / 후손들은 님들에 고귀한 뜻과 업적을 영원히 / 기억할 것입니다.」한글 궁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후단에「2009. 12. 」가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충헌문(忠獻文) 하단 오석에는「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위패」김동석 외 182명의 명단이 8칸×23줄 한글 가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위령비는 최초 고성군 현내면 명파리 지역에 위치한 야산에 영흥공작대 이사손 대원 외 다수 전사한 대원들을 매장했는데 1990년 해군부대 확장으로 고성군 현내면 제진리 366번지로 이전해 36호국 묘역을 조성하고 2003년 5월 30일 현충시설로 지정되었다. 그 후, 2006년 동해북부선 제진역사(猪津驛舍) 복원과 물류기지 확장으로 2006년 7월 31일 현 위치 이전이 결정되었고, 2008년 특수임무수행자회로 묘역관리가 전환되어 2009년 9월 30일 이전이 완료되었다.

4-18. 고원청년유격대위령비

- 개요 ■
- 유형 : 위령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 산68-2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예서체 / 해서체
 - 건립 시기 : 1978년



유격대위령비 전경



고원땅 비 / 유격대위령비 후면 / 측면



유격대원 명단



협찬인사명단



고원땅 조성

■ 조사내용 ■

고원청년유격대위령비는 좌측에 위치하고 비신은 높이176cm×폭60cm×두께36cm 오석으로 대리석 이수와 받침돌로 구성되어 있고 앞에는 제단이 있다.

위령비 전면에는 자형 14cm×14cm로 ‘高原靑年遊擊隊慰靈碑’ 한자 세로쓰기 예서체로 전액이 새겨져 있고, 후면에는 ‘碑文 // 韓國戰爭 中 自由와 平和를 爲해 遊擊作戰을 展開하다 祖國의 / 守護神으로 散華한 反共 遊擊部隊員들의 高貴한 犧牲과 빛나는 / 業績을 기리며 그 英靈들을 길이 追慕하기 爲해 高原郡民의 / 精誠을 모아 遊擊戰場이었던 東海 鹿島가 바라보이는 이곳에 / 慰靈碑를 세우노라.’ 건립 취지문이 새겨져 있다. 측면에는 송경구(宋慶九) 외 26명의 전사자 명단이 새겨져 있다.

우측 고원 땅 비는 위령비와 같은 크기로 전면에는 자형 30cm×40cm ‘高原 땅’ 한자 세로쓰기 예서체와 한글이 새겨져 있고, 중간 가로90cm×세로60cm×두께20cm 오석 2개에는 유격대원명단과 협찬인사 명단, 고원땅 조성 협찬자 명단이 각각 새겨져 있다.

이 비(碑)는 관리번호 17-2-48 국가보훈처지정 현충시설로써 6.25 한국전쟁 당시 함경남도 영흥만 일대 및 동해안 지역에서 조국수호를 위하여 싸우다 산화한 고원청년유격대 전몰용사 28명의 호국 명령을 기리기 위하여 건립하였다.

고원청년유격대는 중공군의 한국전 개입으로 국군과 UN군이 후퇴를 거듭하던 1950년 12월, 함경남도 고원·문천지역에서 치안유지 활동을 펼치던 반공청년 1백여명이 남쪽으로 피난을 포기하고 북한군과 중공군에 맞서 싸우기 위해 여도라는 작은 섬에서 처음 결성되었으며, 적국으로부터 점령당한 영흥·고원 등 내 고장을 탈환하기 위하여 일진일퇴를거듭하던 중 1951년 1월 16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공격으로 전개된 야간전투에서 북한군 43명 사살, 4명 생포하고 다수의 무기를 노획하는 큰 전과를 올렸으나, 유격대원 14명이 전사하는 희생을 치르기도 했다.

이후 고원청년유격대는 남쪽으로 철수하여 국군 수도사단 유격연대 제3대대에 편성되어 사천진전투에서 북한군 제69여단 3대대를 섬멸하는 등 동해안 일대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위령비 주변과 진입로에 주택이 들어서고 사유지 경계웁스 등으로 진입로가 막혀 진출입이 불편하다.

유격대원 명단 宋昌盛, 고원땅 조성 손창섭은 손창성(孫昌盛)의 오기 임.

併三

種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5. 암각문

5-1. 이승만 초대대통령 친필휘호

■ 개요 ■

- 유형 : 암각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광산2리 국도46호선 노변 암벽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초서체와 해서체
- 건립 시기 : 1951년 9월



초대 대통령 친필휘호 암각문

■ 조사내용 ■

이승만 초대대통령 친필휘호는 국도46호선 고성군 간성읍 광산1리와 2리 사이 국도변 자연석에 한자 초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자연석의 규모는 높이 약500cm×폭 약800cm이며 「爲國盡忠」 그 왼쪽에 「辛卯 仲秋 贈, 吳德俊 准將 雲南 李承晩」이며 바위 오른쪽에는 ‘■■■ 李晟豪, 檀紀四二八五年 八月’ 새겨져 있다.

6.25전쟁 당시 치열했던 격전지 향로봉 일대에 작전을 지휘하던 11사단(화랑사단) 오덕준 준장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라’라는 뜻의 친필휘호를 받아 이곳에 음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른쪽 음각 서체는 이듬해 이성호(李晟豪) 장군이 추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5-2. 건봉사 보림암 암각문

■ 개요 ■

- 유형 : 암각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62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불상(조선 후기 추정)



칠성문 암각문



산왕대신 암각문

■ 조사내용 ■

암각문은 건봉사 본당에서 보림골을 따라 서쪽 1.2km지점에 위치한 보림암자(菩林庵子) 경내에 있다.

산중턱 바위 아래 패허된 암자(庵子)에서 서편 이동 후 오른쪽 상단에 위치한 암각문의 크기와 자형은 정확히 확인할 수 없고, 화강암 자연석을 사각으로 치석한 벽면에 좌측으로부터 「左補右弼三台六星諸星君衆 / 北斗 第七 壽命長遠破軍星君 / 北斗 第五 百障殄滅廉貞星君 / 北斗 第三 業障消除祿存星君 / 北斗 第一 子孫萬德貪狼星君 / 北斗 第二 障難遠離巨門星君 / 北斗 第四 所求皆得文曲星君 / 北斗 第六 福德具足武曲星君 / 衆星環■北■眞君紫微大帝 / 二十八宿周矣列■諸星君■」 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성군(星君)이 새겨져 있다. 서체의 상태로 미루어 조선 후기에 새겨진 것으로 추정된다.

북두 제1 자손에게 만덕을 주는 탐랑성군(貪狼星君), 북두 제2 장애와 재난을 없애

주는 거문성군(巨文星君), 북두 제3 업장을 소멸시키는 녹존성군(祿存星君), 북두 제4 구하는 바를 모두 얻게 해주는 문곡성군(文曲星君), 북두 제5 백 가지 장애를 없애주는 염정성군(廉貞星君), 북두 제6 복덕을 두루 갖추게 해주는 무곡성군(武曲星君), 북두 제7 수명을 오래도록 연장시켜 준다는 파군성군(破軍星君)을 새긴 것으로 칠성 불공 장소로 이용된 것으로 짐작된다.

도교(道敎) 칠성(七星)의 영향을 받은 칠성문(七星文)으로, 칠세계(七世界), 칠불(七佛)로 발전한 불교와 도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암각문으로 기복 신앙의 상징물이다.

칠성은 본래 도교와 유교의 ‘천체숭배사상과 영부신앙’이 불교의 ‘약사신앙’과 한데 어우러져서 불교의 신앙으로 정착된 것으로서, 치성광여래, 일광보살, 월광보살, 약사칠성, 북두칠성 3태 6성 28숙 등이 민속 신앙의 대상이 되었다고 한다.

그 서편에는 크기와 자형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화강암 자연석을 호형으로 치석한 벽면에「南無山王大神位」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암각문 아래 제단이 있어 산왕대신(山王大神), 즉 산신령에게 불공을 드리는 장소로 추정되며 산왕대신 역시 본래 민속 신앙으로 불교에서 수용한 것으로 민속 신앙과 불교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암각문이다.



칠성군

5-3. 능파대 암각문

■ 개요 ■

- 유형 : 암각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향포구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초서체
- 건립 시기 : 1564년(명종 19)



능파대 암각문

■ 조사내용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항포구 북쪽에 위치한다. 주변 바위들이 오랜 세월 소금기에 의해 바위에 구멍이 생겨 천태만상 기이한 형상을 이루고 있는데 학자들은 이러한 현상을 타포니(Taffoni) 또는 풍화혈(風化穴)이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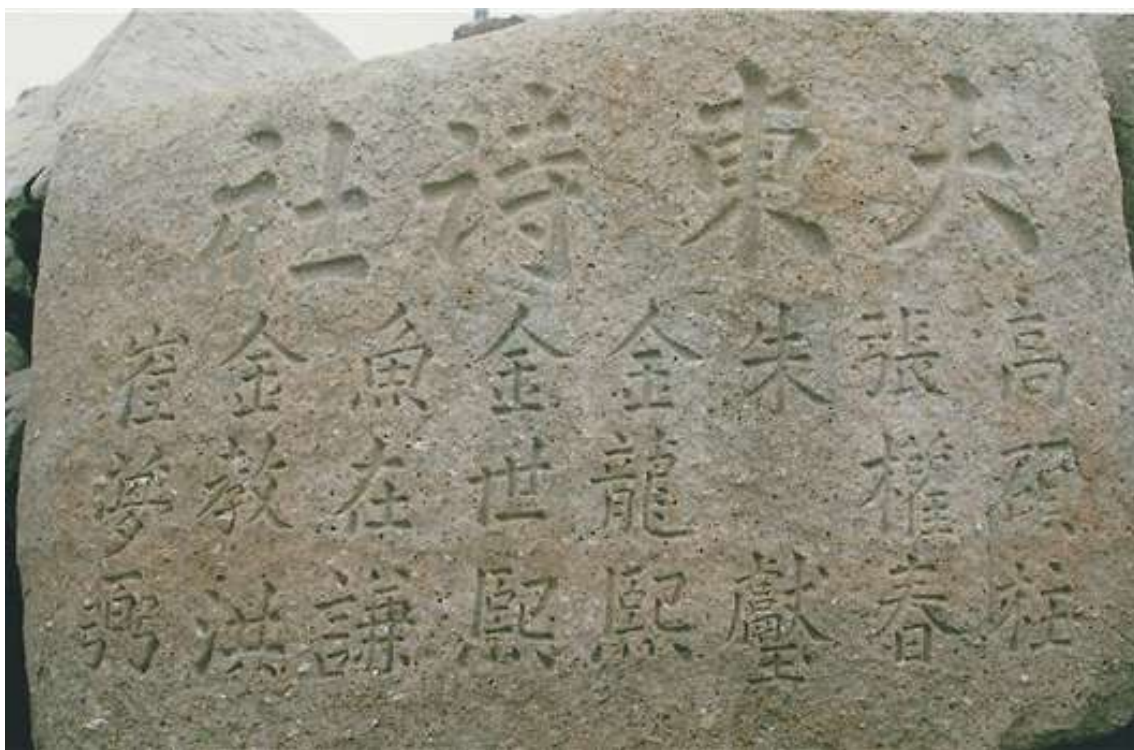
1825년 강원도관찰사를 역임한 관암 홍경모(冠巖 洪敬謨, 1774~1851)의 「능파대기(凌波臺記)」에서는 “바위에 새겨져 있는 ‘능파대(凌波臺)’ 세 글자는 봉래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의 글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1898년(고종 35) 방산 허훈(舫山 許薰, 1836~1907)의 「동유록(東遊錄)」에는 바위들이 무너져 가파르게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다. 여러 겹이 쌓여 이어져 뻗었는데, 종종 속은 비고 겹데기만 남아 소라나 조개껍데기나 도자기의 속 같으니 어찌다가 바람에 부딪치고 바다와 거센 바람(藍風)이 맞부딪치어 수많은 세월에도 끊임없이 견고하고 정결하니 한 절조 같은 자와 같아서 쉬이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암각문은 215cm×272cm 바위에 자경 58cm×35cm 크기의「凌波臺」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다. 글씨는 한자 초서체 종서로 썼다. ‘능파(凌波)’란 물결 위를 가볍게 걸어 다닌다는 뜻으로 우아한 미인의 걸음걸이를 이르는 말이다.

5-4. 대동시사 암각문

■ 개요 ■

- 유형 : 암각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1961년 3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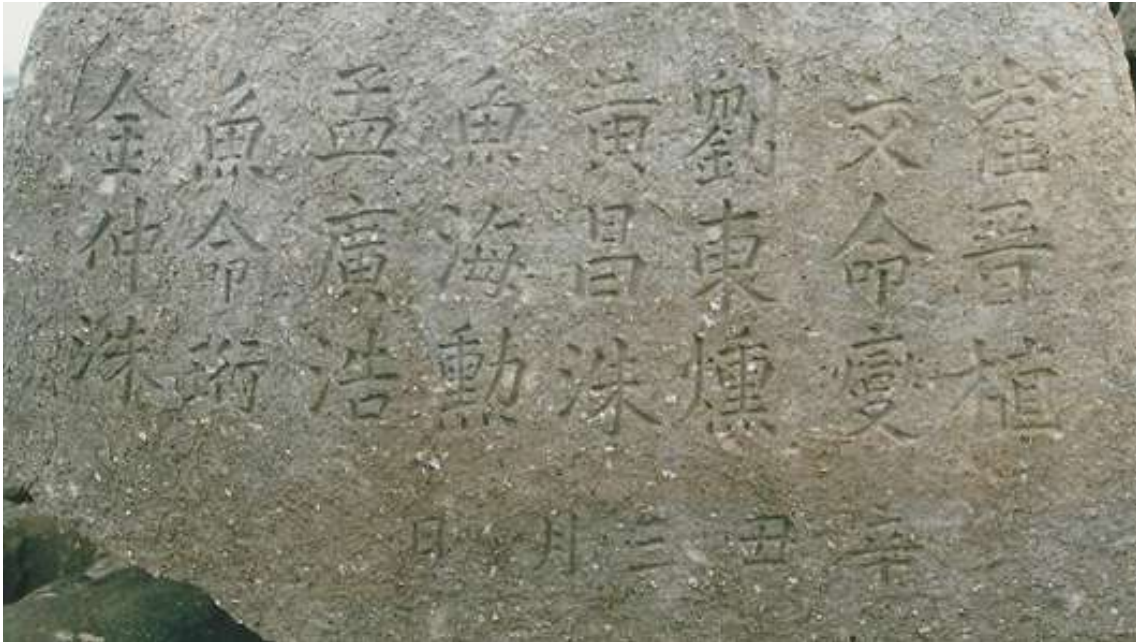


능파대 암각문 1

〈암각문1〉

大東詩社

高碩柱 張權春 朱 獻 金龍熙 金世熙 魚在謙 金教洪 崔夢弼



능파대 암각문 2

〈암각문2〉

崔晉植 文命燮 劉東燠 黃昌洙 魚海勳 孟廣浩 魚命珩 金仲洙



능파대 암각문 3

〈암각문3〉

盧炳瑞 吳延壽 尹泰炳

■ 조사내용 ■

고성군 죽왕면 문암2리 항포구 내에 북쪽 끝자락 석벽에 3개 바위가 나란히 있는데 바위 하나에 178cm×156cm 크기의 바위, 두 번째 바위는 218cm×144cm 크기의 바위, 세 번째 바위는 308cm×150cm 크기이다.

중앙에 위치한 바위 상단에는 30cm×32cm 크기의「大東詩社」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고 하단에는 12cm×10cm 크기의『辛丑三月日』이란 날짜로 보아 1961년 3월에 새겨졌다는 알 수 있다. 인명이 새겨져 있는 글씨는 해서체로 썼으며 자경 18cm이다.

대동시사(大東詩社)는 간성지역의 유생들이 만든 단체명으로 주로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매달 모여 한시 창작과 연구하는 문학 모임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대동시사는 양양, 강릉까지 교류가 활발하게 활동한 단체로서, 당시의 기록한『대동시사첩(大東詩社帖)』시문집에는 19명의 명단과 호, 출생, 본관, 주소가 간략하게 기재되어 있다. 특히 이 책에는 기념 한시가 각자 두 편 씩 남기고 있다.

<대동시사(大東詩社) 사원록(社員錄)>

고석주(高碩柱) : 호는 소봉(小峰) 무자생(戊子生) 본관(濟州) 토성면 봉포리
장권춘(張權春) : 호는 운파(雲坡) 기축생(己丑生) 본관(仁同) 토성면 운봉리
주 헌(朱 獻) : 호는 근원(槿園) 경인생(庚寅生) 본관(新安) 토성면 백촌리
김용희(金龍熙) : 호는 월성(月城) 신묘생(辛卯生) 본관(慶州) 토성면 백촌리
김세희(金世熙) : 호는 율림(栗林) 신묘생(辛卯生) 본관(慶州) 토성면 백촌리
어재겸(魚在謙) : 호는 동원(東原) 병신생(丙申生) 본관(咸從) 죽왕면 삼포리
김교홍(金敎洪) : 호는 송은(松隱) 병신생(丙申生) 본관(慶州) 토성면 운봉리
최몽필(崔夢弼) : 호는 운헌(簣軒) 기해생(己亥生) 본관(江陵) 거진면 거진리

최진식(崔晉植) : 호는 인재(仁齋) 무술생(戊戌生) 본관(江陵) 토성면 인각리
문명섭(文命燮) : 호는 운남(雲南) 경자생(庚子生) 본관(南平) 토성면 운봉리
유동훈(劉東燾) : 호는 동은(東隱) 임인생(壬寅生) 본관(江陵) 죽왕면 삼포리
황창수(黃昌洙) : 호는 소식(素石) 임인생(壬寅生) 본관(昌原) 죽왕면 송암리
어해훈(魚海勳) : 호는 경호(鏡湖) 갑진생(甲辰生) 본관(咸從) 죽왕면 삼포리
맹광호(孟廣浩) : 호는 청계(淸溪) 을사생(乙巳生) 본관(新昌) 토성면 운봉리
어명형(魚命珩) : 호는 춘정(春汀) 무신생(戊申生) 본관(咸從) 죽왕면 삼포리
김중수(金仲洙) : 호는 소천(小泉) 기유생(己酉生) 본관(光山) 토성면 운봉리

노병서(盧炳瑞) : 호는 금계(琴溪) 임진생(壬辰生) 본관(光州) 토성면 용촌리
오연수(吳延壽) : 호는 동암(桐菴) 계사생(癸巳生) 본관(海州) 토성면 봉포리
윤태병(尹泰炳) : 호는 춘파(春坡) 정미생(丁未生) 본관(坡平) 토성면 하용암리

5-5. 선유담 암각문1

■ 개요 ■

- 유형 : 암각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401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행서체
- 건립 시기 : 1687년(숙종 13)



선유담 암각문(송시열) / 암각문 탁본

■ 조사내용 ■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2리 마을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서쪽으로 약 250m 가면 선유담으로 가는 옛길을 만나게 된다. 옛길 초입 좌측에 암각문이 있다. 390cm×230cm 크기의 바위에 자경 37cm×48cm 「(仙遊潭)」이란 종서체가 새겨져 있다.

이 글씨의 주인은 우암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 1687년(숙종 13) 금강산에 방문했을 때 간성에 사는 어제창(魚濟昌, 1622~1699) 유생이 직접 찾아뵙고 청간정(淸澗亭), 영랑호(永浪湖), 선유담(仙遊潭) 등의 글씨를 받아 와서 새기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내용은 어제창의 문집 『미재집(眉齋集)』에 전해지고 있다.

선유담은 현재 주변이 논, 밭으로 변해 옛 모습을 찾기 어렵다.

1530년(중종 25) 관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고을 남쪽 11리에 있는데 산록이 둘러 골짜기를 이루었으며 골짜기 안에 못이 있어 선유(仙遊)라 한다. 작은 봉우리가 불쑥 일어나서 절반쯤 호수 가운데로 들어갔으며 그 위에 장송(長松)이 두어 그루 있다. 예전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 봄에는 척촉화(躑躅花)가 바위를 끼고 많이 피며 여름이면 순채(蓴菜)가 못에 가득하다.”라고 하였다.

5-6. 선유담 암각문2

■ 개요 ■

- 유형 : 암각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 401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행서체
- 건립 시기 : 1564년(명종 19)



선유담 암각문2 / 탁본

■ 조사내용 ■

암각문은 선유담 가운데 작은 산에 위치하고 있다.

290cm×130cm 크기의 바위에 자경 30cm×46cm 크기의 「仙遊潭」이란 새겨져 있다. 세 글자 중에 마지막 ‘담(潭)’자는 박리현상(剝離現象)으로 글자 아래 부분이 손상되었다.

바위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예전에 정자가 있었다고 전하는 곳이다. 주변에는 아직도 정자의 초석으로 사용했던 반석들이 남아 있고 곳곳에는 와편들이 이리저리 널려있다. 글씨를 쓴 사람은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이라고 하는 설이 있으나 확실한 문헌을 찾을 수가 없다. 다만 만경대, 능파대 명소에 남겨 있는 것으로 보아 추측할 뿐이다.

‘선유(仙遊)’란 신선들이 노는 연못이라는 뜻으로 근재 안축(安軸, 1282~1348)의 『關東別曲』, 송강 정철(鄭澈, 1536~1593)의 『關東別曲』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1633년(인조 11) 사찬지리지 이식(李植, 1584~1647)의 『간성지(杆城志)』에는 “산 아래 골짜기에 생긴 못(潭)으로 주위가 3리이다. 남쪽 낮은 산줄기 하나가 호수로 뻗어 들어갔으며 그 위에 큰 바위가 하나 솟아 있다. 바위가 평평하여 10여 명이 둘러앉을 수 있고 노송 8~9그루가 그 위를 덮고 있다. 사방이 바위로 둘러 막혀 있다. 서북쪽 상봉에는 가는 대의 그림자가 수면에 흔들리고 동쪽은 백사장에 송림이 우거져 햇빛을 감추어 더욱 좋다. 바다로 통하는 물속에는 헤엄치는 큰 고기가 해를 보고 뛰어 오르는 것이 가히 볼 만하다. 그물을 던지지 못하는 것은 그 깊은 곳에 요조숙녀와 같은 처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해온다.

영랑(永郎)이 자주 이곳에 유람(遊覽) 오는 고로 선유(仙遊, 신선들이 놀던 곳)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한다. 예전에는 정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18세기의 단원 김홍도의 「가학정(駕鶴亭)」 그림을 보면 연못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정자의 건물이 보인다. 정명은 ‘가학정’이라고 하였으며 그 뒤에 유한정(幽閑亭)으로 바뀌 부르기도 하였다. 1897년 만들어진 『수성읍지(遂城邑誌)』, 「산천(山川)」 교정(較正)에 의하면 “가학정(駕鶴亭)은 군수 김광우(金光遇, 1707~1781)가 이 건한 후 또 다시 무너져 1825년(순조 25) 군수 김용(金鎔)이 다시 중수(重修)하여 옛날 이름 그대로 선유(仙遊)라고 하였다.

그 후 21년이 넘어 1845년(헌종 11)에 또 다시 무너지게 되었는데 아직도 세우지 못하다가 결국 완전히 무너져 없어졌다. 지금에 와서 연못(潭) 역시 점차 파문혀서 초색(草色)만이 무성하게 보일 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5-7. 만경대 암각문

■ 개요 ■

- 유형 : 암각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54-11번지 (동해대로 511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초서체
- 건립 시기 : 1564년(명종 19)



만경대 전경 / 탁본

■ 조사내용 ■

1530년 관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 의하면 “만경대(萬景臺)는 청간역(淸澗驛) 동쪽 수리(數里)에 있다. 돌로 된 봉우리가 우뚝 일어서고 층층이쌓여 대(臺) 같은데 높이가 수십 길이 되며 위에 구부러진 늙은 소나무 몇 그루가 있다. 대의 동쪽에 소루가 있었으며 대 아래는 모두 어지러운 돌인데 뽕족뽕족 바닷가에 꽃혔다. 물이 많아 밑까지 보이는데 바람이 불면 놀란 물결이 어지럽게 돌 위를 쳐서 눈(雪)인 양 사면으로 흩어지니 참으로 기이한 광경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만경대는 오랫동안 사구(砂丘)에 의해 완전히 파묻히고 윗부분만 남아 있는 나즈막한 동산에 불과하다 정상에는 평탄하고 아래는 절벽인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아직도 노송이 남아 있으며 동편 절벽 바위에는「萬景臺」라는 초서체 세 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 글씨는 조선시대 4대 서예가 양사언(楊士彦, 1517~1584)의 친필로 『간성군읍지(杆城郡邑誌)』에 전해지고 있다. 암각문은 190cm×270cm 크기의 바위에 30cm×49cm 크기로 새겨져 있다. ‘만경(萬景)’의 뜻은 바라 볼 때 눈 안에 모든 경치가 들어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5-8. 청간정 암각문

■ 개요 ■

- 유형 : 암각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청간리 54-11번지 (동해대로 511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행서체
- 건립 시기 : 1687년(숙종 13)



청간정 암각문 / 탁본

■ 조사내용 ■

고성군 토성면 동해대로 5110에 위치하고 있다.

1633년(인조 11) 택당 이식(李植)의 『간성지』에 의하면 “청간정(淸澗亭) 원래는 청간역정(淸澗驛亭)이었고 만경대 남쪽 2리에 있었다. 시냇물이 가까이 있어서 만경루(萬景樓)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이를 폐하고 대(臺) 옆의 역정(驛亭)으로 옮기면서 명승지가 되었다.

정자에서 바다까지는 겨우 5~6보인데 만경대(萬景臺)인 그 돌산이 그곳에 있다. 물속에는 험준한 바위가 둘러싸고 있고, 바위 끝이 파도를 막아내므로 예전부터 수해(水害)를 입지 않았다. 비록 태풍이 불고 바닷물이 넘쳐도 이곳을 넘지 못한다.

앞쪽의 섬돌이 더욱 기관(奇觀)인데, 여기 저기 쳐다보면 물과 돌이 서로 부딪치면서 산이 무너지고 눈이 쏟아져 내리는 형상이다.

수많은 갈매기 떼가 빙빙 돌면서 오르내리는 사이로 해가 뜨고 달이 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밤에 정자의 방에 누워 바람과 파도가 창문을 흔드는 소리를 들으면 참으로 물에 떠 있는 배 안에서 잠을 자는 듯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군부대 내에 만경대 동편 석벽에「淸澗亭」라는 암각문 세 글자는 우암 송시열의 친필로 전해진다. 암각문은 216cm×128cm 크기의 바위에 자경이 38cm×50cm로 음각하였다. 글씨는 행서체 횡서로 새겼다.

‘청간(淸澗)’이란 맑은 산골짜기 물을 가리킨다. 본래는 역(驛)에 딸린 정자였지만 만경대가 위치한 물가로 옮겨 오면서 더욱 명성이 높아져 관동팔경에 속하게 되었다.



청간정 전경

5-9. 화암사 암각문

■ 개요 ■

- 유형 : 암각문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136-1번지 (화암사길 100)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해서체
- 건립 시기 : 조선시대



화암사 암각문 전경 / 근경



제2 암각문 (시기 불상)

■ 조사내용 ■

화암사 일주문을 지나 경내로 들어가는 길 남편 석벽 상단에 작은 글씨로「杆城郡」이란 글자가 새겨져 있고 그 아래에는「金剛山 華嚴寺」이라는 글자가 있다. 암각문은 475cm×328cm 크기의 바위에 글자의 평균 크기는 28cm×17cm로 음각하였다. 글씨는 해서체로 새겼다.

화암사는 본래 769년(혜공왕 5년) 진표율사(眞表律師)가 화엄사(華嚴寺)를 창건하였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화재를 겪자 화암(禾岩, 수바위)쪽으로 옮겨 짓고는 절의 이름 또한 지금의 이름으로 바꿔 불렀다고 한다. 절의 이름이 언제부터 사용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문헌상에 1623년(인조 1) 조위한(趙緯韓, 1567~1649) 양양부사가 임기 중에 쓴 한시의 제재에서 찾을 수 있다.

併三

種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6. 표석 등 기타

6-1. 삼정 하리 우물

■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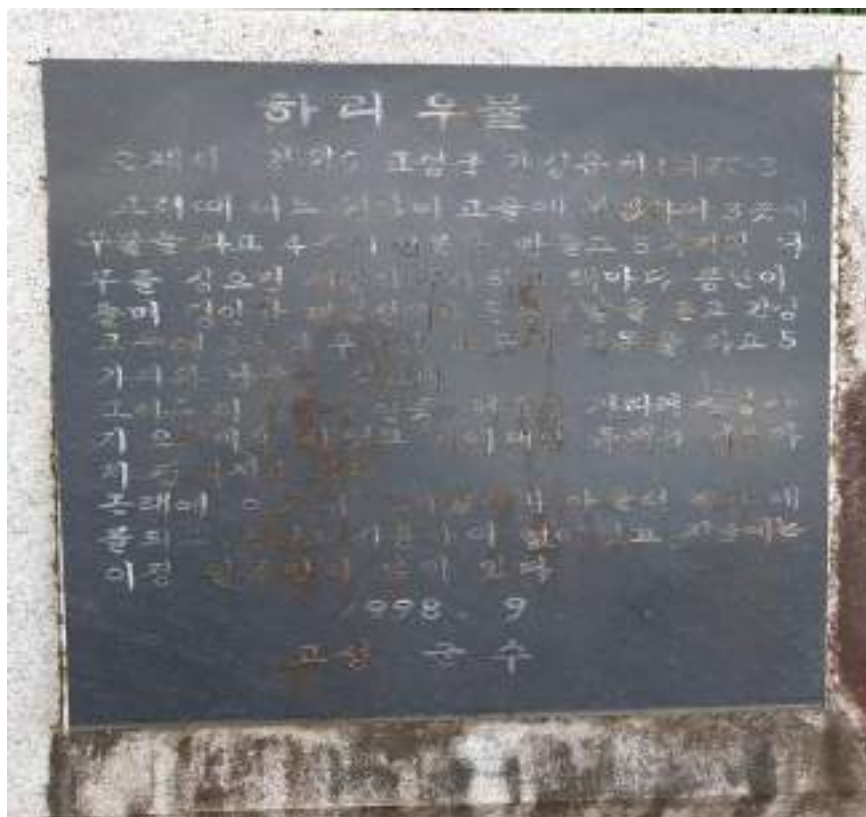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22-3번지 / 하리 17-5번지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오석, 한글 한자(해서체·예서체)
- 건립 시기 : 1998년 8월 / 1995년 5월



하리 22-3번지 우물 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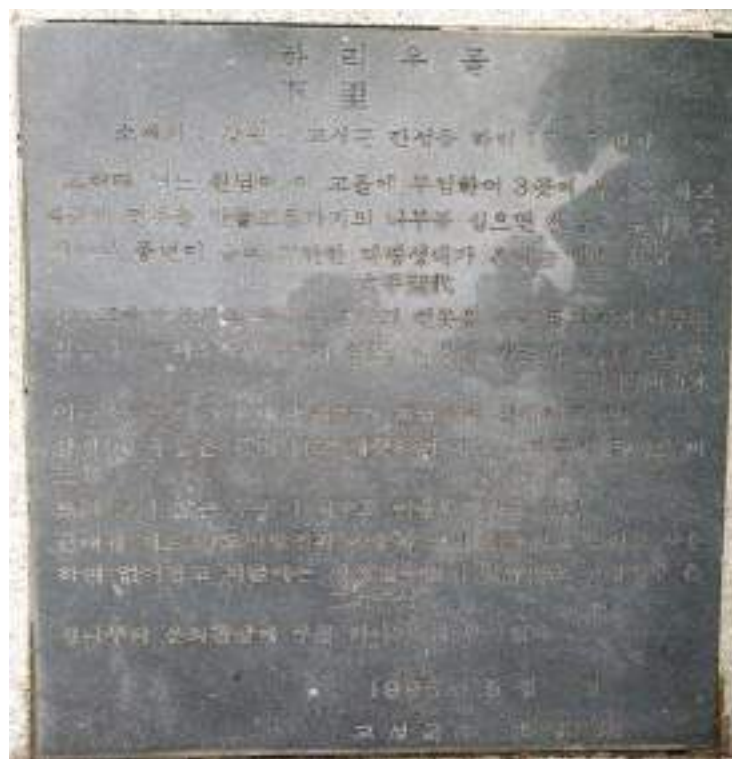
하리 22-3번지 우물 전경



하리 22-3번지 우물 내력



하리 우물 17-5번지 표석 / 이면



하리 우물 17-5번지 우물 내력

■ 조사내용 ■

간성읍 하리 22-3번지 표석은 호형으로 치석한 대리석으로 높이74cm×넓이30cm×두께14cm이며 표석 전면에 「하리우물」 한글 궁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으며 자형 10cm이다. 그 바로 옆에는 사각 대리석 높이75cm×넓이50cm×하단 두께50cm 사면에 가로45cm×세로60cm 오석 전면에는 하리우물에 대한 내력을 한글 궁서체 가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하리우물//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22-3 // 고려때 어느 원님이 고을에 부임하여 3곳에 / 우물을 파고 4곳에 연못을 만들고 5가지의 나 / 무를 심으면 세상이 무사하고 해마다 풍년이 / 들며 평안한 태평성대가 온다는 말을 듣고간성 / 고을에 3곳의 우물과 4곳의 연못을 파고 5 / 가지 나무를 심었다.// 그 이후 이 우물과 연못, 나무를 가리켜 삼정 사 / 지 오목이라 하였고 이에 대한 유래가 지금까지 / 지 전해지고있다. // 근래에 이르러 도시발전과 아울러 점차 매 / 몰되고 집터로 사용하여 없어졌고 지금에는 / 이정 일목만이 남아 있다. // 1998. 9 // 고성군수」

간성읍 하리 17-5번지 표석은 호형으로 치석한 대리석으로 높이65cm×넓이30cm×두께15.5cm이며 표석 전면에「高城의 遺蹟인 三井 中 / 下里우물」한글과 한자 예서체 2줄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으며, 그 이면에는「우물 改修竣工 / 一九九四年十二月二十六日 / 高城郡守」한글과 한자 예서체 3줄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그 맞은편에는 사각 대리석 높이75cm×넓이57cm×하단 두께50cm 사면에 가로47cm×세로57cm 오석 전면에는 하리우물에 대한 내력을 한글 명조체와 한자 하단 병서 가로쓰기로 새겨져 있는데 우물 주변 관리가 다소 어수선했다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하리 下里 우물 // 소재지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17-5번지 // 고려때 어느 원님이 이 고을에 부임하여 3곳에 우물을 파고 / 4곳에 연못을 만들고 5가지의 나무를 심으면 세상이 무사하고 / 해마다 풍년이 들며 평안한 태평성대 太平聖代가 온다는 말을 듣고 / 간성고을에 3곳의 우물과 4곳의 연못을 파고 5가지의 나무를 / 심었다. 그 이후 이 우물과 연못, 나무를 가리켜 삼정사지오목 三井四池五木 / 이라 하였고 이에 대한 유래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 삼정 三井인 우물은 물이 맑고 깨끗하며 차고, 가뭄이 들어도 마 / 르지 않아 많은 주민이 식수로 이용하였다고 한다.

// 근래에 이르러 도시발전과 아울러 점차 매몰되고 집터로 사용 / 하여 없어졌고 지금에는 이정일목 二井一木만이 남아 있고 군청입구 은 / 행나무와 문화관 앞에 우물 하나가 더 남아 있다. // 1995년 5월 일 // 고성군수 張相國」

고려 때 어느 원님이 3곳에 우물을 파고 4곳에 연못을 만들고 5곳에 나무를 심으면 관운이 있고 장수한다는 말을 듣고 간성골에 우물과 연못을 파고 나무를 심었다.

그 후 3곳의 우물과 4곳의 연못, 5그루의 나무를 삼정(三井)사지(四池)오목(五木)이

라고 불렀다고 전하며, 이후 도시개발과 생활환경 변화로 인해 연못은 매몰되었고, 우물은 두 곳이, 나무는 6.25전쟁 중 소실되었는데 현재 고성군청 청사 앞 은행나무만 살아있다고 한다.

<고성군지(高城郡誌), 1998, 고성군, 1532쪽 참조>

6-2. 간성읍성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28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글 궁서체 및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86년 10월 30일



간성읍성 표석 전면



이면

■ 조사내용 ■

표석은 오석으로 비의 크기는 높이57cm×너비80cm×두께10cm이고 비석 전면 중앙에 「간성읍성(杆城邑城)」 가로쓰기 한글 궁서체와 한자 해서체가 음각되어 있다.

표석의 이면에는 「간성읍성(杆城邑) / 이곳 간성읍성은 일명 마기라(麻耆羅) 산성이라 불 / 리우며 고려 덕종(德宗) 2년(1033)에 축성되었다. / 당초에는 석성(石城)으로 둘레가 295척이요 토성은 / 86보이었으나 그 후 여러 차례의 성곽의 수축을 통해 둘레 / 2,469척 높이 15척에 이르렀다. / 동서 두 개의 문(門)과 성안에는 우물 3개, 못 4개가 / 있었고 이 중 두 곳의 못에는 연꽃을 심어 길렀다 한다. / 현재는 성곽의 대부분이 허물어져 그 흔적만을 남기 / 고 있다. 예부터 외적의 침입이 있을 때 마다 관민이 힘 / 을 합쳐 항쟁한 호국의 열이 살아 숨 쉬고 있는 옛 터 / 전에 표석을 세워.. 그 고귀한 뜻을 후세에 길이 전하 / 고자 한다. / 1986년10월30일 / 고성군수」가 가로쓰기 한글 궁서체로 음각되어 있어 이곳이 읍성(邑城)의 일부분임을 일러 주고 있다. 받침돌은 높이50cm×너비110cm×두께40cm 사각 대리석이다.

고성군지(高城郡誌)에 따르면 ‘19세기 초반 기록인 『관동지』에는 “읍성은 돌로 쌓았으며 둘레가 240보이고 높이는 15척인데, 만력(萬曆) 신묘년(1591)에 중축(重築)하였고, 동서문(東西門) 안에 우물 세 곳과 연못네 곳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관동지』에 의하면 옛날에 읍성 안의 양쪽 산기슭이 모두 습지였는데 이곳을 개척하여 연못 네 곳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후 여러 차례 수리하였으나 두 곳은 토사가 쌓여 우마장(牛馬場)이 되었고, 나머지 두 개의 연못은 매년 장마 때나 겨우 물이 있고 비가 개이면 곧 말라버리는 곳이 되었다. 이에 정해년에 군수 이보행(李普行)이 크게 땅을 파 내고긴 제방을 쌓았는데, 예전 것과 비교하여 더욱 방정(方正)하였으며 제방 위를 높고 넓게 만들어 수양버들을 심었다고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고성군지 下권(2020년, 고성군, 639쪽)>

6-3. 군청 은행나무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25번지 (고성군청 청사 은행나무 앞)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글 및 한자 해서체 병행
- 건립 시기 : 1981년 8월15일



군청 앞 은행나무 표석

■ 조사내용 ■

표석은 화강암 원형 자연석으로 높이130cm×넓이120cm×두께50cm이며 전면을 사각으로 평평하게 치석한 면에 은행나무에 대한 이력을 한글과 한자 해서체 가로쓰기 병서로 새겨져 있다.

간성읍성 내에 있었던 3개소의 우물과 4개소의 연못, 5개의 나무를 삼정·사지·오목(三井·四池·五木)에 대한 유래가 전해지는데 오목(五木) 중 현재까지 유일하게 남아 있는 은행나무를 알리기 위해 표석을 세운 것이다.

〈비문〉

銀杏나무 //

이 나무는 正確한 樹齡은 未詳이나 高麗末期 / (1280年代)에 심은 것으로 傳해지고 있으며 約 / 700年の 樹齡과 나무둘레가 8m가 되는 老巨樹 / 입니다. 옛날 杆城에 三井四池五木의 遺蹟이 있었으 / 며 그 五木 中 唯一하게 남아있는 本 銀杏나무 / 입니다. 이 나무는 天然記念物인 同時에 高城寶 / 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아껴서 永久히 잘 保存해 주 / 시기 바랍니다. // 1981年 8月 15日 // 高城郡守

6-4. 도로원표 표석

개요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25번지 (고성군청 청사 은행나무 앞)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한글
- 건립 시기 : 불상



도로원표

조사내용

표석은 전국 주요 도시와의 거리를 표시하는 도로 표시의 기점으로 2단 대리석 기단과 사각뿔형 대리석 도로원표로 구성되어 있다.

제1단 기단은 가로100cm×세로100cm×높이30cm 전면 중앙에「고성군」한글 가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제2단 기단은 가로80cm×세로80cm×높이30cm 전면 흰색바탕에 검은 글씨로「인천 298.2km 부산 461.7km 서울 256.8km 경주 382.0km 춘천 168.7km 강릉 104.2km」한글 가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기단 위에 치석한 사각뿔형은 가로60cm×세로60cm×높이60cm으로 사각 면에「도로원표」한글 가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자형은 가로20cm×세로20cm이다.

6-5. 군청 청사 준공기념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25번지 (고성군청 청사 은행나무 앞)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글 및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81년 8월 15일



청사준공 및 조경기념 표석

■ 조사내용 ■

표석은 화강암 원형 자연석으로 높이190cm×넓이240cm×두께54cm이며 고성군청 청사 준공 기념으로 표석을 세운 것이다.

표석 전면에「廳舍竣工 및 造景紀念 1981年 8月 15」한자 해서체와 한글 원형 가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그 아래「高城郡守 李積奎 / 副郡守 尹鴻奎 / 企劃室長 李鎭英 / 公報室長 金夫起 / 內務課長 崔萬集 / 새마을課長 金問淵 / 財務課長 黃鍊仁 / 社會課長 咸炫克 / 産業課長 文義道 / 水産課長 金富卿 / 建設課長 白東錫 / 民防衛課長 沈丙燮 / ■■■■■■■■支援」한자 해서체 세로쓰기로 준공당시 군청 간부공무원 명단이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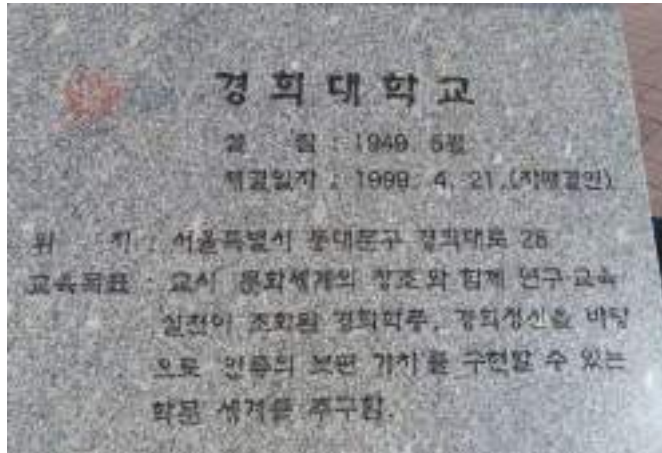
6-6. 고성군 자매결연 도시·학교·기업 표석

■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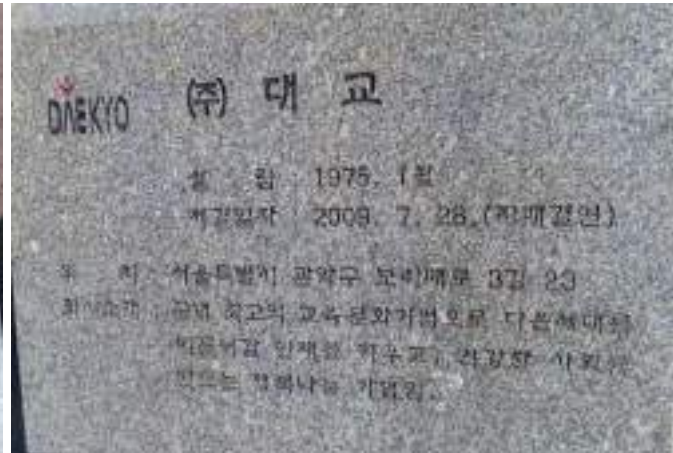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하리 2-3번지 (신안공원 내)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한글과 외국어
- 건립 시기 : 2013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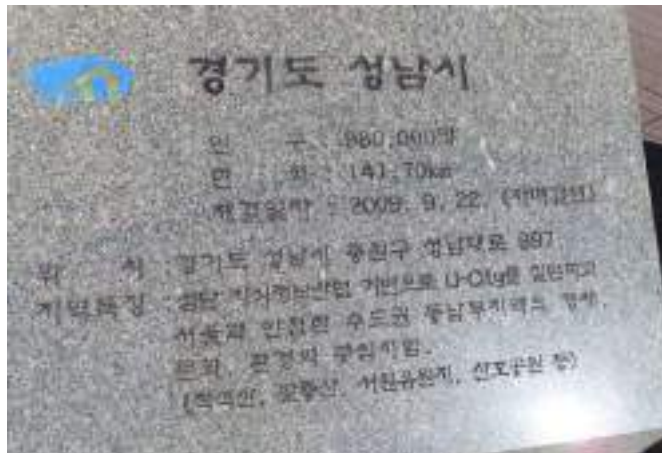
군청 앞 도심 공원 조형물과 석물 전경



경희대학교 자매결연 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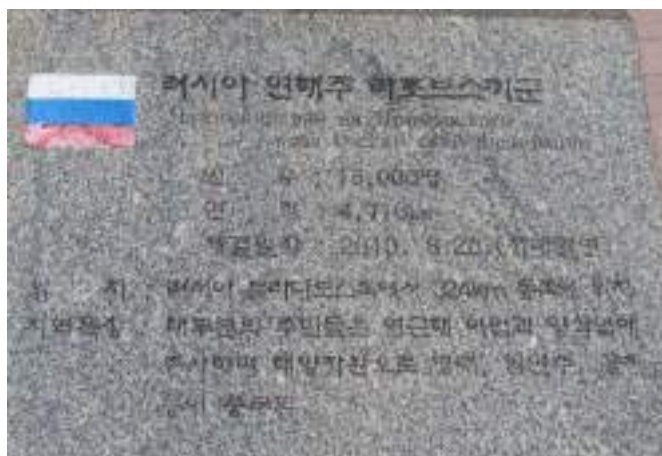
(주) 대교자매결연 표석 전면



경기도 성남시 자매결연 표석



독일한스자이델재단자매결연 표석



러시아연해주하바로프스키군 표석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표석

■ 조사내용 ■

군청 청사 오른쪽에 2013년도에 조성된 도심 공원의 상단 캠퍼스 중앙에 중심 조형물이 있고 주변으로 11개의 자매도시 및 자매학교·기업 표석이 있다.

표석은 사면으로 치석한 대리석으로, 넓이100cm× 하단두께 65cm(상단두께10cm)× 높이74.5cm(안쪽높이35cm) 사면에 각 도시별 자매결연 도시현황과 내력이 한글과 각 나라별 언어 가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오른쪽부터

「(주) 대교 // 설립 : 1975. 1월 / 체결일자 : 2009. 7.28.(자매결연) / 위치 : 서울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3 / 회사소개 국내 최고의 교육문화기업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행복나눔 기업임.」

「단국대학교 // 설립 : 1947. 11월 / 체결일자 : 2009. 6. 8.(자매결연)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152 / 교육목표 : 구국 자주 자립의 장학 정신과 진리, 봉사의 교시를 교육의 현장에서 실현해 나가기 위해 민족애를 바탕으로 인류 사회에 공헌하는 전문인을 양성함.」

「경희대학교 // 설립 : 1949. 5월 / 체결일자 : 1999. 4.21(자매결연) / 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 교육목표 : 교시 문화세계의 창조와 함께 연구 교육 실천이 조화된 경희학풍, 경희정신을 바탕으로 인류의 보편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학문 세계를 추구함.」

「경기도 성남시 // 인구 : 980,000명 / 면적 : 141.70km² / 체결일자 : 2009. 9.22.(자매결연) / 위치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 지역특징 : 첨단 지식정보산업 기반으로 U-City를 실현하고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동남부지역의 경제, 문화 환경의 중심지임.(적석산, 팔룡산, 서원유원지, 산호공원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 // 인구 : 148,000명 / 면적 : 14.10km² / 체결일자 : 2009. 8.28.(자매결연) / 위치 :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423 / 지역특징 : 동삼동, 태종대 등 유서 깊은 문화유산 도시 부산항의 관문, 남항, 북항대교 건설로 동북아시아 물류 중심 및 해양문화 도시임.(영도다리축제, 태종대, 국립해양박물관, 봉래산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 // 인구 : 340,000명 / 면적 : 23.61km² / 체결일자 : 2000. 5.30.

(자매결연)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 지역특징 : 북한산국립공원을 품은 친환경 휴양중심지로 서울 북부지역 생활의 중심이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살기좋은 지역임.(삼각산 도선사 화계사 봉향각 4.19국립묘지 등)

「독일 한스자이델 재단 // Hanns Seidel Foundation / 재단설립 : 1967. 4.11 / 본
부 : 독일 뮌헨 / 체결일자 : 2005. 6.21.(교류협력) / 산하조직 : 본부 뮌헨을 중심으로
워싱턴, 브루셀, 모스크에 3가시국이 있음.(한국사무소 1987.12.24. 서울) / 주요활
동 : 민주주의, 평화 그리고 발전을 위한 기여를 모토로 세계 60여 국가 등에서 각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사무소는 한반도의 화해와 접경지역의 지속
가능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illegible]

「독일 바이에른주 바이로이트군 // Landkreia Bayreuth Freistaal Bagern
Bundesrepubbk Deutchiand / 인구 : 106,000명 / 면적 : 1,273.7km² / 체결일자
: 2010.11.2.(우호교류) / 위치 : 독일 동남부 바이에른주 / 지역특징 : 유럽에서 가
장 현대적인 지역으로 성과 유적, 동굴이 많으며 특히 이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작곡
가 리하르트 바그너가 활약한 곳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로이트 축제가 열림.

「러시아 연해주 라조브스키군 // ■■■■■■■■■■■■■■■■■■■■■■ / 인
구 : 16,000명 / 면적 : 4,710km² / 체결일자 : 2010. 8.20.(자매결연) / 위치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324km 동쪽에 위치 / 지역특징 : 대부분의 주민들은 연근해 어업
과 양식업에 종사하며 해양자원으로 명태, 임연수, 꽃치 등이 풍부함。」

「중국 흑룡강성 계서시 // 中華人民共和國 黑龍江省 雞西市 / 인구 : 200만명 면적 22,531km² / 체결일자 : 2001.10.18.(자매결연) / 위치 : 중국 흑룡강성 서부 러시아 국경지대 / 지역특징 : 인구의 34%는 1차 산업인 농업에 종사하며 석탄, 흑연, 규석 등의 지하자원 매장량이 많음.」

6-7. 군수 박회남 군정구호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상리 203-1번지 (와우산)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행서체
- 건립 시기 : 1962년(추정)



군정구호 표석 전면 / 탁본





와우산 선정비군 전경

■ 조사내용 ■

치석한 사각 짙은 흑색 화강암 표석은 높이90cm×폭53cm×두께25cm으로 비석 전면
에「爲鄉土建設 / 而協心開發」한자 행서체 2줄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그 왼쪽
에「高城郡守 朴淮南」한자 초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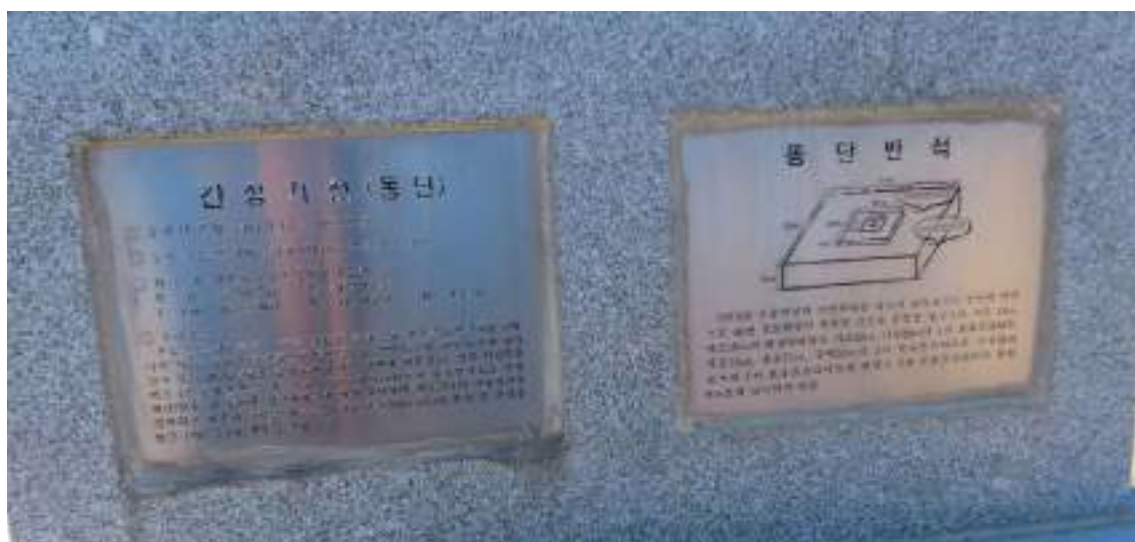
제7대 박희남(朴淮南) 고성군수는 5.16군사정변 이후인 1962. 4.17.~1963. 4.14.
재임하였으며「반공을 국시의 제일」,「사회부패와 구악 일소」등 군사정변 당시 공약
을 실천하면서 지역사회개발을 위해 군정 지향 구호「위향토건설(爲鄉土建設) 이협
심개발(而協心開發)」를 비석에 새긴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85년 고성문화원 주관으로 지역 내에 방치되
거나 관리가 부실한 선정비와 영세불망비, 거사비 등 18기 비석을 현재 위치로 옮겨
와 관리하고 있다.

6-8. 지적 간성기선 표석

■ 개요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교동리 976-25번지 (동단)
/ 해상리 642-1번지(서단)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한글과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7년



간성기선 동단(간성읍 교동리) 표석 전면 / 이면



간성기선 서단(간성을 해상1리) 표석 전면

■ 조사내용 ■

표석은 사각으로 치석한 대리석 사면으로 넓이100cm×높이53cm×하단두께33cm(상단두께20cm)이며 정면 중앙에「간성기선 杆城基線 (동단 東端)」,「간성기선 杆城基線 (서단 西端)」 한글과한자 해서체 가로쓰기 병서로 각각 새겨져 있다.

받침돌은 치석한 사각 대리석으로 넓이120cm×높이69cm×두께53cm이다. 기선은 토지 측량의 시작점이다.

1910년 한일 병합이후 우리나라 토지조사, 즉 측량에 착수하게 되는데 일본의 기존 기준점에서 대한해협을 건너 우리나라 땅 기준점을 둔/삼각점을 기준으로 남북한 합해서 13개 기준점을 만들었다. 지금의 북한에 7개소, 남쪽에 6개소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 기준점의 한 지점이 바로 간성기선이다.

당시 13개의 기선으로 기준점과 삼각점이 만들어지고, 그 삼각점은 다시 400개의 대삼각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는 그 기준으로 측량 조사된 지적을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1912년 경 만들어진 간성기단의 동쪽은 간성읍 교동리에, 서쪽은 간성읍 해상리로 3.1km 거리 지점에 반석과 표석이 있었지만 서쪽은 한국전쟁 때 반석만 남았고, 동쪽은 1981년경 46번 국도를 확장하면서 반석과 표석이 매몰되거나 훼손된 상태로 남아 있었지만 1997년 복원되어 그 위치를 잃지 않게 되었다.

6-9. 수성수호비 및 기문

■ 개요 ■

- 유형 : 수호신위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558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자연석),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1년 12월 일



수성수호비 전면



수성수호비 서편 기문 전면

조사내용

비석은 고성종합운동장 서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화강암 자연석으로 높이305cm×폭160cm×두께120cm, 전면 중앙에「迺城守護 神位」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으며 고성군의 상징적인 수호신위비이다.

수성수호신위비 왼쪽에는 기문(記文)비가 있는데 대리석 가로120cm×세로90cm×두께45cm(상단25cm) 중앙에 오석으로 가로90cm×세로54cm의 기문이 세로쓰기 한자 해서체와 한글로 음각되어 있어 수성수호신위비(迺城守護神位碑)의 건립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기문〉

「記 / 日月星辰을 主管하는 天帝와 / 地上萬物을 育成시키는 地神과 / 모든 山川을 보살펴 주시는 山神과 / 東海의 順波을 主管하여 주시 / 는 龍王神 等 天地山海의 四圍 / 神을 迺城守護神으로 이 자리에 / 모시어 우리 郡內居住 全住民 / 의 安寧과 子孫昌 盛 壽福無窮 / 生業繁榮 萬和融通하여 주시어 / 永久萬歲 郡勢의 隆昌으로 迺 / 城의 綿脈을 承繼토록 念願하고자 한다. / 檀紀四三二四年十二月 日 / 高城郡守 李容善 / 迺城文化祭推進委員會委員長 咸炳哲」

6-10. 약진고성 기념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500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초서체
- 건립 시기 : 1979년 11월 17일



약진고성 표석 전면



약진고성 표석 기반부 준공기

조사내용

항색 자연석 화강암 비의 크기는 높이140cm×너비220cm×두께70cm이고 비석 전면 중앙에「躍進高城」가로쓰기 한자 초서체가 음각되어 있고 자형은 가로20cm 내외이다. 받침돌은 높이95cm×너비106cm×두께90cm 깎돌을 시멘트로 쌓았고 전면 중앙에 오석 가로70cm×세로45cm에 비석의 건립 취지인 운동장「竣工記」가 세로쓰기 한자와 한글로 음각되어 있고, 비석은 고성종합운동장 동남쪽 관람석 뒤편, 진입로 왼쪽에 위치하고 있다.

〈비문〉

「竣工記 // 이 運動場은 / 六萬郡民의 總和된 意志를 集約시켜 / 이룩한 躍進 高城의 廣場으로서 / 丁一權 前 國會議長과 在日僑胞 韓祿春 / 先生의 精誠어린 支援으로 建立된 것이다. / 陸軍 第八八二六部隊長 羅東元 將軍과 / 一洋開發株式會社 潘琪漢 社長의 裝備支援 / 또한 큰 몫을 다하였으며 郡民 各界各層의 參 / 與와 聲援으로 竣工된 總和의 象徵이다. / 앞으로 이 地域社會의 體育振興에 크게 寄與 / 할 것으로 믿으며 이는 길이 高城郡史에 남을 것이다.

// 西紀一九七九年 十一月十七日 // 高城郡守 玄永煥」

6-11. 수성정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500번지 (고성종합운동장 서편)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2008년 6월 1일



수성정 표석 전면 / 이면

■ 조사내용 ■

이 표석은 국궁장의 표지석으로 자연석 황색 화강암 비의 크기는 높이180cm×너비 300cm×두께70cm이고 비석 전면 중앙에「逆城亭」역(逆)가로쓰기 한자 해서체가 음각되어 있고, 자형은 가로40cm×세로50cm로 함귀호 전 교육위원의 글씨로 알려져 있다.

비석 이면에는 가로60cm×세로45cm의 사각 오석에 수성정사우 황종국 외 36인의 명단이 음각되어 있고, 표석은 고성종합운동장 서북쪽 국궁장 앞에 위치하고 있다.

6-12. 고성금수리산성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산72-1번지 고성산 정상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글과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84년 9월



고성금수리산성 표석 전면



표석 후면

조사내용

이 표석은 고성산성의 표지석으로, 사각으로 치석한 오석 비의 크기는 높이60cm×너비83cm×두께10cm이고 비석 전면 중앙에 ‘고성금수리산성(高城金水里山城)’ 가로쓰기 한글과 한자 해서체가 음각되어 있다.

비석 후면에는「이곳은 옛날 이 고장을 지키려는 선인들의 호국(護國) / 의 얼이 깃든 산성의 옛터다. / 처음 이곳에 성을 쌓은 시대와 성에 대한 내력은 전 / 하는 바 없어 자세하지 않으나 금수리 산성(金水里山城) / 과 함께 북방 오랑캐와 왜구(倭寇)들의 빈번한 침입을 막기 위하여 쌓은 산성이라 전해온다. / 서기1217년(高麗 高宗4) 거란(契丹)의 무리가 이 / 고장에 침입하였을 때 고성 관민(官民)이 이 산성을 의지하 / 여 큰 싸움을 벌여 주민 수백 명이 산화한 일이 있다. / 향토를 수호하려는 선민들의 호국의 얼이 깃든 유서 깊 / 은 유적을 보호하고자 이곳에 표석을 세운다. / 1984. 9. / 고성군수」가 가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받침돌은 높이60cm×너비110cm×두께40cm 사각 대리석 판석이며, 주변에는 산성 축성의 흔적이 일부 남아 있고 대부분 축성은 군부대의 교통호 시설로 인해 훼손된 상태이다.

이 산성에 대해 『세종실록』 지리지에는 명칭이 ‘고성산석성(古城山石城)’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간성군 남쪽에 있고, 둘레가 1,140보이며 안에 작은 샘이 하나,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크게 가물면 마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대동여지도 등 고지도에는 남산(南山)으로, 해동지도 등 고지도에는 고성산(古城山)으로 표기되어 있어 표석 제명은 「고성산성(古城山城)」으로 고쳐 표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13. 고성산 정상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산117번지 고성산 정상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한글 명조체
- 건립 시기 : 2005년12월13일



고성산 정상 표석

■ 조사내용 ■

이 표석은 고성산 정상 전망대 표지석으로, 호형으로 치석한 대리석 비의 크기는 높이55cm×너비115cm×두께20cm이고 비석 전면 중앙에 이곳은 / 동해바다와 간성시내가 / 한눈에 보이는 해발291m의 / 고성산 정상으로서 이층 전망대와 / 전망데크는 군민의 휴양과 정서함양을 / 위하여 산림욕장의 일환으로 설치하였습니다. / 2005년12월13일 / 고성군수」 가로쓰기 한글 명조체로 음각되어 있고, 받침돌은 대리석 높이60cm×너비60cm×두께40cm이다.

6-14. 한강발원지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55-10번지
 - 재질 및 서체 : 퇴적암, 한글 명조체
 - 건립 시기 : 불상



한강오백리발원지 표석

■ 조사내용 ■

한강 수계의 발원지임을 표식하기 위해 세운 것으로 건립시기와 주체를 알 수 없다. 비석은 적색 퇴적암 자연석으로 규모는 높이204cm×폭80cm×40cm이며, 비석 전면에는「한강오백리 발원지」세로쓰기 한글 명조체로 음각되어 있고, 오른쪽에는「해발 710m」, 왼쪽에는「간성읍 흘리」, 하단에는「11km」와 방향표시 화살표가 각각 한글과 도식으로 음각되어 있다.

6-15. 백두대간종주기념 공원비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22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글
- 건립 시기 : 2012년11월25일



백두대간종주기념공원 표석



공원내 기념 표석 군락지

조사내용

국도46번 진부령 영상에서 마을 진입도로 옆에 백두대간종주를 기념하기 위한 표석 약80여점이 모여 있는 장소를 ‘한전KPS백두대간종주보존회’에서 백두대간종주 기념공원으로 정하고 표석을 세웠다.

표석은 화강암 자연석으로 가로260cm× 높이120cm× 두께70cm로, 비 전면에 「백두대간종주기념공원 한전KPS백두대간종주보존회」라고 가로쓰기 한글로 음각되어 있고, 오른쪽 하단에는 「한전KPS주식회사 2012.11.25 사장 태성은」, 후면 가로140cm×세로70cm 오석에는 「벽남 서석천 선생을 기리며」 한글로 각각 음각되어 있다. 받침돌은 가로145cm×높이30cm×두께90cm 대리석이다.

6-16. 진부령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11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예서체
- 건립 시기 : 1989년 8월18일



진부령 영상 표석 전면



후면

조사내용

46번국도 진부령 영상의 진부령미술관 동쪽에 위치하고 ‘진부령’ 영상임을 알리는 표석으로 1989년 8월18일 고성군에서 세웠다.

화강암 자연석으로 가로420cm×높이240cm×두께150cm으로「陳富嶺」가로쓰기 한 자 예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서체는 ‘동해어부’로 더 잘 알려진 김동술(金東述) 서예가가 구필(口筆)로 쓴 것으로 전해진다.

후면에는「陳富嶺은 오랜 옛날 東西를 잇는 唯一한 오솔길로 裸負商들이 넘나들던 / 길로서 文獻에 依하면 1631년 杆城縣監 澤堂 李植께서 牛馬車가 / 다닐 수있도록 開設하였다 함. // 그 後 1930년에 車輛 1台가 겨우 넘을 수 있는 非鋪裝 地方道路로 / 補修 管理하여 오다가 1981年 國道(46号線)로 昇格 6年餘 工事 / 끝에 1987. 9.20 2車線 道路로 擴鋪裝 되었으며 1989年 嶺上 道/路側面에 位置한 香爐峰 戰鬪戰蹟 碑를 移轉하면서 이 標識石을 / 세움. // 1989年 8月18日 // 高城郡守」라고 표지석 건립 취지문을 한글과 한자 해서체를 병기하여 음각하였다.

하단 받침돌(좌대)의 기단은 대리석 가로394cm×세로314cm×높이28cm이며, 받침돌은 가로330cm×세로253cm×높이135cm로 잘룩한 모양의 대리석 판석이다.

6-17. 택당 이식 선생 유별시비

■ 개요 ■

- 유형 : 시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2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예서체
- 건립 시기 : 2006년10월24일



택당 이식 선생 유별시비 전면



후면

조사내용

비석은 자연석 오석으로 높이238cm×폭270cm×두께30cm로 비석 전면에는「陳富嶺留別詩 澤堂 李植 西行正值北風時 雪嶺參藺鳥道危 自是人情傷惜別 君來饑我我留詩 丙戌 孟秋於花浦南田謹書」세로쓰기 한자 예서체, 서예가 남전 원중식 선생의 글씨로 음각되어 있다. 비석 후면에는「陳富嶺留別詩(진부령유별시) / 澤堂 李植(택당이식) / 西行正值北風時(서행정치북풍시) / 雪嶺參藺鳥道危(설령참천조도위) / 自是人情傷惜別(자시인정상석별) / 君來饑我我留詩(군래기아아유시) / 한양으로 승차되어 가는 길 북풍이 불고 / 하늘에 높이 솟은 눈덮인 영마루 새도 넘기 힘든 길 / 나는 이제 인정에 마음이 아픈 아쉬운 이별을 하며 / 그대들 배 주리며 나를 따라 왔는데 나는 이별시를 남기네. / 서예가 南田 元仲植」전면의 시 한자와 한글을 풀이한 훈과 뜻이 예서체로 음각 되어 있다.

6-18. 택당 이식 선생 유별시비 기문

- 개요 ■
- 유형 : 시비 기문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2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글
 - 건립 시기 : 2006년10월24일



유별시비 기문



유별시비와 기문

■ 조사내용 ■

비석은 자연석 오석으로 높이170cm×폭80cm×두께35cm로 전면에 치석하여 택당 이식 선생의 주요 이력과 공적을 기록하고 360여년이 지난 후 고성군청과 고성문화원에서 선정사역(善政史歷)과 치자와 치민의 정을 잊지 못하여 진부령 개설사 및 당시 군민의 정성이 담긴 유별시와 기문을 돌에 새겨 후에 전하기 위해 2006년10월24일 고성군수 함형구와 고성문화원장 황연인이 세운 비의 건립 배경을 한글로 음각하였으나 서체가 희미한 상태이다.

기단석은 오석으로 높이25cm×폭130cm×두께75cm이다. 비(碑)의 기문 전문은「진부령 유별시비 기문 // 문정공(文靖公) 이식(李植) 선생의 자(字)는 여고 / (汝固), 호는 택당(澤堂) 또는 택구거사(擇癯居士 / 요, 조선조 사대(四大) 문장가이고 한문학의 태 / 두이며 덕수(德水)인 이다. 광해2년 문과에 급제하여 많은 화관을 두루 거쳐 형조, 예조, 이조판서에 오르고 대제학을 네 번 역임하였으며, 선조실록 개수와 광해

일기를 수정하여 영의정에 록 증(贈) / 되고 여주 기천서원, 경성 화곡서원, 지동 부연사 / 에 배향되었고 택당집 외에 많은 저서를 저술 / 하였다. 1631년(인조9년) 8월에 대사간 재임시 / 인조대왕의 아버지 정원군을 원종으로 추숭함이 / 고례가 아님을 주장하다가 인조의 노여움을 사서 / 간성현감으로 좌천되어 임지에 부임하여 낙후된 / 소읍이라고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감사에게 청하 / 여 관아와 사원을 보수하고 자혜성경으로 피폐된 / 민심을 수습하고 향학을 장려하기 위하여 양사재 / (養士齋)를 창건 하고 유생을 모집하여 강학에 힘쓰 / 는 한편 개간사업을 장려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했다. / 당시 진부령의 도로는 한사람씩 다니는 소로길 / 마저도 유실되어 통행이 두절되는 등 통행에 / 어려움이 있었으나, 승려와 군민을 동원하여 우마차가 다니는 길을 확장하여 내륙지방과의 / 유통을 원활하게 하므로써, 산업발전에 큰 / 공헌을 하였다. 간성지(杆城誌)를 발간하여 / 인구현황, 행정구역을 알리는 등 많은 자취를 / 남기었다. 1633(인조11년) 1월, 부제학을 제수 / 받아 떠날 때에 간성 군민들은 치정을 못잊어 눈 / 덮은 진부령까지 따라와 전송하니 선생은 인정에 / 못잊어 유별시를 남기었다. 조정에 돌아가서 영 / 동치정의 폐단인 태강실신(休講失信), 전결자각 / (田結自覺), 역졸급(驛卒給田), 여정도산(餘丁 / ■散)을 상소하여 폐단을 없게 하였으며, 유생들 / 이 조정에 출사를 할 수 있도록 길 을 열어주었다. / 선생이 떠난 후 군민들은 거사비를 세우고 / 경■제를 지어 강학을 하였으며, 선생이 하세하자 / 군민들은 은공을 못잊어 해물을 취합하여 부의하 / 고 부인이 하세 할 때도 이와 같이 하였다. 이에 / 360여년이 지난 후 고성군청과 고성문화원에서는 선정사역(善政史歷)과 치자와 치민의 정을 잊지 / 못하여 진부령 개설사 및 당시 군민의 정성이 담긴 / 유별시와 기문을 돌에 새기어 후대에 전하고자 / 이 비를 세우노라.」 그 하단에 「2006년(丙戌) 10월 24일 // 고성군수 咸炯仇 // 고성군문화원장 黃鍊仁」라고 새겨져 있다.

6-19. 백두대간 진부령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3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자연석), 한글
- 건립 시기 : 2006년 9월 9일



백두대간 진부령 표석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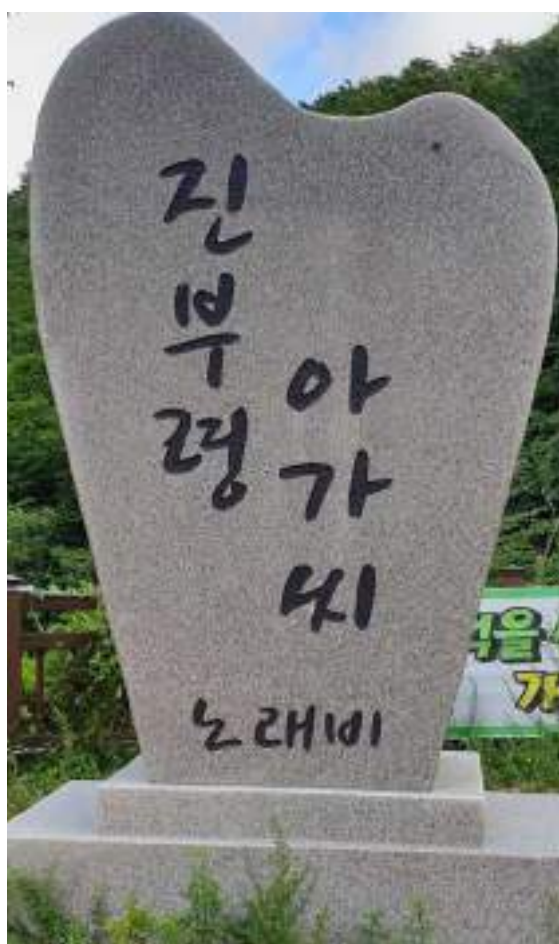
비석은 자연석 화강암으로 높이 약420cm×폭218cm×두께120cm로 전면에 ‘백두대간 진부령’과 위도, 경도, 고성군 간성을 흘리 산림청·강원도·고성군, 백두대간 표지가 각각 음각되어 있다.

비석의 후면에는 「백두대간은 국토의 등줄기로서 / 남과 북을 잇는 주축이며, / 자연 생태계의 핵심축을 / 이루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 / 입니다. 그러나 백두대간은 / 그 실체나 가치가 제대로 알려 / 지기도 전에 무분별한 개발로 / 인해 이미 상당 부분이 단절 / 또는 훼손되었으며. 현재도 / ‘보전과 이용’이라는 상충된 / 가치 사이에 마찰이 계속 되고 / 있는 실정입니다. // 백두대간은 지형, 기후, 토양 / 수문 등 자연 환경과 온갖 / 동식물이 어우러진 생태계, / 그리고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 복합적인 3차원 공간으로서 / 매우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 있습니다. / 2006. 9. 9」 한글 명조체로 음각되어 있다.

비석의 오른쪽 측면에는 강원도 도정구호인 「강원도 중심 강원도 세상」, 왼쪽 측면에는 한반도 지도와 백두대간의 도식이 각각 음각되어 있다. 받침돌은 대리석 판석으로 가로220cm×높이85cm×두께220cm이다.

6-20. 진부령아가씨 노래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흘리 산1-3번지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한글
 - 건립 시기 : 불상



노래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비석은 대리석 치석으로 높이242cm×폭170cm×두께60cm로 상부는 2단 호형으로 위쪽이 넓고 아랫부분은 폭90cm으로 역삼각, 기단석은 치석한 2단 대리석이다.

비석 전면에는「진부령아가씨 노래비」로 한글 필기체로 음각되어 있고, 후면에는 박건호 작사, 이호 작곡, 조미미 노래의 진부령아가씨 노랫말이 한글 필기체로 음각되어 있다.

6-21. 거진해맞이봉 산림욕장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1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글
- 건립 시기 : 2002년 4월 5일



거진해맞이봉 산림욕장 표석



기단부 오석 전면

■ 조사내용 ■

거진등대 산책로 정상 전망대 앞에 있는 비석의 크기는 높이163cm×너비94cm×두께30cm이고 비석 전면 중앙에「거진해맞이봉 산림욕장」2줄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자형은20cm이다. 받침돌은 대리석 판석으로 높이95cm×너비148cm×두께108cm이며 하단 중앙 가로77cm×세로42cm 사각오석에는 ‘산림헌장’이 가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비문〉

「산림헌장// 숲은 생명이 숨 쉬는 삶의 터전이다. 맑은 공기와 / 깨끗한 물과 기름진 흙은 숲에서 얻어지고, 온 생명의 / 활력도 건강하고 다양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비롯된다. / 꿈과 미래가 있는 민족만이 숲을 지키고 가꾼다. / 이에 우리는 풍요로운 삶과 자랑스러운 문화를 길이 이어가고자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 · 숲을 아끼고 사랑하는 일에 다 같이 참여한다. / · 숲의 다양한 가치를 높이도록 더욱 노력한다. / · 숲을 윤택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한다. / 2002년 4월 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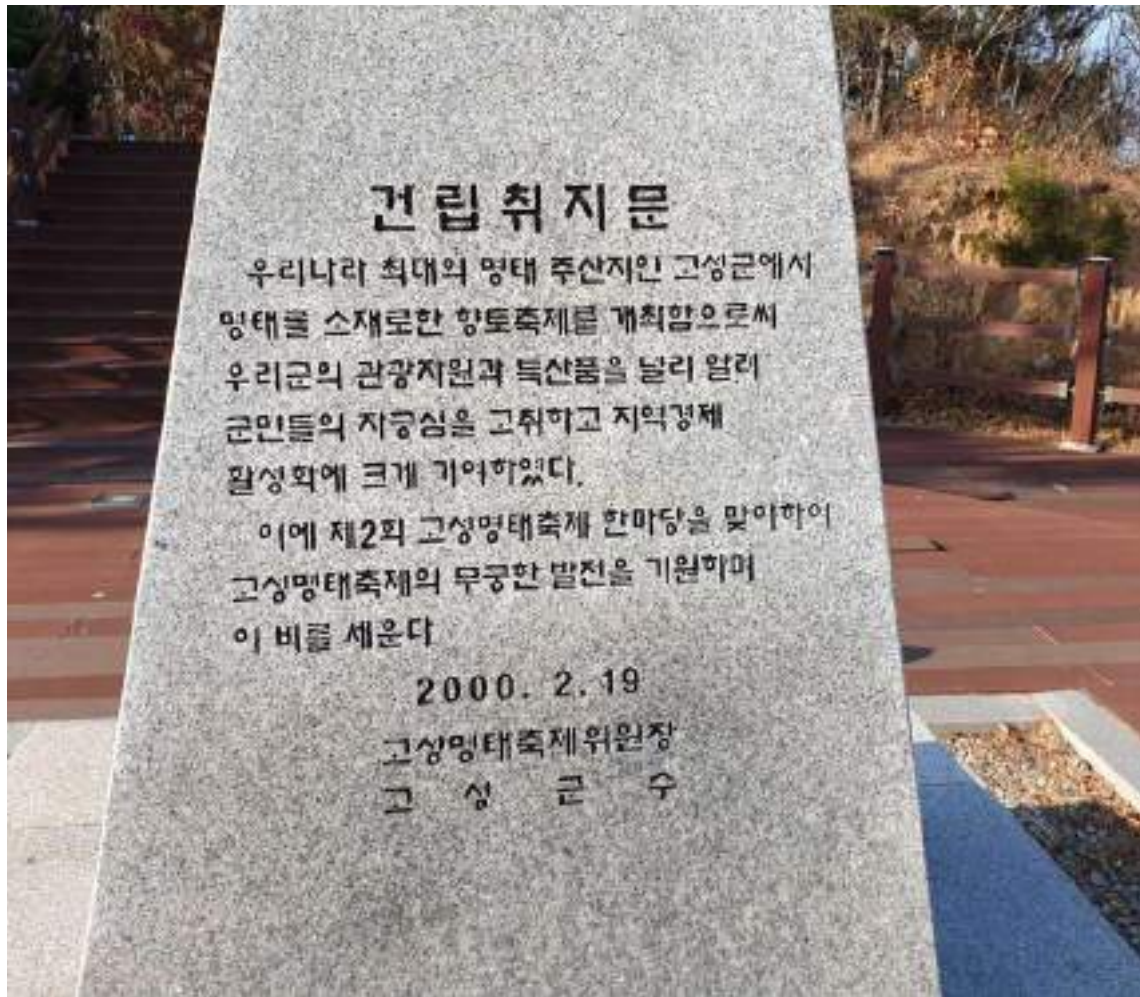
6-22. 명태축제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1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글
- 건립 시기 : 2000년 2월19일



명태축제비 전면



명태축제비 후면

■ 조사내용 ■

탑신은 원뿔형으로 치석한 사각 대리석 높이165cm×하단 폭80cm×두께80cm에 북쪽 측면 오석 가로17cm×세로95cm 전면에는 「명태축제비」 한글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자형은 10cm이다.

탑신 남쪽 측면에는 「건립취지문 / 우리나라 최대의 명태 주산지인 고성군에서 / 명태를 소재로 한 향토축제를 개최함으로써 / 우리군의 관광자원과 특산품을 널리 알려 /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경제 /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 이에 제2회 고성명태축제 한마당을 맞이하여 / 고성명태축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 이 비를 세운다. / 2000. 2.19 / 고성명태축제위원장 / 고성군수」 한글 가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6-23. 해오름쉼터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산10-6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글
- 건립 시기 : 불상



해오름 쉼터 표석



해오름 쉼터 전경

■ 조사내용 ■

자연석 화강암 비의 크기는 높이130cm×너비180cm×두께60cm이고 비석 전면 중앙에 「해오름쉼터」 한글로 음각되어 있고 자형은 20cm 내외이다.

받침돌은 대리석 판석으로 높이90cm×너비150cm×두께85cm이며 거진뒷장 해변길 쉼터 조형물 앞에 위치하고 건립 시기는 불상이다.

6-24. 재건기념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자산리 72번지 (거진초교 교정 입구)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행서체
- 건립 시기 : 1955년11월



거진초등학교 입구 기념비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비의 규모는 높이150×폭90×두께50cm 자연석 화강암 삼각돌을 기념비로 세웠다. 전면에는 비명 부분을 사각으로 다듬어「再建紀念」한자 행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사면이 훼손된 오른쪽 후면에는「功勞者 第二九 師團長 小將 石主岩 大隊長 中領 金顯周 陸軍 中尉 朴武東」왼쪽 후면에는「着工 四二八八年六月十八日 完工 四二八八年十一月〇十日」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는데 비석과 글자가 일부 훼손되고 마모되었다.

비석은 6.25전쟁으로 수복된 후 거진초등학교 재건 과정에 참여했던 군부대와 공병부대의 노고와 공사기간을 기념하기 위해 1955년11월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6-25. 응봉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화포리 산3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불상



응봉 표석 전면 / 후면

■ 조사내용 ■

고성구경길 개설 과정에서 설치한 표석으로, 화강암 자연석으로 비신의 크기는 높이 105cm×둘레 186cm이며, 남쪽 전면 중앙에 「응봉 鷹峰」 2줄 세로쓰기 한글과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왼쪽에 「화진포소나무숲산림욕장」 하단에 「해발 122m」 한글로 각각 음각되어 있다.

표석 북쪽 면에는 「옛날부터 화진포(花津浦) / 호수 동쪽에 위치한 높은 / 산이 매가 앉은 형상과 / 같다고 하여 매 “응(鷹)” / 자를 써서 응봉이라고 / 불렀다.」라고 응봉의 내력을 세로쓰기 한글로 새겼다.

6-26. 송강지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송강리 1-3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2014년12월30일



송강저수지 표석

■ 조사내용 ■

표석은 화강암 자연석으로 비신의 크기는 높이240cm×너비110cm×두께60cm이며, 전면 중앙에「松江池」세로쓰기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자형은 가로30cm×세로30cm이다.

받침돌은 대리석 판석으로 크기는 높이104cm×너비165cm×두께165cm이 하단중앙에 오석 가로90cm×세로60cm에 제당 제고 26.5m→31.1m, 연장 115m→138m, 도로 이설 1,290m, 사업기간 2010.11.19.~2014.12.30. 등 거진지구농업용저수지둑높이기 사업개요를 새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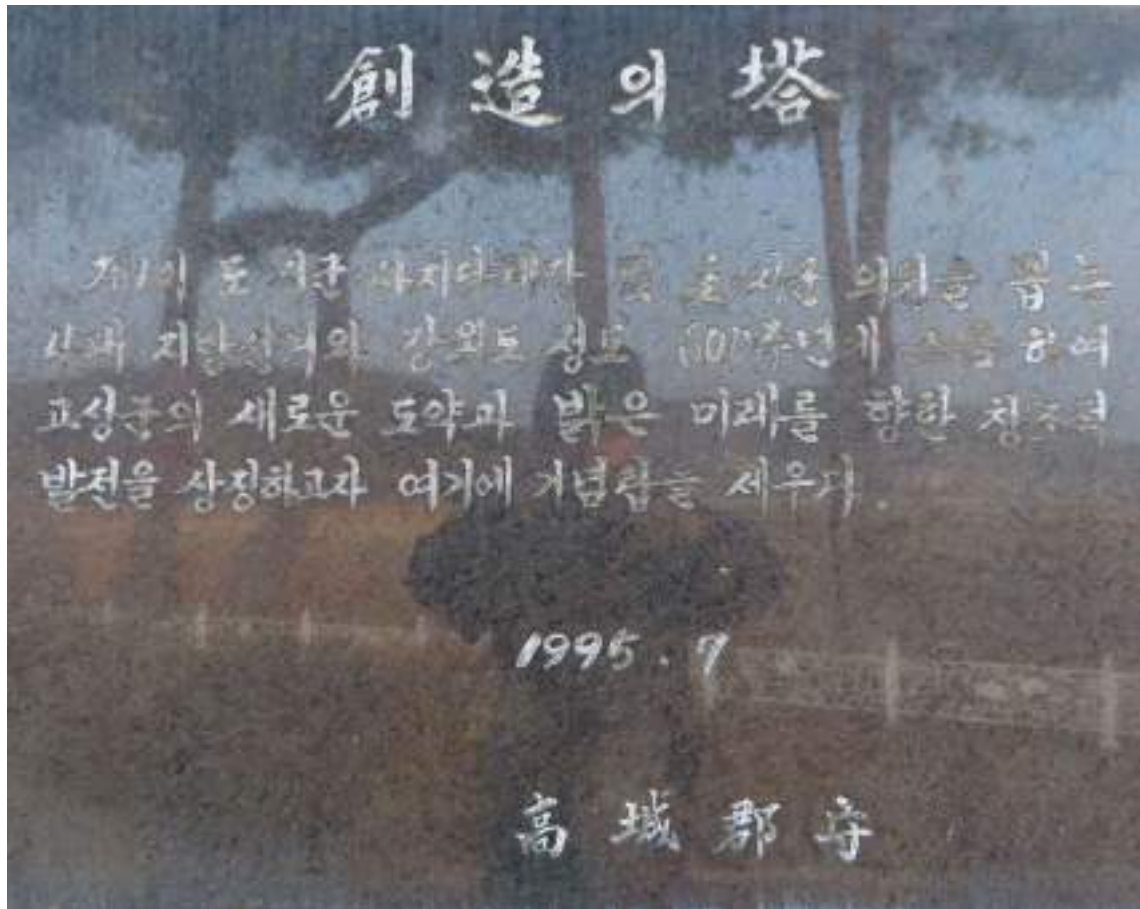
6-27. 창조의 탑

■ 개요 ■

- 유형 : 기념탑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510-8번지 (충혼탑 공원 내)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예서체
- 건립 시기 : 1995년 7월



창조의 탑 전면



창조의 탑 후면

■ 조사내용 ■

조형물 왼쪽에는 오석 높이240cm×폭90cm×두께120cm 전면 중앙에 탑명(塔銘)「創造의 塔」한글과 한자 예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오석 비석 후면에는 「創造의 塔 / 제1회 도·시군 자치단체장 및 도·시군 의원을 뽑는 / 4대 지방선거와 강원도 정도 600주년에 즈음하여 / 고성군의 새로운 도약과 밝은 미래를 향한 창조적 / 발전을 상징하고자 여기에 기념탑을 세우다. / 1995. 7 / 高城郡守」라고 탑의 건립 취지가 한글 궁서체와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1995년 강원도 정도 6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강원도와 고성군에서 공동으로 건립한 것이다. 받침돌은 대리석 판석으로 조성했으나 관리상태가 다소 부실하다.

6-28. 경희공원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대대리 6-3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예서체
- 건립 시기 : 2002년



경희공원 표석

■ 조사내용 ■

표석은 국도46호선 도로변 공원 내 위치하고 있고, 화강암 자연석으로 넓이200cm×높이100cm×두께100cm로 전면 중앙에 「慶熙公園」 한자 예서체 가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반침돌 역시 화강암 자연석으로 넓이100cm×높이75cm×두께65cm로 별도 표기가 없다. 표석의 건립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주변 기념식수 오석 표석에 2002년 4월 26일 설악권 시·군과 경희대학교와 관학협력 차원의 자매결연 3주년을 기념하여 식수한 것으로 새겨져 있어 같은 시기에 세운 것으로 추정된다.

자료에 따르면 고성군과 경희대학교는 설악권 시군과 함께 관학협력 차원에서 1999.4.21.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교류협력을 추진하여 왔고, 국도46호선 도로변에 공원을 조성하여 관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29. 통일의 길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산3-2번지 공원입구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자연석), 한글 옛체
- 건립 시기 : 1986년12월10일



통일의 길 표석 전면



후면

■ 조사내용 ■

대형 자연석 화강암 높이170cm×폭220cm×두께50cm에는 비명「통일의 길」이 가로쓰기 한글 옛체로 음각되어 있고, 받침돌은 대리석으로 높이110cm×넓이120cm×두께100cm이다.

기단석은 대리석 판석으로 가로170cm×세로145cm×높이77cm이며, 중앙에 오석으로 「1986년12월10일 고성군수」 한글로 음각되어 있어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과 공원 조성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6-30. 관동별곡8백리 답사1번지 고성 표석

개요

- 유형 : 표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94-3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글과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2009년10월18일



관동별곡8백리 답사1번지 고성 표석 / 기반부

■ 조사내용 ■

표석은 자연석 화강암으로 높이500cm×너비160cm×두께150cm 서북쪽 전면 중앙에 「관동별곡 八백리 답사1번지 高城」2줄 세로쓰기 한글과 한자 해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자형은 가로40cm×세로40cm이다. 받침돌은 팔각 대리석으로 높이135cm×각면 넓이135~145cm이며, 면마다 관동팔경의 위치와 거리, 송강 정철 건립취지문, 관동별곡, 청간정 등이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비문〉

송강(宋江) 정철(鄭澈) // (建立趣旨文) //

우리나라 가사문학의 금자탑을 이룬 송강 정철 선생(1530~1593)께서는 조선 중종 31년 서울 장위동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중략)

420여년 전 선생께서는 예찬하신 관동八백리 동해안 옛길이 저탄소 녹색관광의 모태(母胎)로서 “걷기·자전거 여행 명소”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는 이 시기에 도민 모두의 뜻을 담아 후손들에게 귀감이 될 송강 선생의 문학적 위업과 충효사상, 도덕성을 높이고 살신성인의 충혼을 기리고자 이 비(碑)를 세웁니다.

2009. 10. 18.

강원도지사	김진선	국회의원	송훈석
고성군수	황종국	고성군의회의장	황상연
송강 정철 후손 송강문학 선양회 회장 정종택 송강문화회 회장 정홍택			

6-31. ‘화진포 노래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초도리 94-3번지
- 재질 및 서체 : 대리석, 한글
- 건립 시기 : 2000년 4월 6일



화진포 노래비

■ 조사내용 ■

표석은 치석한 사각 대리석으로 비신의 크기는 높이110cm×너비150cm×두께45cm이며, 전면 중앙에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의 노랫말이 가로쓰기 한글로 음각되어 있고 대리석 받침돌은 넓이190cm×높이20cm×두께 85cm이다.

<화진포 노래비 원문>

화진포에서 맺은 사랑

황우루 작사, 작곡
이씨스터즈 노래

1. 황금물결 찰랑이는 정다운 바닷가 아름다운 화진포에 맺은 - - 사랑-아 꽃구름이 흘러가는 수평선 저넘어 푸른 꿈이 뭉게뭉게 가슴 - 적시면 조개껍질 주어모아 사랑을 수놓고 영원토록 변치말자 맹세 - 한 사-랑	2. 은물결이 반짝이는 그리운 화진포 모래위에 새겨놓은 사랑 - 의 언-약 흰돛단배 흘러가는 수평선 저멀리 오색꿈아 곱게곱게 물결 - 쳐 오면 모래섬을 쌓아놓고 손가 - 락 걸고 영원토록 변치말자 맹세 - 한 사-랑

6-32. 화진포 냉정 표석

- 개요 ■
- 유형 : 표식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죽정리 불상변지 화진포 호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미상



화진포 냉정 표석

■ 조사내용 ■

동근 자연석 검은색 화강암 높이130cm×넓이110cm×두께120cm 「竹亭里 金慶植」 이름이 해서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오른쪽에는 「冷井○○○」의 서체가 약하고 훼손과 마모 상태가 심하다.

서체가 투박하고 석질의 마모 상태로 보아 수복이후 죽정리 거주 김경식 씨가 화진포 호숫가 샘터를 표식하기 위해 직접 음각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6-33. 평화통일기원일봉시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시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마차진리 181-2번지 호림유격전적비 입구 오른쪽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예서체
 - 건립 시기 : 1987년 12월 27일



평화통일기원일봉시비 전면 / 이면

■ 조사내용 ■

대리석 용(龍) 2 두 형상의 이수(螭首)와 오석의 비신(碑身), 대리석 받침대로 구성되어 있다. 오석 규모는 높이165cm×넓이57cm×두께20cm로 전면엔 「平和統一祈願一鵬詩碑」 한자 예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왼쪽 측면에는 「一鵬徐京保大裨略曆.....」 등 서경보 스님의 약력이, 오른쪽 측면에는 건립위원장과 시주 등의 명단이 한자로 음각되어 있다.

후면에는 시비 「詩 / 爲國祈禱書忠節 / 清朝月夜燒香綃 / 佛界統一三千里 / 天運平和百萬年 / 三藏法師一鵬徐京保 韵」 한자 예서체로 음각되어 있다.

서경보(徐京保, 1914~1996)의 호는 일봉(一鵬), 한국의 승려이자 불교학자이다. 1932년 출가하였으며, 1950년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졸업하였다. 이후 동아대학교·동국대학교 등에서 교수를 역임하였다. 해외포교에 주력하였으며, 1988년에는 대한불교 일봉선교종을 설립하여 종정에 오르고, 1992년에는 세계불교법왕청을 설립하고 초대 법왕이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경보 [徐京保] (두산백과) 참조

6-34. 통일번영기원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기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76-6번지 CIQ 입구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한자 예서체
- 건립 시기 : 2006년 10월



통일번영기원비 전면



후면

■ 조사내용 ■

대형 오석 비신 높이 약700cm×폭280cm×두께100cm 에는 비명 「統一繁榮祈願碑」 노재봉 선생의 한자 예서체 세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기단석 가로400cm×세로200cm×높이100cm 대리석으로 전면에는 사각 가로177cm×세로70cm 오석에는 건립추진위원 민족통일강원도협의회와 시군협의회 회장 명단, 후원(강원도지사김진선, 고성군수 함형구), 협찬 치악산국형사 주지 장선헌, 원주바우석재 대표 이상규, 보령거문예석 대표 임항열 상무 김호석, 노재봉 서 등으로 음각되어 있다.

탑신 후면에는 「建立趣旨文 / ‘民族統一江原道協議會 會員一同은 / 唯一하게 分斷된 의 아픔을 가슴에 / 새기며 祖國의 平和統一과 繁榮을 祈願하는 / 뜻을 모아 여기에 祈願碑를 세우다. / 2006年 10月 / 民族統一江原道協議會 會員一同」으로 음각되어 있다.

6-35. 통일로 가는 길 표석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송현리 76-6번지 CIQ 입구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자연석), 한글 백송체
- 건립 시기 : 2006년



통일로 가는 길 표석

■ 조사내용 ■

대형 자연석 화강암 높이210cm×폭300cm×두께 250cm에는 비명 「통일로 가는 길」이 가로쓰기 한글 백송체로 음각되어 있고, 후면 사각 오석 가로80cm×세로47cm에는 시행청, 감사사, 시공사, 협력사 대표들의 실명이 한글로 음각되어 있다.

비석은 2002.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시공한 출입시설 및 남북도로개통을 기념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

6-36. 민족의 웅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2-25번지 통일전망대 앞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해서체
- 건립 시기 : 1984년 5월



민족의 웅비 표석

■ 조사내용 ■

기념비는 둥근 자연석 상단 비석 넓이240cm×높이150cm, 중간 대리석과 현무암 등으로 판석 넓이90cm×높이150cm×두께72cm의 한반도와 광역자치도 형상의 시멘트 받침대와 대리석 판석 밑받침 넓이140cm×폭140cm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호석 호랑이 형상 대리석 조형물이 비(碑)의 좌우에 설치되었다.

상단 자연석에는 비명(碑銘)「民族의 雄飛」한자 해서체와 한글이 가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하단 받침대 중간 오석 가로98cm×세로37cm에는 「戰線의 最東北端 이곳에 祖國의 平和的 / 統一을 念願하는 온 國民의 團結된 意志를 / 심기 위하여 大統領閣下의 높은 經綸을 / 받들어 이 塔을 建立한다. / 1984. 5 / 後援 平和統一政策諮問會 / 施工 陸軍 第5861富大」 궁서체의 한글과 한자가 가로쓰기로 음각되어 있다.

6-37. 망배단

■ 개요 ■

- 유형 : 제단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리 2-25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자 행서체
- 건립 시기 : 1988년 4월11일(최초), 2020년 7월20일(현재)



망배단 전면



재단 설립 후원자 명단 전면 / 이면 / 망배단 전경

■ 조사내용 ■

망배단은 비갓과 비신 일체 조형물로써 치석한 비신 높이250cm×폭70cm 중앙 전면
에 비명「望拜壇」한자 초서체 세로쓰기로, 흑색으로 음각되어 있고, 기단석은 높이
100cm×하단 넓이340cm 4단으로 조각되어 있다.

평면으로 치석한 받침돌 전면에 「황토 마루 고개너머 그리운 고향 / 꿈엔들 잊힐이
야 우리 소원 / 메나리 가락에 목들이 메어 / 어머니 품안으로 안기어 가- / 이 길은
고향 길 불망의 길」한글 필기체의 시(詩)가 가로쓰기로 음각되어 있고, 그 아래 받침
돌 하단은 높이160cm×폭90cm 3개의 조각된 화강암이 받치고 있다.

그 앞에 사각 대리석 제단이 있다.

비석의 오른 쪽에는 오석의 봉헌(奉獻) 비 2개가 있고, 오석 가로152cm×높이73cm×
두께22cm, 대리석 기단석 가로168cm×세로46cm×두께36cm, 오석 전면에는 비명 ‘봉
헌(奉獻)’이라 한자 행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측면에는 망배단건립위원회 명단이, 후
면에는 고성향우회 명단이 각각 한자로 음각되어 있고, 그 옆의 봉헌비 가로152cm×
높이71cm×두께21cm, 대리석 기단석 가로167cm×높이63cm×두께36cm, 전면에는 비
명「봉헌(奉獻)」이라 한자 행서체로 음각되어 있고, 후면에는 북고성 명예읍면장 명
단이 각각 음각되어 있다.

망배단은 1988년 4월11일 망배단 건립추진위원회(위원장 박경원 전 강원도지사,
북고성 출신)를 구성하고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345-1번지 7,635㎡ 부지에 같은 해
5월10일 망향단 착공을 하였고, 10월22일 대리석 조형물 망배단과 제단을 준공함으
로써 매년 북고성 실향민들이 망향제를 올리며 망향의 슬픔을 달래 왔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망배단 이전 요구에 따라 2020년 7월20일 고향땅이 바라보이는 통일전망
대 현재 장소로 이전한 것이다.

6-38. 동학의 빛 왕곡마을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산62-10번지
- 재질 및 서체 : 오석, 해서체
- 건립 시기 : 1997년 6월 2일



동학의 빛 전면

■ 조사내용 ■

동학 사적기념비는 동학교주 최시형이 수개월 동안 왕곡마을에서 포교활동을 하면 머물렀던 곳으로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천도교중앙총무 동학민족통일회 고성군지부와 고성문화원의 후원으로 마을 입구 어귀에 세웠다.

비의 전면에는「東學의 빛 旺谷마을」라 한글과 한자 혼용하여 새겼고, 비의 크기는 105×40×21cm의 오석으로 세워져 있다. 전면의 제자는 천도교 교령 김재중씨가 썼고 후면에 글의 내용은 천도교 도정 고문해씨가 찬하였다.

〈후면〉

태백준령 일 지맥이 동으로 뻗어 내린 터전 이 곳 왕곡리(旺谷里)는 1994년 민속촌으로 지정된 마을로서 민중의 열이 서려있는 고장이다. 1887년(포덕 28) 인간의 자유 평등 과 도덕사회를 지향하는 동학(천도교)이 이 고장에 전파하였다. 처음에는 이 마을 동학 접두 김명숙을 중심으로 함희연, 함희용, 함영인, 김응숙 등이 주동이 되어 활동하였다. 1889년(포덕 32) 2월에 천도교 제2세 교조인 해월 최시형 선생께서 수 개월간 이곳 왕곡마을 김하도 집에 숨어 계시면서 동학을 포교하여 제자들을 교화하였다.

그 후 1894년(갑오) 9월 해월 선생께서 동학 혁명 기포령(총동원령)을 내렸을 때에는 양양, 거진 지역까지 동학군이 궂기하였으며 당시 이 마을 함일순 집에서 10여일간 머물면서 전력을 가다듬은 곳이기도 하다. 우리 후학들은 이 고장 어른들과 뜻을 모아 우리 민족의 스승이신 해월 최시형 선생의 위대한 인내천 사상과 동학혁명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이 비를 세워 후세에 전한다. / 1997년(포덕 138) 6월 2일 / 동학 사적기념비 건립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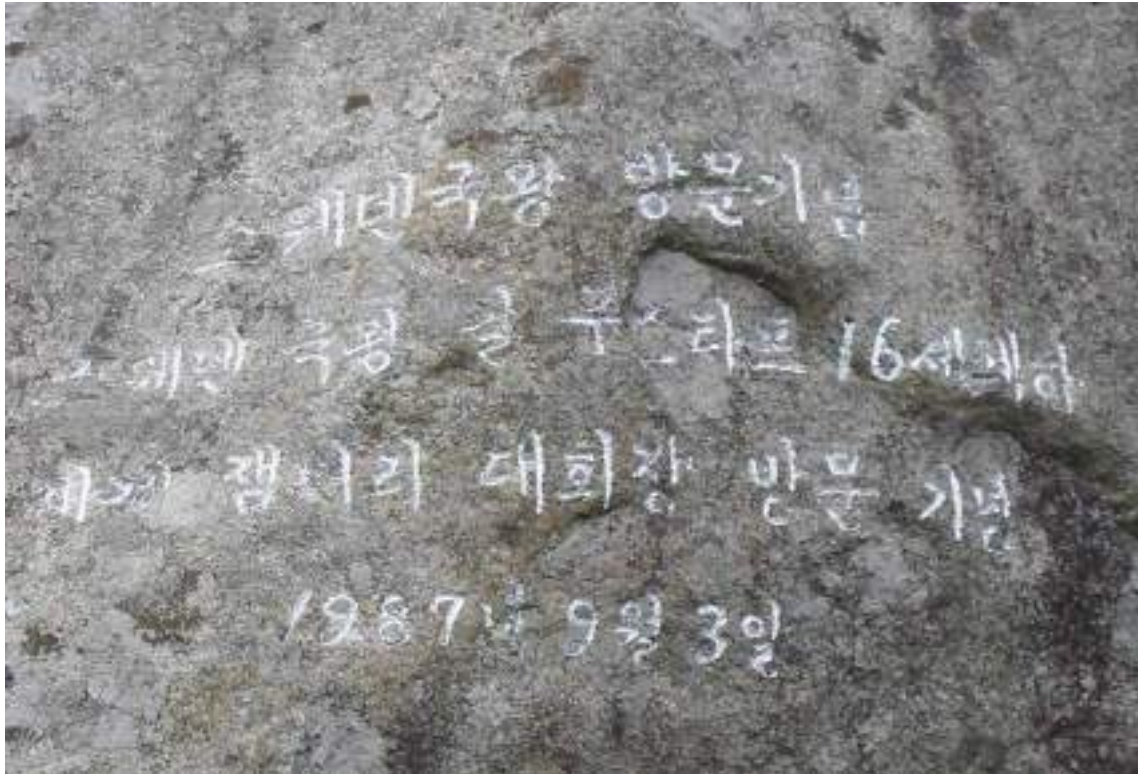
6-39. 스웨덴국왕 방문기념비

■ 개요 ■

- 유형 : 기념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리 산62-10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영문 필기체, 한글
- 건립 시기 : 1987년 9월 3일



스웨덴국왕방문기념비 전면



비문

■ 조사내용 ■

스웨덴국왕 방문기념비(스웨덴國王訪問紀念碑)는 화암사로 진입하는 길목에 세워져 있다. 스웨덴 국왕 방문 기념비는 세계잼버리수련장 중심건물이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인접한 도로변에 위치한다.

제17회 세계잼버리대회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신평 별판에서 1991년에 개최되기 이전인 1987년 스웨덴 국왕인 칼구스타프 16세가 잼버리대회장을 방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세웠다.

기념비는 화강암 재질의 3단 높이로 122cm×77cm×82cm 크기의 받침석 위에 200cm×120cm 거대한 자연석을 올려놓은 형태이며, 자연석 앞면과 「스웨덴국왕 방문기념」이란 내용을 한글과 영문(英文)으로 간략히 기재해 두었다.

6-40. 이성선 시비

■ 개요 ■

- 유형 : 시비
- 위치 :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257번지
- 재질 및 서체 : 화강암, 한글 필기체
- 건립 시기 : 2002년 5월 3일



이성선 시비

■ 조사내용 ■

이성선 시인의 시비는 고성군 토성면 성대2리 생가터에 세워져 있다. 시비는 화강암 자연석으로 전면에 시인의 대표적인 시 ‘미시령 노을’이 한글 필기체 세로쓰기로 새겨져 있고, 받침돌은 대리석으로 ‘李聖善 詩碑’라고 새겨져 있다.

‘미시령 노을 // 나뭇잎 하나가 / 아무 기척도 없이 어깨에 / 툭 내려앉는다 / 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 / 너무 가볍다’

이성선(李聖善, 1941~2001)시비 건립 취지문에 따르면 이성선 시인은 1941년 1월 2일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성대리 257번지에서 부친 이춘삼과 모친 김월용 사이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속초에서 중·고등학교를 수학하고 1961년 고려대학교에 입학하여 1967년 졸업하였으며, 1970년 《문화비평》으로 등단하여 첫 시집「시인의 병풍(1971)」으로부터「우주가 내 몸에 손을 얹었다(2000)」에 이르기까지 13권의 시집을 간행하였고 1990년 ‘한국시인협회상’, 1994년 ‘정지용문학상’, 1996년 ‘시와 시학상’ 등의 중요한 문학상을 수상하여 확고한 문학적 위치를 마련하고 필생의 시업에 정진하던 중 2001년 5월 1일 돌연히 타계하니 이는 그의 인간의 문학을 아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눌 길 없는 큰 슬픔이 되었다.

우주와 인간과의 친화를 오묘한 시적 상상력으로 형상화하여 한국 서정시의 뛰어난 전념을 보여 준 이성선 시인이 이승의 짐을 내려놓고 영겁의 세계로 떠난 지 어언 한 해가 되었으니, 이승의 인연은 아침이슬처럼 영롱하나 다만 허무할 뿐이고 무릇 우주와 통신하는 모든 시인의 삶 또한 이토록 찰나마다 죽음의 경계가 스며들고 있는 바, 이성선 시인을 사랑했던 경향 각지의 시인과 문우들이 그를 잃은 슬픔을 이제야 겨우 찬정하고 시인의 숨결이 새삼 들려올 듯한 고향 뜨락에 가없는 추모의 정을 돌에 새겨 세운다.

2002년 5월 3일 글 오탁번, 최동호 이성선 시비건립위원회

併三

種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금석문 조사 보고서

색 인 (가나다 순)

색인 (가나다 순)

(ㄱ)

- 가선대부 광산 김학현 묘비-334
- 가선대부 호조판서 광산 탁장옥 묘비-308
- 가의대부 이근철 영세불망비-404
- 간성읍성 표석-520
- 간성향교 표석1-281
- 간성향교 표석2-282
- 간성향교기적비-283
- 강산당정휴대종사탑비-236
- 거진해맞이봉 산림욕장 표석-557
- 건봉사 극락교염불비-92
- 건봉사 대운당비-54
- 건봉사 목양대사비-42
- 건봉사 범우경원대공덕비-88
- 건봉사 보림암 암각문-493
- 건봉사 사적비-72
- 건봉사 석가불치상입탑비-33
- 건봉사 세존영아탑비-78
- 건봉사 송암대사비-50
- 건봉사 연회비-67
- 건봉사 운파대사비-37
- 건봉사 일암대사비-46
- 건봉사 제2미타회연기비-82
- 건봉사 표석-208
- 경희공원 표석-568
- 고려홍문박사 죽계공 함부열 충의비-299
- 고성 부호군 황성일 묘비-312
- 고성교육장 김세용 송덕비-399
- 고성군 자매결연 도시·학교·기업 표-527
- 고성금수리산성 표석-541
- 고성산 정상 표석가-543
- 고성지역 전투 충혼탑-477
- 고성훈도해은김선생 묘비명-291
- 고원청년유격대 위령비-484
- 공군 351고지 전투지원작전기념비-475
- 공부자묘정비-278
- 관동별곡8백리 답사1번지 고성' 표석-571
- 관찰사 정태호 영세불망비-372
- 관찰사 조석여 영세불망비-400
- 관찰사 조학년 영세불망비-387
- 광명당부도-229
- 구장 김치원 자해불망비-391
- 군수 구음 청백거사비-346
- 군수 권익룡 영세불망비-397
- 군수 김계렴 영세불망비-364
- 군수 김상복 선정비-368
- 군수 김시보 영세불망비-350
- 군수 김용 영세불망비-356
- 군수 박희남 군정구호 표석-531
- 군수 서유여 선정비-374
- 군수 성준길 추사비-360
- 군수 송재의 영세불망비-354
- 군수 육군참령 이준구 영세불망비-348
- 군수 이공용학선정비-97
- 군수 이공최원영세불망비-95
- 군수 이도식 선정비-370
- 군수 이면익 영세불망비-362
- 군수 이용학 거사비-376
- 군수 이인정 영세불망비-358
- 군수 이정하 영세불망비-344
- 군수 이찬규 거사비-382
- 군수 정재용 영세불망비-366
- 군수 최승호 거사비-385
- 군청 은행나무 표석-523
- 군청 청사 준공기념 표석-526
- 극락암 공덕주비구니 박법선 기념비-258

금강갑계발기취지문비-104
 금강갑계발상지-206
 금강계단 불사리탑-182
 금강산 건봉사 능파교 신창기-30
 금강삼사 송덕비-267
 금암당대선사비-112
 금암당탑-184
 금월당탑-144
 김순권 송덕비-418
 김옥광 묘비-326
 김해김씨 효녀각-336
 김행음선생 영세불망비-402

(ㄴ)

나무아미타불 석주-198
 나병규 선생 공덕비-393
 남병목 공적비-426
 능파대 암각문-496
 능허당부도-225

(ㄷ)

담연당도명산사탑비-235
 담연당탑-118
 담연당탑(화암사)-233
 당포함전물장병충훈탑과 자유의 탑-457
 대공덕주능허당대선사기념비-99
 대동시사 암각문-498
 도로원표 표석-525
 동봉당탑-163
 동학의 빛 왕곡마을-586
 동화사 표석-264
 등공기념지탑-194

(ㄹ)

만경대 암각문-506
 만해당 대선사시비-201
 만화대선사비-84
 망배단-583
 면장 김용집 선정비-416
 면장 한치용 영세기념비-408
 면장 함동석 시은비-389
 명태축제비-559
 목양당탑-172
 몽월당탑-141
 무량사 송덕비와 표석-262
 무명부도1-231
 무명부도2-232
 무생당 동환탑-221
 민족의 웅비-581

(ㄺ)

박정호 송덕비-420
 반공의거순국비-448
 백두대간 진부령 표석-554
 백두대간종주기념 공원비-545
 법선니 부도-260
 법해당탑-121
 벽오대종사비-63
 벽하당탑-157
 보성당두석대종사탑비-193
 북진통일비-461

(ㄻ)

3.1독립만세운동 기념탑-434
 351고지전투전적비-473
 36지구대원 위령비 및 현충탑-481

삼정 하리 우물-515
 석가여래치상입탑-180
 석봉당탑-125
 석종형부도1-177
 석종형부도2-178
 석파당탑-155
 선유담 암각문1-502
 선유담 암각문2-504
 설산당 향엄 대선사탑비명-114
 설산당탑-185
 설화희생충훈순국비-456
 세계법왕일불기원 평화통일불사리탑-269
 세계평화국태민안 일불기원시비-272
 송강지 표석-565
 송악당탑-146
 송암당탑-169
 수성수호비 및 기문-536
 수성정 표석-540
 숙인밀양박복선기념비-414
 순화당탑-151
 송정대부광산김두현기념비-412
 스웨덴국왕 방문기념비-589
 신익순 공적비-424
 십바라밀 쌍석주-196

(○)

애국지사구국충정 숭모비-479
 약수암 표석-266
 약진고성 기념비-538
 양근함씨4세5효자지정려-317
 양양훈도동계선생박공 묘비-295
 연지 석주-199
 연하당탑-134
 영운당탑-154

영월엄씨 정려비-340
 와우산 충훈탑-446
 용근당탑-132
 용봉당 서진종탑-117
 용안당탑-122
 운암당탑-159
 운파당탑-150
 월각당 영도대종사탑-187
 원봉당탑-210
 월곡당탑-176
 월남전 참전기념탑 및 참전용사추모비-463
 월봉당탑-165
 월송당탑-219
 유명조선국사사명대사기적비명-57
 6.25한국전쟁참전용사공적비-466
 응봉 표석-564
 이성선 시비-591
 이승만 초대대통령 친필휘호-491
 이지병 묘비-322
 이지한 묘비-324
 인봉당탑-217
 일암당탑-123
 임행복 사리탑-161

(ㄹ)

자운당부도-227
 재건기념비-563
 전기덕 공덕비-428
 전불심인대각등계 용허당석민대선사비-110
 전참봉 김의종 동부인 류귀녀 기념비-395
 절충장군양근함계업지묘-298
 정월당탑-116
 정파당탑-136
 제봉당탑-148

조영암 시비-205
 조영암탑-191
 조영출 시비-203
 주풍미 공덕비-422
 죽암당부도-223
 증통훈대부예조판서광산김공두현지-410
 지적 간성기선 표석-533
 진각당탑-149
 진곡당탑-128
 진부령 표석-547
 진부령아가씨 노래비-556

(ㄷ)

차갑인 보살 공덕비-274
 창조의 탑-566
 처사김계화치사리탑-138
 청간정 암각문-508
 청담당탑-130
 청신대범화탑-133
 청신대인당탑-152
 청신월성당정인지탑비-109
 청암당탑-170
 최봉년 묘비-328
 최응복 묘비-331
 춘담당대선사비명-212
 춘담대법사탑-216
 충훈비-459

(ㄹ)

택당 이식 선생 유별시비-549
 택당 이식 선생 유별시비 기문-551

통일로 가는 길 표석-580
 통일번영기원비-578
 통일의 길-569
 통정대부 김정권 영세불망비-406
 통훈대부 박근형 불망비-352

(표)

평화통일기원일봉시비-576
 포운당탑-119
 풍곡당탑-142

(ㅎ)

하운당탑-140
 한강발원지 표석-544
 함씨보명화와 강릉후인 김영찬 공덕비-261
 함희석 효자비-320
 해오름쉼터 표석-561
 해운당탑-127
 해월당탑-135
 향로봉지구전투전적비-453
 현감 택당선생 이공 거사비-378
 현감 택당선생 이공 거사비-380
 호림유격전적비-469
 홍문관대제학 남당 이사형 묘비-302
 화곡당탑-218
 화랑사단전적비-451
 화암사 암각문-510
 화암사 영담당탑-209
 화월당부도-226
 화은당탑-156
 화진포 냉정 표석-575
 화진포 노래비-573
 회명대선사지탑
 효열 연안김씨 정려비-338

회명대선사지탑-189

효열 연안김씨 정려비-338

효자 전봉상려 등-288

■■■탑-167

■암당탑-174

“참고문헌”

- 고성군, 『고성군지(高城郡誌)』, 2020. 7.
- 고성군, 『건봉사지 지표조사 보고서』, 1990.
- 강릉대학교박물관, 『고성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5.
- 이영선, 『금강산 건봉사 사적』, 동산법문, 2003.
- 강원문화재연구소, 『문화유적 분포지도(고성군) 1/10,000』, 2005.
- 관동대학교박물관, 『강원 고성군 개발촉진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보고서』, 2008.
- 재단법인 강원고고문화연구원, 『고성 건봉사 복원 종합정비(사적지정 및 정비) 계획수립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2010.
- 고성군, 『고성 건봉사사지 능파교 주변 종합정비기본계획』, 강원도민일보, 2011.
- 불교중앙박물관, 『금석문 탁본 조사 보고서 강원도 I』, 2018.
-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 문화자원(금석문) 자료집』, 2020.12.31.
- 국립문화재연구소, 『군사보호구역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강원도편』, 2000. 5.10.

편집후기

금석문 조사는 매우 중요한 역사 제자리 찾기 작업이다. 문헌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거나 그를 통해 확인되지 않는 역사를 고증하는 중요한 사료라는 점에서 금석문 가치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 다른 의미에서 금석문 조사는 지난 과거를 돌아보는 일이다. 이러한 작업은 올바르게 나갈 미래를 내다보는 일이기도 하다. 금석문을 통해 지난 시대를 이해하고 선조들의 삶을 되짚어보면서 그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일은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의 책무이기도 하다.

그간 우리 지역에 일부 방치된 금석문을 한데 모으거나 선정비 탁본 등 간헐적인 금석문 조사 시도가 있었지만 체계적이고 총괄적인 작업은 없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변에서 방치되거나 흩어졌던 역사의 흔적을 한데 모으고 정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그 의미가 크다.

조사 과정에서 금석문(金石文)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고 금석(金石)에 대한 용어 정의와 해설 등 전문적이면서 기술적인 측면의 지식도 부족했다는 아쉬움과 오랜 세월 동안 마모되거나 훼손된 글자를 해독하고 서체를 확인하는 일 역시 쉽지 않았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금석문으로 평가되는 청간정 중수기와 현판 등등 지역 내 산재한 목판 기록이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고, 북고성은 물론,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접근이 어려운 지역과 아직 찾지 못한 금석문 조사가 보다 심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도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한편, 현장조사 과정에서 관찰사조학년영세불망비, 고성부호군황성일묘비 등 일부 금석문의 사후 관리가 미흡하여 방치되거나 망실된 금석문 역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조사대상 기준 시점이 명확치 못했고 최근 석공기술의 발달로 크고 작은 금석문이 많았지만 사료적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돼 포함되지 않은 부분도 고민되는 부분이었다.

전체적으로 이번 금석문 조사는 처음 시도하는 작업이라서 쉽지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과 한여름 피약별 아래서 금석문 조사에 애쓰신 향토사연구소 한창영 소장님을 포함해 연구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미진한 금석문 조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하고, 이번 기초적인 금석문조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인 역사 연구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2021년 11월

책임편집 이 선 국

併三

種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為

為

如

今



금석문 조사 보고서

- 인쇄일 : 2021. 12. 22
 - 발행일 : 2021. 12. 28
 - 발행인 : 주기창 고성문화원장
 - 편 집 : 고성향토사연구소
 - 인 쇄 : 와이플랜
 - 연락처 : 033) 681-2922
 - 팩 스 : 033) 681-2928
 - 주 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간성로 71-7
-

본 출판물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이므로
강원도고성문화원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 복제를 금합
니다.

이책은 고성군비 지원으로 발행되었음. 【비매품】

